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2-01
협동연구 2021-0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이태진·김성아 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엄다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Shun Wang	KDI국제정책대학원/Global Happiness Council
협동연구기관	전영섭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진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수홍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구서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연구생
	유승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윤선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이수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정우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연구생
	채상원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2-01
협동보고서 2021-0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32-7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c.2021.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1-72-0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선임연구위원 김성아 부연구위원	정해식 연구위원 이병재 연구원 엄다원 연구원 최준영 연구원 Shun Wang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협력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전영섭 서울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김석호 사회학과 교수 신혜란 지리학과 교수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수홍 인류학과 교수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 구서정 연구원 유승우 연구원 윤선민 연구원 이수진 연구원 정우연 연구원 채상원 연구원

발|간|사

한국전쟁 이후 압축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3년 동안 전쟁을 겪은 한 나라가 70여 년에 걸쳐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 수준은 경제성장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삶의 질의 실태를 파악한 근거에 기반을 두어 국민총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3개년 협동연구과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의 마지막 과업으로 수행하였다. 3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국제비교 관점에서 그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축적한 자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3개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근거 기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두었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의 국민총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번 3차년도 연구는 이태진 선임연구위원과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공동책임 맡아 원내에서는 정해식 연구위원, 이병재, 엄다원, 최준영 연구원이 참여하고, 외부 연구진으로는 Global Happiness Council의 Shun Wang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였다. 3개년에 걸쳐 복지 선진국가, 중남미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질적 연구는 협동연구기관으로서 전영섭 교수가 책임을 맡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다학제적 연구팀을 구성하여 함께 하였다. 이 연구의 시작부터 자문위원으로서 유용한 의견을 연구진에게 제시해준 여유진 선임연구위원과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 4차례에 걸친 「행복 삶의 질 포럼」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들의 통찰과 익명의 평가위원들의 생산적인 비판이 연구의 질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1
요 약	3

제1부 서론과 문제제기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8
제2장 국제비교로 보는 행복과 삶의 질 현황과 함의	25
제1절 문제제기	27
제2절 행복의 측정과 이슈	29
제3절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행복 비교	34
제4절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과 다른 국가의 행복 비교	45
제5절 소결	49

제2부 행복과 삶의 질 국제비교 양적 연구

제3장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비교분석	53
제1절 문제제기	55
제2절 행복 영향요인 선행연구 검토	56
제3절 분석모형과 분석자료	61
제4절 분석결과	66
제5절 소결	81

제4장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심층분석	83
제1절 연령과 행복	85
제2절 자영업자의 행복	100
제3절 자원봉사와 행복	107
제4절 소결	113
제5장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115
제1절 문제제기	11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18
제3절 분석자료	125
제4절 분석 결과	129
제5절 소결	145
제6장 복지국가와 행복	151
제1절 문제제기	15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54
제3절 분석 자료	158
제4절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와 국민 행복	160
제5절 행복 수준 결정 요인의 다층모형 분석	172
제6절 소결	176

제3부 행복과 삶의 질 국제비교 질적 연구

제7장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181
제1절 문제 제기	183
제2절 동아시아 국가 행복 연구 동향: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85



제3절 질적 연구 설계	198
제4절 질적 연구 결과	202
제5절 소결	262
제8장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국제비교 결과 종합	269
제1절 국제비교 질적 연구 종합의 개요	271
제2절 개인적 역량에서 본 행복	275
제3절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본 행복	289
제4절 국제비교 질적 연구의 함의	302
제4부 결론	
제9장 결론과 정책 방안	31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317
제2절 정책 제언	321
참고문헌	339
부록	361
부록 1-1.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변수(원문)	361
부록 1-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결과	362
부록 2.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민의 연령과 행복	370
부록 3-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IRB 심사결과	373
부록 3-2.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표	374
부록 3-3.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참여 동의서	385
부록 3-4.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조정	386



부록 3-5.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통제변수 회귀분석 결과 391

부록 3-6.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기초분석 392

부록 4-1. 질적 연구 질문지 426

부록 4-2. 질적 연구 동의서 430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국제비교 양적 연구 분석자료 비교	21
〈표 1-2〉 3개연도 행복과 삶의 질 국제비교 질적 연구 개요	22
〈표 1-3〉 2020년 행복·삶의 질 포럼 운영	23
〈표 2-1〉 2005-2019 데이터를 사용한 합동최소자승법(pooled OLS)에서 추정된 행복	38
〈표 3-1〉 주요 변수의 질문	62
〈표 3-2〉 변수 정의	63
〈표 3-3〉 갤럽 월드 폴 국가별 분석대상 유효표본 등장률	64
〈표 3-4〉 기초통계량	65
〈표 3-5〉 주요국의 행복 영향요인(갤럽 월드 폴): 캔트릴 사다리	68
〈표 4-1〉 자영업자 기초통계량	104
〈표 4-2〉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삶의 평가 영향요인	106
〈표 4-3〉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 여부에 대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	112
〈표 5-1〉 주요 국가의 일상재구성법(DRM) 수집 정보 비교	120
〈표 5-2〉 일상재구성법 응답 시간대 분포	126
〈표 5-3〉 일상재구성법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8
〈표 5-4〉 활동별 응답률	135
〈표 5-5〉 활동별 정서적 경험	137
〈표 5-6〉 활동이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	139
〈표 5-7〉 혼자였다는 응답률과 혼자였을 때의 정서적 경험	141
〈표 5-8〉 혼자 있음이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	141
〈표 5-9〉 함께 있는 누군가의 응답률	142
〈표 5-10〉 함께 있는 사람과 정서적 경험	143
〈표 5-11〉 함께 있는 사람이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	144
〈표 6-1〉 자료 및 출처	159
〈표 6-2〉 국가 간 행복점수에 대한 경제력의 영향	160
〈표 6-3〉 국가 간 행복점수에 대한 소득분배의 영향	164
〈표 6-4〉 국가 간 행복 점수에 대한 빈곤율의 영향	166
〈표 6-5〉 국가 간 행복 점수에 대한 경제력, 실업률의 영향	167
〈표 6-6〉 국가간 행복점수에 대한 경제력, 복지국가 지출의 영향	168
〈표 6-7〉 행복점수에 대한 복지국가 지출의 영향-국가 유형별 분석	169
〈표 6-8〉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지표 기초통계	172

〈표 6-9〉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지표간 상관관계	173
〈표 6-10〉 다층모형 분석 결과	174
〈표 7-1〉 한국 - 면접 대상자 요약	200
〈표 7-2〉 베트남 - 면접 대상자 요약	201
〈표 7-3〉 최저임금: 1 지역 기준 (단위 1만 VND)	234
〈표 7-4〉 도시노동자 평균 월수입 및 생활비 (단위 1백만 VND)	234
〈표 8-1〉 북유럽 연구대상 국가 현황 요약 - 1차 연구(2019년)	272
〈표 8-2〉 중남미 연구대상 국가 현황 요약 - 2차 연구(2020년)	273
〈표 8-3〉 동아시아 연구대상 국가 현황 요약 - 3차 연구(2021년)	274

부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1〉 갤럽 월드 폴 주요 변수의 질문	361
〈부표 1-2〉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캔트릴 사다리	362
〈부표 3-1〉 2021년 6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모집단의 인구 규모	386
〈부표 3-2〉 2021년 6월 기준 ^(※) 엠브레인퍼블릭 보유 만19세~60세 미만 패널 규모	387
〈부표 3-3〉 표본배분	388
〈부표 3-4〉 최종 조사완료 결과	390
〈부표 3-5〉 셀별 가중치 적용	390
〈부표 3-6〉 통제변수 및 정서적 경험 회귀분석 결과	391
〈부표 3-7〉 응답자 일반사항	392
〈부표 3-8〉 캔트릴 사다리: 삶의 평가	393
〈부표 3-9〉 가구 구성	394
〈부표 3-10〉 [경제활동 참여자]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395
〈부표 3-11〉 [경제활동 참여자] 평일 기준 출퇴근 시간(왕복)	396
〈부표 3-12〉 [경제활동 참여자] 주된 일자리의 수준과 자신의 교육수준 비교	397
〈부표 3-13〉 지난 5년(2015년~현재) 동안 원치 않은 일자리를 잃은 경험	398
〈부표 3-14〉 지난 3개월(2021.3.1.~2020.5.31.)기준 월 평균 가구 총소득	399
〈부표 3-15〉 지난 3개월(2021.3.1.~2020.5.31.)기준 월 평균 가구 공적이전소득	400
〈부표 3-16〉 지난 3개월(2020.3.1.~2020.5.31.)기준 월평균 가구 총 생활비	401
〈부표 3-17〉 지난 3개월(2020.3.1.~2020.5.31.)기준 월평균 응답자 시장소득	402
〈부표 3-18〉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형태	403
〈부표 3-19〉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	404
〈부표 3-20〉 현재 거주하는 주택 내 위치	405
〈부표 3-21〉 2020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렸거나 내지 못하여 이사한 경험	406
〈부표 3-22〉 2020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407
〈부표 3-23〉 2020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408
〈부표 3-24〉 삶의 만족	409
〈부표 3-25〉 어제 행복 정도	410
〈부표 3-26〉 어제 우울 정도	411
〈부표 3-27〉 삶의 가치: 에우다이모니아	412
〈부표 3-28〉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선택 가능 정도	413
〈부표 3-29〉 신체적 건강 상태	414

〈부표 3-30〉 정신적 건강 상태	415
〈부표 3-31〉 생활비 조달에 대한 걱정 정도	416
〈부표 3-32〉 안전과 식생활 주거에 대한 걱정 정도	417
〈부표 3-33〉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	418
〈부표 3-34〉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에서의 경험	419
〈부표 3-35〉 코로나19의 영향: 가족 돌봄	420
〈부표 3-36〉 코로나19의 영향: 대인 관계	421
〈부표 3-37〉 주관적 소득계층	422
〈부표 3-38〉 향후 10년 이내 생활수준 변화 기대	423
〈부표 3-39〉 우리 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424
〈부표 3-40〉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425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그림 1] 주요국의 경제적 여건과 행복 수준 비교	3
[요약그림 2] 주요국의 행복 불평등과 행복(2019년)	9
[그림 1-1] 주요국의 경제적 여건과 행복 수준 비교	16
[그림 1-2] 연차별 연구 수행 흐름도	17
[그림 1-3] 2021년 연구 내용 구조	19
[그림 1-4] 연차별 연구 방법 구조도	20
[그림 2-1] OECD(2013)의 주관적 웰빙 측정	30
[그림 2-2] 행복 측정 지표	32
[그림 2-3] 38개 OECD 가입국의 행복 순위(2017-2019)	35
[그림 2-4] 소득을 행복요인으로 고려했을 경우의 기댓값 vs. 실제값	39
[그림 2-5] 6개 요인을 활용한 행복의 기댓값 vs. 실제값	40
[그림 2-6] 한국과 핀란드의 행복 차이(1.94)	41
[그림 2-7] 한국과 덴마크의 행복 차이(1.77)	42
[그림 2-8] 한국과 대만의 행복 차이(0.58)	43
[그림 2-9] 한국과 중국의 행복 차이(-0.75)	43
[그림 2-10] 2020년 한국의 코로나19 변화 양상	46
[그림 2-11] 37개 OECD 가입국가의 2020년 행복 순위	47
[그림 2-12] 2017-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발생한 OECD 국가들의 행복 변화	48
[그림 3-1]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력 비교: 성별	70
[그림 3-2]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력 비교: 건강	71
[그림 3-3]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력 비교: 혼인상태	72
[그림 3-4]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력 비교: 가구원과 아동 수	73
[그림 3-5]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교육수준	74
[그림 3-6]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종사상 지위	75
[그림 3-7]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가구소득	76
[그림 3-8]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사회적 지지체계	77
[그림 3-9]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이타적 사회참여	78
[그림 3-10]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도난 경험	79
[그림 3-11]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부패인식	79
[그림 3-12]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선택의 자유	80
[그림 3-13]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미래 전망	81

[그림 4-1] 세계인의 연령별 삶의 평가	88
[그림 4-2] 주요 국가 국민의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90
[그림 4-3] 유럽연합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91
[그림 4-4] 유럽연합 외 유럽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92
[그림 4-5] 오세아니아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93
[그림 4-6] 북미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94
[그림 4-7] 중남미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95
[그림 4-8] 동아시아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96
[그림 4-9]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97
[그림 4-10] 독립국가연합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98
[그림 4-11] 연령별 한국인의 삶의 평가	99
[그림 4-12] 주요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100
[그림 4-13]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101
[그림 4-14] 주요 국가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	102
[그림 4-15]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 참여율	107
[그림 4-16] 주요 국가 자원봉사자의 삶의 평가	108
[그림 4-17] 한국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삶의 평가 점수 응답 확률	109
[그림 5-1] 분석 모형	127
[그림 5-2] 청년과 중장년의 시간대별 정서(전체)	130
[그림 5-3] 경제활동상태별 청년과 중장년의 시간대별 정서	132
[그림 5-4] 요일별 청년과 중장년의 시간대별 정서	133
[그림 5-5] OECD 국가의 근로자당 연평균 근로시간(2020)	136
[그림 6-1] 로그 1인당 GDP와 행복 수준(전체 국가-2017년 기준)	161
[그림 6-2] 1인당 GDP와 행복 수준(OECD 가입국가-2017년)	162
[그림 6-3] 소득 증가와 행복도 변화(OECD 국가 2012년과 2019년 비교)	163
[그림 6-4] 소득 불평등과 행복 수준(2017년, 2018년)	165
[그림 6-5] 빈곤율과 행복 수준(2017년, 2018년)	166
[그림 6-6] 실업률과 행복 수준(2017년, 2018년)	167
[그림 6-7] GDP 대비 공적 사회보장 지출과 소득 1분위 집단의 행복 수준(2017년)	170
[그림 6-8] GDP 대비 공적 사회보장 지출과 실업자의 행복 수준(2018년)	171
[그림 6-9] GDP 대비 공적 사회보장 지출과 실업자의 행복 수준(2018년)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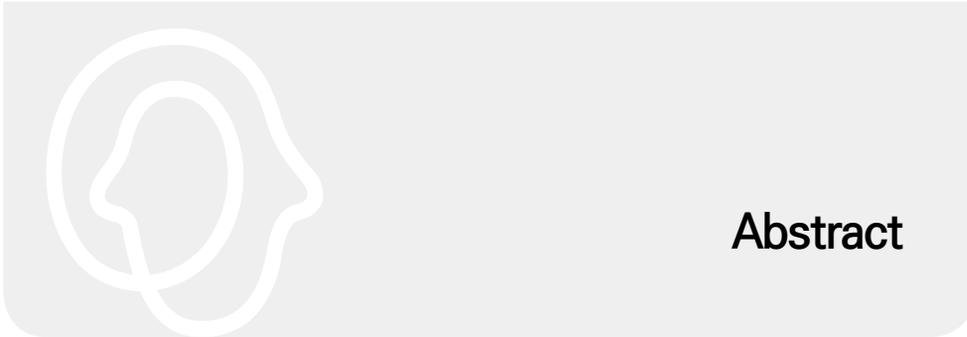
[그림 9-1] 주요국의 행복 불평등과 행복(2019년)	322
[그림 9-2] OECD 가입국의 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	324
[그림 9-3] 중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5계층 모형	325
[그림 9-4] 한국인 연령대별 고립 인구와 삶의 만족	327
[그림 9-5] OECD 가입국의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체계	328
[그림 9-6] 이탈리아 개정 예산법에 의한 웰빙 지표의 재정 활용 프로세스	335
[그림 9-7] 뉴질랜드 웰빙예산 프로세스	336
[그림 9-8] 코로나19 확산 전후 영국인의 주요 주간 정서 추세	338

부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그림 2-1] 남아시아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370
[부그림 2-2]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371
[부그림 2-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372



Abstract

A Comprehensive Study of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Korea : Evidences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Project Head: Lee, Taejin · Kim, Seonga

This is the third-year and final task of a series of 「A Comprehensive Study of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Korea」. From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level of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s as per the data accumulate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es, and to synthesize the three-year research results to determine those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ns.

Combining the results from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 qualitative study, we tried to derive evidence-based policy measures which are practically contributable to the improvement of happiness. First, the need would be suggested to identify vulnerable groups in terms of happiness and to improve their multidimensional quality of lif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low-income groups, this study has identified some other the major happiness-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whose actual value of happiness does not reach the expected level; the self-employed with a significantly low value of happiness; and the isolated population with severe cut-off of social relat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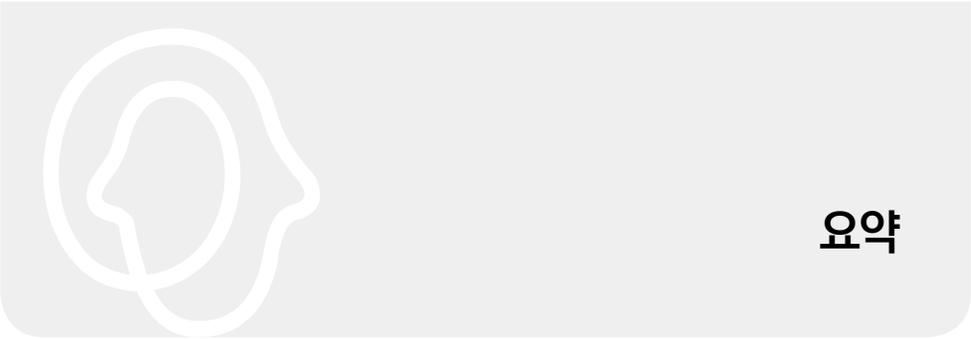
Second, another suggestion is the social efforts for a happy Korea. To form a consensus on the discourse on the happy life of Koreans for maintaining a livelihood, it is suggested necessary to establish proper work culture that enables self-actualization rather than feeling not happy while im-

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mersed in work as labor. We also found the need to form a community-based communication for a social consensus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diversity of life that people choose for themselves.

Third, for making a welfare state where the people are happy, it would be proposed to improve the local physical infrastructures that can secure spatial capabilities for commuting and movement, quality housing and safety, and cultural conditions. And it is also suggested to build a strong social safety net for a predictable life by eliminating the instability factors. In addition, as for the efforts to prepare mid-to-long term comprehensive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for enhancing the general happiness of the people by considering the happiness-vulnerable class as the institutional basis, we have identified the happiness budget system referred to the well-being budgets of Italy and New Zealand, and the policy effectiveness is evaluated for the happiness-vulnerable class. It i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timely capture of the effects of policy changes and vulnerable population.

Keyword : Happiness,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comparison,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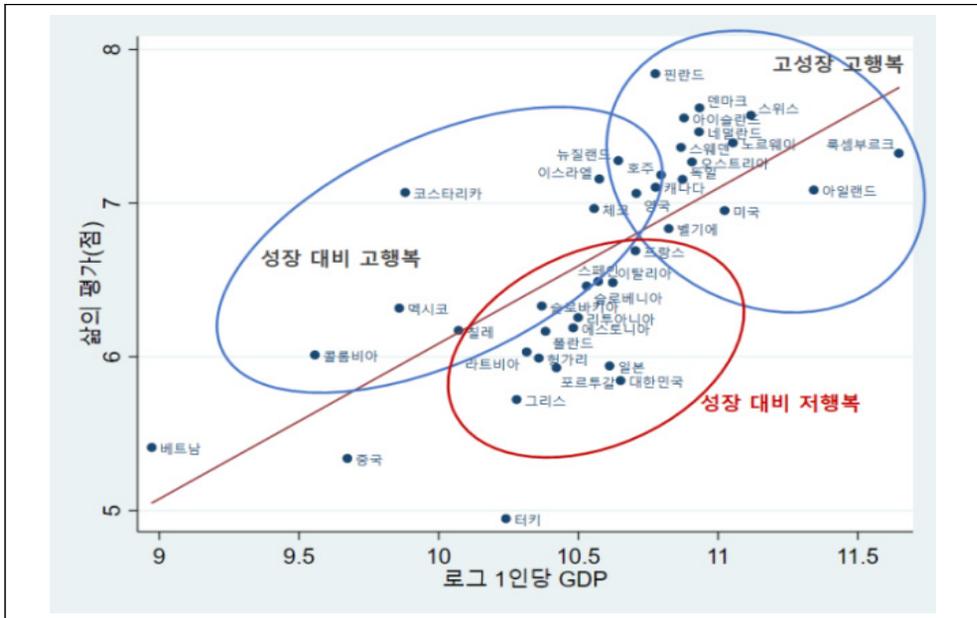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역사 이후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진보를 이루어왔다. 생산량은 증가하고 전 지구가 물질적으로 진보해왔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진실로 원하던 자유를 누리며 효용을 극대화하지는 못했다. [요약그림 1]은 현대 주요 선진국의 경제적 성장 수준과 행복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한국과 회귀선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총행복 수준이 낮은 ‘성장 대비 저행복’ 집단에 속해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10위 수준이고(IMF, 2021), 과거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세계 최초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외교부, 2021). 하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삶의 행복 수준은 경제적 성취에 미치지 못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적 부유를 추구하고 있으나 수단에 매몰되어 원래의 목적을 놓칠 수 있다.

[요약그림 1] 주요국의 경제적 여건과 행복 수준 비교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이 보이는 특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 심층 분석하고 국민총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3개년 협동연구과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²⁾의 마지막 과업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비교 관점에서 그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축적한 자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3개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인의 국민총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근거 기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2. 국제비교로 보는 행복과 삶의 질 현황과 함의

제2장에서는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와 방법론적 이슈를 검토하고,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한국의 행복이 갖는 세계적인 위치와 선진국 사이에서의 위치는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행복 연구에서 국제비교가 나타내는 함의를 확인하였다. 월드 갤럽 폴의 연간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7-2019년 평균 행복을 산출한 결과, 한국의 행복은 5.87(0~10점 척도)로 전 세계 153개국 중 61위, 38개 OECD 가입국에서는 35위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행복은 1인당 GDP만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행복 순위는 같은 기간 동안 확인되는 1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HDI)의 수준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주요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질적 성장과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 간의 간극이 담고 있는 의미를 확인하는 국제비교의 의의를 확인하였다. 또한 비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회귀분석에서 한국인 행복의 추정치는 실제값과 유사해진다는 사실을 통해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와 숫자에 숨어 있는 사회경제적 생활상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2) 1~2년 차 연구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정해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진예린, 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김성아, 고혜진, 여유진, 권지성, 정선욱, 김지원, 이정윤, (202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국제비교를 할 수 있는 서베이 자료인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해 현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보편적인 특성과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특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OECD에 가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분석대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의 평가가 유의하게 높고, 미혼 집단의 삶의 평가 수준이 가장 낮고 유배우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평가 수준이 높고,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가 삶의 평가 수준을 유의하게 높였고, 도난 경험이나 부패인식은 삶의 평가 수준을 유의하게 저해했다. 인생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긍정적인 미래 인식이 삶의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결과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특히 주목할 요인으로,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 종사상 지위 중에서도 자영업자, 그리고 이타적 사회참여로서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기부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심층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4.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심층분석

첫째,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수준은 다른 국가군에 비해 연령 1세별 등락이 다소 크면서도, 삶의 평가 실제값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면서도 오히려 약간 불룩한 우하향 경향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삶의 평가 기댓값은 50대 후반까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완만한 U자형을 보였다. 실제값과 기댓값이 모두 40대 후반에서 최저 수준을 보이는 U자형을 보인 영미권 국가나, 실제값은 70대에 이르러 두 번째 꺾임을 보이는 S자형이되 기댓값은 U자형을 보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것이다.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실제값과 기댓값의 경향은 독립국가연합과 유사했다. 둘째, 한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더욱이 자영업자의 비율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 정

도로 높은 편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밀어내기 가설’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한국에서 국민총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집단 내 이질성과 생계형 자영업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제3장 국제비교 분석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행복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은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타인을 위해 금전적 기여를 하는 기부보다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쓰는 자원봉사 경험이 보다 유효한 점을 상기하면, 타인과 자기가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행복한 한국인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이 장에서는 일상재구성법(DRM)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과 정서적 경험을 분석하였다. DRM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은 언제, 무엇을 할 때,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이다. 먼저 언제 행복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은 증가하고,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등의 부정적 정서는 점점 약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변화 수준은 일하는 사람/일하지 않는 사람, 평일/주말로 구분할 경우 각각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한 정서를 경험하며, 동시에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등 부정적 측면의 정서는 모두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반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와 고통스러운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증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연인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에 모두 정적 영향을, 부정적 정서에는 모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직장 상사 및 동료, 고객(학생)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정서는 부적 영향을 받았고,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고통스러운’, ‘불안한’ 정서는 모두 정적 영향을 받았다. 자녀와 있을 때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였지만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러한 영향이 유의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6. 복지국가와 행복

이 장에서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분석과 복지국가라는 거시적 차원의 구성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분석하더라도 경제적 발전은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 수준 향상을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수준에서 볼 때 경제적 불평등도는 행복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빈곤율은 행복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가의 실업률은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지출로 평가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투입이 행복 수준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취약 집단으로 한정할 때는 복지국가 투입에 따라 행복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 개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 외에도 국가 수준에서의 차이도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노력과 성과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한 원인으로 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고 GDP 대비 서비스 급여 지출이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행복 질적 연구

동아시아 주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에는 고성장, 고발전을 경험한 동아시아 2개 국가인 한국과 베트남 국민을 연구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꼽았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응과 타협, 행복의 구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불행에 대처하고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개인주의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족은 개인의 행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에서 특징적인 점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북유럽에서는 사회정의, 중남미에서는 종교적 관념과 관련한 전형적인 행복 담론이 등장했으나 동아시아 2개 국가에서

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행복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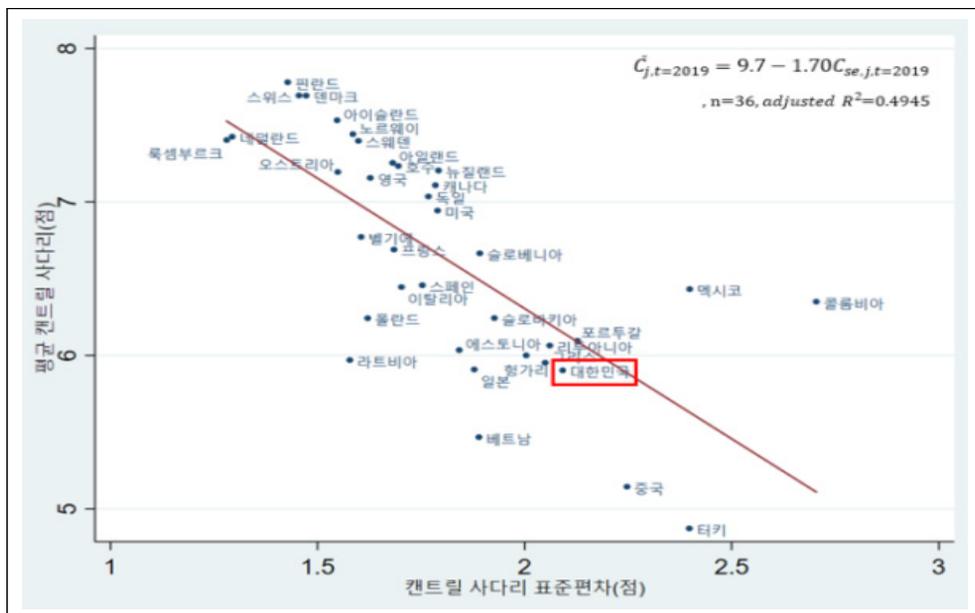
8.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국제비교 결과 종합

2019~2020년에 걸쳐 각각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그리고 2021년에 아시아의 베트남과 한국을 비교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유럽의 두 국가는 국민경제의 수준이 높고 복지가 잘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문제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중남미의 두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복지, 치안, 교육 등의 사회적 상황에서 눈에 보일 만큼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한국처럼 압축된 성장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현재는 아직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지만, 이전에 비하여 제반 물질적 조건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3년간의 국제비교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결과, 이러한 물질적 조건과 행복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이에 연관성은 존재하지만, 전자가 후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면접대상자의 행복은 자신이 사는 사회가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과 행복을 논하는 지배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유의할 점은, 행복을 판단하고 구성하는 문화적 기제가 다르다는 사실이 행복이나 불행을 경험하게 만드는 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행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예측 가능한 삶이 충족되어야 하고,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복지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9. 국민총행복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행복을 논할 때 직관적으로 바라는 지향은 숫자로 보거나 실제로 경험하는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다음 [요약그림 2]는 주요 선진국의 행복 수준과 표준편차, 즉 행복 수준과 행복 불평등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³⁾ 단순회귀분석 결과, 행복의 표준편차, 즉 행복 불평등은 총행복 수준을 49.5%로 설명하고 있는데,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 즉 행복의 표준편차가 1점 증가하면 주요 선진국의 평균 행복 점수는 1.7점 감소한다. 국민총행복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 불평등이다.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덜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롤즈(Rawls, 1999, pp.400-401)는 『정의론』에서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국민총행복 향상을 위한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는 후자에 있다.

[요약그림 2] 주요국의 행복 불평등과 행복(2019년)



주: 실선은 회귀선임.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오른쪽 상단과 같음.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3)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잠재적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2019년을 기준으로 함.

이런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3차연도 연구 및 지난 1~2차 연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중심 접근을 검토하고, 사회적 노력의 갈래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총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복지국가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행복의 관점에서 취약한 집단을 식별하고 그들의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를 제안하였다. 저소득층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 행복 취약계층은 행복의 실제값이 기댓값에 미치지 못하는 중장년과 노인, 특히 한국에서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자영업자, 그리고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된 인구 등이다.

둘째, 행복한 한국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제안하였다. 한국인이 바라는 행복한 삶 담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으로서의 일에 매몰되어 일을 하며 덜 행복하기보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 문화 확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와 함께 자원봉사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고,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느끼면서 덜 행복한 현대인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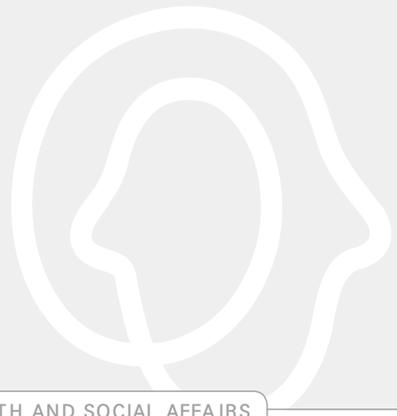
셋째,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출퇴근과 이동, 양질의 주거와 안전, 문화적 여건 등의 공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 개선과 삶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하여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민총행복 향상을 위한 제도 기반으로서 행복 취약계층을 고려한 중장기 종합 정책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으로서 이탈리아와 뉴질랜드의 웰빙예산을 참조한 행복예산제, 그리고 행복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행복, 삶의 질, 국제비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부

서론과 문제제기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비교로 보는 행복과 삶의 질 현황과 함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란다. 누구도 자신의 삶이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삶의 행위와 선택이 선(善), 즉 행복을 지향한다고 했다¹⁾. 그래서 행복은 “온 생애를 통한 것”이고,²⁾ “궁극적이고 자족적인 것이요, (...) 행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³⁾.

벤담(1789, pp.6-7)은 즐거움을 늘리고 고통을 줄였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즐거움이나 고통은 신체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도덕과 규범, 그리고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entham, 1789, pp.20-22). 행복한 삶은 단순히 개인이 기분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민으로서의 덕성(德性)에 의해 추구하는 공공선(公共善)에 이르러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역사 이후 그렇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진보를 이루어왔다. 센(Sen, 1999, p.3)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길 원하지 경제적 부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생산량은 증가하고 전 지구가 물질적으로 진보해왔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진실로 원하던 자유를 누리며 효용을 극대화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단으로서의 생산량 증가에 매몰되면 원래의 목적이 희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1-1]은 현대 주요 선진국의 경제적 성장 수준과 행복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회귀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나라들은 높은 성장 수준과 높은 국민총행복 수준을 누리고 있는 ‘고성장 고행복’ 집단이다. 회귀선 위쪽에 있는 국가들은 성장 수

1) 아리스토텔레스, *Ethica Nicomachea/Politika/Peri Poietikes*. 손명현 역, (2013). 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시학(2판 4쇄), 서울: 동서문화사. pp.1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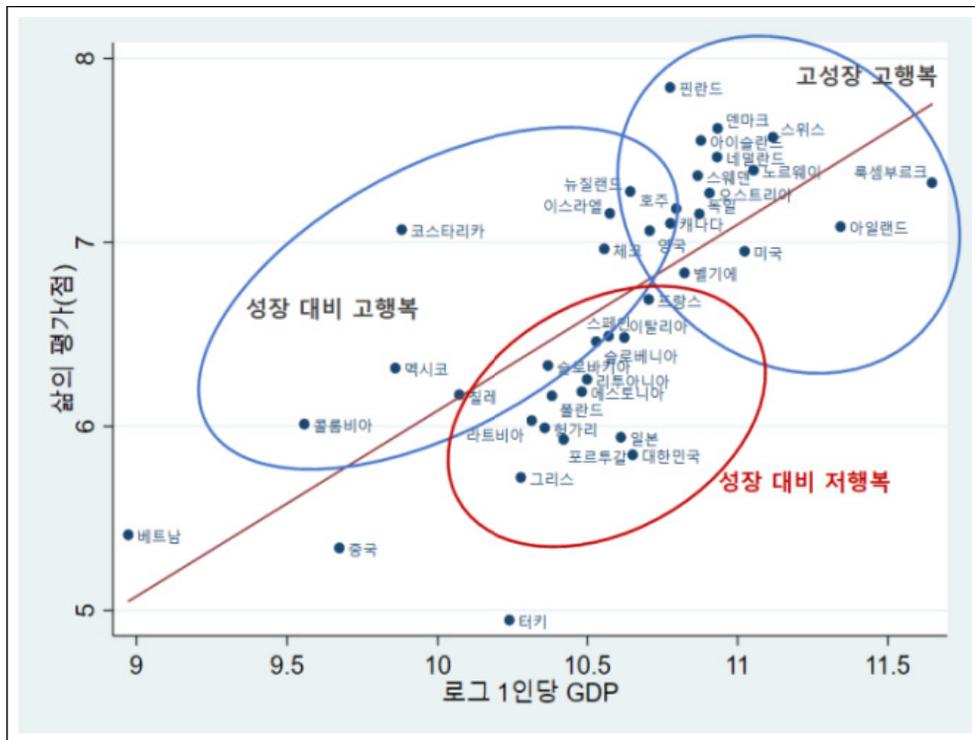
2) 앞의 글, p.22.

3) 앞의 글, p.21.

준 대비 국민총행복 수준이 높은 ‘성장 대비 고행복’ 집단이다. 회귀선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총행복 수준이 낮은 ‘성장 대비 저행복’ 집단이다. 한국 (대한민국)은 세 번째 집단에 속해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10위 수준이고(IMF, 2021), 과거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세계 최초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외교부, 2021). 하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삶의 행복 수준은 경제적 성취에 미치지 못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적 부유를 추구하고 있으나 수단에 매몰되어 원래의 목적을 놓칠 수 있다는 센의 지적이 현시점 한국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과 근거가 필요하다.

[그림 1-1] 주요국의 경제적 여건과 행복 수준 비교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이 보이는 특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 심층 분석하고 국민총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3개년 협동연구과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⁴⁾의 마지막 과업이다. 그간 축적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국제조사 자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모두 3년으로 기획된 국제비교 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연차별 주제 모듈에 의해 양적 연구를 수행하고, 협동연구기관 연구팀이 대상 국가군별 국제비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 연구 1년 차(2019)에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위계적, 결합적 특성을 집단별로 파악하여, 각 대상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년 차(2020)에는 생애주기별 위험 경험과 이에 대응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복지제도의 체계적 대응 필요를 확인하였다. 마지막 3년 차(2021)인 이번 연구는 국제비교 자료를 활용해 세계인이 누리는 행복과 삶의 질의 보편적 특성을 확인하고, 특히 한국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을 발견하여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림 1-2] 연차별 연구 수행 흐름도



자료: 정해식 외, (2020). p.13.

4) 1~2년 차 연구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정해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진예린, 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김성아, 고혜진, 여유진, 권지성, 정선욱, 김지원, 이정윤, (202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 질적 연구는 1년 차(2019)에 [그림 1-1]에 의한 ‘고성장 고행복’ 국가군을 선택하여 복지 선진국가의 행복의 의미와 여건을 조사, 분석하였다. 2년 차(2020)에는 ‘성장 대비 고행복’ 국가군인 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의 의미와 여건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차(2021)인 이번 연구에서는 ‘성장 대비 저행복’ 국가군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행복의 의미와 여건을 조사, 분석하고 3개년도 국제비교 질적 연구의 종합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3년 차 연구의 목적은 국제비교 관점에서 세계인과 한국인의 행복 특성에 주목하며, 양적 연구 결과와 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인의 국민총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근거 기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3개년 연구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차별로 한국인의 행복 특징, 삶의 질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조사·분석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21년 연구는 3년으로 계획된 연구기간의 마지막 해로, 그간 축적한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국제조사 자료 속에서 확인되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모두 3년으로 기획된 국제비교 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2021년 연구는 주요 국가와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다음 [그림 1-3]은 이 연구 내용의 구조를 도식화하고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행복과 삶의 질의 국제비교를 개괄하고, 이 연구에서 관찰시키고자 하는 관점과 주안점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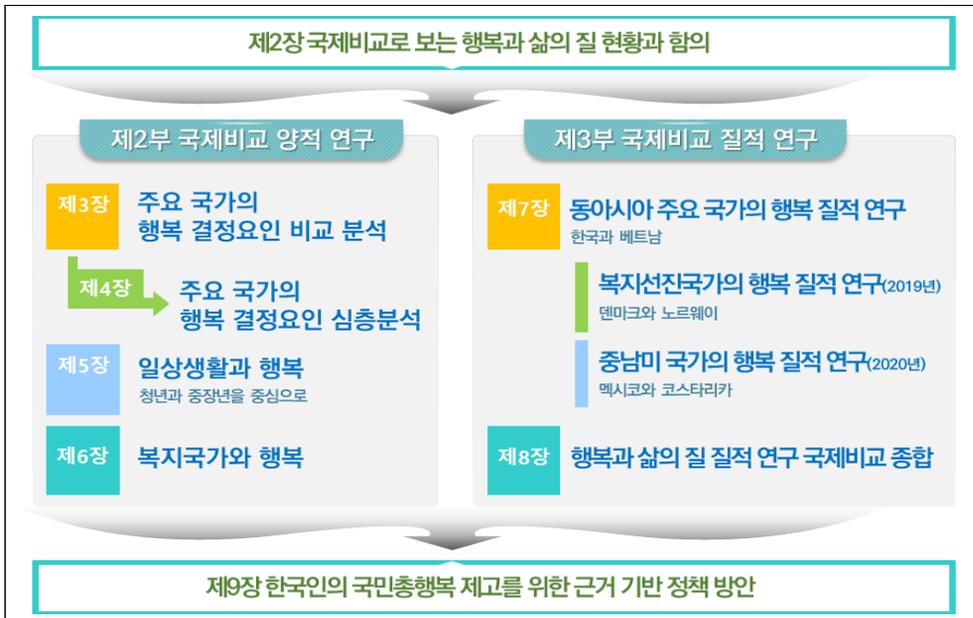
2장에 이은 2부는 행복과 삶의 질의 국제비교 양적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국제비교를 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활용해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개인 단위 행복을 설명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확인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확인된 한국인의 행복을 저해하거나 증진하는 특수한 요인에 주목하여 심층분석을 수행

한다. 5장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논의 수준을 개인들의 생활로 수준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이 일상의 시간에서 경험하는 활동과 타인과의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실증분석한다. 양적 연구의 마지막인 6장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여건이 국민총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3부는 국제비교 질적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7장에서는 1차 연도 연구에서부터 축적한 선진 복지국가, 중남미 국가에 이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베트남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해서는 각각 분석틀을 설정해 질적 연구 결과를 분석한다. 8장에서는 3년간의 해외 질적 연구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개인 수준의 행복 경험과 의미부터 일상생활 경험과 제도적 여건의 관계와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함의를 도출한다.

9장의 결론에서는 2부의 양적 연구와 3부의 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데이터에서 확인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국민총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체 연구 내용은 유기적인 구조 속에서 개별 장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1-3] 2021년 연구 내용 구조



자료: 연구진 작성

2. 연구 방법

3개년 연구과업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그림 1-4]는 연차별 연구 방법의 구조를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1-4] 연차별 연구 방법 구조도



자료: 정해식 외, (2020, p.14)의 [그림 1-2]를 업데이트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양적 연구는 행복과 삶의 질의 세계적 보편성과 국가별 특이성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양적 연구의 분석자료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종단적 2차 자료로서, 갤럽 월드 폴 원자료이다. 갤럽 월드 폴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사업체 갤럽(Gallup)에서 2005년부터 세계 약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성인을 대상으로 대면 혹은 전화조사를 수행하여 구축하고 있는 시계열 횡단면 조사이다(Gallup, 2020. Oct., p.4). 법과 질서, 의식주, 지역사회 기반, 국가기관, 청년, 통신 이용과 접근성, 부패, 직업 전망, 개인의 경제적 상태, 국가 및 지역의 경제 전망, 건강, 사회적 생활, 시민참여, 행복, 일상생활, 지역사회 애착, 개인적 특성을 핵심 질문(core questions)으로 공유하고 국가에 따라 고유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표를 구성한다. 영문으로 기획된 조사표, 특히 핵심 질문을 조사 대상 국가별 언어로 1차 번역하고, 번역된 결과를 또 다른 번역자가 영문으로 재번역하여 언어로 인한 편의를 제거함으로써 국제비교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Gallup, 2020. Oct., p.5).

2005년부터 조사 대상 국가에서 연간 1회 이상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현재 2020년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2021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북미 국가, 서유럽 국가, 아시아 일부 선진국가, 걸프 협력 회의 가입 국가 등에서는 전화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전형적으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전화조사는 가구에 전화를 건 후, 15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확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중앙유럽 및 동유럽 국가, 중남미 대부분 국가, 전 소비에트연방 국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 중동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전형적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대면조사를 수행하는 나라에서는 센서스 등 신뢰할 수 있는 인구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다층군집표집을 통해 추출된 100-125개 군집에서 8-10 가구의 표본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조사가 제한된 일부 국가는 100-125개 군집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한다. 표집가구에서 15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확인하고 전화조사와 동일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다(Gallup, 2020. Oct., pp.7-9). 최종적으로 표집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답자 및 응답가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 결과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다(Gallup, 2020. Oct., p.10).

〈표 1-1〉 국제비교 양적 연구 분석자료 비교

구분	갤럽 월드 폴 (Gallup World Poll, GWP)
개요	2005~2019년 세계 약 150개 국가 대상,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행복과 삶의 질 관련 데이터셋으로 세계행복보고서 및 OECD BLI의 원자료로 활용됨.
조사시기	2005~2020년(1년 주기)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부 온라인조사 수행
조사내용	법과 질서, 의식주, 지역사회 기반, 국가기관, 청년, 통신 이용과 접근성, 부패, 직업 전망, 개인의 경제적 상태, 국가 및 지역의 경제 전망, 건강, 사회적 생활, 시민참여, 행복, 일상생활, 지역사회 애착, 개인적 특성 등

자료: 연구진 작성

두 번째 양적 연구의 분석 자료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III” 원자료이다. 2020년 조사에 이어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 DRM)’을 활용한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행복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데에 활용한다. 2020년 2차 연도 연구에서 수행한 6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 일상재구성법 조사 및 분석의 빈 곳을 메우기 위해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행복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심층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응

답형 온라인조사를 수행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5장에서 소개한다.

질적 연구는 경제적 성취 수준을 고려한 주요 국가군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주요 국가군 국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수준, 각국의 일상생활 방식과 사회제도적 특징을 도출한다. ‘고성장 고행복’ 국가군인 복지 선진국가에 주목한 1차 연도, ‘성장 대비 고행복’ 국가군인 중남미 주요 국가에 주목한 2차 연도에 이어 3차 연도에는 ‘성장 대비 저행복’ 국가군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행복의 의미와 여건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3개연도 국제비교 질적 연구의 개요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3개연도 행복과 삶의 질 국제비교 질적 연구 개요

구분	1차 연도 (2019)	2차 연도 (2020)	3차 연도 (2021)
대상 국가군	북유럽 복지 선진국가	중남미 국가	동아시아 국가
대상 국가	덴마크, 노르웨이	멕시코, 코스타리카	베트남, 대한민국
표집방법	덴마크 코펜하겐 및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 대학을 기점으로 섭외	SNS를 활용한 모집	SNS를 활용한 모집
표집대상	보통(ordinary)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청년(20~30대) 및 노인(60대 이상)		
면접자수	노르웨이 11명, 덴마크 7명	멕시코 17명, 코스타리카 17명 (사회문화적 수준 9명씩 18명, 개인적 수준 8명씩 16명)	베트남 15명, 대한민국 15명
면접 방법	대면 심층면접	화상 심층면접	화상 심층면접 (대한민국 희망자에 한해 대면 심층면접)
조사 내용	행복의 조건, 일상생활 스트레스, 직업이나 일, 일과 삶의 균형, 선택의 자유, 지역사회나 국가의 영향, 이웃·지역사회·국가와의 연결, 안전, 사회시스템, 세대, 타인의 평가, 미래 행복 등	(공통문항) 행복의 조건, 일상생활 스트레스, 직업이나 일, 일과 삶의 균형, 선택의 자유, 지역사회나 국가의 영향, 사회시스템, 세대, 타인의 평가, 미래 행복 등 (사회문화적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지체계 등 (개인적 수준) 안전	행복의 조건, 일상생활 스트레스, 직업이나 일, 일과 삶의 균형, 선택의 자유, 지역사회나 국가의 영향, 이웃·지역사회·국가와의 연결, 안전, 사회시스템, 세대, 타인의 평가, 미래 행복 등 (대한민국 대상자에 한해 경제력 대비 낮은 한국의 행복 수준에 대한 의견)

자료: 연구진 작성

마지막으로 행복과 삶의 질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념의 이론적 관계, 개인 및 국가 단위 행복 수준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내외 실증분석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하고,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계 및 다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복과 삶의 질 포럼”을 운영했다. 포럼의 운영 성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2020년 행복·삶의 질 포럼 운영

구분	주제	발표
1차 (2.26.)	질적 연구방법으로 보는 국내·외 행복과 삶의 질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권지성 침례신학대 교수, 정선욱 덕성여대 교수) 북유럽과 중남미 주요국 국민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전영섭, 신혜란, 채수홍 서울대 교수)
2차 (5.26.)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아동, 청소년의 행복 국제비교 연구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행복 연구 국제비교(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3차 (8.2.)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한국인의 행복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김희삼 GIST 교수) 행복경제학 feat. 행동경제학 (곽승욱 숙명여대 교수)
4차 (12.27.)	국민총행복과 공공정책 방향	행복 불평등과 사회정책의 역할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행복 연구와 정책 방향 (이재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료: 연구진 작성

3. 이 연구의 차별점과 한계

이 연구는 3개년에 걸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의 마지막 연구과업으로 국제비교 관점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종합하여 한국에의 함의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국민총행복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개념과 행복의 측정, 관련 요인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경험적 발견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비교 관점에서 수행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 특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현대 한국인의 행복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행복의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인의 행복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식별하고자 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국제비교할 수 있는 갤럽 월드 폴 원자료와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행복을 주제 모듈로 수행한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민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1년 차 연구에서부터 축적한 복지 선진국가와 중남미 국가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이러한 의의와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첫째, 국제비교 관점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확보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한국인의 행복이 보이는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해 귀납적 접근(data-driven approach)을 취하였으므로, 세부 주제에 대한 가설을 중심으로 둔 연역적 접근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 맥락에서 저소득 빈곤층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은 다루지 못했다.

둘째, 양적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체에서 생산한 배타적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당해연도 연구 활용을 조건으로 확보하였으므로 데이터 이용이 일회성에 그쳤다. 또한 2차 자료를 활용했으므로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의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시간 사용이나 거주지역의 특성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횡단 조사에 의한 다년도 자료이므로 개인의 측정할 수 없는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일상재구성법을 활용한 접근에서도 국제비교를 시도하였으나, 이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시도한 실태조사의 자료 외의 비교할 수 있는 해외 자료가 없어 국제비교를 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는 한국인의 행복의 특이성을 발견하고자 한 연구범위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 연구에서 행복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셋째, 국제비교 질적 연구는 3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어 복지 선진국가와 중남미,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 국한하여 접근하였으므로 지리적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연구대상자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으로 집중했기에 연령대와 거주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삶의 경험을 직접 참여 관찰하여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인터뷰를 통해 회상적 정보를 전달받았으므로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염되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차연도 한국과 베트남의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사는 국제비교 질적 연구팀 중에서 개인적 역량에 집중된 팀이 한국을, 사회문화적 수준에 집중된 팀이 베트남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팀을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3개년도 결과에 대하여 개인적 역량에 대한 종합과 사회문화적 수준에 대한 종합 시 각각 베트남과 한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제2장

국제비교로 보는 행복과 삶의 질 현황과 함의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행복의 측정과 이슈

제3절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행복 비교

제4절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과 다른 국가의 행복 비교

제5절 소결

제 2 장

국제비교로 보는 행복과 삶의 질 현황과 함의

제1절 문제제기

경제학자 Easterlin(1974)이 소득과 행복의 실증적 관계를 최초로 논의한 이후 행복의 측정방법, 결정요인, 효과에 관한 연구는 빠르게 확장되어왔다. 이제 행복은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Helliwell & Wang, 2012, 2014; Helliwell et al., 2012), 거시경제의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e.g. Di Tella et al., 2001, 2003).

영국은 행복 측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부터 자국민의 행복을 조사해오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에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을 발표하면서 행복 조사를 위한 국가 단위 및 다차원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OECD, 2013).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행복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삶의 만족도(life evaluations)로 전반적인 생활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감정(affect)으로 느낌 또는 감정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제시된 유다이모니아(eudaimonia)는 삶의 의미 또는 목적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현재 대부분 OECD 가입국들은 국가통계청을 통해 삶의 만족도(life evaluations)를 수집하고 있으며 OECD의 일부 국가에서는 감정(affect)과 유다이모니아(eudaimonia) 자료까지도 수집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산업화, 교육, 보건, 문화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기대치만큼의 행복은 보여주지 못했으며, 가끔은 불행한 국가로 간주 되어 왔다(Diener et al., 2010).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행복을 세계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원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Helliwell et al.(2014)의 분석방법에 따라, 전 세계의 행복지수를 제시하고 한국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추상적인 경험으로서의 행복을 국제비교하기 위

해서 행복의 개념, 측정 지표, 그리고 정책 목표로서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 방법론적 이슈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행복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방법론의 의의와 한계를 인지한다.

둘째, ‘세계행복보고서 2020(World Happiness Report 2020, Chapter 2)’에서 제시한 최근 3년(2017~2019)간 한국의 행복 수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Helliwell et al., 2020). 특히, Helliwell et al.(2020)이 사용한 6가지 핵심요인들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부 국가(주로 OECD 가입국과 아시아 일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복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은 1인당 GDP만을 행복의 결정 요인으로 고려했을 경우 현재보다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행복을 결정하는 데는 사회정치적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취약성이 확인된다. 한국의 취약한 사회정치적 환경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로부터 발견되는 긍정적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행복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요인으로는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freedom in life choices), 사회에 대한 부정부패 인식(perceived corruption in the society), 가족에게서 오는 낮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등이 있다.

셋째,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조사한 행복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과 OECD 가입국과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팬데믹은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팬데믹과 정부의 감염병 완화 조치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팬데믹 환경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행복이 팬데믹 이전(2017~2019)과 이후(2020년)에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한국과 OECD 일부 국가와의 행복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월드 갤럽 폴(Gallup World Poll)로, 매년 조사되는 자료이며, 세계 최다 국가의 행복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가 시행된 국가는 160여 개국에 이르며, 국가별 표본의 크기는 대략 1,000여 명 정도이다⁵⁾. 하지만 국가별 표본의 크기가 분산을 흡수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간 데이터는 국가간 행복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행복 수준이 유사한 국가의 순위를 변경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행복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추정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팬

5) 인구가 많은 일부 국가의 표본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음. e.g. 중국(N~4,000), 인도(N~3,000)

데믹 이전에 조사한 데이터의 경우 Helliwell et al.(2020)이 활용한 방법에 따라 3년간(2017-2019)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월드 갤럽 폴에서 조사하는 삶의 질 관련 항목에는 행복, 긍정 정서(positive affects), 부정 정서(negative affects) 등이 있다. 행복의 경우는 '칸트릴 사다리'를 통해 조사되는데, 이는 각 응답자가 자신의 삶을 사다리로 생각하도록 한 후, 현재의 삶이 전반적으로 최상일 경우 10점, 최악일 경우 0점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Cantril, 1965). 또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응답자가 응답 시점의 전날을 기준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서적 척도(긍정 정서, 부정 정서)는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고,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6가지 요인과의 연관성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행복보고서는 국가 간 행복 비교를 위해서 칸트릴 사다리 방법을 통해 수집된 행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Helliwell, Layard, & Sachs, 2012; Helliwell et al., 2021). 이에 본 장에서도 세계행복보고서의 분석방법에 따라 칸트릴 사다리로 조사된 행복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조사한 행복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과 일부 선진국의 행복 수준을 비교하였고, 1인당 GDP와 5가지 추가 요인을 통해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였다. 3절에서는 팬데믹 동안에 수집한 행복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하고, 팬데믹 이전부터 팬데믹 시기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행복의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이 행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절 행복의 측정과 이슈

1. 행복의 개념과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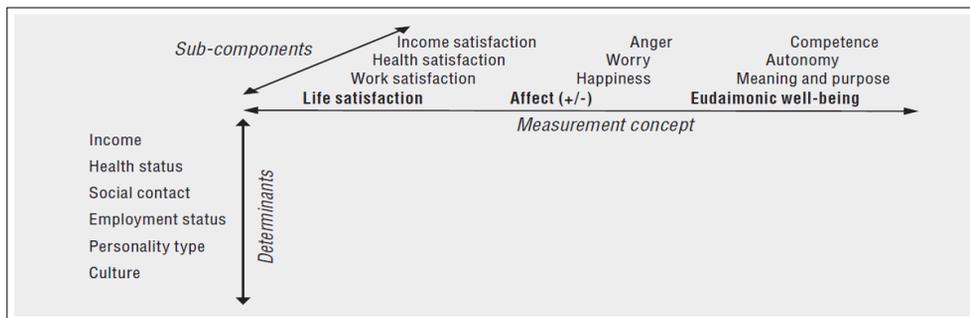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다. 학문에 따라 행복에 주목할 필요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용어와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경제학에서는 행복을 경험한 효용(experienced utility)으로 다루기도 했다(Kahneman, Wakker, & Sarin, 1997). 철학자인 누스바움과 경제학자인 센의 편저(Nussbaum & Sen, 1993)에서는 공적으

로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논하기도 하였다. 삶의 질은 잘 있는 상태로서 웰빙(Well-being)과 혼용되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서의 행복에 주목하기도 한다(Diener et al., 1999). 여기에서는 ‘행복’을 궁극적인 지향이자 가치로 두고, 학술적 개념을 주관적 웰빙에 두며,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 주목할 필요에 따라 다차원적인 삶의 질의 맥락에서 정책 방향과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국민총행복을 정책 목표로 할 때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을 타당하게 반영하되 잠재적인 편의를 방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치로 변환해야 한다(Kahneman & Tversky, 2003). 이 맥락에서 갤럽 월드 폴, 세계 가치관 조사 등 서베이를 통해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관점과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으로서의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 이슈를 검토한다.

OECD(2013, p.10)는 광의의 주관적 웰빙에 주목하여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OECD에서는 행복을 측정하는 개념을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정서(affect), 유다이모니아(Eudaimonic well-being)로 구분하였다. 삶의 만족은 일, 건강, 소득의 영역별 만족감을 반영하고, 정서는 행복감, 걱정, 화의 감정을, 유다이모니아는 삶의 의미와 목적, 주도적 삶, 역량을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주관적 웰빙, 혹은 행복에 대해 소득이나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고용상태, 성격,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그림 2-1] OECD(2013)의 주관적 웰빙 측정



자료: OECD(2013, p.33)

이 연구에서는 [그림 2-2]와 같이 행복을 감정적 반응과 이성적 판단의 스펙트럼에 두고, 서베이를 통한 측정 방법을 비교한다. 감정적 반응에 가까운 행복한 느낌, 혹은 행복감은 개인이 주목하고 있는 특정한 삶의 요소의 충분이나 부족에 집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초점의 오류(focusing illusion)로부터 자유롭지 않다(Kahneman & Sugden, 2005). Kahneman과 Sugden(2005)은 ‘어제’와 같이 특정한 날을 지칭하여 경험한 효용으로서의 행복한 느낌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행복감은 주로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의 질문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삶의 만족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표이다(OECD, 2013, p.13). 1980년대부터 다수 국가의 시계열 서베이 결과를 추적하고 있는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도 이 질문을 쓰는 등,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서베이에 서 활용하고 있다. 주로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의 질문을 쓴다.

삶의 평가는 캔트릴 사다리 척도의 다른 이름이다(Cantril, 1965).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 지표에 비해 행복 연구에서의 활용도는 낮지만(OECD, 2013, p.14), 삶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반영한다. 세계행복보고서 등에서는 캔트릴 사다리 척도를 ‘삶의 평가’로 조작적 정의하여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Helliwell, Layard, & Sachs, 각 연도).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으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유다이모니아는 ‘삶의 의미와 목적, 혹은 좋은 심리적 기능’을 의미한다(OECD, 2013, p.10).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 전통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덕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아리스토텔레스, 손명현 역, 2007, pp.11-34; OECD, 2013, p.26).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하는 측정 방법은 다양하다. 행복의 개념을 감정적 경험과 주관적 판단을 아우르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이해할 수 있다(Rietveld et al., 2013). 이는 행복을 긍정적 정서의 존재, 부정적 정서의 부재, 그리고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이성적 판단을 넘나드는 개념으로 본 Diener와 Suh(1997)의 접근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행복감의 정서적 경험부터 삶의 만족, 평가,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유다이모니아의 측정 방법을, 감정적 반응과

이성적 판단을 두 축으로 하는 연속적 스펙트럼에서 이해한다. 이 맥락에서 삶의 평가는 감정적 반응이라기보다 이성적 판단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근거를 두는 행복의 측정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 연구에서는 주로 삶의 평가를 행복의 주요 측정지표로 활용한다.

[그림 2-2] 행복 측정 지표



자료: 연구진 작성

2. 행복 측정 결과 활용에 대한 방법론적 이슈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당위성과는 별개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으로서의 행복을 부정의와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정책 목표로 설정하기에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Robeyns, 2017, pp.129-135). 주된 이슈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적응이다. 예를 들어, 결혼은 중대한 생애 사건 중 하나이다. Zimmermann과 Easterlin(2006)은 ‘1984~2004년 독일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 후 연차별 삶의 만족 점수의 변화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 전 삶의 만족이 기준치 0.102에서 동거를 할 경우 0.183으로 증가하고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삶의 만족이 기준치 대비 0.3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한다. 하지만 결혼 이후 2년이 초과하면 삶의 만족은 0.173으로, 기준치와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결혼이라는 사건의 효과는 낮아져 결국 결혼한 상태에 적응한다고 보았다.⁶⁾ 1998~2008년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하여 한국에서 나타나는 결혼 경험의 영향에 주목한 Rudolf와 Kang(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적응의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결혼하고 2년 후 삶의 만족 수준이 결혼 이전으로 회귀한 여성과 달리, 5년 이상 결혼의 긍정적 영향이 존속하는 남성의 경험을 비교하여, 생애 사건이 행복에 미치는 성별 차이를

⁶⁾ Zimmermann & Easterlin(2006, p.517)의 [그림 1]의 내용임.

확인하였다.⁷⁾

두 번째 이슈는 비교이다. 정해식과 김성아(2019)는 2014~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회통합 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음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들이 정의한 격차는 특히 인근에서 직업적 전문성을 공유하는 준거집단과의 비교로, 개인이 누리는 소득과 자산의 절대적인 수준을 통제해도 음의 영향이 존속하였다. 개인이 인식하는 상대적 지위가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 발견은 정해식과 김성아(2019, p.186)의 질문이 비롯된 Solnick과 Hemenway(1998)의 1995년 실험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이들은 하버드 의과대학 교직원과 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응답자의 50%가 가상의 일을 선택할 때 절대적 소득과 함께 상대적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타인과의 비교는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행복을 측정할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런 맥락에서 Robeyns(2017, pp.118-137)는 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설계하기 위해 계량화하는 행복의 측정 결과가 적응이나 비교 등 내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공공정책의 목표로서 신뢰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전 생애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목적의 당위성은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행복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문제로 삼아 배제하려는 입장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에서 논의한 적응이나 비교 같은 이슈의 유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도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와 측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를 고려하며 관련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기반을 두어 학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7) Rudolf & Kang(2015, p.154)의 <표 5>의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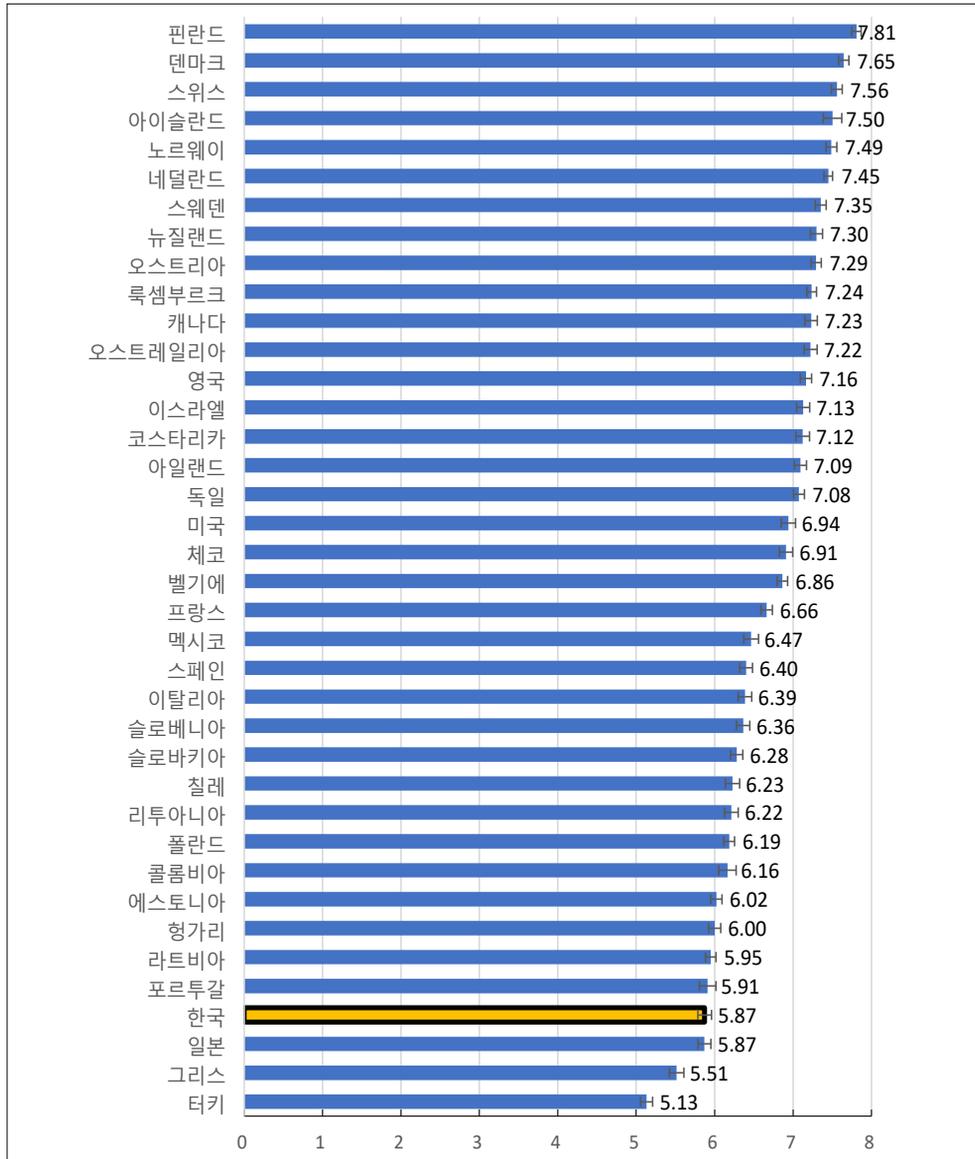
제3절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행복 비교

1. 세계와 아시아에서의 한국인의 행복

‘세계행복보고서 2020’에서는 삶의 평가를 행복의 측정지표로 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각 국가에서 집계된 행복의 평균 점수를 활용해 세계 행복 순위를 발표하였다(Helliwell et al., 2020). 해당 보고서에서 발표된 한국인의 행복의 3년간 평균값은 5.87(0~10점 척도 기준)로 조사 대상 153개국 중에서 61위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 행복 점수가 7.81이었으며, 뒤이어 덴마크가 2위로 행복 점수는 7.65이었고, 3위 스위스(7.56), 4위 아이슬란드(7.50), 5위 노르웨이(7.49) 순이었다. 한국의 행복은 상위 5개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행복은 2013년도에 행복 점수 6.267로 조사 대상 156개국 중에서 41위를 차지한 바 있다(Helliwell & Wang, 2013, p.22).

2020년(2017~2019 평균값) 기준 38개 OECD 가입국의 행복을 비교하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은 각 국가의 행복 수준을 가로 막대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서 사용한 가로 막대의 맨 우측에는 95%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수평선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국가 간 신뢰 구간이 겹치는 경우는 행복 점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2020년(2017~2019년 평균값) 한국의 행복 순위는 38개 OECD 가입국 중에서 35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행복 순위는 포르투갈(5.91)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일본(5.871), 그리스(5.51), 터키(5.13)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집단 간 행복 비교에서 한국, 일본, 포르투갈의 행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임금만을 고려할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확인되는 한국의 1인당 GDP 평균이 41,875달러 수준이고, 38개 OECD 가입국 중 경제 순위로가 18위였다는 사실을 볼 때, 동일한 시기에 확인되는 한국의 행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행복 점수는 아시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행복 점수인 5.872는 타이완의 6.46과 싱가포르의 6.38보다 낮으며 일본의 5.871과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물론 한국은 홍콩(5.51)과 중국(5.12)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림 2-3] 38개 OECD 가입국의 행복 순위(2017-2019)



자료: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0/#appendices-and-data>)에서 2021.10.27. 인출)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 행복의 실제값과 기댓값

한국의 행복은 사회경제적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020년에 발표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살펴보면, 한국은 0.916으로 전세계 23위에 위치하여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행복순위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다. 물론 한국의 인간개발지수는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11위)와 일본(19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85위)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⁸⁾.

한국의 행복 수준이 사회경제적인 발전 속도와 견주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복의 실제값과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계량모델⁹⁾을 이용해 통제된 기댓값을 비교하고자 한다. 실제값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보고하는 행복의 수준이고 기댓값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의 평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추정되는 행복의 수준이다. 따라서 두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기대되는 행복의 수준 대비 실제의 행복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사회경제적 성과 수준에 부합하는 행복 수준을 보고하는 것이고, 차이가 크다면 성취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실제로 누리는 행복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으로, 누락변수(omitted variable), 즉 인지한 영향요인 외에 고려해야 하지만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모델(모델 1)에서는 행복의 기댓값을 추정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9년 사이의 국가 간 자료를 활용하여 로그값을 사용한 1인당 국내 총생산(log GDP per capita)을 통제하고 연도별 고정 효과를 사용하여 합동최소자승법(pooled OLS)을 수행하였다. 행복의 실제값과 기댓값은 2017~2019년의 합계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모델(모델 2)에서는 행복을 추정하기 위해 Helliwell et al.(2020)이 행복 추정에서 사용한 다른 다섯 개의 변수를 추가로 포함하였고 2017~2019년 행복의 평균값을 추정하였다. [그림 2-4], [그림 2-5]에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행복의 실제값과 기댓값의 산점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행복 추정 모델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한국인 행복

8) <http://hdr.undp.org/en/content/latest-human-development-index-ranking> (2020.10.2. 인출)

9) 실제값과 기댓값을 비교하는 방법론의 상세한 설명은 제4장 제1절에서 논의함.

에 대한 강한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행복보고서 2020’의 두 번째 장에서는 국가 간 행복을 비교하기 위하여 로그 1인당 GDP(log GDP per capita),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건강 기대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 관용(generosity),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corruption)의 6개 변수를 사용하였다(Helliwell et al., 2020). 1인당 GDP는 2019년 11월 28일 기준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에 의해 2011년 국제 달러를 기준으로 조정된 값이다. 사회적 지지는 월드 갤럽 폴의 설문문에 따른 단일 응답(예/아니오)의 국가 간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출생 시 건강 기대수명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세계건강 관측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월드 갤럽 폴의 설문 중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주어진 선택의 자유에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단일 응답(예/아니오)의 국가 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관용은 월드 갤럽 폴 설문 문항 중 “지난 한 달 동안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의 국가 평균을 1인당 GDP로 회귀 분석한 잔차를 사용하였다.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월드 갤럽 폴(GWP)에서 두 개의 질문으로 수집한 각 단일 응답의 평균이 사용되었다. 두 개의 질문은 “정부 전체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와 “기업 내에서도 부패가 만연해 있는가?”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한 부정부패 인식 데이터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대표 값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1인당 GDP(log)만 통제한 첫 번째 모델(모델 1)의 경우 국가 간 행복의 변동에 있어서 대략 60%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다섯 개의 변수를 추가했을 경우 모델(Model 2)의 설명력은 3/4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행복의 기댓값은 표 1의 두 모델에서 추정된 계수를 사용하였고 한국인 행복의 실제값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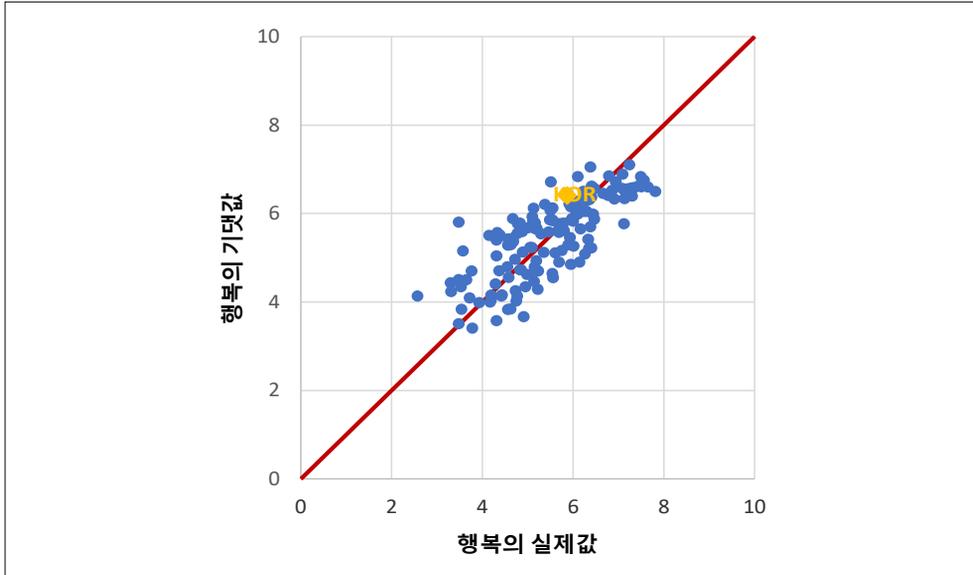
〈표 2-1〉 2005-2019 데이터를 사용한 합동최소자승법(pooled OLS)에서 추정된 행복

	모델 1	모델 2
1인당 GDP(log)	0.745 (0.036)***	0.310 (0.066)***
사회적 지지		2.362 (0.363)***
출생 시 건강기대수명		0.0360 (0.010)***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1.199 (0.298)***
관용		0.661 (0.275)*
부정부패 인식		-0.646 (0.297)*
Constant	-1.034 (0.342)**	-1.697 (0.552)**
Year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Number of countries	156	156
Number of observations	1,819	1,627
Adjusted R-squared	0.605	0.751

주: * <0.05, **<0.01, ***<0.001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국가 단위로 군집하여 사용함.

[그림 2-4]는 〈표 2-1〉의 첫 번째 모델(Model 1)에서 추정된 행복과 각 국가의 실제 행복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행복의 기댓값은 세로축에 실제값은 가로축에 나타나 있다. 2017~2019년 사이에 확인된 한국인 행복의 기댓값은 6.4로 실제값인 5.8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에서 보면 한국을 나타내는 점(노란색)이 대각선 위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소득의 역할만 고려할 경우, 한국의 행복은 0~10점 척도에서 실제 수준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한국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4] 소득을 행복요인으로 고려했을 경우의 기댓값 vs. 실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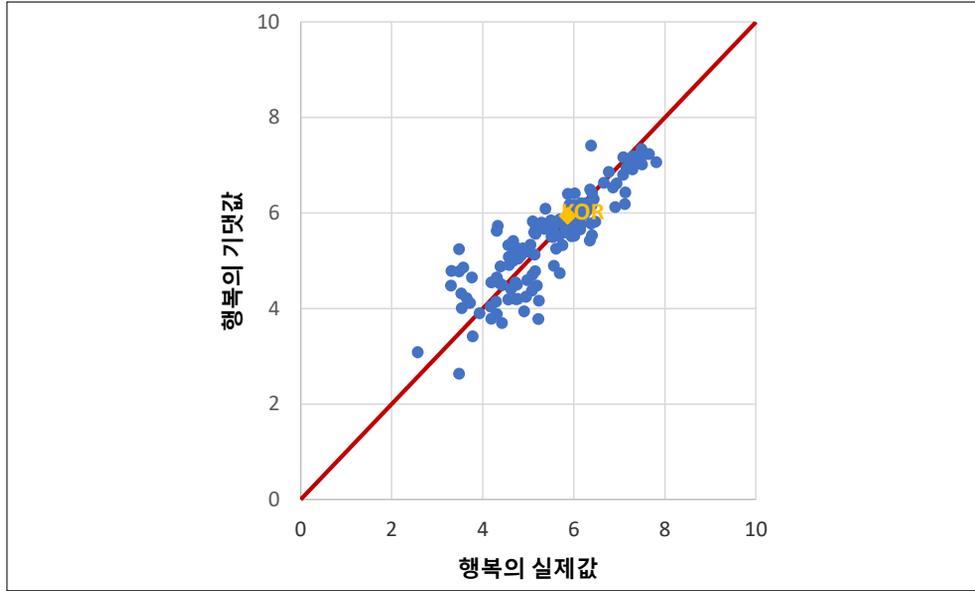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그림 2-5]는 6개의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한 행복의 기댓값을 [그림 2-4]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행복의 기댓값은 5.94로 <표 2-1>의 첫 번째 모델(모델 1)에서 추정했던 값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값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을 나타내는 점은 여전히 대각선 위쪽에 있지만, 대각선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1인당 GDP)과 함께 사회정치적 요인이 한국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6개 요인으로 추정된 행복이 소득만 고려한 모델에서의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한국이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요인에서 전반적인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1인당 GDP 수준에서 사회정치적 환경을 강화한다면 한국의 행복 수준에 대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사회정치적 환경이 갖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2-1>의 두 번째 모델(모델 2)을 통해 일부 국가와의 행복을 비교하고자 한다. 국가 간 행복 요인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회정치적 측면이 한국의 행복을 다른 나라에 비해 약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요인들이 한국의 행복에 어떤 식으로 이바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6개 요인을 활용한 행복의 기댓값 vs. 실제값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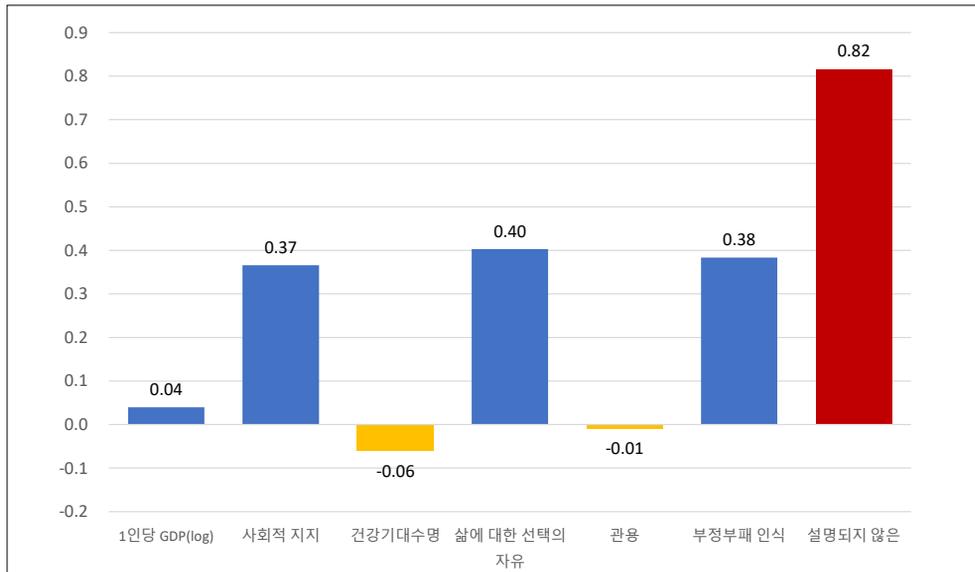
3. 한국과 주요 국가와의 행복 비교

여기에서는 한국의 행복을 일부 국가(4개국)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Helliwell et al.(2020)이 사용했던 방법에 따라 <표 2-1>의 모델 2를 적용하였다. 우선 비교국가로는 세계행복순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핀란드(세계 1위)와 덴마크(세계 2위)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행복 순위를 보이는 대만(세계 25위)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인접국인 중국(세계 94위)을 선택하였다.

[그림 2-6]은 핀란드와 한국의 행복을 비교한 것이다. 두 국가의 행복 차이는 0~10 점 척도에서 1.94로 확인된다. 그림에 사용한 6개의 세로 막대그래프는 두 국가의 행복 차이를 나타내고 마지막 세로 막대는 6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GDP는 0.04로 매우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와 한국의 행복 요인으로서 주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사회적 지지(0.37),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0.40), 부정부패 인식(0.38)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의 합은 두 국가 사이에서 확인되는 행복 차이의 60%를 설명한다. 건강 기대 수명과 관용에서는 한국이 핀란드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설명되지 않는 차이 역시 0.82로 핀란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6]은 한국의 행복이 핀란드보다 낮은 이유가 경제적 요인이거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낮은 사회적 지지, 낮은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높은 수준의 부정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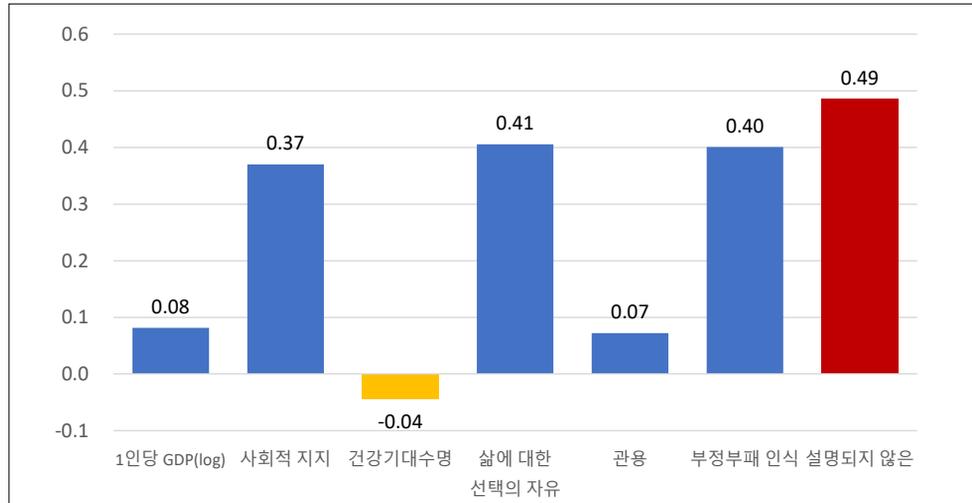
[그림 2-6] 한국과 핀란드의 행복 차이(1.94)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그림 2-7]는 6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한국과 덴마크의 행복 차이를 나타낸다. 덴마크의 행복지수는 한국보다 1.77 높은 수준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1인당 GDP로부터 기인한 행복 차이는 0.08에 불과하다. 두 국가의 행복 차이를 주로 설명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0.37),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0.41), 부정부패 인식(0.40)으로 확인된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총 행복 차이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관용 또한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두 국가의 행복 차이를 설명한다(0.07). 한국과 덴마크의 비교는 한국과 핀란드 사이에 실시한 비교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행복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보이는 차이가 주로 사회정치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 한국과 덴마크의 행복 차이(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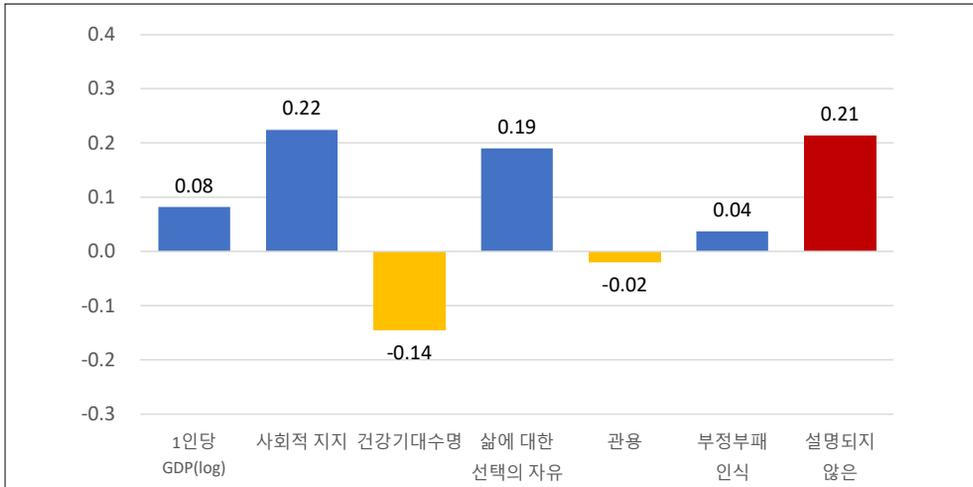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다음으로는 한국과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나타나는 행복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2-8]은 6개 요인에서 확인되는 한국과 대만의 행복 차이를 보여준다. 대만의 행복은 한국보다 0.58 높은 수준이다. 대만과의 비교에서도 두 국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사회적 지지와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GDP와 부정부패 인식의 격차로도 두 국가의 행복 차이를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그 크기가 훨씬 작은 편이다. 건강 기대수명은 한국이 대만보다 길기 때문에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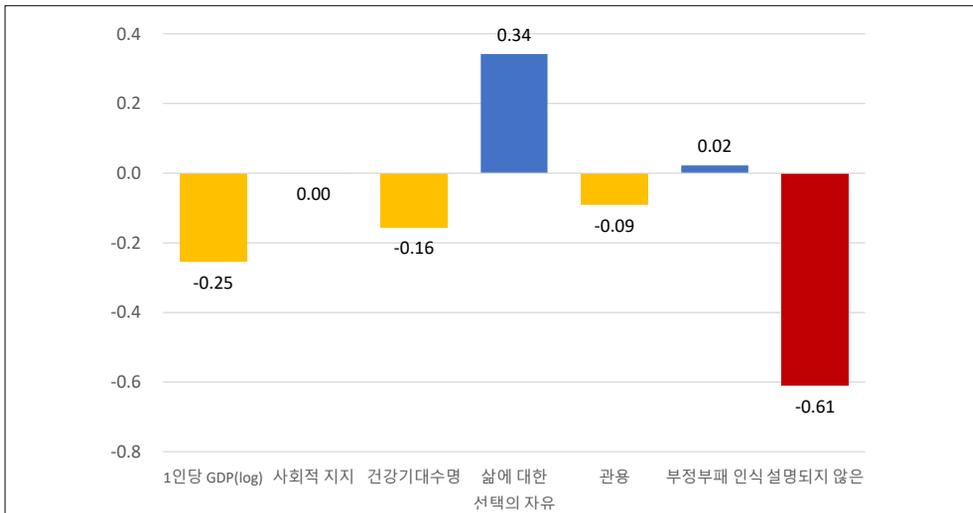
[그림 2-9]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이다. 중국의 행복은 한국보다 0.75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낮은 수준의 1인당 GDP와 낮은 건강 기대수명, 낮은 관용으로부터 발생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서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국과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행복 수준을 비교해보면 6가지 요인 중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서 한국이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낮은 사회적 지지 역시 행복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부정부패 인식은 두 국가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행복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림 2-8] 한국과 대만의 행복 차이(0.58)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그림 2-9] 한국과 중국의 행복 차이(-0.75)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이러한 국가 간 행복 비교를 통한 결과에서 한국의 행복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원인은 사회에 대한 부정부패 인식, 가족 구성원들의 낮은 사회적 지지,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부족한 상황 등 사회정치적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오랫동안 주목되어 온 문제였다(Kang, 2002;

Schopf, 2011, 2012). 최근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대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 슈화되기도 했다(You, 2021). 한국의 전반적인 부패 수준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국제 사회에 비하면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17-2019년 월드 갤럽 폴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8%가 정부나 기업에 대한 부패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61로 뉴질랜드(88), 덴마크(88), 싱가포르(85) 등 상위권 국가보다 훨씬 낮았다(부패인식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약한 관계는 제한된 경제적 기회, 힘든 시기에 감정적 지지의 부족, 고립감과 연결될 수 있고,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7~2019년에 조사된 월드 갤럽 폴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한국인의 80%가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도 같은 기간 동안 조사된 OECD의 평균 9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한국보다 17%p 높은 97%를 나타낸다.

월드 갤럽 폴 자료에 따르면, 2017~2019 동안 한국 성인의 61%만 자신의 삶에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비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고, 오직 그리스(54%)와 터키(60.9%)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노르딕 국가들과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95% 이상의 수준을 보인다. 한국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삶에서의 선택이라는 자유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한참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가 심각하고 (Chung, 2018; Hlasny, 2016; Schauer, 2018; Yun, 2009) 한국의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 있는 제한적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청년은 낮은 임금에 고용안정 및 미래 전망에 제한을 받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사랑,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소유, 개인적인 꿈과 희망 같은 많은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Kim et a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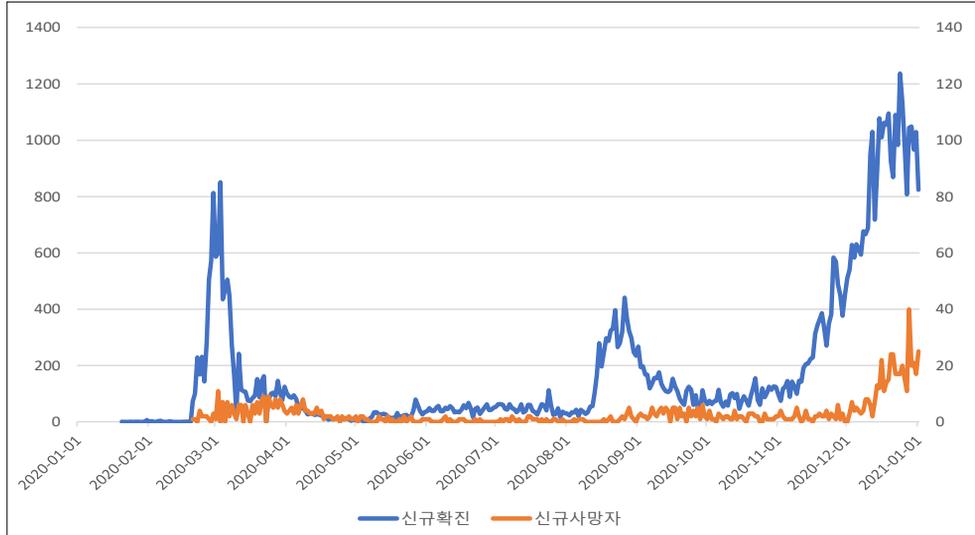
제4절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과 다른 국가의 행복 비교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공식적인 첫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2020년 1월 20일로 확인되며, 2020년 2월 14일에는 코로나19 환자가 28명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제1차 유행이 시작된 기점은 2020년 2월 18일로 보는데, 61세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에 확산한 시점이다. 당시 대구를 포함한 한국 전체가 직면한 개인 보호장비 부족,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의 부족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단행한 조치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률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한국 정부 주도로 시행된 진단 검사의 역량 확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추적 관리, 엄격한 격리는 코로나19 전염률을 하루 100건 이하로 감소시켰고 8월 초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일일 사망자의 수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2-10]은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그림의 왼쪽은 일일 신규 환자 수이며 오른쪽은 신규 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코로나19 일일 감염 수는 8월 말에 두 번째로 최고점에 도달했고, 다시 11월 초에 3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빠른 속도로 수습됐다. 3차 유행 때는 대도시에서의 확산으로 앞서 발생했던 두 번의 유행 시기보다 더 많은 일일 감염과 사망률을 보인바 있다.

각 국가는 팬데믹에 대처하는 데 있어 매우 다른 전략을 채택해왔고, 그에 따라 팬데믹의 심각성은 국가별로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31일에 한국의 총 감염자 수는 61,769명에 달했는데, 당시 한국의 감염률은 인구 10만 명당 120.5명 수준이었다. 한국의 감염률과 사망률은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실시한 감염병 대응 조치들은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말에 미국의 감염률은 인구 10만 명당 6,072.5명이었고 영국은 10만 명당 3,677명이었다. 한국의 경제 또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한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은 -1.0%로 미국(-3.5%), 독일(-4.9%), 영국(-9.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2-10] 2020년 한국의 코로나19 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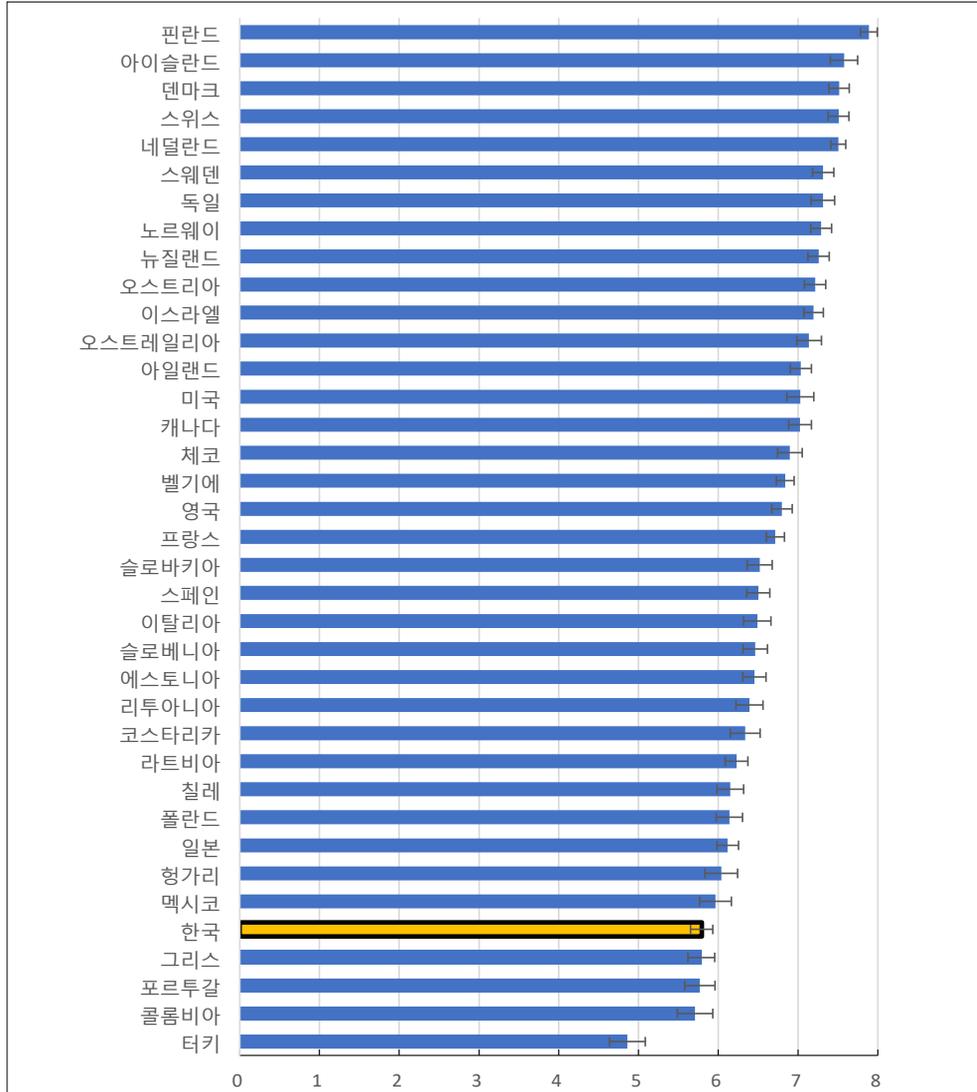


자료: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의 COVID-19 데이터 자료(<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에서 2021.10.27. 인출)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팬데믹과 이에 따른 정부 대응책들은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었다(Brodeur et al., 2021; Helliwell et al., 2021; Ma et al., 2021)고 볼 수 있으며, 그 규모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행복 순위를 확인하고 한국의 행복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자 한다.

상당수 국가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월드 갤럽 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 2020년 조사를 실시한 국가는 116개국으로 팬데믹 이전에 150여 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편이었다. 다행히도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37개 OECD 가입국들이 조사에 참여하여 OECD 가입국들의 행복 순위는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림 2-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 한국의 행복 순위는 37개 OECD 가입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2020년 데이터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전 데이터에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행복지수를 보였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아래 룩셈부르크를 순위에도 포함한다면 한국의 행복 순위는 34위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림 2-1]에서 확인했던 한국의 순위 35위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행복을 보이는 국가는 그리스, 포르투갈, 콜롬비아, 터키로 확인된다.

[그림 2-11] 37개 OECD 가입국가의 2020년 행복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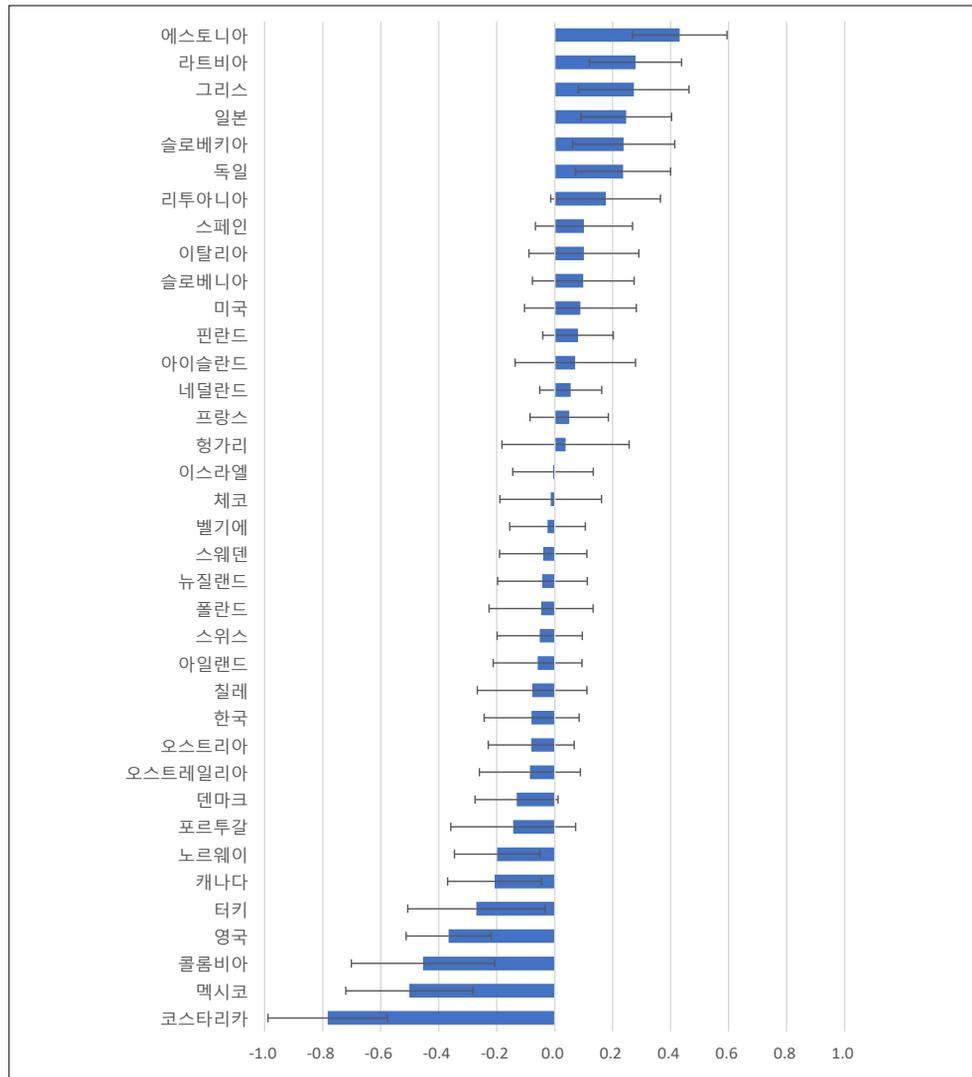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2020년 한국의 행복 점수는 5.793으로 2017~2019년도 평균보다 조금 낮아진 결과치이다. 2020년에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는 코로나19의 두 번째 유행이 진행되던 8월과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2020년에 소폭 낮아진 행복 수준은 팬데믹과 연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팬데믹 기간 동안 행복의 변화가 있었

는지 확인하고 한국의 변화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2-12] 2017~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발생한 OECD 국가들의 행복 변화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그림 2-12]는 2017~2019년에서 2020년까지 37개 OECD 국가에서 확인되는 행복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을 살펴보면 상위권에서 하위권까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95%의 신뢰 구간은 각 가로 막대에 표기되어 있는데,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는

경우는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2-12]를 보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일본, 슬로바키아, 독일의 경우 행복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0.08)을 포함한 24개국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노르웨이, 캐나다, 터키, 영국,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7개국은 행복이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보면, 행복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행복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며, 한국의 행복은 2020년에 발생한 팬데믹에 의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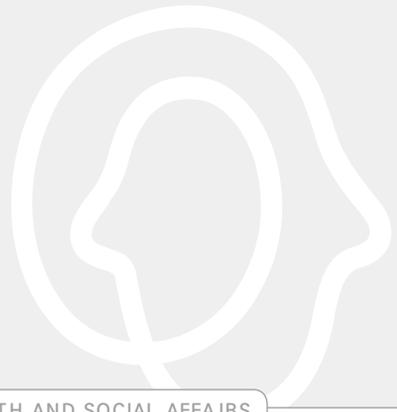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와 방법론적 이슈를 검토하고,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한국의 행복이 갖는 세계적인 위치와 선진국 사이에서의 위치는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행복 연구에서 국제비교가 가지는 함의를 확인하였다. 월드 갤럽 폴의 연간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7-2019년 평균 행복을 산출한 결과, 한국의 행복은 5.87(0~10점 척도)로 전 세계 153개국 중 61위, 38개 OECD 가입국에서는 35위임을 확인하였다([그림 2-2] 참조). 이와 같은 한국의 행복 순위는 같은 기간 동안 확인되는 1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HDI)의 수준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주요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질적 성장과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 간의 간극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특히 한국이 보이는 낮은 수준의 행복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들을 활용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은 1인당 GDP만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비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회귀분석에서 한국인 행복의 추정치는 실제값과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일부 국가들의 행복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삶에서의 선택의 자유가 부족하거나 사회에 만연한 부정 부패 인식, 그리고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한 취약한 사회정치적인 환경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행복의 원인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가진 비경제적 요인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임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숫자에 숨어 있는 사회경제적 생활상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받는 지지 또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생활이나 정서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누군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여 얻게 되는 0과 1의 숫자만으로는 그 지지체계의 속성과 기능을 유추하기에 한계가 있다. 결국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행복을 팬데믹 전후로 살펴본 결과 실제로 팬데믹 이후 삶의 평가 수준이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팬데믹이 사회적 충격이지만, 개인 단위에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봉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방역 노력의 성과일 수도 있다. 행복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이지만, 사회적 여건이나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책을 통한 개입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정책 관계자들은 한국의 행복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회정치적인 환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근거 기반 정책 입안을 위해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학술적 정책 연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제2부

행복과 삶의 질 국제비교 양적 연구

제3장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비교분석

제4장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심층분석

제5장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제6장 복지국가와 행복



제3장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비교분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행복 영향요인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모형과 분석자료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소결

제3장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비교분석

제1절 문제제기

기왕이면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하거나 휴가를 계획하거나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개인들의 구체적인 생애 선택이나 일상적인 노력이 개별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통적인 양상인지 혹은 특정한 사회에서 특이하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법정 휴가를 즐기는 것과 휴가를 즐기기보다 일을 하고 휴가보상비를 반납받는 것 중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개인의 선호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사회 규범에 좌우될 수도 있다. 혹은 한 사회가 진보하는 단계에 따라 특정한 선택지가 가지는 효용이 변화할 수도 있고, 세대 간 선택하는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누리는 국민총행복을 높이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의 영향력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은 국제비교 양적 연구의 관점에서 현대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이 보이는 보편적인 경향을 확인하면서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특이성을 발견하여 한국인의 국민총행복을 높이기 위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행복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형화된 영향요인을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개인 단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패턴을 집약한다. 제3절에서 한국의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과 국제비교할 수 있는 서베이 자료의 개요와 이 연구에서의 활용방법을 소개한다. 제4절에서 각 요인이 보이는 영향력의 공통적 특성과 함께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특이성을 확인하고, 제5절에서 분석 결과와 국제비교 관점에서 발견한 한국에의 함의를 요약한다.

제2절 행복 영향요인 선행연구 검토

1. 인구학적 특성

여기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지구적인 보편성과 특이성을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검토한다. 첫 번째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이다. 사실상 행복을 주제로 하는 양적 연구에서 성별의 영향은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면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통계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거나(김성아, 정해식, 2020)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복이 높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정해식, 김성아, 2019; 김성아, 김문길, 2020; Helliwell, Norton, Huang & Wang, 2018; Chui & Wong, 2016). 하지만 그 성별 차이의 기저에 있는 영향력의 기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둘째, 선진국에서 나이, 혹은 생애주기에 따라 40대 후반에 최저점을 보이는 행복의 U자형을 보이는 패턴은 행복을 주제로 하는 양적 연구에서 정형화된 사실 중 하나이지만 그 기제 또한 미지의 영역이다(Blanchflower & Oswald, 2004; Blanchflower & Oswald, 2008; Blanchflower & Oswald, 2009; Frijters & Beaton, 2012; Helliwell, Norton, Huang & Wang, 2018, Blanchflower & Oswald, 2017, Clark, d'Albis & Greulich, 2020, Jebb, Morrison, Tay & Diener, 2020). 주목할 것은 한국의 경험이다. 성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한 김성아와 정해식(2019)은 주요 선진국의 경향과 달리 40대 이후에도 행복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우하향 패턴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에는 40대 후반에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의 패턴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어 중고령층이 실제 누리는 행복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구학적 특성은 건강상태이다. 기대여명으로 측정하는 건강은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구성하는 3개 영역 중 하나이다(Sen & Anand, 1994, pp.5-6). '세계행복 보고서'에서는 칸트릴 사다리 척도로 측정하는 각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 6개 주요 변수 중 건강기대여명을 쓰고 있다(Helliwell, Layard & Sachs, 각 연도). 신체가 건

강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결혼은 생애 동안 경험하는 중대한 사건 중 하나이다. 결혼이라는 사건은 행복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Lucas & Clark, 2006; Rudolf & Kang, 2015; Grover & Helliwell, 2019). 2~4년 정도의 시간 이후 결혼 상태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혼한 사람은 40대 후반에 최저점을 보이는 행복의 U자형의 패턴의 깊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깊지 않다(Helliwell, Norton, Huang & Wang, 2018). 즉 배우자의 존재가 생애 동안의 부정적 경험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에서 가구원과 맺는 친밀한 관계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한 경험에 기여할 수 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1,01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상제 구성법을 활용해 일상생활과 행복의 경험 조사 결과를 분석한 Stone과 그의 동료들(2006)의 연구 결과,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즐거움을 증가시키고 좌절이나 피곤함의 부정적 경험을 완화했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즐거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좌절과 피곤함의 부정적 경험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가구 구성원의 존재와 개인이 맺는 관계의 특성이 행복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 경제적 특성

첫 번째 경제적 특성은 교육인데, 교육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확장한다. Sen과 Anand(1994, pp.6-7)는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를 구성하는 한 영역으로 교육을 포함했다. 읽고 쓰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 것이다. Ferrante(2009)는 이탈리아의 '2004년 가구소득자산조사(Survey on Household Income and Wealth)'를 분석하여 교육 기간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개인의 행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분석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함을 확인한 Lee와 Smith(2011)의 발견과 일관되는 것이다.

10) Stone, Schwartz, Schkade, Schwartz, Krueger & Kahneman(2006, p.147)의 <표 3>의 내용임.

둘째, 교육을 통해 획득한 역량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은 자아실현과 생계유지의 목적을 달성한다. 경제활동과 행복 경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을 하지 않는, 즉 실업의 경험을 통해 그 영향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증연구들은 실업, 특히 비자발적인 실업이라는 사건이 행복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을 일관되게 확인해주고 있다(Clark, Oswald, 1994; Gerlach & Stephan, 1996; Clark, 2003; Lucas, Clark, Gerogellis & Diener, 2004; Carrol, 2007; Kassenboehmer & Haisken-DeNew, 2009; Luechinger, Meier & Stutzer, 2010; Knabe & Rätzl, 2011; Dolan & Powdthavee, 2012; Young, 2012; Helliwell & Huang, 2014; Luhmann, Weiss, Hosoya & Eid, 2014; Drydakis, 2015; Knabe, Schöb & Weimann, 2016; 김성아 & 선왕, 2019). 주변인의 실업과(Clark, Knabe & Rätzl, 2010;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1) 과거 실업 경험 또한 현재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Clark, Georgellis & Sanfey, 2001; Moustერი & Delaney, 2018).

경제활동과 관련해 Andersson(2008)은 1991년과 2000년 ‘스웨덴 생활수준조사(Swedish Level-of-Living Survey)’ 자료를 분석하여 자영업자의 행복과 건강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 덜 압박감을 느끼고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자영업은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한 김성아와 김문길(2020)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 수준이 다른 종사상 지위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스웨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Andersson(2008)의 발견과 상이한 것이다. 임시 근로자 비율이 24.4%에 이르러 OECD 가입국 중 4번째로 높고, 자영업자의 비율도 24.6%에 이르러 OECD 가입국 중 6번째로 높은 실태를 보면 국내에서는 종사상 지위와 행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OECD, 2021a; OECD, 2021b).

셋째, 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력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경제적 특성이다. 유엔 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에서도 소득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있고(Sen & Anand, 1994, pp.3-4),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국민의 행복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에 소득을 포함시켰다(Helliwell, Layard & Sachs, 각 연도). 다수의 실증연구에서도 소득은 행복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Hagerty, 2000; Frijters, Haisken-DeNe

w & Shields, 2004; Deaton, 2008; Easterlin & Angelescu, 2009; Knight & Gu natilaka, 2012; Stevenson & Wolfers, 2013; Mohanty, 2014; Proto & Rustich ini, 2015; Powdthavee, Burkhauser & De Neve, 2017; Jebb, Tay, Diener & Oishi, 2018). 같은 맥락에서 Kahneman과 Deaton(2010)은 소득 증가가 삶의 평가 로 측정하는 행복에는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지만 행복감으로 측정하는 행복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반면 행복 측정의 이슈에서 확인한 것처럼 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상대적 소득 혹은 격차는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기도 한다(McBride, 2001; Huang, Wu S., & Deng, 2016; 정해식 & 김성아, 2019). 동시에 준거집단의 소득수준은 미래 소득 증가에 대 한 기대 요인으로 작동하여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도 한다(Senik, 2008; Senik, 2009; Schneider, 2013; Stutzer, 2004). 결국 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 수준 은 감정적 반응보다 이성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실제로 누리 는 기본 요소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특성

경제적 여건은 삶의 물질적 기반이지만, 사회적 특성은 그 기반의 질을 정하는 역할 을 한다. 첫 번째로 검토할 사회적 특성으로서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는 삶을 행복하 게 만들 수 있는 윤택유가 된다. Gleibs와 그의 동료들(2013)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삶의 만족 간 상관관계가 가구소득과 삶의 만족 간 상관관계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규모는 자살률을 유의하게 줄이고(Helliwell, 2006),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가족이나 친구의 존재와 소통 이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을 유의하게 증진시킨다(Helliwell & Barrington-Leigh, 2012).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즉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Helliwell & Barrington-Leigh, 2012).

둘째, 친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타적 사회참여 또한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Aknin과 그의 동료들(2013)이 2006~2008년 갤럽 월드 폴 자료를 분석하여 분석대상 136개국 중 120개국에서 삶

의 평가에 대한 기부의 유의한 양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행복 연구에서 이타적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셋째, 관계를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Helliwell과 Barrington-Leigh(2012)는 '캐나다 일반 사회조사(Canadian General Social Survey)'를 분석하여 이웃이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하면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 즉 도난으로부터의 안전감이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Helliwell과 Huang, Wang(2013)은 경찰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유의하게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는 부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관계를 확인한 Helliwell과 Barrington-Leigh(2012)의 발견과 일관되는 것이다.

네 번째 요소는 선택의 자유다. 선택의 자유는 인도인 경제학자로서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Sen이 1999년 저서에서 강조한 사회 발전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즉, 소득 증진과 같은 발전을 도모한 이유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성장이라는 수단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각자의 목적인 자유로운 삶의 효용을 추구하기 위해 결핍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en, 1999). 이런 맥락에서 개인들이 인식하는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은 행복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Helliwell & Barrington-Leigh, 2012; Helliwell, Layard & Sachs, 각 연도).

여기에서 검토하는 사회적 특성의 마지막 요소는 미래 전망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여 교육 기간이 삶의 만족에 대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확인한 Ferrante(2009)는 교육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해주어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교육을 통해 획득하는 긍정적인 미래 전망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제3절 분석모형과 분석자료

1. 분석모형

이 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주요 선진국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요인 영향력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특이성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비교 관점에서 한국인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개인의 행복 경험에 미치는 인구, 경제, 사회적 특성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비교한다. 분석대상의 범위는 현재 OECD에 가입하고 있는 38개 국가¹¹⁾와 이 연구의 질적 연구에서 주목하는 동아시아 국가로서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39개 국가이다. 다음 수식은 이 장의 분석모형이다.

$$Y_{ijt} = \beta_0 + \beta_1 X_{ijt} + \tau_j + \rho_t + \sigma_{jt} + \epsilon_{ijt}$$

여기에서 Y_{ijt} 는 결과변수로서 행복의 측정 지표이다. X_{ijt} 는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벡터로서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변인들을 포함하여 누락변수편의를 최소화한다. τ_j 는 개별 국가의 고정효과이고, ρ_t 는 측정연도의 고정효과이다. σ_{jt} 는 개별 국가의 시간 추세이고, ϵ_{ijt} 는 특정 국가 특정 시점의 개인 단위 오차항이다. 결과변수는 순서척도이지만,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최소자승법에 의한 분석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Ferrer-i-Carbonell, A., & Frijters, P., 2004).

11) 37개 OECD 가입국은 가나다순으로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이다(OECD 웹페이지 <https://www.oecd.org/newsroom/global-oecd-welcomes-colombia-as-its-37th-member.htm>에서 2021.6.25. 검색) .

2. 분석자료

이 장에서는 국제비교 관점에서 현대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학 요인의 영향력이 보이는 보편적인 경향과 한국인의 특이성을 발견하여 한국인의 행복 향상을 위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모형을 적용하는 분석자료로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다. 자료원에서 활용할 주요 변수의 질문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 주요 변수의 질문

구분		질문
결과변수	삶의 평가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학적 특성	성별	성별
	만 나이	만 나이
	건강상태	동년배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강문제가 있습니까?
	혼인상태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미혼 / 결혼한 적 없음, ② 결혼함, ③ 별거함, ④ 이혼함, ⑤ 사별함, ⑥ 파트너 있음
	가구원 수 (아동 수)	당신 가구에는 몇 명의 가구원이 있습니까? / 당신의 가구에 15세 이하 아동이 몇 명입니까?
경제적 특성	교육수준	당신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종사상 지위	당신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가구소득	연간 가구소득 및 가구원당 가구소득(미국 달러 표준화)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지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지나 친구가 있습니까?
	이타적 사회참여 (기부, 자원봉사)	당신은 지난달에 ① 기부나 ② 자원봉사를 하셨습니까?
	안전	지난 12개월 동안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돈이나 재산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거버넌스 (부패)	당신의 나라 ① 재계나 ② 정부 전반이 부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의 자유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미래 전망	지금, 당신은 당신의 생활수준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범위	2006-2020, 1년 주기 조사	

주: 질문의 원 표현은 부록에 제시함.

자료: Gallup, (2020.10., pp.68-73). Worldwide Research: Methodology and Codebook, Gallup

앞선 표에 따라 이 장에서 활용하는 변수를 다음 표와 같이 정의하였다. 우선 갤럽 월드 폴 자료에서 ‘무응답’ 및 ‘모르겠음’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갤럽 월드 폴에서 제공하는 가구원 수는 가구원 1인당 가구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갤럽에서 클리닝한 변수로 아동 수보다 적을 수 있다. 연간 소득은 월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3-2〉 변수 정의

구분		내용
결과변수	삶의 평가	칸트릴 사다리 점수 (최악의 상태 0~최상의 상태 10)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여성=1, 남성=0
	만 나이 (만 나이 제공)	만 나이
	건강상태	건강문제 있음=1, 없음=0
	혼인상태	유배우(파트너)=1, 별거, 이혼, 사별=2, 미혼=3
	가구원 수 (아동 수)	가구원 수, 15세 이하 아동 수
경제적 특성	교육수준	초등교육 이하=1, 중등교육=2, 고등교육 이상=3
	종사상 지위	풀타임 근로자=1,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2,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3, 자영업자=4, 실업자=5, 비경제활동인구=6
	가구소득	월 가구소득(PPP \$)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지	곤란할 때 도움받을 친지나 친구 있음=1, 없음=0
	이타적 사회참여 (기부, 자원봉사)	지난달 기부 경험 있음=1, 없음=0 지난달 자원봉사 경험 있음=1, 없음=0
	안전	도난 경험 있음=1, 없음=0
	거버넌스 (부패)	재계 부패했음=1, 부패하지 않음=0 정치 부패했음=1, 부패하지 않음=0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에 만족=1, 불만족=0
	미래 전망	나아지고 있음=1, 그 외=0

주: 아동 수는 97명 이상을 97명으로 코딩하였고, 전체 표본 중 97명임.
 자료: Gallup, (2020.10., pp.68-73). Worldwide Research: Methodology and Codebook, Gallup.

여기에서는 이 장에서 활용하는 변수의 유효값을 가지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국가별, 시점별 조사 규모 대비 유효표본의 등장률은 다음 〈표 3-3〉과 같다. 유효표본 등장률이 ‘0.0’인 경우는 해당 시기의 조사에서 중요변수 일부가 해당 국가에서 조사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공란은 조사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3-3〉 갤럽 월드 폴 국가별 분석대상 유효표본 등장률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그리스	80.1	85.4	84.3	83.5	84.5	82.2	82.9	82.4	76.9	80.3	74.5	89.0
네덜란드		78.7	72.7	80.5	84.8	0.0	93.0	91.9	90.6	95.5	93.6	91.2
노르웨이				72.5		0.0	81.0	0.0	90.4	94.5	93.7	91.7
뉴질랜드		76.1	76.9	79.6	80.0	38.1	79.0	82.3	76.9	74.9	80.7	88.1
대한민국	75.4	67.1	79.7	0.0	80.9	35.2	80.6	80.5	88.7	82.9	88.1	85.1
덴마크	84.2	82.0	79.5	81.4	79.7	0.0	84.0	94.1	91.4	95.0	94.0	90.3
독일	38.5	80.7	0.0	5.8	82.3	0.0	86.7	39.9	86.1	83.9	76.4	84.0
라트비아	65.4		75.4	68.6	70.1	61.2	64.1	64.4	61.3	51.0	58.3	77.1
룩셈부르크	0.0	75.3	65.0	69.0	70.2	0.0	89.5	90.2	85.8	81.4	77.2	
리투아니아	69.0	70.6	70.2	75.7	72.3	69.2	74.5	72.6	69.8	60.1	49.6	66.5
멕시코	85.3	80.7	81.7	35.0	69.2	79.7	85.8	82.3	88.1	94.8	84.6	88.2
미국	44.4	92.0	16.9	0.0	0.0	45.2	8.8	0.0	79.6	92.3	96.8	97.1
베트남	91.1	0.0	68.6	81.0	92.4	89.1	92.2	94.8	0.0	91.9	95.7	83.4
벨기에		66.8	62.1	66.6	75.9	0.0	88.8	92.9	88.9	73.8	72.7	81.6
스웨덴	0.0	75.8	71.1	74.5	73.3	0.0	79.1	83.5	81.0	78.1	84.0	92.2
스위스	72.4			75.6		0.0	92.2	89.9	82.5	84.2	80.8	83.5
스페인	77.0	81.8	86.2	42.8	89.8	0.0	0.0	96.3	93.8	88.6	91.0	93.2
슬로바키아		64.6	72.7	63.0	69.6	68.6	71.8	70.0	74.7	77.0	77.5	88.3
슬로베니아	79.2	78.3	80.8	83.5	88.3	0.0	86.2	93.0	93.0	92.0	91.8	86.0
아이슬란드				69.2	73.1			80.0	84.4		0.0	78.0
아일랜드	82.8	82.7	81.1	87.6	85.9	0.0	92.9	86.8	82.1	87.8	81.3	86.3
에스토니아	0.0		64.9	60.1	57.7	55.4	57.9	66.9	59.1	47.0	47.2	62.9
영국	74.5	68.7	0.0	0.0	85.6	0.0	92.2	86.0	90.5	84.4	86.0	86.3
오스트리아		69.8	72.1	78.7	84.6	0.0	91.6	82.6	87.6	83.2	79.9	86.8
이스라엘	82.1	81.2	85.1	77.1	77.8	81.3	78.5	77.0	85.7	81.9		
이탈리아	72.5	73.1	74.9	41.5	91.1	0.0	97.3	93.9	94.9	89.1	92.2	94.1
일본	89.4	76.5	80.5	0.0	60.3	33.2	66.3	69.2	66.4	77.5	72.8	74.3
중국	86.9	79.0	94.4	42.2	93.9	73.4	93.9	92.6	88.9	90.2	90.2	90.9
체코		71.3	73.3	80.7	80.5	75.5	81.0	80.5	80.2	65.2		
칠레	80.1	77.0	82.2	79.1	82.8	74.3	87.1	88.7	86.6	88.9		
캐나다	45.2	87.6	27.4	0.0	12.3	45.4	32.2	0.0	90.0	92.1	93.6	95.3
콜롬비아	86.8	85.0	88.2	89.0	88.0	89.9	89.1	85.1	91.6	88.5	88.7	94.5
터키	0.0	0.0	0.0	0.0	0.0	0.0	65.9	65.9	76.3	63.4	66.2	68.6
포르투갈		75.2	76.0	82.7	85.6	45.3	88.8	88.1	83.8	89.8	92.6	85.3
폴란드	0.0	61.0	58.4	61.6	62.3	71.8	62.2	56.8	60.7	65.8	64.4	70.5
프랑스	69.0	71.6	76.8	35.6	72.4	0.0	88.4	90.8	87.8	87.2	81.5	85.6
핀란드		84.0	81.4	85.4	83.5	0.0	87.2	84.8	92.7	92.9	89.9	92.8
헝가리	0.0	84.9	82.6	76.4	68.2	72.1	69.6	77.3	80.5	68.5	70.6	74.4
호주		84.0	73.1	0.0	78.8	38.7	76.6	78.6	79.4	78.3	82.5	86.2
전체	61.4	72.8	47.3	34.7	74.0	28.6	78.0	74.0	81.3	82.0	80.6	84.8

주: 0.0은 해당 국가가 해당 시점에 특정 변수를 조사하지 않아 유효표본이 없는 경우이고, 공란은 국가별로 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해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표 3-4〉 기초통계량

구분		내용		
결과변수	삶의 평가(점)	6.4 (2.07, 1, 10)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여성	50.3	
		남성	49.8	
	만 나이(세)	만 나이	44.5 (17.80, 15, 100)	
	건강상태(%)	건강문제 없음	80.1	
		있음	19.9	
	혼인상태(%)	유배우(파트너)	61.9	
		별거, 이혼, 사별	11.2	
		미혼	26.9	
가구원 수 (아동 수)(명)	가구원 수	3.2 (1.64, 1, 10)		
	15세 이하 아동 수	0.6 (1.22, 0, 97)		
경제적 특성	교육수준(%)	초등교육 이하	24.4	
		중등교육	57.3	
		고등교육 이상	18.3	
	종사상 지위(%)	풀타임 근로자	37.1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7.2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5.8	
		자영업자	11.0	
		실업자	4.9	
		비경제활동인구	34.1	
	가구소득(PPP \$)	연간 가구소득	3,361.6 (79,684.49, 0, 74,800,000.0)	
		가구원 1인당 연간 가구소득	1,301.4 (20,282.25, 0, 18,700,000.0)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지(%)	없음	10.7
			있음	89.3
이타적 사회참여(%) (기부, 자원봉사)		기부	없음	64.9
			있음	35.1
		자원 봉사	없음	80.4
			있음	19.6
안전(%)		도난	없음	88.1
			있음	11.9
		폭행	없음	96.0
			있음	4.0
거버넌스 (부패)(%)		재계	부패하지 않음	35.1
			부패했음	64.6
		정치	부패하지 않음	35.4
			부패했음	64.6
선택의 자유(%)		만족하지 않음	19.2	
		만족	80.8	
미래 전망(%)	나아지고 있지 않음	53.2		
	나아지고 있음	46.9		

주: 삶의 평가, 만 나이, 가구원 수,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 괄호 밖 수치는 평균값이고, 괄호 안 수치는 순서대로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임. 개인 단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분석대상 유효표본의 결과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갤럽 월드 폴은 소득을 2009년부터 조사하여 조사 대상 기간을 2009년부터 최근까지로 한다. OECD 가입국을 주요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하되, 동아시아 국가로서 베트남과 중국을 제한적으로 포괄한다. 이 중에서 베트남은 2014년 이후 정치 부패인식, 2014, 2015, 2017년 재계 부패인식 및 선택의 자유를 질문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을 질문하지 않았다. 2020년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유일하게 2021년 조사 결과가 확인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전년도 재계 및 정치 부패인식을 조사하지 않았다. 2014~2016년 도난 경험, 선택의 자유를 조사하지 않았다. 즉,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일부 변수를 누락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표 3-4>는 전체 분석대상 유효표본의 기초통계량이다.

제4절 분석결과

1. 주요국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여기에서는 국제비교 관점에서 주요국의 행복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여 행복에 대한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보편성과 함께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의 특이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우선 <표 3-4>에서 확인한 전체 분석대상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합동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 Pooled OLS)에 따라 이 장의 분석모형을 활용한다. 그리고 한국인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전체 분석대상 유효표본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다음 <표 3-5>는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하여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된 행복에 대한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1)열의 Pooled OLS는 전체 분석대상 39개 국가 중 일부 변수가 누락된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37개 OECD 가입국의 분석 결과이다. (2)열은 한국인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1)열의 분석 결과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삶의 평가가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표본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회귀계수가 0.307로 Pooled OLS의 0.103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다. 만나이와 만 나이 제곱으로 측정하는 행복의 U자형은 Pooled OLS에서도, 한국의 표본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난다.¹²⁾ 건강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Pooled OLS의 계수 절대값 0.619에 비해 한국의 표본의 계수 절대값은 0.283으로 약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유배우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는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이혼, 별거, 사별한 집단과 미혼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인다. 다만 계수로 나타나는 영향력은 Pooled OLS에 비해 한국이 더 크다. 가구원 수는 Pooled OLS에서 행복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한계 수준에서 유의하다. 아동 수는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표본에서는 가구원 수와 아동 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경제적 요인으로서 Pooled OLS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이 유의하게 증가한다. 한국의 표본에서는 초등교육 이하 집단에 비해 고등교육 이상 집단의 삶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풀타임 근로자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종사상 지위별로는 Pooled OLS에서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의 삶의 평가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의 삶의 평가는 유의하게 낮다.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는 유의하게 높고, 실업자의 삶의 평가는 유의하게 낮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삶의 평가는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반면, 한국의 표본에서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파트타임 근로자와 실업자의 삶의 평가가 보이는 양상, 즉 계수의 방향은 Pooled OLS의 결과와 같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가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Pooled OLS의 결과와 달리, 한국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는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사실이다. 또한 Pooled OLS의 결과와 동일하게 비경제활동인구의 삶의 평가는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지만, 그 계수의 크기는 0.145로 Pooled OLS 0.056의 두 배 이상이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종사상 지위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를 암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 월소득은 높을수록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을 높이고, 이 경향은 Pooled OLS와 한국의 표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요인 중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평가를 높이고, 이 경향과 계수의 크기는 Pooled OLS와

12) 나이, 즉 생애주기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심층분석은 4장에 제시하기로 한다.

한국의 표본에서 유사하다. 이타적 사회참여로서 기부 경험과 자원봉사 경험 또한 Pooled OLS와 한국의 표본에서 모두 삶의 평가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데, 특히 자원봉사 경험의 계수가 한국의 표본에서 0.324로 나타나 Pooled OLS의 0.151의 두 배 이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안전과 관련해 도난 경험의 존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삶의 평가를 저해하며, 이 경향은 Pooled OLS와 한국의 표본에서 유사하다. 경제계와 정치 분야가 부패했다는 인식은 삶의 평가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해하는데, 이 경향 또한 Pooled OLS와 한국의 표본에서 일치한다.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은 Pooled OLS와 한국의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삶의 평가를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삶의 평가를 유의하게 높이고, 이 경향은 Pooled OLS와 한국의 표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3-5> 주요국의 행복 영향요인(갤럽 월드 폴): 칸트릴 사다리

구분	(1) Pooled OLS	(2) 대한민국
여성 더미	0.103*** (0.008)	0.307*** (0.048)
만 나이	-0.038*** (0.001)	-0.058*** (0.010)
만 나이 제곱(/100)	0.037*** (0.001)	0.051*** (0.010)
건강문제	-0.619*** (0.011)	-0.283*** (0.064)
혼인상태 (준거집단=유배우)		
이혼·별거·사별	-0.281*** (0.013)	-0.401** (0.125)
미혼	-0.160*** (0.012)	-0.467*** (0.090)
가구원 수	-0.007+ (0.003)	0.008 (0.023)
아동 수	-0.016*** (0.004)	0.026 (0.037)
교육수준 (준거집단=초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0.347*** (0.014)	0.044 (0.095)
고등교육 이상	0.620*** (0.015)	0.519*** (0.100)

구분	(1) Pooled OLS	(2) 대한민국
종사상 지위 (준거집단=풀타임 근로자)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153*** (0.015)	0.077 (0.089)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259*** (0.019)	-0.095 (0.119)
자영업자	0.042** (0.015)	-0.287*** (0.077)
실업자	-0.552*** (0.021)	-0.137 (0.119)
비경제활동인구	0.056*** (0.011)	0.145* (0.061)
로그 가구 월소득	0.188*** (0.005)	0.150*** (0.022)
사회적 지지체계	0.737*** (0.016)	0.730*** (0.067)
기부	0.209*** (0.008)	0.214*** (0.049)
자원봉사	0.151*** (0.009)	0.324*** (0.058)
도난경험	-0.227*** (0.013)	-0.317*** (0.094)
재계 부패인식	-0.132*** (0.011)	-0.308*** (0.067)
정치 부패인식	-0.158*** (0.011)	-0.140* (0.062)
선택의 자유	0.518*** (0.011)	0.519*** (0.048)
긍정적 미래 전망	0.551*** (0.009)	0.789*** (0.048)
국가 고정효과	○	X
연도 고정효과	○	○
국가별 시간 추세	○	X
상수	10.506 (20.352)	4.622*** (0.336)
유효표본	299,368	8,825
조정 R ²	0.280	0.246

주: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Pooled OLS는 분석대상 국가 중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변수값이 불균형한 베트남과 중국을 제외한 전수임. 부패인식 등 일부 조사 결과가 없는 베트남과 중국은 포함하지 않음.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p<0.1 * p<0.05 ***p<0.01 ****p<0.001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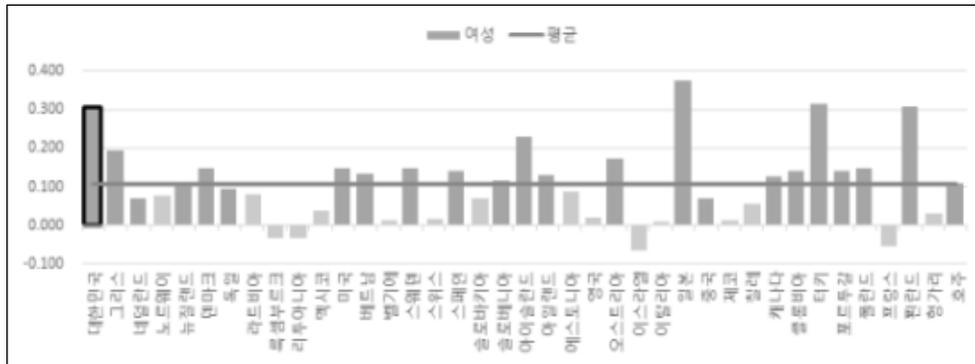
2. 행복에 미치는 요인의 국가별 영향력 비교

여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적 범위가 균형적인 갤럽 월드 폴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행복에 미치는 요인의 국가별 영향력을 비교한다. 39개 국가의 분석 결과는 <부표 1-2>에 제시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은 누락변수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표 3-2>에 제시한 설명변수를 통제한 영향력이다. 이를 통해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인구학적 특성

전반적으로 성별의 영향은 주요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 수준이 높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프랑스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 수준이 높지만 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여성의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국가 중 한국은 일본, 터키, 핀란드에 이어 행복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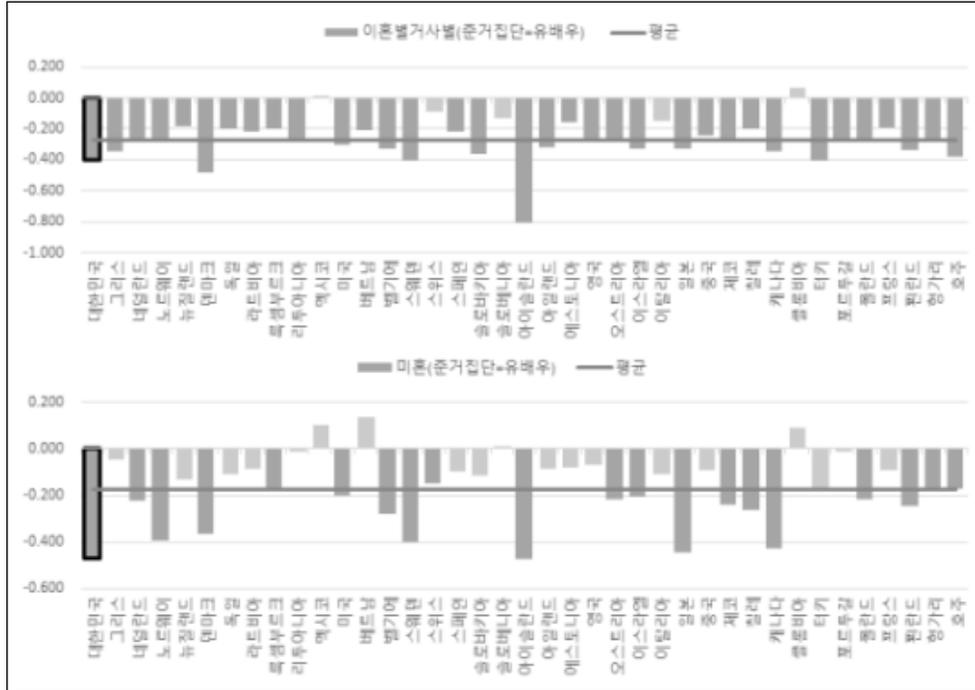
[그림 3-1]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력 비교: 성별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칸트릴 사다리모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계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부표 1-2>를 참고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그림 3-3]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력 비교: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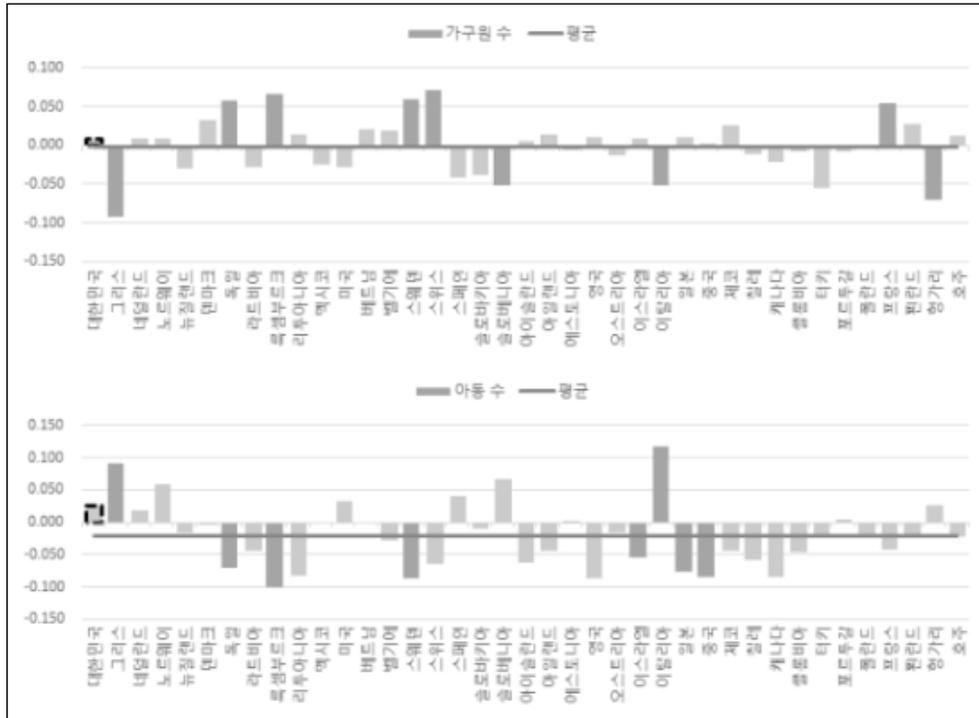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칸델라 사다리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계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부표 1-2>를 참고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다음 그림은 비교대상 국가의 행복에 대한 가구원 수와 아동 수의 영향력을 비교하고 있다. 한국의 표본에서 보여주는 가구원 수와 아동 수의 양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하지만 일부 국가, 예를 들어 독일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는 가구원 수가 행복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아동 수가 행복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국가 간 이질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4]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영향력 비교: 가구원과 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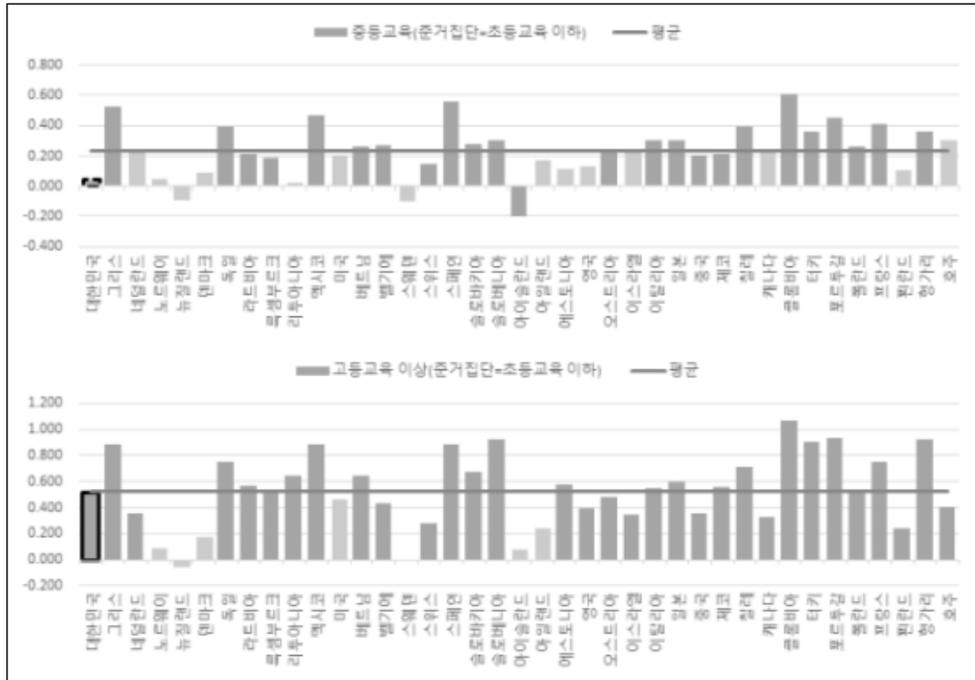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캔틸 사다리모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계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부표 1-2>를 참고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나. 경제적 특성

[그림 3-5]는 행복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비교하고 있다. 그리스, 독일, 멕시코, 스페인, 콜롬비아 등에서는 전체 평균적인 양적 영향에 비해 중등교육이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반면, 한국에서 중등교육의 영향은 영향력의 크기가 크지 않고 유의하지도 않다. 한국의 고등교육의 양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나지만 전체 평균적인 영향력의 크기 수준이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터키, 헝가리, 그리스, 멕시코,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른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5]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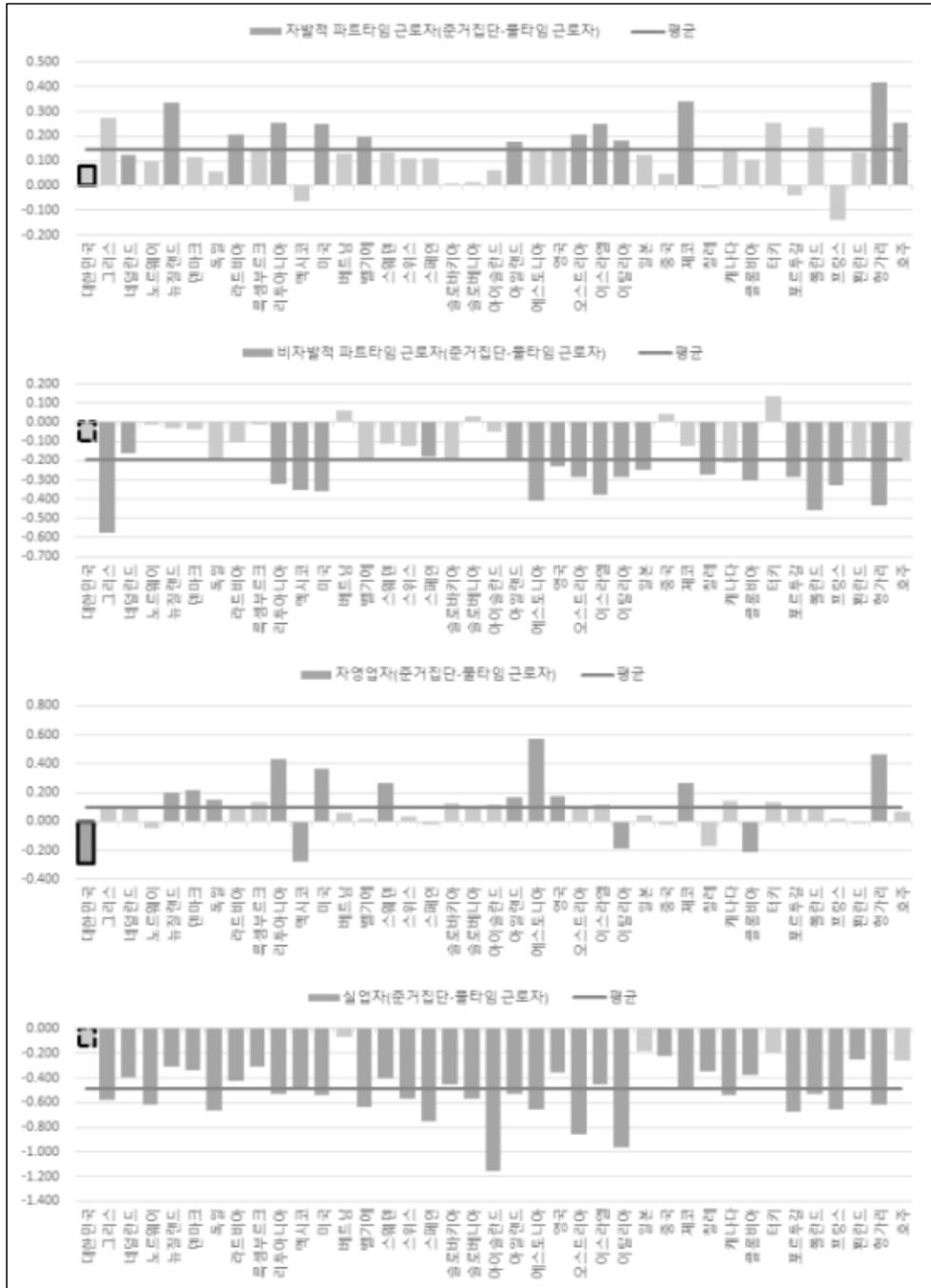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칸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계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부표 1-2>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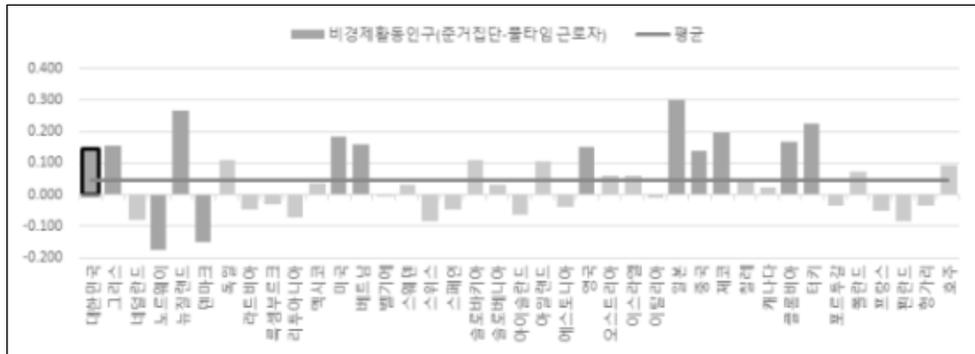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다음 그림은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에 미치는 종사상 지위의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다. 풀타임 근로자에 비교했을 때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의 양적 영향과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의 부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영향력의 크기가 전체 평균적인 영향력의 크기에 비해 크지 않다. 주목할 것은 자영업자의 부적 영향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이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경향과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유의한 부적 영향은 한국과 멕시코, 이탈리아, 콜롬비아에서 나타나는데, 영향력의 크기가 멕시코와 함께 가장 큰 편이다. 반면, 실업자의 부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작은 편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양적 영향은 전체 평균적인 영향력에 비해 크다. 결국, 주요 선진국의 경향과 달리 한국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영업자의 경험과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6] 갤럽 월드 폴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종사상 지위



7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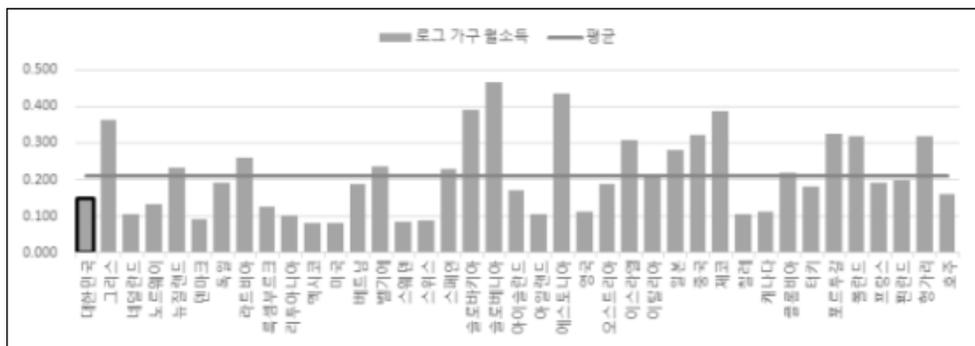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칸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계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부표 1-2>를 참고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높은 가구소득은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을 유의하게 증진 시키고, 이 경향은 39개 비교 대상 국가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난다. 영향력의 크기는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그리스 등지에서 비교적 크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의 크기는 전체 평균에 비해 작은 편이다.

[그림 3-7]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가구소득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칸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계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부표 1-2>를 참고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다. 사회적 특성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는 모든 비교대상 국가에서 행복에 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력의 크기는 미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는 전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림 3-8]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사회적 지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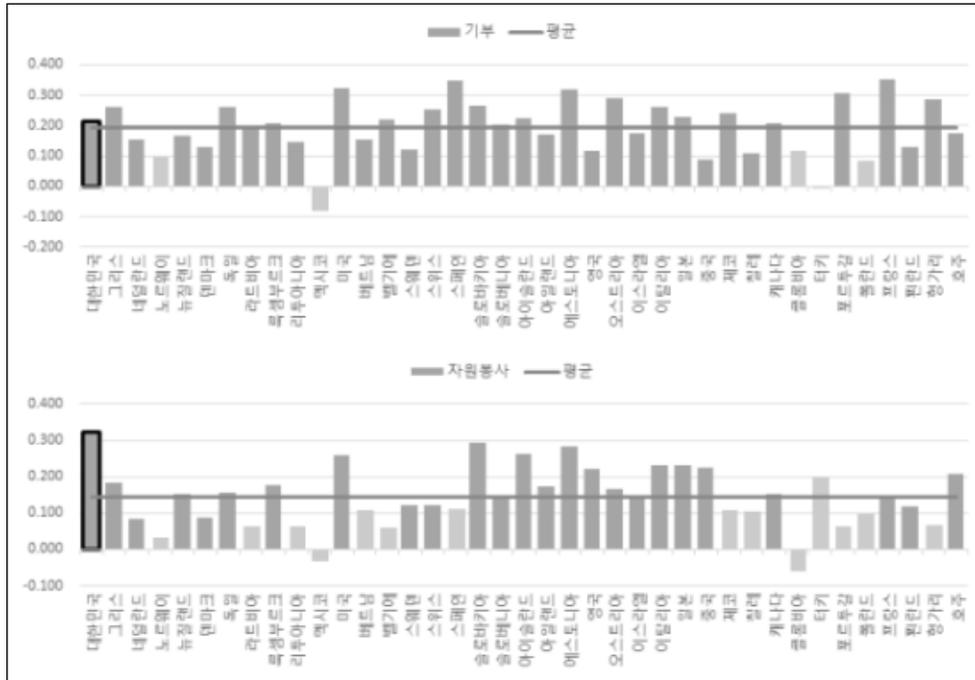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칸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계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부표 1-2>를 참고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이타적 사회참여는 금전을 쓰는 기부와 시간을 쓰는 자원봉사로 구분하였다. 기부와 자원봉사의 경험은 대부분 비교대상 국가에서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을 유의하게 증진시키고 있다. 기부가 보이는 영향력의 크기가 비교대상 국가의 평균과 유사한 데 비해 자원봉사가 보이는 영향력의 크기는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시간을 쓰는 자원봉사 등의 이타적 사회참여에 대한 심층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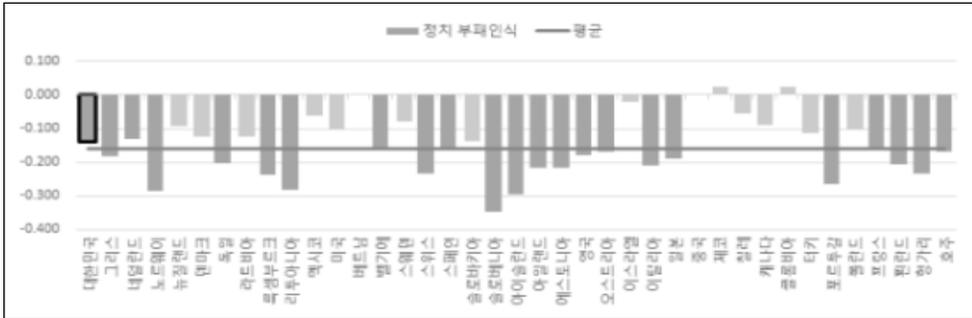
[그림 3-9]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이타적 사회참여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칸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계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부표 1-2>를 참고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물리적 안전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기본적인 기반이 된다. 행복에 대해 도난 경험은 모든 비교대상 국가에서 일관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스라엘에 이어 비교적 큰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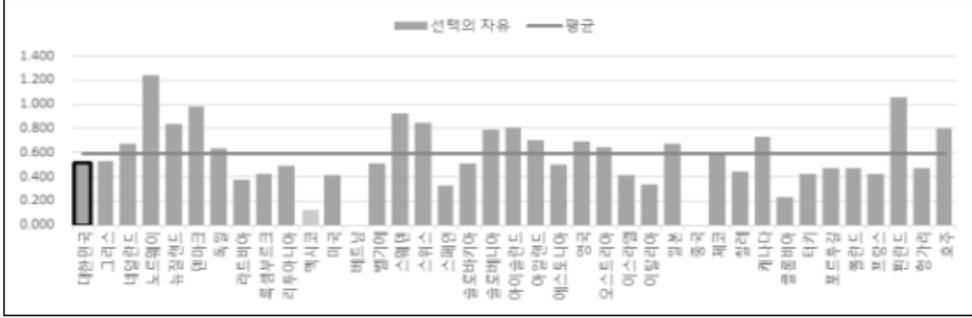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칸트릴 사다리모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계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부표 1-2>를 참고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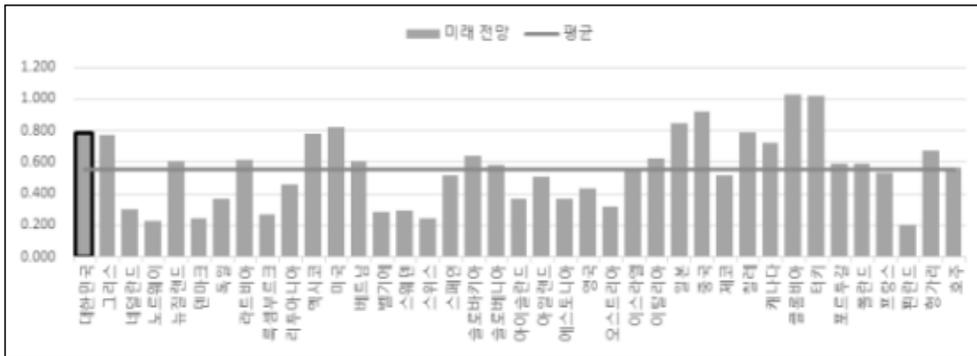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것은 현대인의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전체 비교대상 국가에서 모두 행복에 대해 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에서 그 영향력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선택의 자유가 가지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그 크기는 전체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림 3-12]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선택의 자유



현재보다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개인에게 현재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긍정적인 미래 전망은 전체 비교대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행복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 보이는 영향력의 크기는 콜롬비아, 터키,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림 3-13]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미래 전망



주: 평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9개 국가 대상 회귀분석 결과 도출한 회귀계수의 산술 평균값임. 대한민국은 실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혹은 점선(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으로 강조함. 개별 국가의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군을 통제한 영향력(Ceteris Paribus)임.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칸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에 양의 영향을, 0보다 작으면 음의 영향을 미침. 진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이고, 연한 회색 박스의 막대그래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임. 계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부표 1-2>를 참고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국제비교할 수 있는 서베이 자료인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해 현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보편적인 특성과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특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OECD에 가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분석대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의 평가가 유의하게 높고, 미혼 집단의 삶의 평가 수준이 가장 낮고 유배우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평가 수준이 높고,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가 삶의 평가 수준을 유의하게 높였고, 도난 경험이나 부패인식은 삶의 평가 수준

을 유의하게 저해했다. 인생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긍정적인 미래 인식이 삶의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결과 발견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특히 주목할 요인 중 하나는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이다. <표 3-5>의 결과에서 삶의 평가의 기댓값이 분석대상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연령에 따라 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기저의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김성아와 정해식(2019)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한국인 행복의 실제값은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우하향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연령에 따른 U자형의 행복이 어느 국가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한국인의 행복에서 나타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통계적 기댓값과 실제값과의 차이의 경향과 유사한 국가군이 있는지 국제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목할 요인은 종사상 지위 중에서도 자영업자이다.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와 실업자의 삶의 평가가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낮은 공통의 현상과 달리, 전체 분석대상 국가의 결과와 상반되게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덜 행복한 한국의 자영업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타적 사회참여로서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기부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자원봉사 경험이 삶의 평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한국인 대상 분석에서 유난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이다.¹³⁾ 그중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OECD에 가입한 비교적 신생 선진국이다. 게다가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이 충분히 높지는 않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여가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Wang & Wong, 2011), 관련 현황을 추가분석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13) OECD (2021a), Hours worked (indicator). doi: 10.1787/47be1c78-en (2021.11.2. 검색)



제4장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심층분석

제1절 연령과 행복

제2절 자영업자의 행복

제3절 자원봉사와 행복

제4절 소결

제4장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심층분석

이 장에서는 주요 선진국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보편성과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요인의 특이성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펴본다. 제3장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유독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심층분석하여 한국에의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연령에 따른 한국인의 행복 수준의 특성을 주요 국가군과 비교하고, 제2절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영향을 심층분석한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이타적 사회참여로서 자원봉사 경험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제4절에서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한국에의 실천적 함의를 종합하고자 한다.

제1절 연령과 행복

1. 분석모형

행복은 주요 선진국에서 연령에 따라 U자형을 보이는 이차함수로 알려져 있다¹⁴⁾. 하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기댓값이 연령에 따른 U자형을 보이는 것과 달리,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우하향 경향이 확인된다(김성아, 정해식, 2019). 여기에서는 국제비교 관점에서 연령에 따른 행복의 분포를 확인하고 한국인 행복의 특성과 상이한 혹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국가를 발견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수식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국가 및 시점 특성, 개

14) Blanchflower & Oswald, 2004; Blanchflower & Oswald, 2008; Blanchflower & Oswald, 2009; Frijters & Beaton, 2012; Helliwell, Norton, Huang & Wang, 2018; Blanchflower & Oswald, 2017; Clark, d'Albis & Greulich, 2020; Jebb, Morrison, Tay & Diener, 2020; Blanchflower, 2021 등 참조

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여 국가군별 연령에 따른 행복 수준의 변화 및 실제 값과 기댓값의 차이를 실증분석한다.

이러한 전략은 연령과 행복 간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 Blanchflower¹⁵⁾와 Glenn(2009)의 논쟁을 참조한 것이다. Glenn(2009)는 연령과 행복의 관계를 실증분석할 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실제값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반면, Blanchflower는 선진국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통제 유무와 상관없이 행복 수준이 연령에 따라 40대 후반에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을 보이고, 실증분석에서 누락변수편의로 인한 오류를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2021년 논문에서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 변화가 ‘신화가 아니다(No myth)’라고 선언했다 (Blanchflower, 2021, p.620).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총행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Blanchflower와 Glenn의 논쟁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즉, 선진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령과 행복의 정형화된 관계와 다르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여부에 따른 한국인 행복의 실제 값과 기댓값이 차이를 보이고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국가군을 발견한다면 한국인의 총 행복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고려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1) Y_{ijt} = \beta_0 + \sum_{a=15}^A \beta_a age_{ijt} + \epsilon_{ijt}$$

국제비교 관점에서 한국인의 연령과 행복 간 관계의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한 (1)번 수식은 ‘기본모형’으로 여기에서 Y_{ijt} 는 국가 j 에 거주하는 개인 i 가 t 연도에 경험하는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age_{ijt} 는 연령 터미이고, ϵ_{ijt} 는 오차항이다. 여기에서 $\hat{\beta}_a$ 은 최소 연령인 15세를 기준으로 1세별 행복 지표값의 변화량으로 행복의 연령 1세 단위별 실제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Y_{ijt} = \beta_0 + \sum_{a=15}^A \beta_a age_{ijt} + \tau_j + \rho_t + \sigma_{jt} + \epsilon_{ijt}$$

15) Blanchflower & Oswald, 2009; Blanchflower & Oswald, 2017; Blanchflower, 2021을 참조

(2)번 수식은 ‘고정효과 모형’으로 (1)번 수식에서 국가 고정효과(τ_j), 연도 고정효과(ρ_t), 국가별 시간 추세(σ_{jt})를 추가 통제한다. 여기에서 $\hat{\beta}_a$ 은 개인이 소속된 국가와 시점 특성을 고려한 행복의 연령 1세 단위별 제한적인 실제값으로 볼 수 있다.

$$(3) \quad Y_{ijt} = \beta_0 + \sum_{a=15}^A \beta_a age_{ijt} + \beta_k X_{ijt} + \tau_j + \rho_t + \sigma_{jt} + \epsilon_{ijt}$$

마지막으로 (3)번 수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모형’으로 (2)번 수식에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벡터(X_{ijt})를 추가 통제한다. 여기에서 $\hat{\beta}_a$ 은 개인이 속한 국가와 시점 특성과 함께 개인 단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기댓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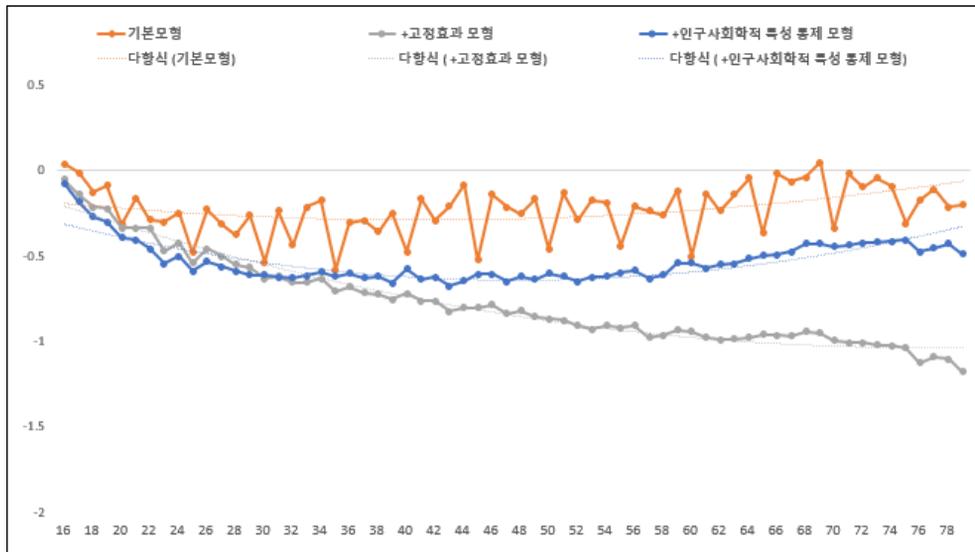
(1)번의 수식에 의해 확보하는 연령 더미변수의 계수를 행복의 연령별 행복의 실제값 추세로, (2)번의 수식을 통해 국가와 연도, 그리고 국가별 시간 추세를 통제하여 확보하는 연령 더미변수의 계수는 행복에 대한 국가별 고유한 특성과 시간의 영향을 고려한 제한적인 실제값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3)번 수식에 의해 제3장 제2절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다수의 문헌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후 확보한 연령 더미변수의 계수는 소득이나 교육수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기대되는 행복의 기댓값 추세로 조작적 정의한다.

연령과 행복의 관계에서 주목할 특성은 U자형 혹은 우하향의 연령에 따른 영향력 패턴과 함께 행복의 최저점과 최고점 간 깊이이다. 40대 후반에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일 때, U자형의 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감소폭의 크기 자체가 충분히 크지 않을 수 있다. 연령에 따라 행복이 감소하는 우하향 패턴을 보이더라도 감소폭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실천적 함의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감소폭이 충분히 크면 연령에 따른 행복의 변화에 주목할 정책적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세계인의 연령과 행복

[그림 4-1]은 갤럽 월드 폴 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1,097,178명을 유효표본으로 하여 분석한 연령과 행복의 측정지표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모형에 의해 기본 모형이 15세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1세별 '삶의 평가' 실제값이고, 고정효과모형은 국가와 시점 특성을 통제한 제한적인 실제값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모형은 개인 단위 특성을 통제한 기댓값이다. 이 결과는 OECD에 가입하고 있는 선진국부터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까지의 151개국의 지리적 범위뿐만 아니라 2009~2021년의 시간적 범위를 포괄한다. 분석 결과, 세계인의 삶의 평가 실제값은 연령에 따라 변동하면서도 40대 무렵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는 U자형을 보이지만,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제한적인 실제값은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우하향 경향을 보인다.

[그림 4-1] 세계인의 연령별 삶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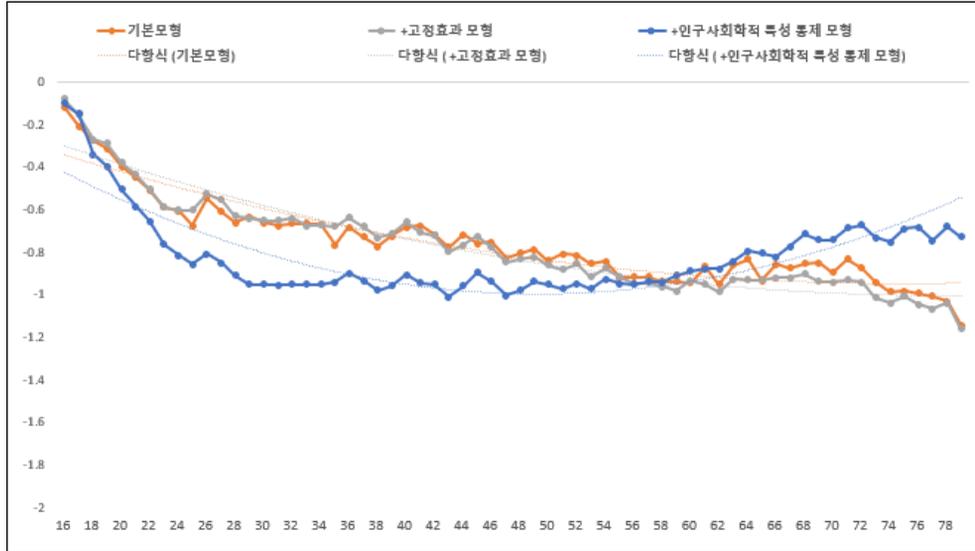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기본모형은 만 나이의 더미변수만 투입하였고, 고정효과모형은 기본모형에 국가 및 연도 더미변수와 국가별 추세만 투입하였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은 연도 고정효과모형에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9~2021년 전 세계 151개국 유효표본 1,097,178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삶의 평가 기댓값은 그 수준이 높아지고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지만 대략적인 U자형의 형태를 띤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145개 국가에서 연령에 따라 일관적인 U자형의 행복 경향을 확인한 Blanchflower(2021)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와 시점 고정효과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기본모형의 실제값이 연령에 따라 우하향하는 경향은 한국의 맥락에서 동일한 현상을 확인한 김성아와 정해식(2019)의 발견과 일관되는 것이어서 국가군별 연령과 행복 간 관계와 함께 한국의 고유한 특성을 비교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 4-2]는 OECD에 가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국민의 연령과 행복 간 관계를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4-1]과 다르게 기본모형의 실제값, 특히 고정효과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은 연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50대 후반 이후 삶의 평가 수준이 다소 회복하다가 70대부터 다시 감소하는 S자형을 띤다. 반면 기댓값은 40대 후반에 최저점을 갖는 U자형과 함께 70대 이후에 다소 정체하는 경향을 보여 중년의 위기, 그리고 후기노인의 2차 위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값과 기댓값의 차이가 선진국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15세의 삶의 평가 수준이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회복세가 크지 않다.

[그림 4-2] 주요 국가 국민의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터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기본모형은 만나이의 터미변수만 투입하였고, 고정효과모형은 기본모형에 국가 및 연도 터미변수와 국가별 추세만 투입하였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은 연도 고정효과모형에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9~2020년 유효표본 299,368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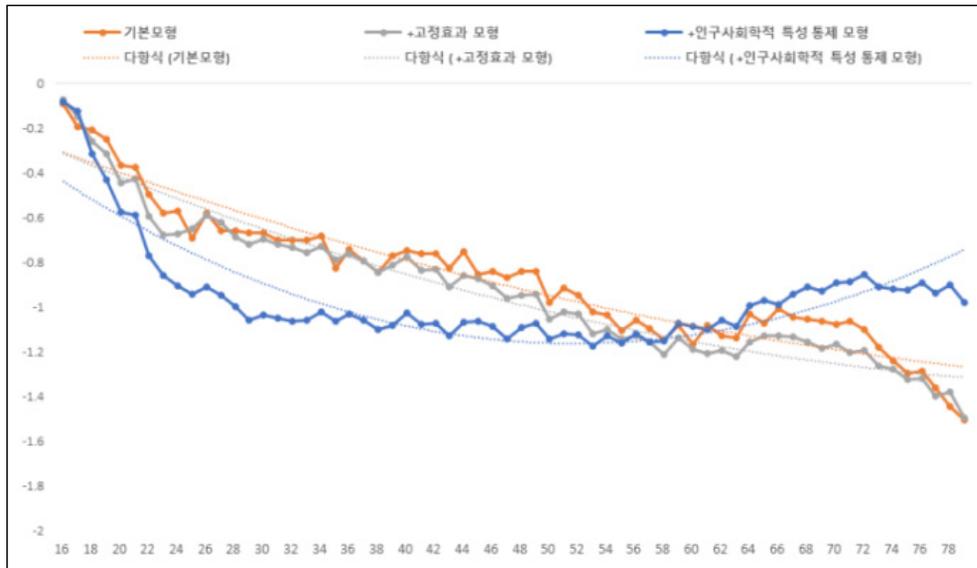
3. 국가군별 국민의 연령과 행복

여기에서는 선진국의 연령별 삶의 평가에서 확인한 바 있는 U자형, 혹은 특히 기본 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의 S자형 패턴이 두드러지는 연령과 행복의 관계를 주요 국가군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검토한다. 유럽과 영미권, 중남미 지역과 아시아 국가군을 검토하며, 일부 아시아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군의 결과는 부록에서 제시한다.

가. 유럽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는 [그림 4-3]과 같다. [그림 4-2]의 결과에서 확인한 기본모형의 삶의 평가 실제값과 고정효과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이 연령에 따라 점차 낮아지되 60대 초중반에서 다소 증가하였다가 70대 후반에 다시 감소하는 S자형의 패턴이 반복된다. 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삶의 평가 기댓값은 50대 초반까지 감소하는 U자형과 70대 이후에 정체하고 있다.

[그림 4-3] 유럽연합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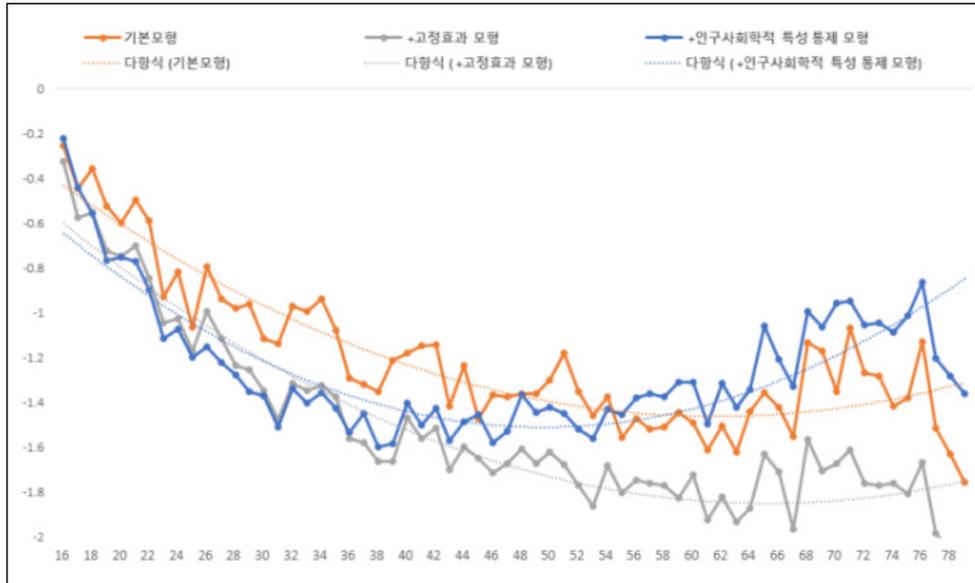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5~2021년 유효표본 227,975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로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그림 4-4]는 유럽연합 이외 유럽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수준이다. 기본모형의 삶의 평가 실제값과 고정효과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은 60대까지 감소하지만 이후에 다시 증가했다가 70대 후반에 다시 감소하는 S자형을 보인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통제한 삶의 평가 기댓값은 40대까지 감소했다가 70대 중반까지 증가하여 U자형을 보이고 70대 후반에 다시 감소하여 후기 노인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 유럽연합 외 유럽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65~2020년 유효표본 58,829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보츠나나, 북마케도니아, 북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영국, 코소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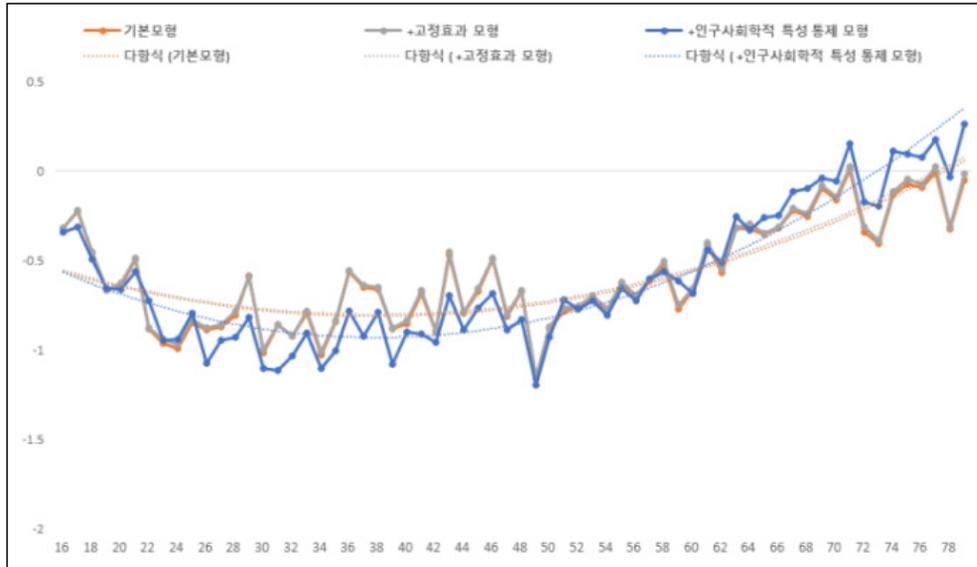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나. 오세아니아 및 북미권

[그림 4-5]는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수준이다. 기본모형의 삶의 평가 실제값과 고정효과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기댓값이 전반적으로 30대 후반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선명한 U자형을 보이고 있어 유럽 국가의 경향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60대 이후 삶의 평가 수준은 15세 시점의 수준을 초과하고, 70대 초반에 삶의 평가 수준이 약간 감소

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는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5] 오세아니아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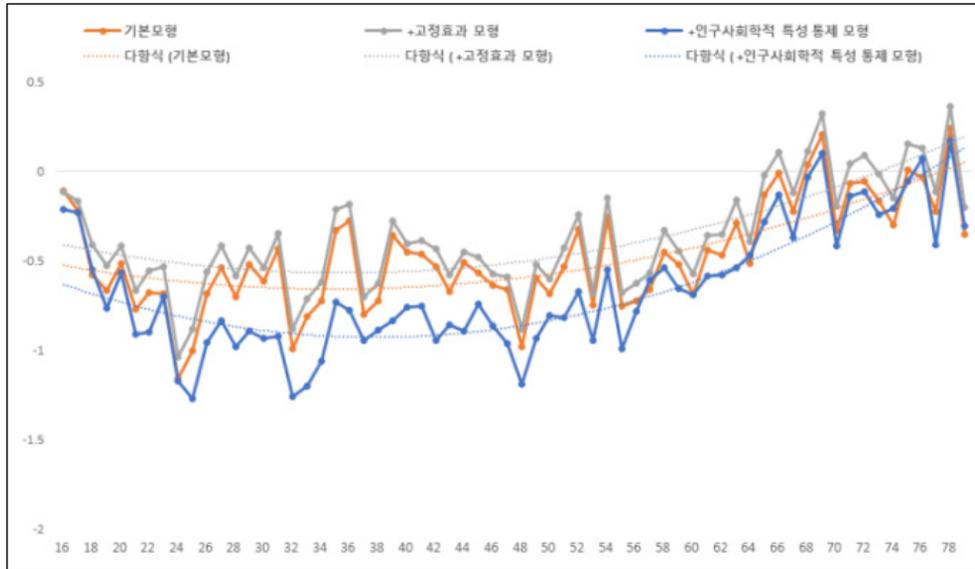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5~2020년 유효표본 16,178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미국과 캐나다 국민의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수준은 다음 [그림 4-6]과 같다. 오세아니아 국가에서 확인한 경향과 유사하게, 기본모형의 삶의 평가 실제값과 고정효과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기댓값이 모두 20대 초반까지 급감했다가 점차 등락을 보이며 회복하되 전반적인 다항식에서는 30대 후반에 최저수준을 보이는, 연령에 따라 선명한 U자형의 삶의 평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본모형과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실제값은 기댓값에 비해 감소폭이 적다는 점은 오세아니아 국가에서 확인한 경향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노년기에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림 4-6] 북미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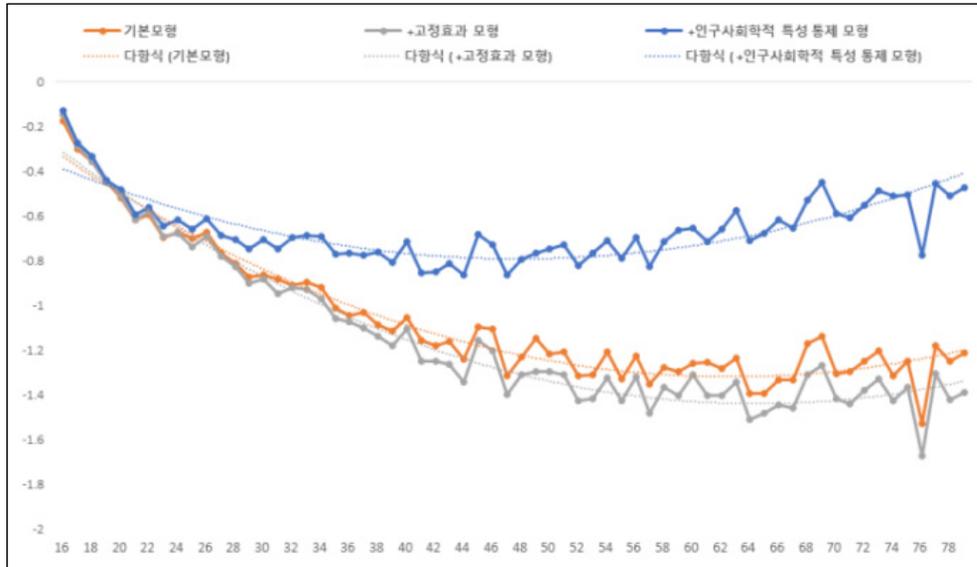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경제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5~2020년 유효표본 13,005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다. 중남미

다음 [그림 4-7]은 중남미 국가 국민의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수준 변화이다. 기본 모형의 삶의 평가 실제값과 고정효과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이 연령에 따라 60대 후반까지 점차 낮아지는 U자형을 닮은 우하향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기댓값은 50대까지 낮아졌다가 회복하는 완만한 U자형의 형태를 보여 유럽 및 영미권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패턴과 다소 상이하다. 다만, 실제값과 기댓값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그림 4-7] 중남미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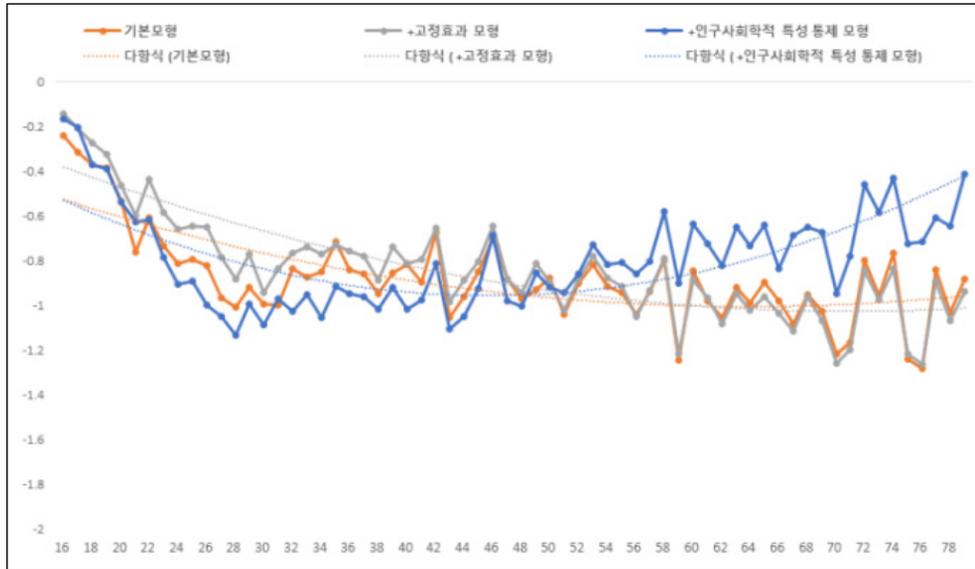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5~2021년 유효표본 181,449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온두라스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라. 아시아

다음은 아시아 국가 국민의 연령과 행복 간 관계이다. [그림 4-8]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군의 결과이다. 중남미 국가군에서 확인한 것과 유사하게, 기본모형의 삶의 평가 실제값과 고정효과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이 연령에 따라 60대 후반까지 점차 낮아지는 U자형을 닮은 완만한 우하향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기댓값은 실제값과 유사하게 20대까지 급감했다가 30대에 완만하게 40대 중반까지 낮아지는 U자형을 보인다. 주목할 것은 중남미 국가군에서 확인한 것과 달리, 실제값과 기댓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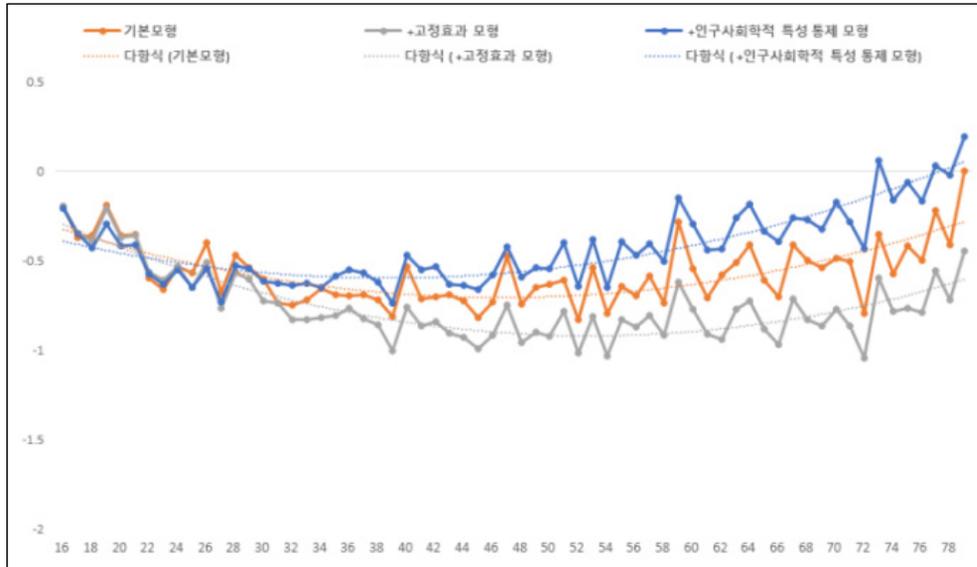
[그림 4-8] 동아시아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경제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5~2020년 유효표본 37,495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대만, 대한민국, 몽골, 일본, 중국, 홍콩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다음 [그림 4-9]는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수준 변화이다. 기본 모형의 삶의 평가 실제값과 고정효과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기댓값이 15세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U자형의 경향을 보이지만, 연령에 따른 감소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고정효과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에 비해 기본모형의 실제값이 다소 높고, 기댓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최저수준이 확인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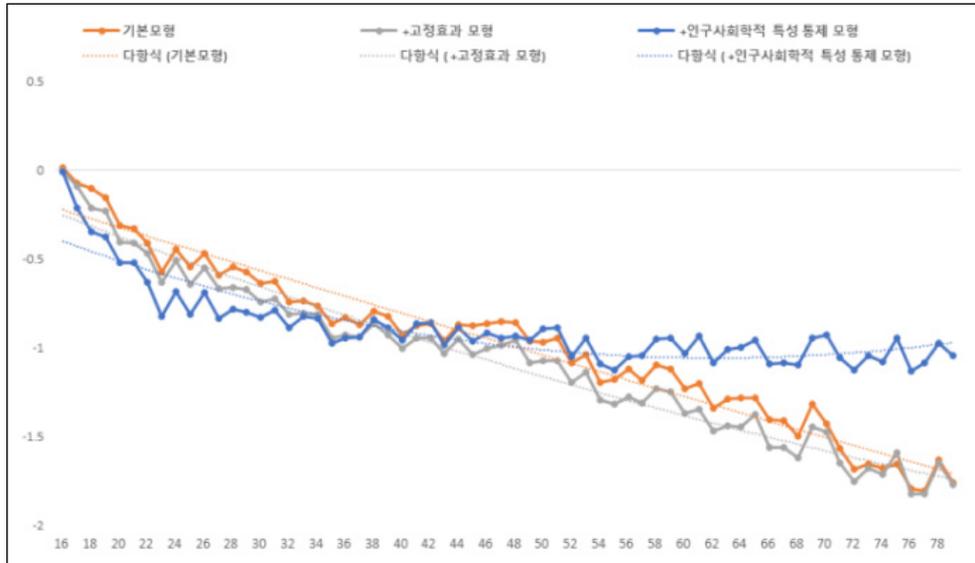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6~2021년 유효표본 63,448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그림 4-10]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 국민의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수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하면서 독립한 국가들의 기구이다. 기본모형의 삶의 평가 실제값과 고정효과 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이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우하향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확인한 유럽, 영미권, 중남미, 아시아 다른 국가군의 경향과는 다른 것이다. 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삶의 평가 기댓값은 60대까지 감소했다가 70대에 유지되는 완만한 U자형의 형태를 보인다.

[그림 4-10] 독립국가연합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기준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0~2020년 유효표본 80,062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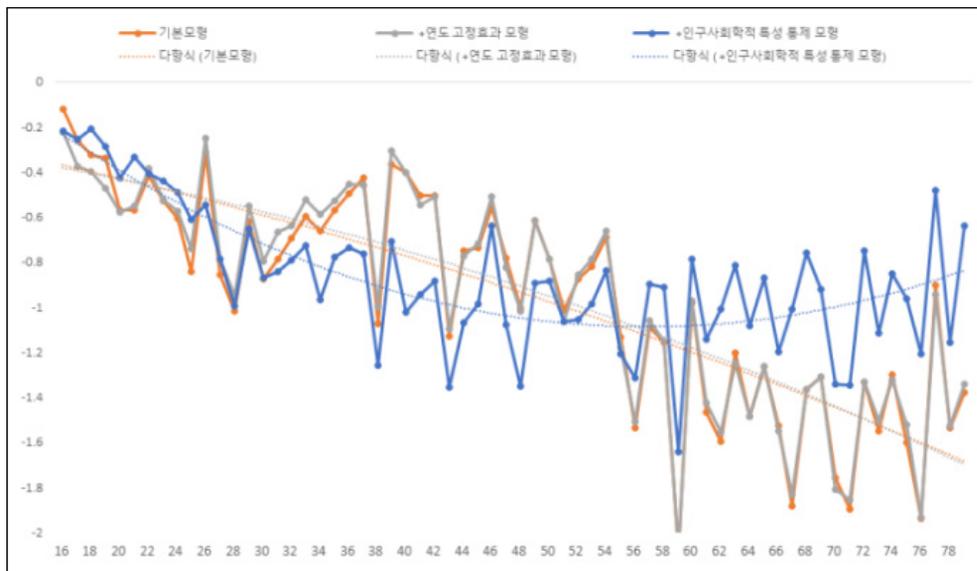
4. 한국인의 연령과 행복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수준 변화는 [그림 4-11]에 제시하였다. 앞서 확인한 다른 국가군에 비해 연령 1세별 등락이 다소 크다. 더욱이 기본모형의 삶의 평가 실제값과 고정효과모형의 제한적인 실제값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면서도 오히려 약간 볼록한 우하향 경향을 보인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기댓값은 50대 후반까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완만한 U자형을 보인다. 이러한 실제값과 기댓값의 경향은 독립국가연합과 유사하다. 반면, 독립국가연합 국가군에서 확인한 경향에 비해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지 않다.

연령에 따라 중년까지 행복의 측정 지표의 기댓값이 낮아지는 경향은 50대까지 생애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의 존재를 방증한다(Blanchflower & Oswald, 2004;

Blanchflower & Oswald, 2008; Blanchflower & Oswald, 2009; Frijters & Beatton, 2012; Helliwell, Norton, Huang & Wang, 2018, Blanchflower & Oswald, 2017, Clark, d'Albis & Greulich, 2020, Jebb, Morrison, Tay & Diener, 2020; Blanchflower, 2021). 하지만 실제값이 연령에 따라 일관되게 낮아지는 것은 중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생애과업 이후에도 은퇴를 앞두고 행복한 노년기를 바라고 누리기에 부족한 한국인의 생애 부담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중고령기에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실제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행복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삶의 평가 실제값의 감소 추세가 기댓값의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중년층과 노년층이 취약계층일 수 있다.

[그림 4-11] 연령별 한국인의 삶의 평가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기본모형은 만나이의 더미변수만 투입하였고, 연도 고정효과 모형은 기본모형에 연도 더미변수만 투입하였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은 연도 고정효과 모형에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9~2020년 유효표본 8,825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제2절 자영업자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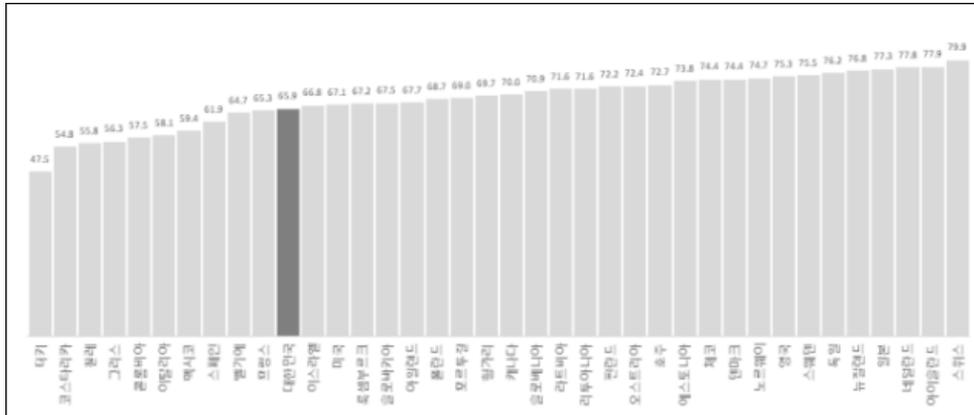
1.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현황

앞선 제3장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에 미치는 종사상 지위의 영향을 살펴본 바 있다(그림 3-6). 한국인의 행복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가,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이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높은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자영업자는 유의한 수준에서 낮다는 점이었다. 여기에서는 자영업자의 행복에 대해 심층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9%로 경제활동인구 3명 중 2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OECD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의 평균인 66.3%에 비해 0.4%p 정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7%로 같은 시기 OECD 평균인 5.3%를 밑돌아¹⁶⁾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2] 주요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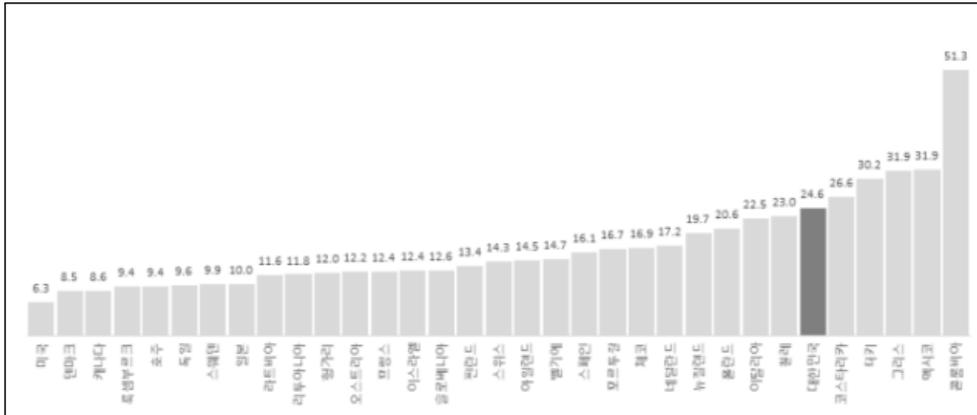
주: 15-6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20년 기준임.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6#>에서 2021.10.13. 인출 후 연구진이 그림 작성)

16) OECD (2021b), Un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52570002-en (2021.11.4. 인출)

다음 [그림 4-13]은 OECD 가입국의 자영업자 비율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이다(51.3%).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4.6%로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31.7%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점차 감소해왔으나 OECD 가입국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¹⁷⁾.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나 남유럽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한국 자영업자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림 4-13]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단위: %)



주: 2020년 기준이며, 최근 자료가 없는 일부 국가는 2019년 자료임. 15-64세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임.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https://stats.oecd.org/BrandedView.aspx?oecd_bv_id=ifs-data-en&doi=data-00286-en#)에서 2021.10.13. 인출 후 연구진이 그림 작성)

2. 주요 국가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과 영향요인

가. 주요 국가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

[그림 4-14]는 갤럽 월드 폴 자료를 활용한 분석대상 국가별 전체 인구의 행복 수준과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을 비교한 그림이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일본, 대한민국,

17)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https://stats.oecd.org/BrandedView.aspx?oecd_bv_id=ifs-data-en&doi=data-00286-en#)에서 2021.10.13. 인출)

나. 주요 국가 자영업자의 행복 영향요인

〈표 4-1〉은 갤럽 월드 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석대상 국가와 한국 자영업자에 주목한 기초통계량이다. 분석대상 국가군은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34.0%인 것에 비해 한국은 30.9%로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이는 49.7세로 분석대상 국가 평균 46.1세에 비해 다소 높다.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가 20.8%로 분석대상 국가 15.0%에 비해 다소 높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76.7%로 분석대상 국가 71.0%에 비해 다소 높다. 가구원 수는 3.3명으로 분석대상 국가 3.4명에 비해 0.1명 적은데, 특히 아동 수가 0.5명으로 분석대상 국가 0.7명에 비해 0.2명 적다. 교육수준은 고등교육 이상의 비율이 35.2%로 분석대상 국가 21.4%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도 높은 편이다. 기부경험은 41.5%로 분석대상 국가 42.0%에 비해 다소 낮고, 자원봉사 경험도 20.9%로 분석대상 국가 24.1%보다 낮다. 도난 경험은 9.7%로 분석대상 국가 14.6%에 비해 낮고, 재계와 정계가 부패했다는 인식은 각각 80.3%와 78.9%로 분석대상 국가 67.4%와 68.0%에 비해 높다. 선택의 자유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65.4%로 분석대상 국가 81.2%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비율은 50.9%로 분석대상 국가 44.2%에 비해 높다.

전반적으로 한국 자영업자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을 포괄하는 분석대상 국가군의 자영업자에 비해 나이와 교육수준이 높고 남성이 많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반면, 가구원 수는 적어 직접적인 부양 부담은 적을 수 있다. 도난 경험은 적지만 기부나 자원봉사 등의 이타적 사회참여 비율은 비슷하고 선택의 자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시간과 노력의 상당 부분을 일에 투자하고 있을 수 있다. 전반적인 부패인식이 높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표 4-2〉는 한국과 함께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전체 인구에 비해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이 낮은 콜롬비아와 멕시코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 자영업자는 콜롬비아와 유사하게 여성일수록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멕시코와 유사하게 연령에 따라 삶의 평가에 대해 U자형이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건강문제가 삶의 평가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멕시코와 다르게, 한국 자영업자에 미치는 건강문제의 부정 영향은 콜롬비아와 유사하게 유의하지 않다. 자영업자의 혼인상태는 3개 나라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구원

수와 아동 수도 그러하다.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초등교육 이하 집단에 비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고학력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가 긍정적이지만 한국 자영업자 삶의 평가에 대해서 교육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개 국가에서 모두 가구 월소득은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표 4-1> 자영업자 기초통계량

구분	분석대상 국가		대한민국		
	전체 (n=298,845)	자영업자 (n=23,087)	전체 (n=8,590)	자영업자 (n=1,134)	
여성(x100=%)	0.504	0.340	0.495	0.309	
만 나이(세)	45.187	46.078	41.849	49.742	
건강문제(x100=%)	0.205	0.150	0.198	0.208	
혼인상태(x100=%)	유배우(파트너)	59.450	70.960	57.320	76.740
	별거, 이혼, 사별	12.450	9.560	5.440	7.070
	미혼	28.100	19.490	37.240	16.190
가구원 수(명)	3.155	3.430	3.334	3.334	
아동 수(명)	0.561	0.679	0.435	0.451	
교육수준(x100=%)	초등교육 이하	17.840	18.320	12.920	16.170
	중등교육	61.850	60.330	48.350	48.610
	고등교육 이상	20.310	21.350	38.720	35.220
가구소득(PPP \$)	3762.446	4048.300	5002.484	5163.143	
사회적 지지체계 있음(x100=%)	0.911	0.894	0.813	0.755	
기부 경험 있음(x100=%)	0.391	0.420	0.352	0.415	
자원봉사 경험 있음(x100=%)	0.218	0.241	0.197	0.209	
도난 경험 있음(x100=%)	0.119	0.146	0.067	0.097	
재계 부패했음(x100=%)	0.647	0.674	0.809	0.803	
정계 부패했음(x100=%)	0.646	0.680	0.779	0.789	
선택의 자유 만족함(x100=%)	0.802	0.812	0.620	0.654	
긍정적 미래 전망(x100=%)	0.410	0.442	0.552	0.509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2009-2020년 표본 중 분석에서 활용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보가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함. 38개 분석대상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는 3개 국가에서 모두 자영업자 삶의 평가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부와 자원봉사 경험이 가질 수 있는 양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한계수준에서 유의하다. 도난 경험은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적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부패인식은 경제 분야에 대한 인식만이 콜롬비아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그 외 대한민국과 멕시코 자영업자의 삶의 평가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 영역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질 수 있는 부적 영향 또한 유의하지 않다.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만족감은 콜롬비아와 멕시코와 달리 한국인 자영업자 삶의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미래 전망은 3개 국가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자영업자의 행복, 특히 한국에서 자영업자의 행복에 주목하면, 남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분석대상 국가에 비해 높지만 여성 자영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덜 행복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 손실이나 부정적 미래 전망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부적 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산과 거리 두기로 인해 존재한 소상공인의 소득 손실을 일상 회복 단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보상하려는 정책 노력은 유효할 수 있다. 더욱이 삶의 행복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립되지 않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생애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자율성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한국의 자영업자는 자율성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지 않았다(최문경, 이명진, 2005).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개인의 선호나 필요에 의해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자유로운 생애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표 4-2>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삶의 평가 영향요인

구분	대한민국	콜롬비아	멕시코
여성 더미	0.483*** (0.143)	0.479*** (0.126)	0.085 (0.160)
만 나이	-0.087* (0.039)	-0.032 (0.026)	-0.041+ (0.025)
만 나이 제곱(/100)	0.103** (0.040)	0.047+ (0.028)	0.048+ (0.026)
건강문제	0.018 (0.175)	-0.265 (0.191)	-0.471* (0.204)
혼인상태(준거집단=유배우)			
이혼·별거·사별	-0.515 (0.326)	-0.139 (0.208)	0.239 (0.219)
미혼	-0.078 (0.253)	0.229 (0.148)	0.060 (0.190)
가구원 수	-0.030 (0.058)	-0.073 (0.045)	0.048 (0.041)
아동 수	0.155 (0.097)	-0.013 (0.079)	0.001 (0.007)
교육수준 (준거집단=초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0.061 (0.264)	0.976*** (0.174)	0.417* (0.202)
고등교육 이상	0.572+ (0.297)	1.592*** (0.225)	1.338*** (0.288)
로그 가구 월소득	0.318** (0.106)	0.291*** (0.067)	0.280** (0.108)
사회적 지지체계	0.522** (0.166)	0.494* (0.200)	0.470* (0.208)
기부	0.256+ (0.141)	0.060 (0.159)	-0.195 (0.190)
자원봉사	0.075 (0.158)	0.281+ (0.169)	-0.122 (0.223)
도난경험	-0.382 (0.279)	-0.231 (0.149)	-0.022 (0.168)
재계 부패인식	-0.029 (0.187)	-0.427* (0.211)	-0.068 (0.185)
정치 부패인식	-0.018 (0.196)	0.033 (0.238)	0.002 (0.238)
선택의 자유	0.477** (0.146)	0.255 (0.178)	0.285 (0.204)
긍정적 미래 전망	0.761*** (0.141)	1.198*** (0.148)	0.657*** (0.164)
연도 고정효과	○	○	○
상수	3.142* (1.329)	2.998*** (0.872)	4.335*** (0.954)
유효표본	1134	1800	1091
조정 R ²	0.172	0.195	0.127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2009-2020년 표본 중 분석에서 활용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보가 있는 자영업자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함.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제3절 자원봉사와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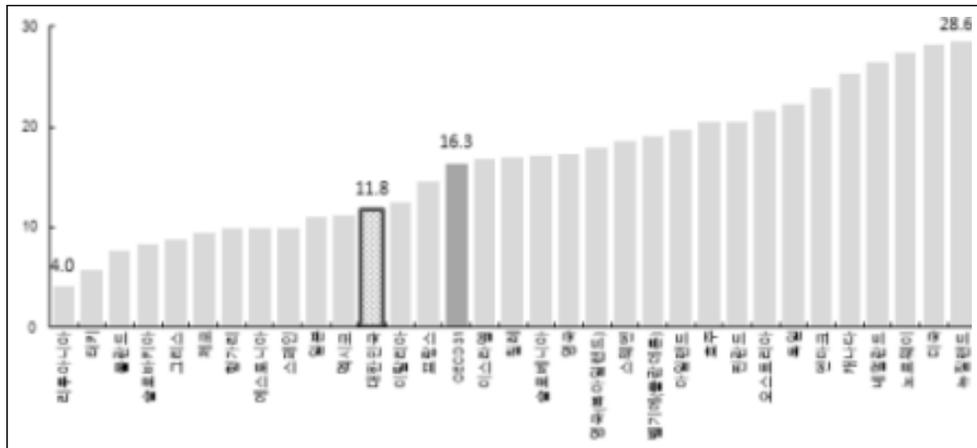
1.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 참여율

OECD(2015, p.192)에서는 자원봉사를 무급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시간을 써서 참여하는 행태라고 보면서 가족을 위한 활동과 구분하였다. 자원봉사 같은 이타적 사회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OECD, 2020, pp.234-236). 특히 자원봉사는 금전적으로 기여하는 기부와 달리, 공적인 가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행위이다. 이로써 개인의 효용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의 효용에 의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1.8%로 OECD 평균 16.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뉴질랜드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8.6%로 가장 높고,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뒤를 잇는다. 그리고 영미권과 북유럽, 대륙유럽 국가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리투아니아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4.0%로 가장 낮고,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다.

[그림 4-15]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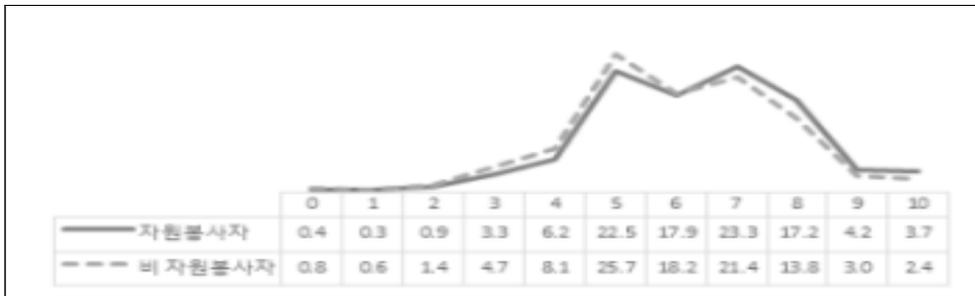
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공적인 기관에서 자원봉사한 인구의 비율임. 국가별 2011~2017년 중 최근 자료임. 원자료는 OECD 성인기술조사(OECD Survey on Adult Skills(PIAAC))임. 자료: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p.236의 그림을 연구진이 편집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ilkington, Windsor & Crisp, 2012). 영국 가구 패널 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높였다(Lawton, Gramatki, Watt & Fujiwara, 2021). Lawton과 그의 동료들이 행복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역인과관계에 대해 자원봉사 경험이 삶의 만족 변화량을 높인다는 점을 밝혀, 자원봉사 활동 자체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타인의 복지와 공공선에 기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다음 [그림 4-17]은 갤럽 월드 폴의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평가 응답 확률을 확인한 결과이다.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경우 0~10점 범위의 삶의 평가 각 점수를 응답할 확률은 점선과 같고,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삶의 평가 각 점수를 응답할 확률은 실선과 같다. 자원봉사 경험은 삶의 평가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응답할 확률을 약간씩 높여 점선을 실선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그림 4-17] 한국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삶의 평가 점수 응답 확률

(단위: %)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칸트릴 사다리 점수를 결과변수로 하는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의 자원봉사 여부에 따른 한계효과임. 2009-2020년 표본 중 성별, 만 나이, 만 나이 제곱, 만성질환, 혼인상태,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교육수준, 가구소득, 중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음.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18)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무도 자원봉사를 하지 않을 때 칸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행복 점수는 6.0점이지만, 모두 자원봉사를 할 때의 행복 점수는 평균 6.3점으로 0.3점 증가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율이 약 11.8%이니, 국민 모두가 자원봉사에 참여해 이에 따른 증가분의 약 82%만큼 행복 점수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행복 점수는 5.845점에서 6.085점으로 증가해 149개국 중 62위였던 순위가 포르투갈, 일본 등을 제치고 루마니아에 이어 47위로 뛰어오른다.

이타적 사회참여가 행복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국민총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4-3>은 누가 자원봉사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원봉사 결정요인 분석 결과이다. 분석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자원봉사 참가율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와 미국,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이탈리아와 멕시코,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낮은 터키와 리투아니아이다.

미국과 리투아니아는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 확률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면, 터키는 여성의 참여 확률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멕시코, 한국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확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터키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다가 다시 감소하는 역U자형의 형태가 확인되지만,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한국과 뉴질랜드, 미국, 이탈리아에서는 건강문제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멕시코와 터키, 리투아니아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자원봉사 참여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한국은 유배우 집단에 비해 미혼 집단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유의하게 낮지만,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국가인 터키와 리투아니아에서는 미혼 집단의 참여 확률이 유배우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한국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아동 수는 적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확률이 높는데 이러한 경향은 미국과 유사하다. 반면, 뉴질랜드는 가족 내 아동 수가 많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진다. 이탈리아는 아동 수의 부적 영향이, 리투아니아는 가구원 수의 양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뉴질랜드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인 이탈리아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진다. 멕시코는 초등교육 이하 출신 집단에 비해 중등교육 출신 집단의 참여 확률이 유의하게 낮고, 터키와 리투아니아에서는 고등교육 이상 집단의 참여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한국인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와 실업자의 참여 확률이 유의하게 높고, 자영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 확률에 대한 양적 영향은 한계수준에서 유의하다. 뉴질랜드와 미국에서는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파트타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원봉사 참여확률이 유의하게 높고, 뉴질랜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 확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다. 멕시코에서는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터키에서는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의, 리투아니아에서는 자발

적 파트타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원봉사 참여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한국과 뉴질랜드, 미국, 이탈리아, 터키에서는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리투아니아에서는 가구 월소득이 음의 영향을 미친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는 한국과 뉴질랜드, 리투아니아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도난 경험 또한 자원봉사 참여 확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과 뉴질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에서 그러하다. 한국과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터키에서 부패인식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이탈리아의 경우 정치적 부패인식이 낮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확률이 높다. 리투아니아에서 재계 부패인식은 자원봉사 참여 확률이 양의 영향을, 정치 부패인식은 부적 영향을 미친다. 선택의 자유에 만족한다는 인식은 한국과 멕시코, 리투아니아에서 자원봉사 참여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인다. 긍정적인 미래 전망은 멕시코와 터키, 리투아니아, 뉴질랜드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에서는 자원봉사 참여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가구원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원봉사 참여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일에 많은 시간을 쓰는 풀타임 근로자나 아동 돌봄 부담이 적어 비교적 일 이외의 시간을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생애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집단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 경제력이 취약하지 않고, 도난 같은 위험을 경험했지만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존재할 경우 이타적 행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콜롬비아와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¹⁹⁾.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가 비교적 최근에 OECD에 가입한 것을 상기하면,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²⁰⁾에 이른 한국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길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일 이외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일이나 가족 돌봄이 아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Suzuki(2018)의 지적과 같이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이 오히려 자원봉사 참여율을 유의하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타적 사회참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19)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에서 2021.10.13. 인출)

20) IMF. (2021. 4.).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에서 2021. 7. 15. 검색.

〈표 4-3〉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 여부에 대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

구분	대한민국	뉴질랜드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리투아니아
여성 더미	0.018 (0.040)	-0.009 (0.037)	0.090* (0.043)	0.046 (0.042)	0.000 (0.040)	-0.217*** (0.065)	0.178*** (0.044)
만 나이	-0.011 (0.007)	0.018*** (0.005)	-0.006 (0.006)	0.013+ (0.007)	-0.003 (0.006)	0.021+ (0.012)	0.001 (0.008)
만 나이 제곱(/100)	0.010 (0.007)	-0.009* (0.005)	0.006 (0.006)	-0.015* (0.007)	0.005 (0.007)	-0.023+ (0.014)	-0.006 (0.008)
건강문제	0.070 (0.048)	-0.026 (0.047)	-0.071 (0.055)	0.016 (0.064)	0.103* (0.052)	0.239*** (0.087)	0.159** (0.058)
혼인상태(준거집단=유배우)							
이혼·별거·사별	-0.075 (0.082)	-0.061 (0.053)	-0.073 (0.061)	-0.004 (0.069)	-0.041 (0.059)	-0.179 (0.145)	0.055 (0.059)
미혼	-0.232** (0.073)	-0.009 (0.054)	-0.096 (0.058)	0.074 (0.056)	0.051 (0.050)	0.208* (0.087)	0.270*** (0.074)
가구원 수	0.053** (0.018)	-0.001 (0.017)	0.068*** (0.019)	0.025 (0.019)	-0.001 (0.010)	-0.014 (0.023)	0.063** (0.024)
아동 수	-0.126*** (0.031)	0.098*** (0.027)	-0.060* (0.028)	-0.084* (0.036)	0.002 (0.004)	0.021 (0.036)	-0.008 (0.038)
교육수준 (준거집단=초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0.060 (0.070)	0.205** (0.062)	0.497* (0.203)	0.170*** (0.049)	-0.115* (0.050)	0.025 (0.089)	-0.008 (0.080)
고등교육 이상	-0.013 (0.075)	0.425*** (0.068)	0.932*** (0.205)	0.260*** (0.063)	0.051 (0.069)	0.238* (0.103)	0.396*** (0.088)
종사상 지위 (준거집단=풀타임 근로자)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118 (0.077)	0.381*** (0.056)	0.392*** (0.084)	0.065 (0.079)	0.113 (0.073)	0.296** (0.113)	0.341*** (0.089)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249** (0.093)	0.275*** (0.079)	0.287** (0.098)	-0.058 (0.080)	0.247*** (0.071)	0.226 (0.141)	0.157 (0.114)
자영업자	0.113+ (0.061)	0.236*** (0.065)	0.255** (0.096)	-0.041 (0.081)	0.227*** (0.064)	-0.150 (0.099)	0.266** (0.097)
실업자	0.247* (0.100)	0.129 (0.108)	-0.051 (0.109)	0.009 (0.096)	0.165+ (0.091)	-0.259+ (0.137)	-0.003 (0.110)
비경제활동인구	0.097+ (0.050)	0.111* (0.053)	-0.002 (0.060)	0.060 (0.059)	0.040 (0.051)	-0.128 (0.083)	0.051 (0.063)
로그 가구 월소득	0.089** (0.028)	0.059* (0.028)	0.055** (0.019)	0.084** (0.033)	0.011 (0.025)	0.177*** (0.052)	-0.096* (0.044)
사회적 지지체계	0.177*** (0.051)	0.232** (0.085)	0.165+ (0.089)	0.113 (0.073)	-0.067 (0.050)	-0.035 (0.085)	0.306*** (0.096)
도난경험	0.302*** (0.072)	0.246*** (0.052)	0.093 (0.066)	0.161** (0.059)	0.152*** (0.043)	0.344*** (0.079)	0.144+ (0.075)
재계 부패인식	-0.051 (0.053)	0.004 (0.053)	-0.087+ (0.048)	0.028 (0.075)	0.049 (0.046)	-0.001 (0.087)	0.219** (0.084)
정치 부패인식	-0.056 (0.052)	0.071 (0.055)	0.071 (0.054)	-0.196** (0.074)	-0.047 (0.050)	-0.116 (0.080)	-0.255** (0.097)
선택의 자유	0.142*** (0.040)	0.124 (0.077)	0.014 (0.061)	0.012 (0.041)	0.142** (0.048)	-0.114+ (0.065)	0.147** (0.047)
긍정적 미래 전망	0.021 (0.040)	0.075+ (0.038)	0.015 (0.045)	0.075 (0.050)	0.175*** (0.039)	0.154* (0.065)	0.217*** (0.053)
연도 고정효과	0	0	0	0	0	0	0
상수	-1.524*** (0.315)	-2.181*** (0.321)	-1.638*** (0.331)	-2.066*** (0.337)	-1.095*** (0.228)	-2.781*** (0.488)	-1.700*** (0.413)
유효표본	8670	8165	6178	9526	9544	4746	7936
조정 R ²	0.041	0.038	0.060	0.037	0.029	0.063	0.063

주: 자원봉사 여부 더미변수를 결과변수로 하는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2009-2020년 표본 중 분석에서 활용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보가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함.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총행복을 높이기 위해 현상을 이해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3장에서 검토한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결과, 한국인의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심층분석하였다. 특히 연령에 따른 행복 수준 변화를 국제비교하고, 행복의 관점에서 취약한 집단으로서 중사상 지위 중 자영업자,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타적 사회참여로서 자원봉사 경험에 집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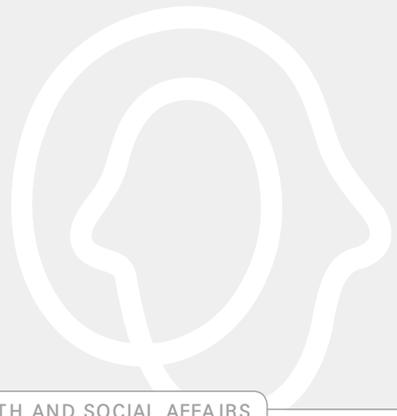
첫째,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수준은, 다른 국가군에 비해 연령 1세별 등락이 다소 크면서도, 삶의 평가 실제값과 고령이 되어가면 낮아지면서도 오히려 약간 불룩한 우하향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삶의 평가 기댓값은 50대 후반까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완만한 U자형을 보였다. 실제값과 기댓값이 모두 40대 후반에서 최저 수준을 보이는 U자형을 보인 영미권 국가나, 실제값은 70대에 이르러 두 번째 꺾임을 보이는 S자형이되 기댓값은 U자형을 보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것이다.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실제값과 기댓값의 경향은 독립국가연합과 유사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삶의 평가 기댓값이 낮아지는 경향은, 생애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중년기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 과중하고 행복이 최저 수준에 이르는 시기가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실제값은, 50대 후반 이후에 회복하는 기댓값의 추세와 달리,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한다거나 부모 부양과 자녀 독립 지원 등의 이중 부양부담 등, 중고령기에 중년까지 살아왔음에도 이후의 삶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행복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삶의 평가 실제값의 감소 추세가 기댓값의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중년층과 노년층이 취약계층일 수 있고, 덜 행복한 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더욱이 자영업자의 비율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 정도로 높은 편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

한다는 ‘밀어내기 가설’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한국에서 국민총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집단 내 이질성과 생계형 자영업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거리 두기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소득 손실을 일상 회복 단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확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립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3장 국제비교 분석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행복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은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타인을 위해 금전적 기여를 하는 기부보다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쓰는 자원봉사 경험이 보다 유효한 점을 상기하면, 타인과 자기가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행복한 한국인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부담이 가중되는 경제활동 인구는 자유로운 시간 사용이 어려워 일 외의 사회적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과 시간 여유가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선택할 확률도 있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경우 접근할 수 있는 활동처가 존재해야 한다. 이타적 사회참여 활동이 경제력과 정주여건에 의한 이중 차별의 산물이 되지 않도록 생산성을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제한해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공동체를 형성하는 정책 노력이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를 준비하는 중년,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맺어 결국 행복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자료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소결

제 5 장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제1절 문제제기

이 장에서는 일상재구성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의 행복과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상재구성법을 활용하여 행복의 조건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은 정해식 외(2020)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하였고, 이번에는 청·중·장년(이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과 행복을 다룬다.

다수의 연구들이 청년과 장년의 불안감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김지경·이윤주, 2018; 이현주 등, 2020). 이현주 등(2020)은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 현상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년의 사회적 불안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과 장년이 보유한 불안감은 곧 우리 사회 미래의 불안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이현주 등, 2020, 15-17). 그럼에도 청년과 장년의 행복과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더욱 낮은 수준이다. 한승현·임다혜·강민아(2017)는 청년과 장년은 각각 인구구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 개입 대상이 되기 어렵고, 아직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한승현·임다혜·강민아, 2017, 90).

청년과 장년 외에 중년의 행복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장년과 중년은 각각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만큼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다. 비교적 최근 들어 노년으로 진입하기 전 인구집단을 ‘신중년’이라고 명명하며 사회적 관심이 되기도 하였지만(황남희 등, 2019, 26-29), 그동안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과 중장년은 모두 우리 사회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구집단인면서 미래 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행복과 삶의 질이 곧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복 수준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주로 전반적 만족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단편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는 본질적인 행복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장재윤·유경, 2006, 164 재인용), 전반적 삶의 만족 같은 지표가 곧 인간의 웰빙(Well-being)이나 행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 이하 DRM)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일상생활을 조사한다는 것은 먼저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관계, 정서적 경험을 담아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상재구성법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인간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측정한다. 이번 장에서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일상생활 정보를 재구성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일상재구성법의 적용과 활용

‘일상재구성법(DRM)’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의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그 시간과 활동에서 경험한 정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Kahneman et al., 2004), DRM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으로 기쁨, 고통, 스트레스, 걱정 같은 긍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수집되며, 그 행동과 감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Paul Dolan et al., 2017).

DRM은 Kahneman et al.(2004)의 연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되었다. DRM 이전에는 주로 경험표집법이라는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경험표집법은 특정 순간과 공간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순간마다의 정서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일상적 맥락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홍영의,

2019, 12).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DRM은 조사 대상자가 하루 동안 경험한 일화를 순서대로 응답하고, 각 일화가 발생한 시간, 활동의 종류, 함께 있던 사람과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풀어내어 정보를 습득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이전의 경험표집법에 비교해 일상생활이라는 시간적 배경 위에 활동과 관계의 정보를 풍부하게 쌓을 수 있다.

DRM이 소개되고 나서 국내에서도 박정열·손영미(2015), 한경혜·장미나(2011), 장재운·유경·서은국·최인철(2007), 강승민·장재운(2018), 홍영의(2019) 등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500명 이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정해식 등(2020)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37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4,404개의 일화를 수집하여 DRM을 적용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과 중장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의 일화를 수집하고 해당 일화의 시간, 활동, 함께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 정보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 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DRM 정보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미국 시간 사용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ATUS, 이하 ATUS)’가 있다. ATUS는 미국인의 활동별 시간 사용을 측정하는 조사로 응답자들에게 전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며, 미국인이 하루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내용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미국 노동통계국, 2020, 3)²¹⁾. ATUS는 15세 이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표본은 미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이하 CPS)에서 추출한다(미국 노동통계국, 2020, 11)²²⁾

미국에서는 ATUS 외에 미시간대학에서 수행하는 ‘건강과 은퇴 조사(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HRS, 이하 HRS)’에서도 일상생활조사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 HRS는 미국의 5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노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일상생활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주간 또는 월간으로 각 행위를 했던 시간을 조사한다²³⁾.

21)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이하 BLS). American Time Use Survey User's Guide. 3. 미국 노동통계국 홈페이지 <https://www.bls.gov/tus/atususersguide.pdf>에서 2021.4.30. 인출.

22) 앞의 글, 11.

23)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건강 및 은퇴 조사) User Guides. HRS 홈페이지 <https://hrs.isr.umich.edu/documentation/user-guides>에서 2021.4.30. 인출.

5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조사는 ‘영국 고령자패널조사(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LSA, 이하 ELSA)’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ELSA는 영국의 50세 이상 사람들로부터 노화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2년마다 추적하는 패널조사이다. 노화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보장, 소득 및 자산, 주거, 사회 참여 등의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Rebecca Taylor et al., 2007, 6-7), 이 중 일상생활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이하 WHO)에서 수행하는 ‘세계 노화와 성인건강 조사(Study on global ageing and adult health: SAGE, 이하 SAGE)’는 중국, 가나,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을 대상으로 표본이 구성되었으며, 18세 이상 성인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되 주로 50세 이상의 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AGE에서는 오전, 오후, 저녁으로 구분하여 일상생활의 시간 사용, 감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WHO, 2006.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과 주요 국가에서 수집한 ‘일상생활 및 시간 사용 정보’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표 5-1>과 같다.

<표 5-1> 주요 국가의 일상재구성법(DRM) 수집 정보 비교

(단위: %)

구분	KIHASA (2021)	ATUS 2019	SAGE Wave2	HRS 2009	ELSA	
표본	만 19~59세 성인 2,000명	미국, 15세 이상 40,500가구	6개국 18세 이상 성인 20,000여 명	66세 이상 고령층 5,333명	50세 이상 18,000여 명	
수면시간	○	○	○	×	○	
일화별 시간	○	○	○	○	○	
장소	○	○	×	×	×	
혼자 있었는지 여부	○	○	○	○	×	
누군가와 이야기 여부	○	×	×	×	×	
함께 활동한 인물	○	○	○	×	×	
활동	출퇴근/이동	○	일과 관련된 추가적인 작업	자전거/차량	×	○
	일	○	○	○	○	○
	집안일/식사준비	○	○	○	×	○
	자녀/부모 돌봄	○	○	○	×	○
	쇼핑/장보기	○	○	○	○	○

구분		KIHASA (2021)	ATUS 2019	SAGE Wave2	HRS 2009	ELSA
	먹기	○	○	○	○	○
	몸단장	○	○	○	×	×
	통화	○	×	×	×	×
	친구/동료와 어울림	○	×	○	○	○
	배우자/연인/친구와 친밀한 시간	○	×	○	×	○
	개인적인 휴식	○	×	○	×	○
	수면	○	○	×	×	○
	TV시청/음악 듣기	○	○	○	○	○
	컴퓨터/인터넷	○	×	×	×	×
	운동	○	×	○	○	○
	기타	○	○	종교활동	건강 관리 활동	건강 관리 음주 여부
정서적 경험	행복한	○	○(2013)	즐거움	○	활동에 따른 정서적 경험 없음 어제 행복감, 우울감 등 조사
	피곤한	○	○(2013)	걱정한	×	
	스트레스 받은	○	○(2013)	○/서두름	×	
	슬픈	○	○(2013)	우울한	○	
	고통스러운	○	○(2013)	화난	×	
	의미 있는	○	○(2013)	편안한	×	
인구학적 특성	성별	○	○	○	○	○
	만나이	○	○	○	○	○
	혼인상태	○	○	○	○	○
	교육수준	○	○	○	○	○
	종사상지위	○	○	○	○	○
	소득	○	○	×	○	○
	자산/주거	○	△	×	△	△

주: KIHASA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ATUS는 '미국 시간사용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를, ELSA는 '영국 노후 종단조사(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을, SAGE는 세계보건기구 '세계 노화와 성인건강 조사(Study on global AGEing and adult health)'를, HRS는 미국 '건강과 은퇴 조사(Health and Retirement Study)'를 각각 지칭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표;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0). American Time Use Survey Questionnaire 2011-19; UCL Research Department of Behavioural Science and Health. (2020).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terviewer Questionnaire(Wave 9); (HRS), (SAGE)

국가별 DRM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먼저 패널조사임에도 DRM은 부가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해마다 조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면, 일, 출퇴근, 돌봄, 먹기, 지인과 어울림 등의 주요 행위는 공통적이지만 몸단장, 통화, 인터넷 사용 등은 국가별로 조사 항목에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자료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ATUS가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SAGE, HRS, ELSA는 DRM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주로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수행

하는 조사이므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올해 조사 결과와는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2. 일상재구성법(DRM) 연구 동향

DRM을 활용한 연구에서 주목하는 변수는 크게 시간, 활동, 관계(시간과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라는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DRM을 활용한 변수는 주로 활동과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박정열·손영미(2015)는 일상재구성법을 활용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동(가사 및 육아, 여가, 학습 및 구직활동 등)을 탐색하고, 정서경험의 질을 측정하였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구직활동은 상당한 걱정과 긴장,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음식준비, 청소, 자녀 보살피기 등의 활동에 가장 빈번하게 참여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긍정 정서는 적게 느끼고, 부정 정서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유사한 분석 결과를 한경혜·장미나(2011)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의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들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가사일과 자녀 돌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유지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때보다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돌봄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함께 있는 순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사활동, 돌봄 등에서 기혼여성들이 느끼는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였다.

장재윤 외(2007)는 위 연구들과 동질적인 집단을 분석하면서도 활동보다 시간,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DRM을 활용하여 직장인 남녀와 전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장 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경우는 '배우자와 함께할 때'와 '먹을 때'라는 응답이었으며, 직장인 남성과 여성은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가장 행복해 했고, 업무시간에 가장 피곤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승진·양광희(2013)는 분석집단을 청년층으로 옮겨왔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행복을 DRM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주로 여가활동과 저녁시간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영역에서 긍정적 정서경험을, 수업과 학습활동에서 부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보다는 주말에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경험 수준이 높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강승민·장재윤(2018)은 60대 남녀 노인들이 일상에서 혼자 있는 것과 타인과 함께 있는 것 중 어느

때 더 행복한지 비교하였고,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여성노인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 지인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지만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행복감을 느꼈고, 남성노인은 혼자 있을 때와 배우자,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 수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홍영의(2019)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지역사회 내 공간, 공간에 머무른 시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DRM을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정서를 측정할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17시간 15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고, 집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정해식 외(2020)의 연구에서는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행복의 실태와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인이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DRM을 활용하여 활동, 시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인은 고립되는 상황에 취약했다. 구체적으로는 혼자 있는 경험이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기보다 긍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은 주로 TV 시청, 개인적인 휴식 등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의 빈도가 높고, 혼자 하는 활동이 전체 활동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이 경험하는 고립이 행복감을 낮추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외에서는 DRM을 처음 소개한 Kahneman et al.(2004) 이후 비교적 다양한 집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Dolan, Kudrna and Stone(2017)은 2012-2013년 ‘미국 시간 사용 조사(ATUS)’를 활용하여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 정도가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상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중년층보다 노년층의 주관적 행복도가 높았고, 청년층에서 주관적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업자의 주관적 행복도가 낮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Kostadin, Elizabeth and Richard(2015)는 DRM을 활용하여 집단별 행복 수준이 아닌 소득과 슬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행복과 슬픔은 반대의 개념이라기보다 별개의 감정 상태이며, 과거 연구들은 소득수준이 행복보다 슬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ATU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일상적

인 슬픔을 덜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일상의 행복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슬픔을 줄이는 데 돈이 더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주로 관계에 주목하였다면, 노인의 활동이 행복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도 발견하였다. Whitehead & Blaxton(2017)은 노인이 운동 목적의 신체활동과 운동 목적이 아닌 신체활동을 할 때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운동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스트레스 경험에는 운동의 여부만 영향을 주었을 뿐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운동 목적이 아닌 활동 또한 활동의 여부는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외에 노인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국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Cornwell, B.(2011)의 연구에서 연령과 사회적 활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접촉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여성 노인이 중년 성인에 비해 사회적 접촉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접촉이 연령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생활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enadek, Flood, & Moen(2017)은 50~70대 성인을 대상으로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시간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관계가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Krueger & Schkade(2006)는 외향적인 성격의 노동자가 대화형의 직업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ATUS)과 프랑스에서 확보한 시간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노동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활발한 직업에 고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에서 동료와 빈번하게 상호 작용하거나 이러한 성향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를 보였다. DRM을 활용하여 시간 사용과 정서적 경험을 분석한 연구 중 Morris & Hirsch(2015)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통 혼잡이 운전자의 감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TUS 자료를 활용하여 운전자가 느끼는 네 가지 감정(행복, 슬픔, 스트레스, 피로)과 관련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휴일이 아닌 평일 러시아워(오후 5:00~오후 6:00) 때 운전자들은 교통 혼잡 때문에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통해 일상재구성법에서 주목하는 3가지 변수 시간, 활동, 관계는 어떤 집단을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시간과 활동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에 주목하였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관계와 행복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연구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 활동, 관계가 어떤 정서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모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의 정서적 경험에는 어떤 변수가 강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분석 결과를 보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3절 분석자료

1. 조사 설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는 2019년 만 19세 이상 청년부터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삶의 만족과 행복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2020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조사하였다. 2021년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청년부터 만 59세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분석한다.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는 대면조사를 실시했던 지난 2개년과 달리 온라인 조사로 실시했다. 성,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약 2,000명의 청중장년(만 19~59세)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DRM 조사가 포함되므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2차 층화를 통해 최종 표본을 선정했다. 경제활동상태가 고려된 이유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고용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기준으로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일과 주말, 휴일에 따라서도 시간 사용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것이므로,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정 요일에 조사 참여가 쏠리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2020년 조사 내용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문항들을 수정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

성하였다. 먼저 ‘응답자 일반사항’에서 조사 대상자의 기본 정보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및 동거인의 정보를 조사하였고, ‘가구경제상태’는 가구의 총 소득과 생활비, 응답자 개인의 소득을 조사하였다. 그 외에 주거형태와 주택의 점유형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행복과 사회 인식’은 캔트릴 사다리 문항과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과 우울, 계층 인식 등을 조사하였고, 코로나19가 가구의 경제와 일상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일상재구성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면시간, 주요 활동 일화, 일화에 대한 정서 경험을 조사하였다. 온라인으로 조사가 진행됨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자의 응답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어, 2020년과 마찬가지로 일상재구성 문항은 오전(자정~12시), 오후(12~6시), 저녁(6시~수면)의 3개 시간대를 무작위 할당하는 단축형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과 표본 설계를 확정하고 나서 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시정승인을 받았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 제2021-032호), 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따라 조사 자료 공개에 관한 안내와 조사 소요기간,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표와 동의서에 각각 반영하였다.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는 총 2,089명의 유효표본이 조사되었고 오전·오후·저녁 시간대에 각각 약 33%의 균등한 비율로 무작위 할당했다. 아래 표는 각 시간대별 유효표본 현황이다.

〈표 5-2〉 일상재구성법 응답 시간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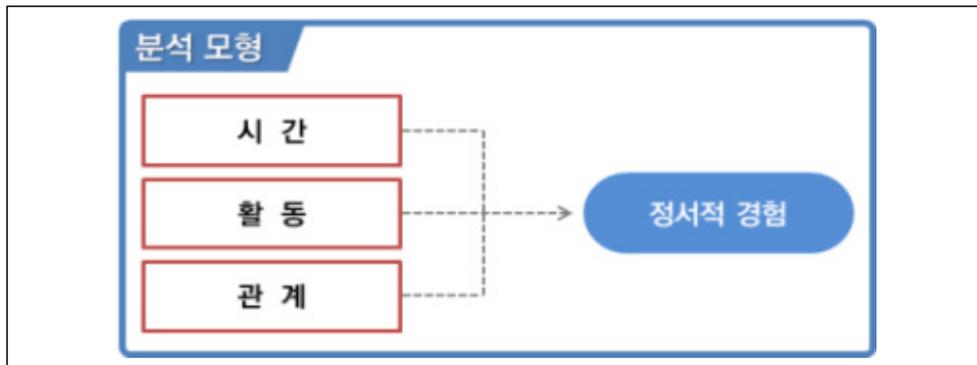
구분	유효표본(명)	비율(%)
오전	701	33.6
오후	690	33.0
저녁	698	33.4
전체	2,089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2. 분석 모형

일상재구성법 분석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하는 질문은 ‘사람들은 언제, 무엇을 할 때,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이다. 2020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 물음의 답을 확인했다면, 이번 조사는 청·중·장년이 느끼는 정서적 경험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분석 모형은 [그림 5-1]과 같이 간단하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 시간, 활동, 관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림 5-1] 분석 모형



자료: 연구진 작성

전체 응답자 2,089명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일화를 최대 5개씩 조사한 결과, 총 8,650개의 일화가 수집되었다. 아래 표는 응답자 및 일화별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에는 참여했으나 응답한 일화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에서는 기초통계 정보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성별·연령대별 등의 분포를 볼 때 응답자와 일화가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균등화 가구소득은 조사 기준 시점에서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을 조사한 뒤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였다. 고용형태는 경제활동상태에서 상용·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정서적 경험은 총 8가지로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받음’,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이라는 경험에 대해 0~10점 범위의 리커트척도를 활용하

여 측정하였다. 표에 제시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를 강하게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경험은 응답자별 결과가 아닌 응답자의 일화별로 각각 정보를 수집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제변수들과 정서적 경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록 3-5]에 답았다.

<표 5-3> 일상재구성법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n=2,089)		응답자의 일화(n=8,65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성별(%)	남성	51.4		50.1			
	여성	48.6		49.9			
연령(만 나이)	20대	23.6		23.2			
	30대	22.0		22.1			
	40대	26.6		26.8			
	50대	27.8		27.9			
지역	수도권	52.4		52.3			
	비수도권	47.6		47.7			
	대도시	42.8		43.0			
	중소도시 농어촌	52.2 5.0		52.1 4.9			
교육수준(%)	고졸 이하	22.0		21.3			
	대졸 이상	78.0		78.7			
혼인상태(%)	유배우	55.0		55.9			
	이혼/별거/사별	4.5		4.3			
	미혼	40.5		39.8			
균등화 가구소득(만원/월)		277.2	137.97	279.8	139.46	30	1,20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6.0		56.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0		9.9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8.7		8.9			
	실업자	6.7		6.0			
	비경제활동인구	18.6		19.0			
고용형태 (준거집단=임금근로자)	전일제	87.8		87.8			
	시가제	12.2		12.2			
수면시간(분)		410.5	88.10	409.9	87.54	120	870
행복한(점)				5.8	2.19	0	10
의미 있는(점)				5.3	2.43	0	10
피곤한(점)				5.3	2.39	0	10
스트레스받은(점)				4.1	2.63	0	10
슬픈(점)				2.8	2.53	0	10
고통스러운(점)				2.8	2.59	0	10
외로운(점)				2.9	2.61	0	10
불안한(점)				2.8	2.58	0	10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범주형 변수는 빈도분석 결과이고, 연속변수는 기술통계분석 결과임. 소득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 결과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은 일화별 응답을 수집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제4절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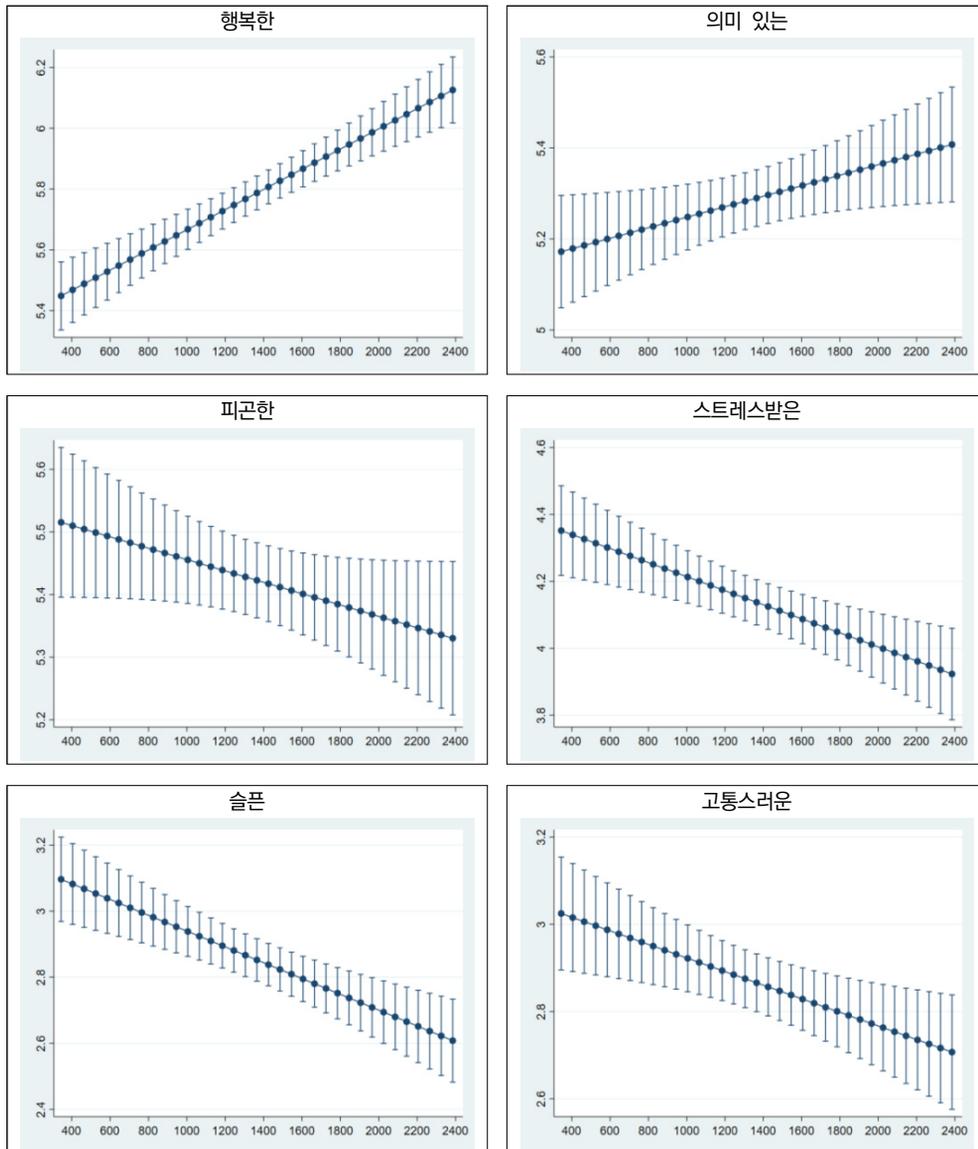
1. 시간 - 언제 행복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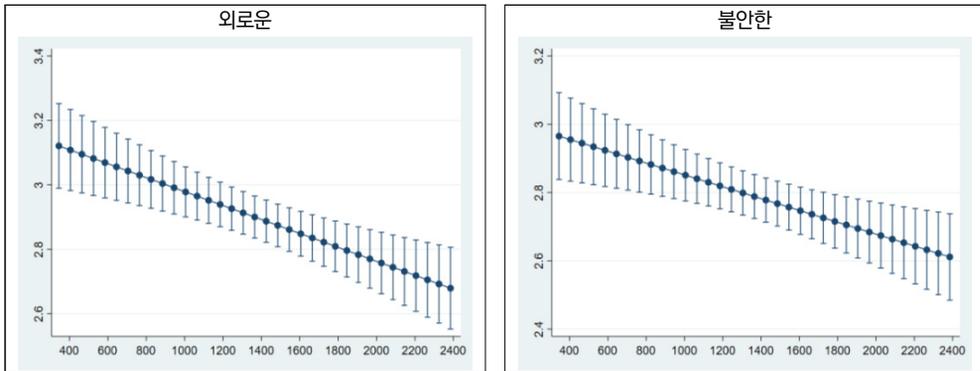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청·중·장년은 언제 행복한가?’이다. 일상재구성법을 적용하기 위해 시간대별 정서적 경험 정보를 수집한 결과는 아래 그림들과 같다. 그림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하여 자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청·중·장년이 언제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는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대상을 두고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 즉, 아침에서 점심, 저녁을 지나 밤이 되기까지 - 긍정적 측면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은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피곤한, 스트레스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등)은 약하게 경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행복한 정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하면서도 수치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의미 있는 정서는 증가 흐름이 완만하고 수치도 상대적으로 퍼져 있다.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정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받은 정서가 각각 평균 5점대와 4점대를 보였고 나머지 정서는 3점대 초반에서 시작하여 감소하였다.

2020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조사 결과에서도 행복한 정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정서는 모두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즉, 노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미 있는 정서는 약하게 경험하고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였는데, 청년과 중장년은 하루 일과 동안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적절히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상재구성법을 활용한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Kahneman et al.(2004)의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그 이후로 진행된 연구들에서 경제활동 중인 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 정서가 12시 즈음 최저점을 보이는 V자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노인과 청년과 중장년 모두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청년과 중장년의 시간대별 정서(전체)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성별, 만 나이,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고용형태, 균등화가구소득, 수면시간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시간대별 한계 예측치임. 시간대는 종료시점 기준이며, 시간대별 세로선은 신뢰구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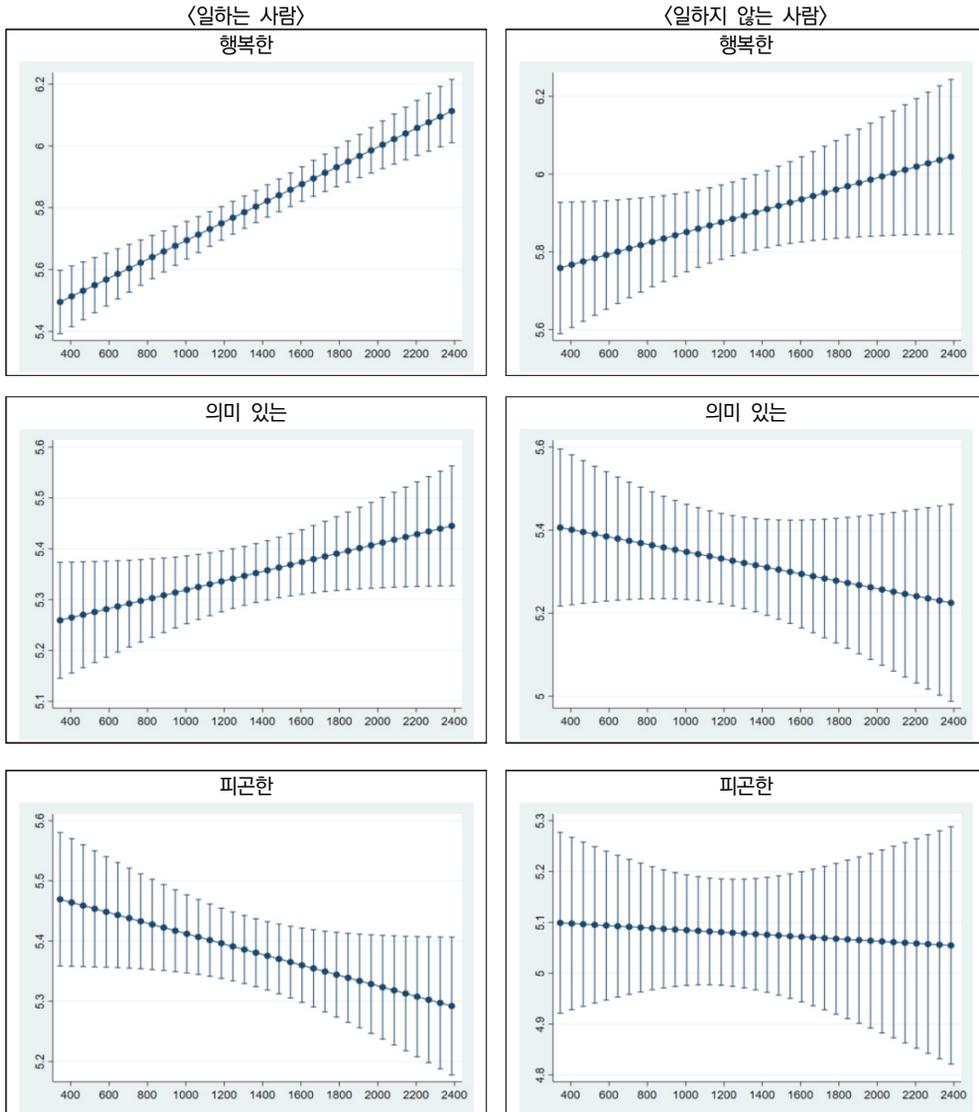
조사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임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응답자를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행복한 정서는 두 집단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그 증가폭이 크고 집중되어 있다. 수치로 비교해보면 하루가 시작될 때는 일하지 않는 사람의 행복한 정서 수준이 일하는 사람에 비해 약 0.2 정도 더 높았는데, 자정에 이르러서는 일하는 사람의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정서 수준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수가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 중 행복한 정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한 정서의 격차가 집단 내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의미 있는’ 정서 경험은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일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의미 있는 정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감소하였다. 이것은 이후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고 그 수치가 증가하는 것은 일을 하는 행위 자체와 연관되어 있는 지점이다.

‘괴로운’ 정서 또한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두 집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감소폭이 더 크고 집중되어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경험하

는 ‘괴로운’ 정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5-3] 경제활동상태별 청년과 중장년의 시간대별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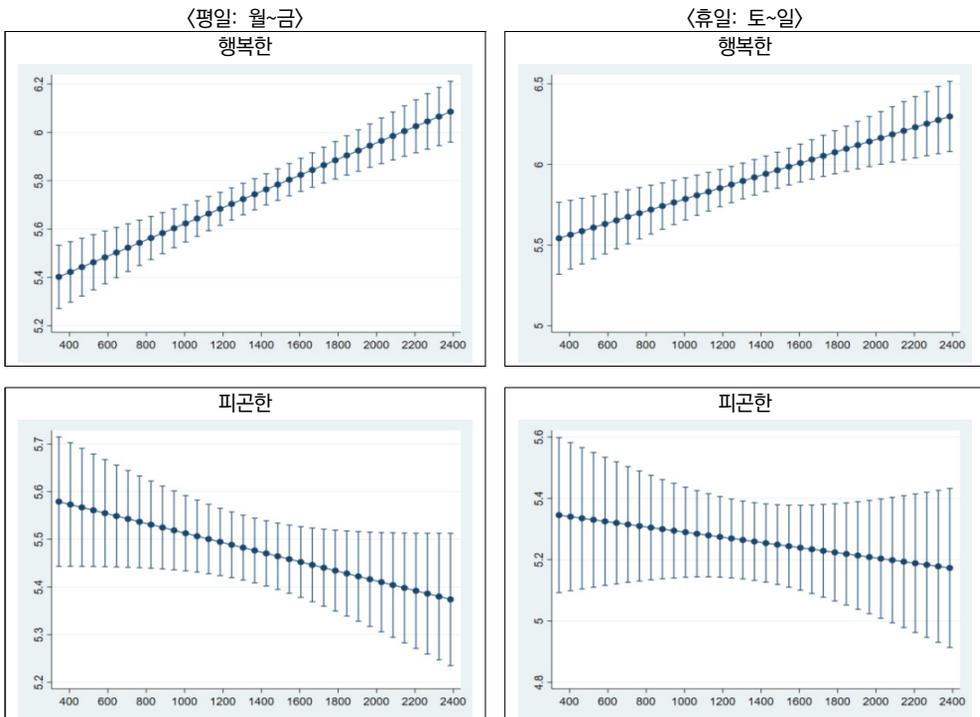
주: 1) 일하는 사람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성별, 만 나이,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고용형태, 균등화가구소득, 수면시간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시간대별 한계 예측치임. 시간대는 종료시점 기준이며, 시간대별 세로선은 신뢰구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다음은 청년과 중장년의 시간대별 정서 경험을 평일(월~금)과 휴일(토~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를 시간대별뿐만 아니라 응답 요일도 무작위 할당을 통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는 경제활동 여부도 영향을 주겠지만 평일인지 휴일인지의 여부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행복한 정서와 피곤한 정서만을 비교하였는데, 행복한 정서 경험은 모두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평일에 점수들이 더 집중되어 있어서 평일에는 유사한 행복감을 보이다가 휴일에는 다양한 수준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곤한’ 정서 경험은 휴일에 비해 평일에서의 감소 추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일의 피곤한 수치도 높다. 이것은 휴일 자체가 사람들에게 휴식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피곤한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평일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4] 요일별 청년과 중장년의 시간대별 정서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성별, 만 나이,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고용형태, 균등화가구소득, 수면 시간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시간대별 한계 예측치임. 시간대는 종료시점 기준이며, 시간대별 세로선은 신뢰구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2. 활동 -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두 번째는 활동의 종류에 따른 정서적 경험을 분석하여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했다. 먼저 활동별 응답률을 산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응답률은 전체 일화 중 해당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며, 중복 활동은 하나의 일화에서 2개 이상의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 몇 개의 활동이 중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개인적인 휴식은 중복활동이 평균 4.1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휴식만 온전히 취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하면서 먹고 있거나 TV시청, 통화 등의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응답률은 ‘개인적인 휴식’이 36.1%로 가장 높다. 평균 4.1개의 활동과 중복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활동은 ‘먹고 있음(29.0%)’, ‘TV시청/음악청취(25.5%)’이다. 이들의 중복활동은 각각 평균 4.6개, 4.7개로, 개인적인 휴식과 함께 이 3개의 활동은 주로 휴식을 취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복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높은 응답은 ‘일’이다. 25.3%가 응답하였는데, 청년과 중장년이라는 응답자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을 하는 활동의 응답률이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응답자 중 약 25%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 ‘집안일/식사준비’, ‘컴퓨터/인터넷’,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이 20~25% 사이의 응답률을 보였고, 중복 활동 개수도 4.6개 내외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20% 이상 응답률을 보인 활동 중 ‘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내(집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연관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조사 기준시점인 2021년 상반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이 지속해서 연장되면서 주로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이동, 친구/동료들과 어울림 등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5-4〉 활동별 응답률

(단위: %, 개)

활동	응답률	중복 활동
개인적인 휴식	36.1	4.1
먹고 있음	29.0	4.6
TV시청/음악청취	25.5	4.7
일	25.3	3.5
집안일/식사준비	24.6	4.6
컴퓨터/인터넷	23.7	4.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21.6	4.7
출퇴근/이동	16.3	3.8
자녀/부모 돌봄	13.4	4.7
통화	13.3	5.3
친구/동료들과 어울림	12.7	4.5
몹단장	10.6	4.8
수면	8.9	5.6
기타	6.6	4.7
운동	6.4	5.7
쇼핑/장보기	4.9	6.4

주: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응답 오류로 판단되는 450개 일화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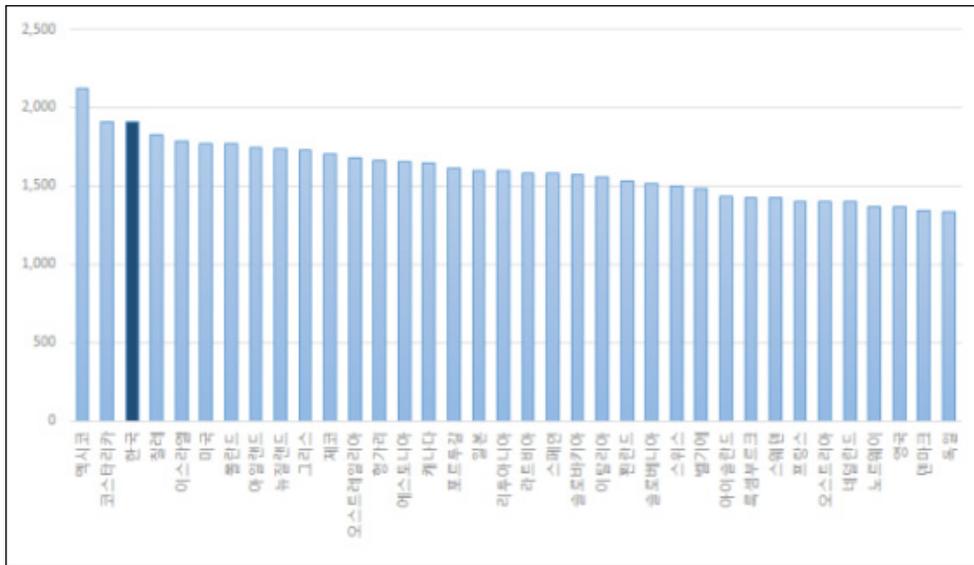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청년과 중장년층은 노인에 비해 ‘일’, ‘컴퓨터/인터넷’, ‘자녀/부모 돌봄’의 응답률이 높고 전반적으로 중복활동 개수도 많다. 경제활동과 돌봄은 청년과 중장년과 노년층의 활동 영역을 구분해주는 대표적인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대별로 8가지 정서적 경험의 변화를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활동별로 정서적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표 5-5〉는 활동별로 각각의 정서를 얼마나 경험하였는지 평균 점수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정서적 경험을 통틀어 가장 뚜렷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때 가장 행복한 정서를 경험하며, 동시에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등 부정적 측면의 정서는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부정적 감정을 억제시키는 활동은 배우자, 연인, 가족 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충족되는 정신적 만족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불안감이나 우울감 등의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 두드러진 활동은 ‘일’이다. 응답자들은 일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와 고통스러운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 응답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의 생산가능 인구로서, 이들에게 일은 생계유지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집단들은 일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림 5-5]는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근로자당 연평균 근로시간이다. 한국은 연평균 총 1,903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것은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일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그야말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지만, 일이 곧 고통으로 연결되는 현실은 향후 일과 삶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림 5-5] OECD 국가의 근로자당 연평균 근로시간(2020)

(단위: 시간/년)



동'은 가장 의미 없고 피곤한 활동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출퇴근 및 이동에 대한 분석은 Morris & Hirsch(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운전자가 느끼는 네 가지 감정(행복, 슬픔, 스트레스, 피로)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평일 러시아워(오후 5:00~오후 6:00) 때 운전자들은 교통 혼잡 때문에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이러한 현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단순한 교통체증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출퇴근 및 이동이 청년과 중장년의 정신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표 5-5〉 활동별 정서적 경험

(단위: 점)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개인적인 휴식	6.40	5.36	4.89	3.45	2.57	2.44	2.78	2.62
먹고 있음	6.28	5.63	5.03	3.82	2.72	2.60	2.86	2.70
TV시청/음악청취	6.27	5.41	5.05	3.71	2.72	2.61	2.95	2.75
일	4.96↓	5.40	5.87	5.29↑	3.50	3.66↑	3.43	3.49
집안일/식사준비	5.87	5.58	5.44	4.19	2.92	2.78	3.02	2.82
컴퓨터/인터넷	5.70	5.27	5.31	4.40	3.02	3.00	3.16	3.16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6.85↑	6.15	4.70↓	3.19↓	2.20↓	2.07↓	2.12↓	2.15↓
출퇴근/이동	5.55	5.19↓	6.00↑	4.64	3.31	3.33	3.38	3.27
자녀/부모 돌봄	6.28	6.11	5.46	4.14	2.76	2.64	2.76	2.74
통화	5.63	5.63	5.72	4.95	3.34	3.38	3.43	3.44
친구/동료들과 어울림	5.77	5.52	5.36	4.45	3.04	3.12	2.91	3.00
몸단장	5.55	5.23	5.81	4.51	3.37	3.26	3.35	3.25
수면	6.14	5.33	5.67	4.27	3.55↑	3.45	3.70↑	3.64↑
기타	5.69	5.75	5.64	4.66	3.16	3.23	3.23	3.20
운동	6.36	6.16↑	5.14	3.86	3.09	3.35	3.34	3.15
쇼핑/장보기	6.18	5.77	4.97	4.01	3.15	3.05	3.25	3.24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위 화살표+볼드체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고점이고, 아래 화살표+볼드체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저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이러한 활동이 청년과 중장년의 정서적 경험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개

인적인 휴식', '먹고 있음',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친구/동료들과 어울림', '운동'은 행복감을 높이면서 피곤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일', '집안일, 식사준비', '출퇴근/이동', '몸단장'은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휴식을 취하거나 사회적 관계 활동을 할 때는 행복감이 높아지는 반면, 일을 하는 행위는 그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긍정적 정서(행복한, 의미 있는)를 경험하는 수준을 모두 높이면서 부정적 정서(피곤한, 스트레스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를 모두 감소시키는 활동은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동료들과 어울리는 활동 또한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가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일'은 '의미 있는' 정서를 제외하면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을 하는 활동이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것은 가사노동에서도 연장되고 있으며 일터에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이동하는 활동까지도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출퇴근/이동은 응답자들에게 있어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관계 또는 일과 다른 영역에서 보면 '운동'이 행복감과 의미 있는 정서를 모두 고양시키는 것 또한 발견되었다. 특히 운동은 모든 활동을 통틀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반면, 신체 활동이 가장 줄어드는 수면 활동 때는 슬프고 외롭고 불안한 감정을 유의미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활발한 신체적 활동이 곧 정신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5-6〉 활동이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2)	(3)	(4)	(5)	(6)	(7)	(8)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개인적인 휴식	0.588*** (0.064)	-0.064 (0.080)	-0.346*** (0.076)	-0.574*** (0.079)	-0.266*** (0.076)	-0.415*** (0.078)	-0.165* (0.079)	-0.209** (0.078)
먹고 있음	0.366*** (0.068)	0.200* (0.080)	-0.332*** (0.078)	-0.156+ (0.083)	-0.081 (0.081)	-0.148+ (0.082)	0.098 (0.085)	-0.014 (0.083)
TV시청/음악청취	0.152* (0.070)	-0.057 (0.084)	-0.055 (0.081)	-0.044 (0.085)	0.006 (0.081)	-0.066 (0.084)	0.170* (0.086)	0.053 (0.084)
일	-1.015*** (0.071)	0.064 (0.080)	0.647*** (0.074)	1.486*** (0.083)	0.822*** (0.085)	1.015*** (0.088)	0.633*** (0.086)	0.824*** (0.085)
집안일 식사준비	-0.364*** (0.074)	0.049 (0.088)	0.494*** (0.086)	0.524*** (0.092)	0.463*** (0.089)	0.351*** (0.091)	0.424*** (0.094)	0.324*** (0.091)
컴퓨터/인터넷	-0.124+ (0.070)	-0.120 (0.084)	-0.056 (0.078)	0.080 (0.083)	-0.152+ (0.087)	-0.196* (0.089)	-0.136 (0.088)	-0.032 (0.088)
배우자/연인/가족 과 친밀한 시간	0.795*** (0.075)	0.879*** (0.092)	-0.632*** (0.093)	-0.879*** (0.095)	-0.702*** (0.090)	-0.681*** (0.091)	-1.125*** (0.092)	-0.709*** (0.092)
출퇴근/이동	-0.258*** (0.074)	-0.274*** (0.081)	0.748*** (0.075)	0.604*** (0.086)	0.426*** (0.087)	0.365*** (0.090)	0.404*** (0.089)	0.304*** (0.085)
자녀/부모 돌봄	0.217* (0.087)	0.526*** (0.101)	0.318** (0.105)	0.312** (0.114)	0.174 (0.112)	0.141 (0.112)	0.142 (0.113)	0.170 (0.112)
통화	0.039 (0.089)	0.164+ (0.095)	0.295** (0.090)	0.393*** (0.102)	0.120 (0.108)	0.104 (0.110)	0.209+ (0.110)	0.218* (0.108)
친구/동료들과 어울림	0.282*** (0.084)	0.223* (0.094)	-0.214* (0.086)	-0.179+ (0.095)	-0.161+ (0.097)	-0.163 (0.100)	-0.416*** (0.099)	-0.251* (0.098)
몸단장	-0.556*** (0.092)	-0.310** (0.096)	0.403*** (0.096)	0.492*** (0.104)	0.463*** (0.107)	0.415*** (0.109)	0.261* (0.109)	0.312** (0.105)
수면	0.140 (0.108)	-0.137 (0.129)	0.406*** (0.119)	0.292* (0.127)	0.677*** (0.123)	0.582*** (0.125)	0.662*** (0.129)	0.740*** (0.129)
기타	-0.064 (0.120)	0.106 (0.131)	0.397** (0.124)	0.347* (0.136)	0.062 (0.139)	0.293* (0.143)	0.103 (0.145)	0.186 (0.141)
운동	0.376** (0.121)	0.758*** (0.144)	-0.216+ (0.129)	-0.298* (0.144)	-0.051 (0.133)	0.337* (0.146)	0.178 (0.149)	0.035 (0.147)
쇼핑/장보기	0.075 (0.123)	-0.070 (0.148)	-0.356* (0.144)	-0.243 (0.167)	0.142 (0.157)	0.115 (0.164)	0.252 (0.174)	0.209 (0.168)
상수	3.471*** (0.324)	3.127*** (0.389)	8.611*** (0.373)	6.227*** (0.407)	5.066*** (0.420)	5.194*** (0.416)	4.347*** (0.423)	4.714*** (0.411)
N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adj. R-sq	0.178	0.076	0.127	0.166	0.098	0.104	0.101	0.096

주: 1) 행복한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은 굵은 실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함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성별, 만 나이,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고용형태, 균등화가구소득, 수면시간을 통제함. +p<0.1, *p<0.05, **p<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3. 관계 -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청년과 중장년의 활동과 정서적 경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행복한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면서 동시에 부정적 정서를 모두 감소시켜주는 활동이 배우자, 연인,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배우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동료들과 어울리는 활동 또한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풍부한 사회적 관계가 행복감을 경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수 보고되었으나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승민·장재윤, 2018; 홍영의, 2019, Genadek, Flood & Moen, 2017)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년과 중장년에게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곧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감에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재구성법 분석에서 중요한 3가지 변수 중 시간과 활동에 대해 앞서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청년과 중장년이 경험하는 정서를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표 3-7>과 같다. 응답률부터 비교해보면 혼자 있었던 일화가 47.6%, 누군가와 있었다는 일화가 52.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0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도 혼자였다는 응답률이 49.6%였음을 고려하면 청년과 중장년층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혼자였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때를 구분하여 정서적 경험을 비교해보면, 먼저 두 경우 다 행복한 정서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 더 행복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약하게 경험한 정서는 두 경우에 차이가 있었는데 혼자일 때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누군가와 있을 때는 외로운 정서를 가장 약하게 경험하였다. 두 경우의 점수 차이를 종합해보면 누군가와 있을 때 긍정적 측면의 정서(행복한, 의미 있는)를, 혼자일 때는 부정적 정서(피곤한, 스트레스받음,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를 더 강하게 경험하고 있다. 점수 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은 역시 외로움이다.

〈표 5-7〉 혼자였다는 응답률과 혼자였을 때의 정서적 경험

(단위: %, 점)

구분	응답률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혼자였음(A)	47.6	5.53 ↑	5.01	5.43	4.21	3.09	3.07 ↓	3.36	3.12
누군가와 있었음(B)	52.4	6.06 ↑	5.64	5.20	3.94	2.60	2.60	2.50 ↓	2.54
차이(A-B)	-	-0.52	-0.64	0.23	0.26	0.48	0.47	0.86	0.58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위 화살표+볼드체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고점이고, 아래 화살표+볼드체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저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혼자 있음이 정서적 경험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받은을 제외하면 모든 정서적 경험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혼자인 것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는 데 부적 영향을 미치고, 피곤한·슬픈·고통스러운·외로운·불안한 정서를 경험하는 데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혼자 있는 경험이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기보다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기능했다면, 청년과 중장년의 경우 혼자 있음이 정서적 경험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과거보다 청년과 중장년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고조되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현시점에서 고립이라는 현상이 젊은 층의 정서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인 것은 분명하다.

〈표 5-8〉 혼자 있음이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행복한	(2) 의미 있는	(3) 피곤한	(4) 스트레스 받은	(5) 슬픈	(6) 고통스러운	(7) 외로운	(8) 불안한
혼자였음	-0.282*** (0.059)	-0.614*** (0.065)	0.172** (0.062)	0.100 (0.071)	0.337*** (0.067)	0.226** (0.070)	0.724*** (0.068)	0.374*** (0.068)
상수	3.252*** (0.339)	3.619*** (0.389)	9.093*** (0.382)	7.108*** (0.430)	5.428*** (0.423)	5.610*** (0.425)	4.263*** (0.422)	4.994*** (0.417)
N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adj. R-sq	0.044	0.047	0.056	0.028	0.048	0.037	0.068	0.052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성별, 만 나이,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고용형태, 균등화가구소득, 수면시간을 통제함.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혼자 있음이 정서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면,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경우 경험하는 정서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응답자들이 일화를 경험하는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아래 표와 같다. 없음을 제외하면 배우자, 연인이 19.4%로 가장 많고, 자녀가 15.1%, 직장동료가 14.3% 순이다. 노인의 경우 배우자, 연인이 35.7%이고 나머지 관계는 다 10%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청년과 중장년은 노인에 비해 가족 외 사회적 관계가 더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9〉 함께 있는 누군가의 응답률

(단위: %)

함께 있는 사람	없음	배우자, 연인	자녀	직장동료	부모	직장상사	기타	친구	고객, 학생
응답률	48.8	19.4	15.1	14.3	7.4	3.4	2.6	2.5	1.7

주: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앞서 활동에 따른 정서적 경험을 보았듯이, 관계에 따라서도 분석해보았다. 활동을 분석한 것과의 차이를 먼저 발견하면, 특정 관계를 통해서만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행복한 정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관계는 배우자/연인으로 이는 활동과 정서를 분석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배우자/연인과 함께 있을 때 다른 관계보다 외로움을 가장 약하게 경험하였다. 많은 관계들 중 자녀에게서 느끼는 정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는데,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의미 있는 정서를 가장 강하게 느끼면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정서는 가장 약하게 경험하였다.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는 부모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정서를 감소시켜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특정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상사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정서를 가장 약하게 경험하면서 동시에 불안한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였다. 고객이나 학생과 함께 있을 때 피곤함과 스트레스, 고통이 가중되었다. 활동에 따른 분석에서도 ‘일’이 가장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요소였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분석 결과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친구와 있을 때는 가족만큼 행복감을 고양시키지는 못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 5-10〉 함께 있는 사람과 정서적 경험

(단위: 점)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없음	5.49	4.96↓	5.46	4.21	3.09	3.07	3.35↑	3.09
배우자/연인	6.78↑	6.04	4.73	3.22	2.23	2.15	2.12↓	2.19
자녀	6.70	6.14↑	4.94	3.47	2.14↓	2.08↓	2.18	2.17↓
직장 동료	5.27	5.30	5.63	4.97	3.19↑	3.33	2.99	3.10
부모	6.15	5.54	5.25	3.71	2.76	2.67	2.71	2.70
직장상사	4.70↓	5.19	6.10	5.49	3.16	3.56	2.98	3.31↑
기타	5.93	5.77	5.42	3.95	2.28	2.57	2.01	2.28
친구	6.68	5.80	4.62↓	3.21↓	2.42	2.32	2.40	2.42
고객, 학생	4.90	5.68	6.22↑	5.74↑	2.97	3.57↑	3.00	3.26
다른 친척	6.44	5.63	5.09	3.98	2.80	3.00	2.83	2.59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볼드체 수치는 기
타를 제외하고 최저점이고, 위 방향 화살표가 있는 볼드체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고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정서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는 〈표 5-11〉과 같다. 함께 있는 사람에 따른 정서적 경험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면서 최고점과 최저점에 화살표 표시를 하였는데, 실증분석에서도 해당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이 나타났다.

먼저 배우자/연인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에 모두 정적 영향을,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정서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행복한 정서를 경험하는 데 정적 영향을 주면서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관계에는 친구도 포함되었다. 배우자와 연인, 친구와의 돈독한 관계가 행복감을 키우고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번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자녀의 경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증가시키는 것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데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형태로 포함되어 있지만 배우자, 자녀, 부모라는 관계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다르다는 것은 향후 가족의 의미를 세분화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분석은 청년과 중장년이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청년과 중년, 장년은 부모와 자녀로부터 느끼는 정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또한 연령대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정서적 경험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된 또 다른 관계는 직장 상사 및 동료, 그리고 고객 및 학생인데, 이러한 관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정서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직장 상사 및 동료, 고객(학생)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정서는 부적 영향을 받았고,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고통스러운, 불안한 정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정적 영향을 받았다. 활동이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일과 관련된 활동이 긍정적 정서를 약화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일이라는 활동 자체가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서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일이라는 활동과 같은 범위로 묶여서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표 5-11〉 함께 있는 사람이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행복한	(2) 의미 있는	(3) 피곤한	(4) 스트레스 받은	(5) 슬픈	(6) 고통스러운	(7) 외로운	(8) 불안한
없음	-0.307* (0.121)	-0.605*** (0.133)	0.213 (0.139)	0.302+ (0.158)	0.385** (0.147)	0.395** (0.153)	0.714*** (0.148)	0.501** (0.156)
배우자/연인	0.643*** (0.112)	0.217+ (0.127)	-0.355** (0.132)	-0.604*** (0.148)	-0.269* (0.136)	-0.297* (0.140)	-0.338* (0.136)	-0.210 (0.143)
자녀	0.308** (0.096)	0.333** (0.116)	-0.002 (0.121)	-0.076 (0.127)	-0.280* (0.118)	-0.108 (0.121)	-0.198 (0.120)	-0.140 (0.120)
직장 동료	-0.467*** (0.122)	-0.245+ (0.130)	0.215 (0.136)	0.881*** (0.158)	0.462** (0.149)	0.610*** (0.157)	0.348* (0.150)	0.464** (0.158)
부모	0.219 (0.138)	0.156 (0.153)	-0.329+ (0.170)	-0.272 (0.185)	0.128 (0.171)	-0.094 (0.178)	0.265 (0.176)	0.141 (0.179)
직장상사	-0.731*** (0.148)	-0.015 (0.150)	0.502*** (0.143)	0.781*** (0.174)	-0.007 (0.172)	0.265 (0.183)	-0.029 (0.173)	0.286 (0.185)
기타	0.265 (0.206)	0.289 (0.241)	0.035 (0.223)	-0.212 (0.265)	-0.641** (0.239)	-0.413+ (0.249)	-0.624** (0.226)	-0.543* (0.231)
친구	0.949*** (0.196)	0.561** (0.214)	-0.764** (0.253)	-0.847*** (0.266)	-0.500* (0.238)	-0.777*** (0.229)	-0.340 (0.238)	-0.439+ (0.248)
고객, 학생	-0.849*** (0.218)	-0.024 (0.208)	0.708*** (0.210)	1.259*** (0.265)	0.191 (0.259)	0.850** (0.283)	0.420 (0.267)	0.592* (0.276)
다른 친척	0.229 (0.273)	-0.343 (0.371)	0.520+ (0.278)	0.859* (0.357)	0.553 (0.360)	0.687* (0.342)	0.645+ (0.372)	0.545 (0.352)
상수	3.179*** (0.352)	3.527*** (0.408)	9.093*** (0.407)	6.906*** (0.451)	5.454*** (0.444)	5.486*** (0.449)	4.409*** (0.451)	4.933*** (0.445)
N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adj. R-sq	0.100	0.060	0.071	0.080	0.062	0.059	0.079	0.065

주: 1) 행복한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굵은 실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굵은 점선으로 표시함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성별, 만 나이,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고용형태, 균등화가구소득, 수면시간을 통제함. +p<0.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제5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과 정서적 경험을 분석하였다. 일상생활과 정서적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일상재구성법(DRM)을 사용하였다. DRM은 응답자들이 하루 동안의 일화를 기록하게 하고, 해당 일화가 전개된 시간, 활동의 종류,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 방법이다. DRM은 Kahneman et al.(2004)의 연구에서 처음 적용되었으며, 2020년에 정해식 등(2020)의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일화 정보를 수집하여 일상생활과 행복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우리나라의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DRM을 활용한 연구에서 주목하는 변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간, 활동, 관계이다. 국내외에서 DRM을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활동과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박정열·손영미(2015), 한경혜·장미나(2011), 장재윤 외(2007)는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강승민·장재윤(2018), 홍영의(2019), 정해식 외(2020)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누구와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하는지 분석하였다. 국외의 DRM 연구 동향은 국내보다 소재가 풍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Kostadin, Elizabeth and Richard(2015)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Whitehead & Blaxton(2017)은 노인의 신체활동(운동)이 행복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Genadek, Flood, & Moen(2017)은 부부의 시간 사용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노동자의 성향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Krueger & Schkade, 2006), 교통 혼잡이 운전자의 감정 변화에 미치는 영향(Morris & Hirsch, 2015)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통해 DRM에서 주목하는 시간, 활동, 관계는 어떤 집단을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DRM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은 언제, 무엇을 할 때,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 2,000명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일상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 시간, 활동, 관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청중장년은 언제 행복한가?’였다. 응답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 즉, 아침에서 점심, 저녁을 지나 밤이 되기까지 -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은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피곤한, 스트레스받음, 슬픈, 고통스러운 등)은 점점 약하게 경험하였다. 응답자를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한 결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행복한 정서는 두 집단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그 증가폭이 크고 집중되어 있다.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은 일하는 사람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해지는 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약화되었다. '괴로운' 정서는 두 집단 모두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월~금)과 휴일(토~일)로 구분했을 때 행복한 정서 경험은 모두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피곤한 정서 경험은 평일에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였다. 먼저 활동별 응답률을 보면 '개인적인 휴식'이 36.1%로 가장 높고, '먹고 있음', 'TV시청/음악청취', '일', '집안일/식사준비', '컴퓨터/인터넷',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순으로 응답하였다. 20% 이상 응답률을 보인 활동 중 '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내(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연관된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활동별로 정서적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보면, 모든 정서적 경험을 통틀어 가장 뚜렷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이때 가장 행복한 정서를 경험하며, 동시에 '피곤한', '스트레스받음',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등 부정적 측면의 정서는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반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와 고통스러운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증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개인적인 휴식은 행복감을 높이는 동시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고, 배우자, 연인,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 동료들과 어울리는 활동 또한 행복감을 높이는 동시에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고 있어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가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일'을 포함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행복감을 낮추고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였다. 먼저 혼자였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때를 구분하여 정서적 경험을 비교해보면, 두 경우 모두 행복한 정서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 더 행복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있음이 정서적 경험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받은 정서적 경험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혼자인 것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는 데 부적 영향을 미치고, 피곤한·슬픈·고통스러운·외로운·불안한 정서를 경험하는 데 정적 영향을 미친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의미 있는 정서를 가장 강하게 느끼면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정서는 가장 약하게 경험하였다. 직장상사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정서를 가장 약하게 경험하면서 동시에 불안한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였다.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정서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 배우자/연인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에 모두 정적 영향을,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슬픈 등의 부정적 정서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직장 상사 및 동료, 고객(학생)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정서는 부적 영향을 받았고,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고통스러운, 불안한 등 부정적 정서는 정적 영향을 받았다. 자녀와 있을 때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DRM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행복을 경험하는 데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고, 피곤함과 스트레스, 고통을 경험하는 데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배우자, 연인,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피곤함, 스트레스,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는 매우 약하게 경험한다. 이러한 관계 중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것은 배우자/연인이다. 자녀는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게 하지만 부모의 영향은 크지 않다. 반면 일을 할 때는 가장 행복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와 고통은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관계에서도 드러나는데 직장상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으며 고객과 있을 때는 피곤함과 스트레스, 고통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간단한 키워드를 떠올리게 하는데, ‘일과 삶의 조화’가 그것이다. 가족, 연인과의 친밀한 시간이 행복감을 높이고 일이 행복감을 저하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에 접목시키면, 일이 주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관계에서 받는 행복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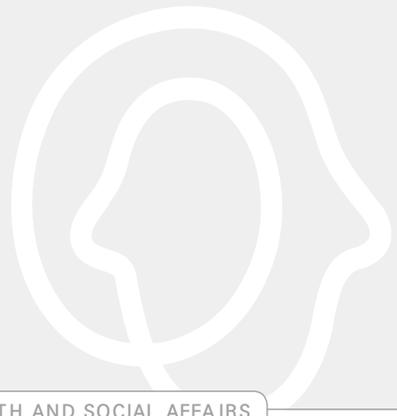
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하루 동안 경험하는 활동 중 ‘출퇴근/이동, 몸단장’이 의미 없고 피곤한 활동으로 분석된 결과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경쟁적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DRM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이 고립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정해식 외, 2020),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행복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적 관계라는 분석 결과와, 동시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고립은 인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약화시킨다. 더 이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가 노년층의 전유물이 아님을 인식하고, 고립 청년을 비롯한 1인 가구들이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역할을 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나아가 소규모 공동체까지 제 역할을 다해야만 가능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 과정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내(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연관된 활동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것은 조사 기준시점인 2021년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주로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이 배제될 경우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일’을 할 때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있을 때 공통적으로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 즉,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서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일이라는 활동과 같은 범위로 묶여서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DRM 분석은 2020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 장년, 중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노인과 달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집단임을 고려하여 평일-휴일, 경제활동 여부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나,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서 청년-장년-중년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번 분석

은 노인과 비노인이라는 측면에서 수행되었으나, 향후 청년과 중년, 장년, 나아가 더 세분화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면 인구 집단별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복지국가와 행복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자료

제4절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와 국민 행복

제5절 행복 수준 결정 요인의 다층모형 분석

제6절 소결

제 6 장 복지국가와 행복

제1절 문제제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인 국가 단위 행복의 특징을 제시하거나, 개별 국가 내에서 개인의 행복 결정요인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 단위의 행복 수준 영향요인 분석은 한 국가 국민의 총체적인 행복 수준을 결과변수로 하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사회적 특징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서 ‘세계행복보고서’는 소득, 건강, 관대성 같은 국가 전체의 특징을 이용하여 개별 국가의 행복 수준 정도를 설명한다. 반대로 개별 국가 내에서 개인의 행복 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절적인 접근은 한계를 지닌다. 왜 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이는 어떤 국가의 사람들은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가? 왜 같은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가의 사람들은 다른 국가의 사람보다 덜 행복한가? 국가별로 제도적인 특징이 다를 수 있고, 그 안에서 개인의 경제, 사회적 상황이 다르게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단위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단위와 개인 단위를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것은 자료의 제약이 큰 원인을 차지하였다. 한 국가의 제도적 특징 변화와 행복 수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짧은 주기로 측정되어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몇 년 주기로 측정되는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VS)’,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 정도에서만 국제비교가 가능한 수준에서 행복의 측정치가 제공되었다. 척도의 문제도 있었다. 세계가치관조사는 국가별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행복 수준 점수보다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에 더 관심을 가졌다. 행복의 수준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갤럽월드폴이 주기적으로 각 국가별로 응답자의 행복수준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보이는 낮은 행복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국가 및 개인 단위에서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기대보다 낮은 행복 수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정책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낮은 행복 수준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복지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노인의 낮은 행복 수준의 원인은 노후 소득 불안정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렇게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아닌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절대적인 수준에서 행복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다면 그 국가의 행복도가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상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확대되어 가는 소득, 자산 격차는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행복 수준의 평가를 위한 준거보다 낮은 수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생활의 안정, 격차의 축소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발전은 행복도 증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지국가의 역할이 한 국가 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복지국가의 제도적 노력, 성과라는 국가 수준의 요인을 고려한 다층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각국이 보이는 복지국가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복지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행복과 복지국가 노력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Bok, 2010, pp. 16-23; Frey & Stutzer, 2002, pp. 10-11). 한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성격 유형, 인구·사회적 요인, 개인소득, 총소득, 특정한 근로조건 같은 개인적 요인 외에도 실업, 물가 상승, 정치의 탈집중화 같은 사회·

제도적 요인도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비교국가 차원보다는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분석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이들 미시적 변수값을 총합하였을 때 사회적 조건으로 행복 수준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Frey and Stutzer(2002)가 제시한 요인들 중에서 경제적 요인에서의 실업, 물가 상승은 하나의 거시지표로서 사회적 조건에 해당한다.

국가 수준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첫째 요인은 소득이다. 그렇지만 행복에 대한 소득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행복에 대한 소득의 효과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용이론’(Absolute utility theory)과 ‘상대적 효용이론’(Relative utility theory)이 존재한다(Diener & Oishi, 2000). 절대적 효용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록 행복이 높아진다고 보지만, 상대적 효용 이론에서는 사회의 소득증가와 더불어 개인의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사회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 여러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상이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한 국가의 행복 수준이 다른 국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소득과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Inkeles, 1993). 따라서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수준, 노동조건, 환경, 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게 될 때, 소득과 행복 수준의 관계는 더 많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Di Tella & MacCulloch, 2008).

행복에 대한 또 다른 설명요인은 고용상태와 고용의 질과 관련된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실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더 낮은 수준의 정신적 안녕 상태를 보이며(Clark & Oswald, 1994)²⁴,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실업률이 낮은 시기에 사람들은 더 행복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1).

Rothstein(2010)은 복지국가와 행복이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모든 복지국가가 그런 것은 아니고, 보편적 복지국가가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신뢰의 수준과 부패의 정도에 관련되는데, 신

24) 이들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효용(disutility)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의 상대적 효용이론이 실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elliwell and Huang(2008)은 좋은 정부가 삶의 만족도에서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고, 이에 비해서 1인당 소득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하였다. Bradshaw(2008)는 복지국가의 노력(1인당 사회지출)이 삶의 만족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즉,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의 표준편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복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Veenhoven(2000)은 기대와는 다르게, 복지국가의 크기와 안녕의 수준 간에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국가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복지지출을 덜하는 국가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며,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나 감소가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나 행복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와 시민의 주관적 안녕의 평등 간에도 관계가 없다고 밝히며, 사회보장지출이 높은 국가의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과 행복의 분포가 더 적은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한 사회의 복지국가 혹은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행복 수준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Di Tella and MacCulloch(2008)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감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로 측정된 복지국가 수준, 기대수명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 환경오염, 범죄, 경제의 개방도, 물가상승과 실업 등은 개인의 행복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Pacek and Radcliff(2008)는 거시적 변수로 탈상품화지수,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로 측정된 사회임금, 누적된 좌파정당의 내각 점유율을 설정하고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탈상품화, 사회임금, 좌파정당의 내각 점유율 모두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복지국가에 의해 담보되는 사회적 포용성도 사회적 신뢰를 이끌어낸다. 국가 간 비교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신뢰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Uslaner, 2002, p. 236).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부자와 빈자 간의 정치적 갈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런 사회에서 높은 신뢰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에 대한 투자, 건강보호 수준의 증가 등의 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끌기도 하면서, 불평등의 수준을 줄일 수 있다(Rothstein and Uslaner, 2005). 그러므로 재분배 장치를 가진 복지국가의 발전 역시 필요하다.

2. 연구 가설

가. 국가 단위 분석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 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수준에서의 행복 수준 설명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세계행복보고서’는 각국의 행복 수준 점수와 더불어 1인당 GDP, 건강기대수명, 관대성 지수,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 부패인식을 이용하여 각국의 행복 수준 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각국의 행복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노력(input)과 성과(outcome)을 이용하고자 한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는 어느 정도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노력과 성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각 개인이 그러한 성과를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적 변수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뒤이은 개인 단위 수준을 고려한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국가 단위에서 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주요한 경제적, 사회적 변수를 고려한다. 이에 따라 고려한 변수는 국민소득(1인당 GDP), 소득불평등도, 빈곤율, 실업률, 노동시장 참가율, 복지국가 지출이다. 이때 국민소득, 소득불평등도, 빈곤율과 실업률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자료가 획득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복지국가 지출은 OECD 국가로 한정한다. 복지국가 지출은 총지출 외에도 지출 유형에 따라서 현금급여 지출과 서비스 급여 지출을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상의 변수를 이용한 이 연구에서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국민소득(1인당 GDP)이 증가하면 국가의 행복 수준은 증가하였는가?
-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면 국가의 행복 수준은 낮아지는가?
- 실업률이 증가하면 행복 수준은 낮아지는가?
- 복지국가 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의 행복 수준은 증가하는가?

나. 다층모형 분석

각국의 개인들은 그들 고유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된다. 노동시장 참여의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은 개인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상황의 악화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수준 분석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개인 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노력과 성과는 국민의 행복 수준 증가를 이끌어내는가?

제3절 분석 자료

1. 개인 수준 자료

이 연구의 다층모형 분석에서는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 GWP)의 2017년 개인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행복 수준과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가 수준의 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 변수 중에서 사회지출 데이터는 2017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가장 최근의 자료이므로(총지출 자료는 2019년까지 공개되고 있지만, 지출 유형별 자료는 2017년 자료까지만 공개), 갤럽 월드 폴 데이터도 2017년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2. 국가 수준 자료

각 국가 수준의 자료는 세계은행의 WDI 자료, OECD 국가의 복지 지출, 소득분배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가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수준의 행복 수준을 설명할 때는 이 기간 중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갤럽 월드 폴의 국가 수준의 행복 수준 측정이 있었던 시기에 1인당 GDP,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확인될

경우에 국가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다층모형에서는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노력에 해당하는 GDP 대비 사회지출 변수가 이들 국가에서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표 6-1〉 자료 및 출처

구분	내용	출처	
결과변수	삶의 평가	칸트릴 사다리 점수 (최악의 상태 0~최상의 상태 10)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1, 여성=2	- Gallup World Poll
	연령	만 나이	
	연령 제곱	만 나이×만 나이	
	건강상태	건강문제 없음=0, 있음=1	
	혼인상태	유배우(및 동거)=1, 별거, 이혼, 사별=2, 미혼=3	
	교육수준	초등교육 이하=1, 중등교육=2, 고등교육 이상=3	
	경제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 지위	
개인소득 분위		개인소득 5분위	
국가 수준	1인당 GDP	1인당 구매력으로 환산한 2017년 기준 US\$ 값	- 세계은행, WDI
	지니계수	세계은행- Gini index(World Bank estimate)(SI.POV.GINI) OECD- Gini(disposable income, post taxes and transfers)	- 세계은행, WDI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빈곤율	세계은행- Poverty headcount ratio at national poverty lines (% of population)(SI.POV.NAHC) OECD-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 세계은행, WDI
	실업률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national estimate)(SL.UEM.TOTL.NE.ZS)	- 세계은행, WDI
	고용률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otal (% of total population ages 15+) (modeled ILO estimate)	- 세계은행, WDI
	GDP 대비 사회지출	GDP 대비 사회지출 (총지출, 현금급여 지출, 서비스 급여 지출, 분야별 지출)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12년 11월 16일 인출)

제4절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와 국민 행복

1. 경제적 성과와 행복

다음 <표 6-2>는 2017년 기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 국가와 OECD 국가의 행복 점수에 미치는 로그 1인당 GDP의 경제적 성과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과 OECD 국가로 한정된 분석모형을 구분하였다. 경제력 수준만을 투입한 이 분석 모형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OECD 국가로 한정된 경우 모두 경제력이 행복 수준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그림을 통해 논하기로 한다.

<표 6-2> 국가 간 행복점수에 대한 경제력의 영향

구분	전 세계 국가	OECD 국가 한정
로그 1인당 GDP	0.965*** (0.075)	1.327*** (0.139)
상수	-3.563*** (0.704)	-7.368*** (1.467)
관측수	1913	524
국가 사례 수	161	38
adj. R-sq	0.624	0.304

주: 유의수준은 * p<0.05, ** p<0.01, *** p<0.001으로 표시함.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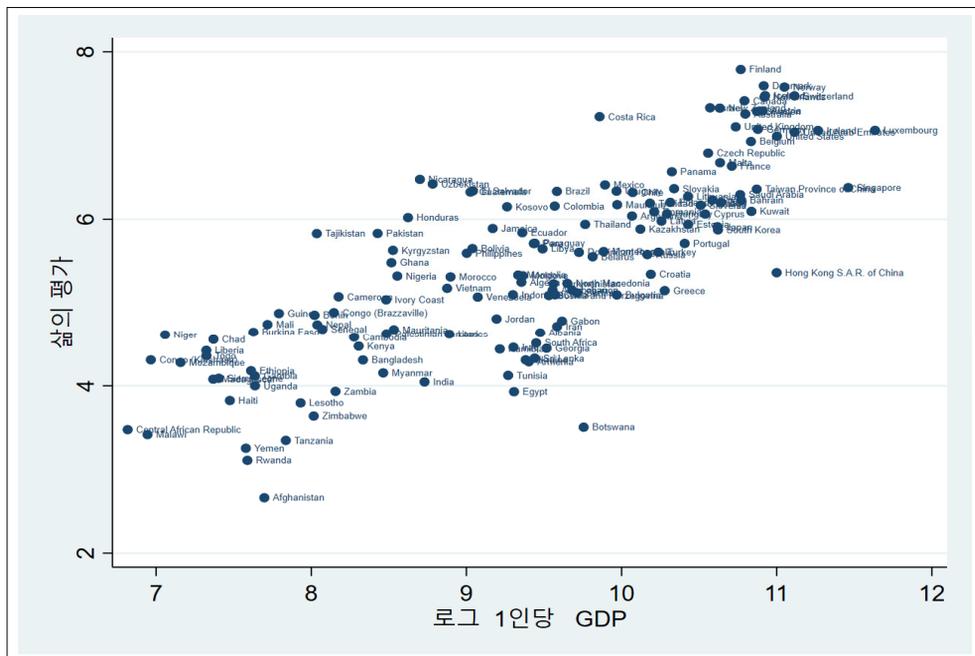
[그림 6-1]은 <표 6-2>의 결과를 도식화하여 2017년 기준 세계 146개 국가의 로그 1인당 GDP와 삶의 평가를 이용한 행복 수준 점수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로그 1인당 GDP에 따른 각국의 행복 수준 차이의 설명력은 62.4%로 나타나며, 로그 1인당 GDP가 1단위 증가할 때 행복 수준은 0.75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p.=0.000).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국민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경제적 성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 행복을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돈 없이는 행복을 논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2]는 <표 6-2>의 결과 중 분석대상을 38개 OECD 국가로 한정된 결과를

도식화하고 있다. 로그 1인당 GDP로 설명되는 각국의 행복 수준 차이는 31.4%로 낮아지지만, 로그 1인당 GDP가 1단위 증가할 때 행복 수준은 0.97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성과에 의한 증가폭이 전체 국가로 범위를 확장했을 때보다 약간 크다 ($p=0.000$). OECD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 중 1인당 소득이 낮더라도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있는데, 코스타리카(CR), 멕시코(MEX), 칠레(CHL), 콜롬비아(COL)가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면 로그 1인당 GDP의 삶의 평가에 대한 설명력과 영향력은 더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경제적 성과가 국민의 행복 수준을 담보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OECD 국가로 한정할 경우, 경제적 성과를 이용한 행복도 차이 모델의 설명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선진국 내에서는 경제적 성과 외에도 국민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2장에서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림 6-1] 로그 1인당 GDP와 행복 수준(전체 국가-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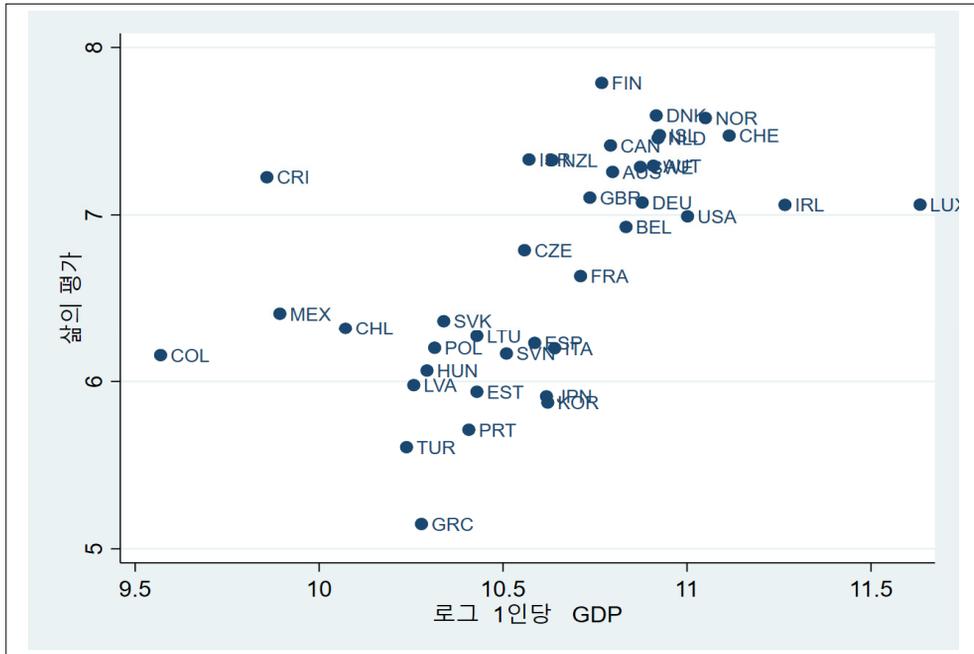
(단위: 로그 1인당 GDP, 점)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6-2] 1인당 GDP와 행복 수준(OECD 가입국가-2017년)

(단위: 로그 1인당 GDP,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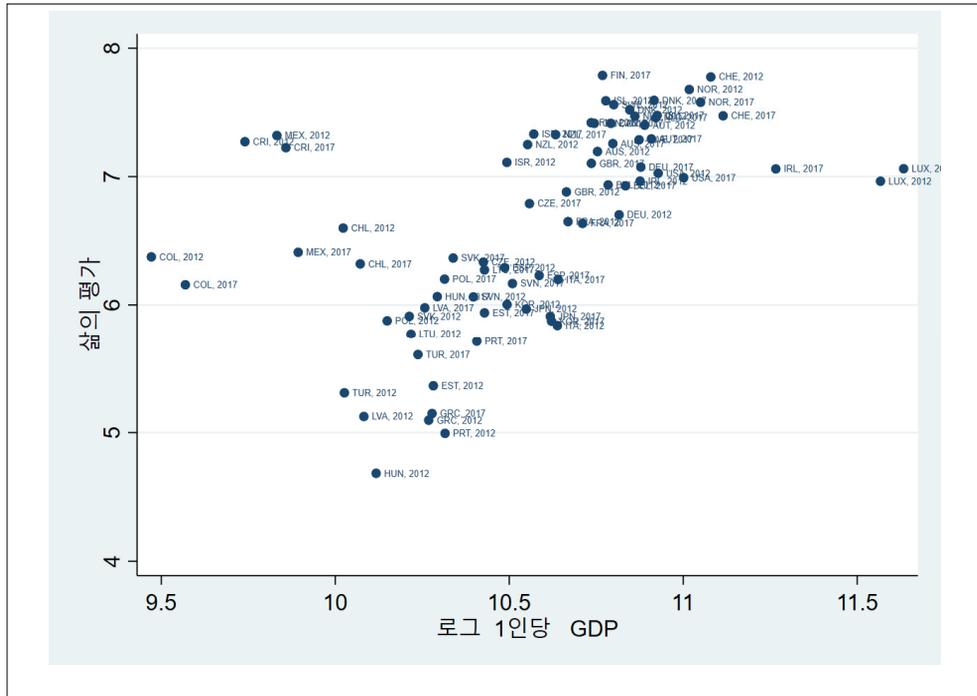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앞서 <표 6-2>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한 국가 안에서도 국가의 경제적 수준 증가는 행복도 증가를 이끌어낸다. 다음 [그림 6-3]은 OECD 국가로 한정하여 지난 2012년과 2019년의 두 시점에서의 1인당 GDP와 행복도 수준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 OECD 국가의 행복도의 평균 점수는 6.57점, 로그 1인당 GDP는 10.52였으며, 2019년에는 행복도의 평균 점수는 6.70점, 로그 1인당 GDP는 10.61이었다. 즉, 전체적으로 1인당 소득 증가가 있었고, 이에 맞춰서 행복도 증가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일률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경제적 성과는 삶의 평가로 측정된 주관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여기서는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로그 1인당 GDP를 이용하였는데, 이를 이용한 해석에서는 소득이 지수 단위로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6-3] 소득 증가와 행복도 변화(OECD 국가 2012년과 2019년 비교)

(단위: 로그 1인당 GDP, 점)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 소득 불평등과 행복

다음 <표 6-3>은 지니계수로 측정된 각국의 소득불평등도가 행복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과 OECD 국가로 한정된 분석모형을 구분하였다. 경제력 수준과 소득분배 값을 함께 투입한 이 분석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OECD 국가로 한정된 경우 모두 경제력과 소득분배가 행복 수준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할수록, 즉 지니계수가 1단위 증가하면 행복 수준은 0.026점(전 세계 국가), 0.030점(OECD 국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3〉 국가 간 행복점수에 대한 소득분배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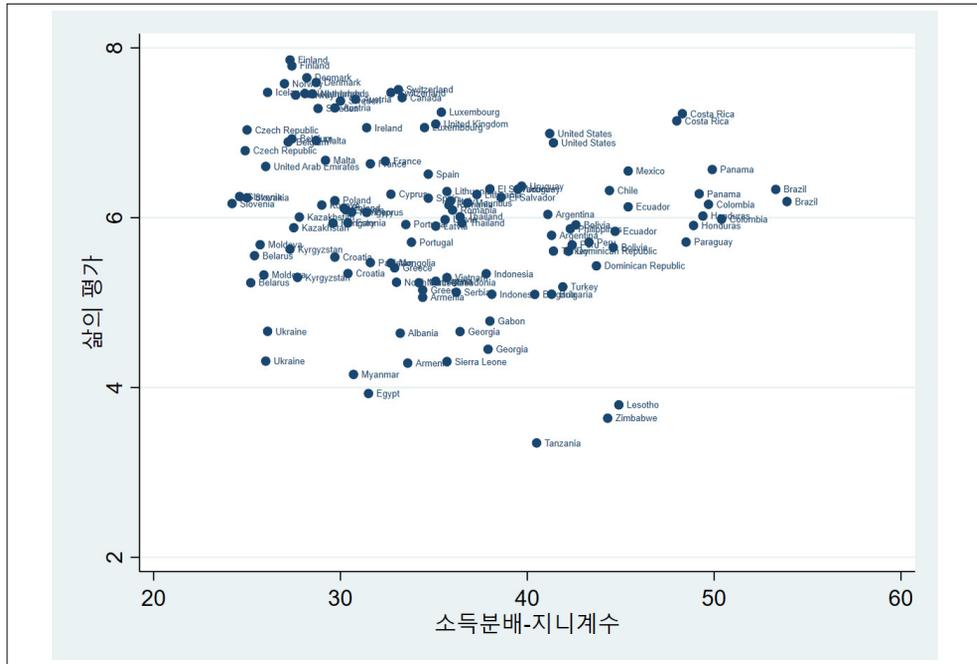
구분	전 세계 국가	OECD 국가 한정
로그 1인당 GDP	1.037*** (0.114)	1.405*** (0.168)
지니계수	-0.026*** (0.007)	-0.030** (0.011)
상수	-3.357*** (1.244)	-7.216* (1.872)
관측수	875	382
국가 사례 수	125	37
adj. R-sq	0.497	0.250

주: 유의수준은 * p<0.05, ** p<0.01, *** p<0.001으로 표시함.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 및 세계은행 WDI 자료(<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21.11.29. 인출)을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6-4]는 2017년과 2018년 소득분배 상태의 측정값이 있는 국가들의 소득분배 수준과 삶의 평가 수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소득수준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국가군이 확인된다. 먼저 소득분배 상태도 양호하고 행복 수준도 높은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국가군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소득분배 상태는 양호하지 않지만 행복 수준은 중간 수준인 국가들이 확인되는데, 코스타리카, 멕시코, 파나마,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득분배 상태는 양호하지만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그림 6-4] 소득 불평등과 행복 수준(2017년, 2018년)

(단위: 소득분배지수, 점)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 및 세계은행 WDI 자료(<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21.11.29. 인출)을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3. 빈곤, 실업과 행복

다음 <표 6-4>는 각국의 빈곤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행복점수와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과 OECD 국가로 한정된 분석모형을 구분하였다. 경제력 수준과 빈곤율을 함께 투입한 이 분석에서 빈곤율은 행복점수를 설명하는 데 음의 영향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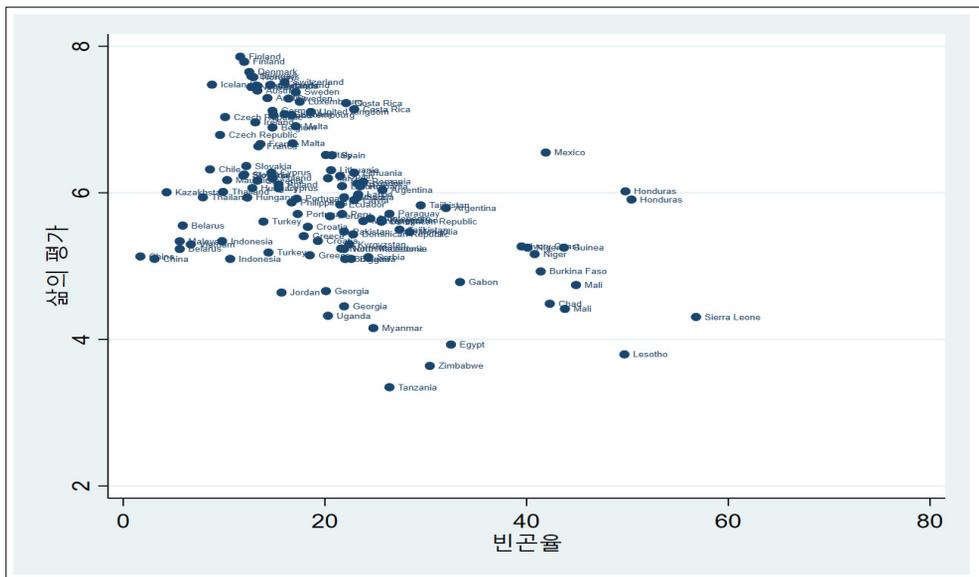
<표 6-4> 국가 간 행복 점수에 대한 빈곤율의 영향

구분	전 세계 국가	OECD 국가 한정
로그 1인당 GDP	1.244*** (0.162)	1.363*** (0.204)
빈곤율	-0.003 (0.004)	-0.003 (0.010)
상수	-6.237*** (1.638)	-7.772** (2.208)
관측수	628	258
국가 사례 수	121	31
adj. R-sq	0.620	0.428

주: 유의수준은 * p<0.05, ** p<0.01, *** p<0.001으로 표시함.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 및 세계은행 WDI 자료(<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21.11.29. 인출)을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6-5] 빈곤율과 행복 수준(2017년, 2018년)

(단위: %, 점)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 및 세계은행 WDI 자료(<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21.11.29. 인출)을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6-5>와 [그림 6-6]은 각국의 실업률과 행복점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과 OECD 국가로 한정된 분석모형을 구분하였다. 로그 1인당

GDP로 측정하는 경제력 수준과 실업률을 함께 설명변수로 투입한 이 분석에서 실업률이 1단위 증가할 때, 한 나라의 행복 점수는 0.047점(전 세계 국가), 0.050점(OECD 국가)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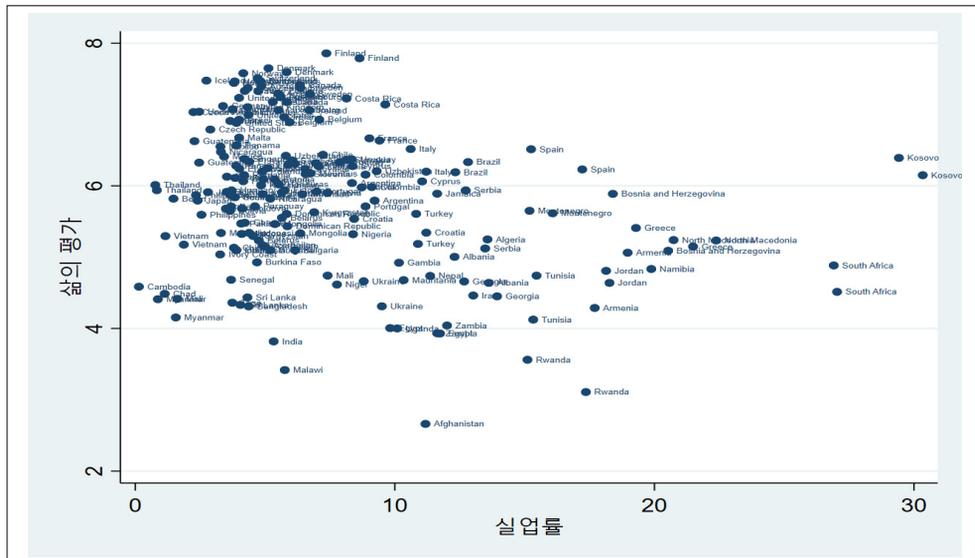
〈표 6-5〉 국가 간 행복 점수에 대한 경제력, 실업률의 영향

구분	전 세계 국가	OECD 국가 한정
로그 1인당 GDP	0.841*** (0.086)	0.542*** (0.151)
실업률	-0.047*** (0.004)	-0.050*** (0.005)
상수	-2.024* (0.843)	1.276 (1.613)
관측수	1362	523
국가 사례 수	146	38
adj. R-sq	0.622	0.379

주: 유의수준은 * p<0.05, ** p<0.01, *** p<0.001으로 표시함.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 및 세계은행 WDI 자료(<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21.11.29. 인출)을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6-6] 실업률과 행복 수준(2017년, 2018년)

(단위: %, 점)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 및 세계은행 WDI 자료(<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21.11.29. 인출)을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4. 복지지출과 행복

가. 복지지출과 국가 수준의 행복

다음 <표 6-6>은 OECD 국가로 한정하여 GDP 대비 복지 분야 총지출로 측정하는 복지국가의 노력이 각국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GDP 대비 복지 지출은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국가 단위 행복 수준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결과로는 OECD 국가에서 더 많은 복지지출을 하는 국가에서 국민이 덜 행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복지지출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차이가 있다. 현금 복지지출은 행복 수준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현물 복지지출은 유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행복 수준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미친다. 즉, 복지 분야 지출의 유형, 즉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표 6-6> 국가간 행복점수에 대한 경제력, 복지국가 지출의 영향

구분	OECD 국가 한정	OECD 국가 한정	OECD 국가 한정
로그 1인당 GDP	1.323*** (0.149)	1162*** (0.182)	1.474*** (0.179)
GDP 대비 복지지출	-0.028** (0.008)		
GDP 대비 현금 복지지출		-0.067*** (0.013)	
GDP 대비 현물 복지지출			0.019 (0.015)
상수	-6.800*** (1.615)	-4.895*** (1.969)	-8.776*** (1.882)
관측수	470	420	420
국가 사례 수	38	38	38
adj. R-sq	0.347	0.419	0.307

주: 유의수준은 * p<0.05, ** p<0.01, *** p<0.001으로 표시함.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 및 OECD 사회지출데이터 자료(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을 이용하여 분석함.

<표 6-7>에서는 <표 6-6>의 분석 전략을 적용하되 복지국가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의 부정적 결과는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앵글로 색슨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로그 1인당 GDP와 GDP 대비 총복지지출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륙유럽에 위치한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남유럽 복지국가에서 로그 1인당 GDP는 국민의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GDP 대비 복지지출은 음의 영향을 미친다.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로그 1인당 GDP와 GDP 대비 복지지출이 모두 행복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구 소비에트연방에서 체제전환한 국가에서는 로그 1인당 GDP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국민 행복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GDP 대비 복지지출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7〉 행복점수에 대한 복지국가 지출의 영향-국가 유형별 분석

구분	앵글로 색슨 자유주의 복지국가	대륙유럽 보수주의 복지국가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	남유럽 복지국가	체제전환 국가
로그 1인당 GDP	-0.841** (0.291)	1.068* (0.497)	0.126 (0.569)	3.012*** (0.745)	2.370*** (0.218)
GDP 대비 복지지출	-0.042** (0.013)	-0.051** (0.018)	-0.017 (0.013)	-0.108*** (0.028)	-0.002 (0.016)
상수	17.048*** (3.332)	-3.371 (5.486)	6.597 (6.226)	-22.954** (8.316)	-18.536*** (2.309)
관측수	77	85	56	53	100
adj. R-sq	0.045	0.065	-0.078	0.653	0.531
국가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 에스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주: 유의수준은 * p<0.05, ** p<0.01, *** p<0.001으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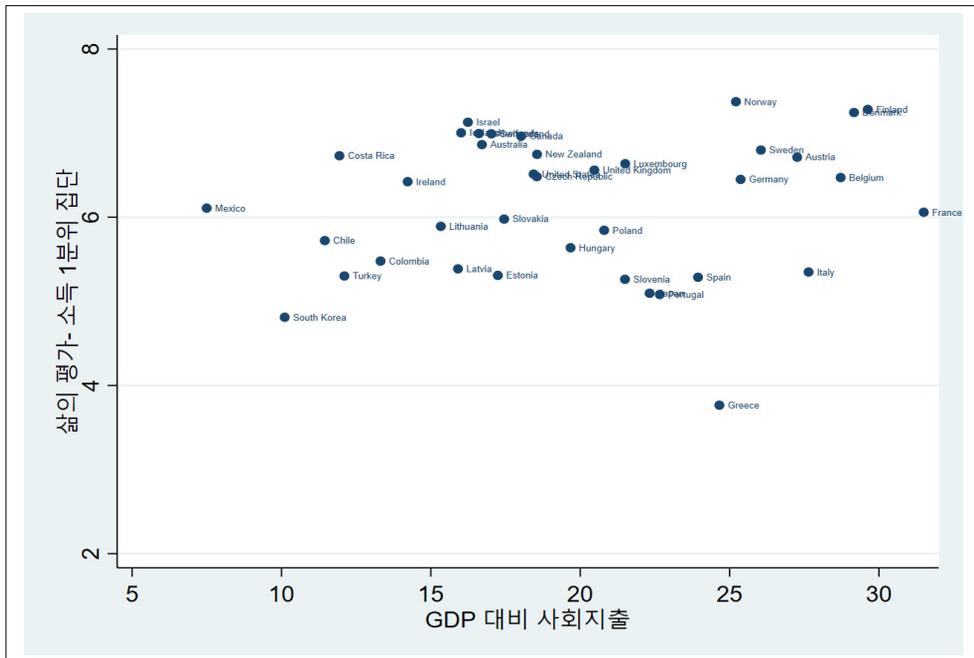
자료: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 및 OECD 사회지출데이터 자료(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을 이용하여 분석함.

나. 복지지출과 국가별 주요 집단의 행복

복지국가는 빈곤, 실업, 질병이나 노화 등 누구나 취약한 상태로 편입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 수준을 보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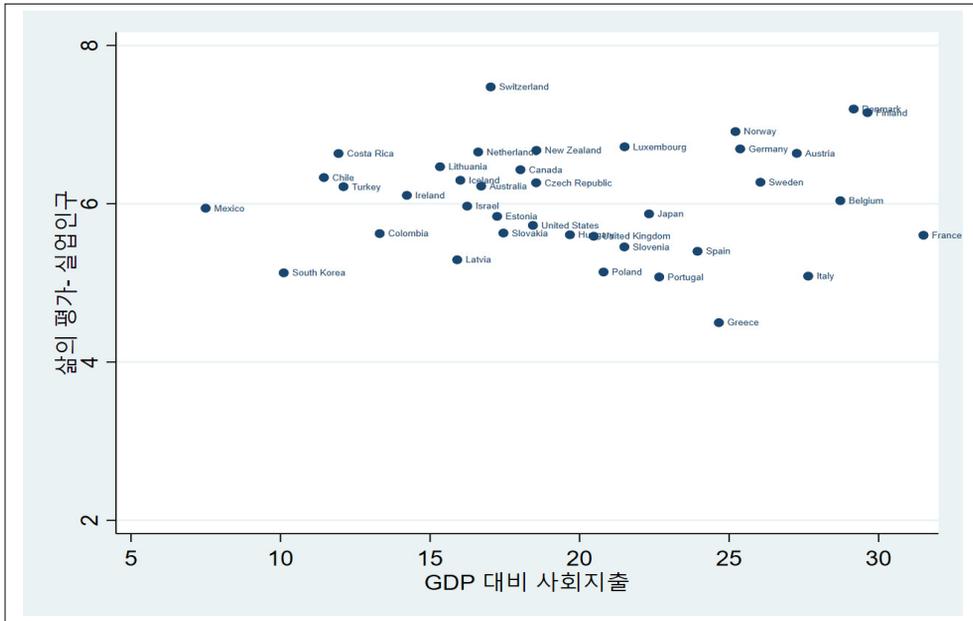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다음 [그림 6-7], [그림 6-8], [그림 6-9]는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과 각국의 취약계층 중에서도 소득 1분위 집단, 실업자, 고령자의 행복 수준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앞선 <표 6-7>에서 GDP 대비 복지지출로 측정하는 복지국가의 노력이 앵글로 색슨 자유주의 복지국가 등에서 국민의 행복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GDP 대비 사회지출이 보였던 유의한 부정적 효과가 이들 취약계층 집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는 복지지출이 행복 점수에 대해 가지는 음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복지지출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관계를 가정하거나 복지지출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6-7] GDP 대비 공적 사회보장 지출과 소득 1분위 집단의 행복 수준(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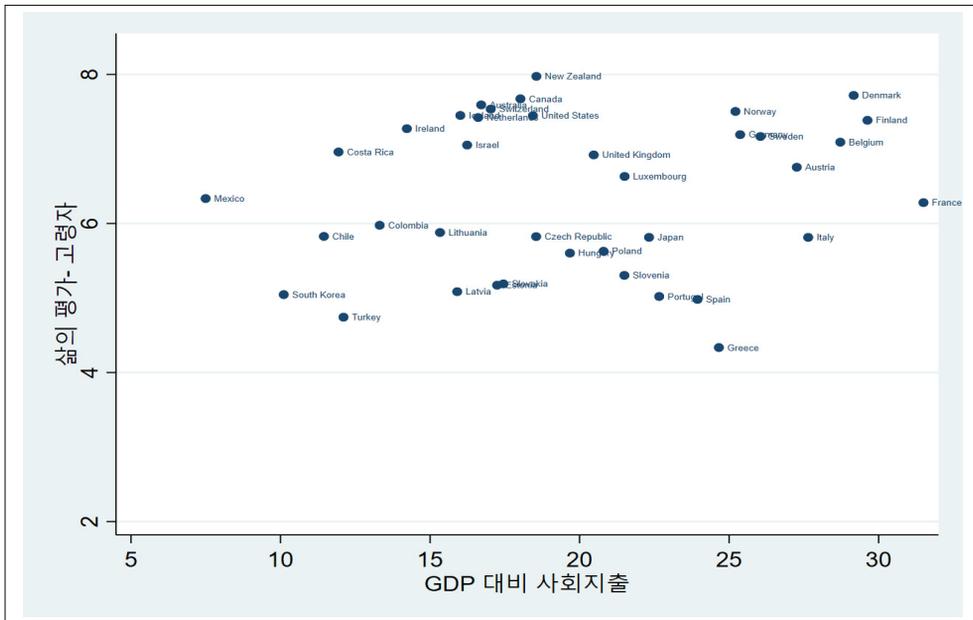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및 OECD 사회지출데이터 자료(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을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6-8] GDP 대비 공적 사회보장 지출과 실업자의 행복 수준(2018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및 OECD 사회지출데이터 자료(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을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6-9] GDP 대비 공적 사회보장 지출과 실업자의 행복 수준(2018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및 OECD 사회지출데이터 자료(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을 이용하여 분석함.

제5절 행복 수준 결정 요인의 다층모형 분석

앞서 GDP 대비 사회지출로 평가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투입이 행복 수준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취약 집단으로 한정할 때는 복지국가 투입에 따른 행복 수준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가 한 국가 내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여기서는 각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복지국가의 분배 노력, 즉 복지 투입과 제도적 성과, 즉 소득 재분배, 빈곤율, 실업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의 분배 노력과 제도적 성과에 대한 측정값이 필요하다. 다수준 분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인 지니계수, 빈곤율의 측정 정보는 OECD의 ‘소득분배데이터베이스(Income Distribution Database)’의 2017년 기준 값을 활용하였다. OECD의 소득분배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가 없는 콜롬비아는 제외하고, 37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²⁵⁾ 소득분배 상태(지니계수, 빈곤율)와 관련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는 2016년 값, 벨기에, 일본은 2018년 값, 뉴질랜드는 2014년 값을 이용하여 대체하였다. 이에 맞춰 종속변수인 행복도 및 개인수준의 독립변수는 갤럽월드폴의 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6-8〉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지표 기초통계

	1인당GDP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노동시장 참가율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	GDP 대비 현물급여 비중
평균	44,696	0.32	0.117	6.70	60.91	11.51	7.97
최솟값	19,721	0.22	0.049	2.74	49.61	3.37	3.95
최댓값	112,308	0.48	0.204	21.49	76.64	19.63	14.00
사례수	37	37	37	37	37	37	37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12년 11월 16일 인출)

25) 콜롬비아의 경우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에 빈곤율과 실업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자료에는 OECD 국가 결측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6-9>와 같다. 콜롬비아를 제외한 37개 OECD 국가에서 복지국가의 분배 관점에서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경제활동과 관련한 노동시장 참가율과 실업률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은 지니계수, 빈곤율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실업률과는 정적 상관관계, 노동시장 참가율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표 6-9>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지표간 상관관계

	1인당 GDP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노동시장 참가율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	GDP 대비 현물급여 비중
1인당GDP	1						
지니계수	-0.350	1					
빈곤율	-0.338	0.846*	1				
실업률	-0.263	0.089	0.134	1			
노동시장 참가율	0.157	-0.061	-0.099	-0.514*	1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	0.198	-0.546*	-0.430*	0.449*	-0.590*	1	
GDP 대비 현물급여 비중	0.327	-0.371	-0.384	-0.198	0.121	0.292	1

주: 유의수준은 * p(0.01로 표시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12년 11월 16일 인출)

먼저 기초모형을 통해 각국 국민의 행복도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집단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는 0.132로 나타난다. 이것은 응답자들의 행복점수 변량 중 13.2%는 이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해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변수를 모두 투입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국가수준 변량은 0.501에서 모형에 따라 0.220, 0.274, 0.224, 0.182로 줄어들었지만, 연구 모형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행복 수준의 영향은 앞서 3장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다층모형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중 빈곤율, 노동시장 참가율, 실업률을 국가수준의 설명변수로 투입한 것이다. 앞서 국가 수준에서 높은 실업률은 국가의 행복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다층모형 분석에서는 국가의 실업률, 빈곤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며,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두 번째 다층모형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중 분배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 사는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유의하게 낮았지만, 국가 수준의 지니계수는 응답자들의 행복 수준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세 번째 다층모형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투입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GDP 대비 현금 복지지출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행복 수준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GDP 대비 서비스 급여 비중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다층모형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에서 유의하였던 노동시장 참가율과 복지투입 모형에서 유의하였던 GDP 대비 서비스 급여의 비중을 국가수준에서 고려한 모형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 수준에서 노동시장 참가율의 1단위 증가는 응답자들의 행복 수준을 평균적으로 0.054점 상향시키며, GDP 대비 현금급여의 1단위 증가는 응답자의 행복 수준을 평균적으로 0.100점 상향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10> 다층모형 분석 결과

구분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모형 1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모형 2	복지투입 모형	제도적 성과 * 복지투입 모형
개인 수준 변수				
연령	-0.050*** (0.003)	-0.050*** (0.003)	-0.050*** (0.003)	-0.050*** (0.003)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건강문제 있음	-0.749*** (0.023)	-0.749*** (0.023)	-0.749*** (0.023)	-0.749*** (0.023)
혼인 상태 (준거집단= 결혼, 유배우)				
이혼·별거·사별	-0.376*** (0.025)	-0.376*** (0.025)	-0.375*** (0.025)	-0.375*** (0.025)
미혼	-0.432*** (0.026)	-0.433*** (0.026)	-0.433*** (0.026)	-0.433*** (0.026)

구분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모형 1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과 모형 2	복지투입 모형	제도적 성과 * 복지투입 모형
개인 수준 변수				
교육 수준	0.338*** (0.016)	0.339*** (0.016)	0.338*** (0.016)	0.338*** (0.016)
경제활동 상태 (준거집단= 풀타임근로자)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204*** (0.035)	0.203*** (0.035)	0.204*** (0.035)	0.204*** (0.035)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153*** (0.043)	-0.154*** (0.043)	-0.154*** (0.043)	-0.153*** (0.043)
자영업자	0.104** (0.036)	0.103** (0.036)	0.104** (0.036)	0.104** (0.036)
실업자	-0.462*** (0.051)	-0.463*** (0.051)	-0.463*** (0.051)	-0.462*** (0.051)
비경제활동인구	0.086*** (0.025)	0.085*** (0.025)	0.086*** (0.025)	0.087*** (0.025)
개인 소득분위	0.217*** (0.007)	0.217*** (0.007)	0.217*** (0.007)	0.217*** (0.007)
1인당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국가 수준 변수				
지니계수		4.791 (2.698)		
빈곤율	-3.876 (2.038)	-9.912* (4.012)		
노동시장 참가율	0.054** (0.019)			0.054*** (0.015)
실업률	-0.010 (0.025)			
GDP 대비 현금 급여			-0.039* (0.019)	
GDP 대비 서비스 급여			0.124*** (0.033)	0.100*** (0.029)
상수	3.589** (1.289)	5.733*** (0.662)	5.669*** (0.328)	2.306** (0.880)
국가간 변량				
관측수	35,889	35,889	35,889	35,889
대상국가수	37	37	37	37
ICC	.0726233	.0888351	.0740194	.060729
BIC	139260	139257.5	139250.2	139089.7
로그 우도	-69530.338	-69534.344	-69530.71	-69526.84

주: 유의수준은 * p<0.05, ** p<0.01, *** p<0.001으로 표시함.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및 OECD 사회지출데이터 자료(OECD.Stat에서 2021년 12월 6일 인출), 세계은행 WDI 자료(<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21.11.29. 인출)을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제6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분석과 복지국가라는 거시적 차원의 구성체의 영향력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분석하더라도 경제적 발전은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 수준 증진을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과 2019년 기간 중 행복 수준이 낮아진 국가의 발전 속도는 행복 수준이 높아진 국가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수준에서 볼 때 경제적 불평등도는 행복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빈곤율은 행복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가의 실업률은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지출로 평가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투입이 행복 수준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취약 집단으로 한정할 때는 복지국가 투입에 따라 행복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 개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 외에도 국가 수준에서의 차이도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노력과 성과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한 원인으로 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고 GDP 대비 서비스 급여 지출이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 차원의 행복 함수를 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삶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정도’(freedom to make life choices)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Helliwell et al., 2016). 이는 우리나라에서 공동체를 통한 지원이나 개인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서 사람들의 삶을 적절하게 재구성할 제도적 완충장치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복지국가 기제의 저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안전망 없이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 개인들의 행복감을 낮추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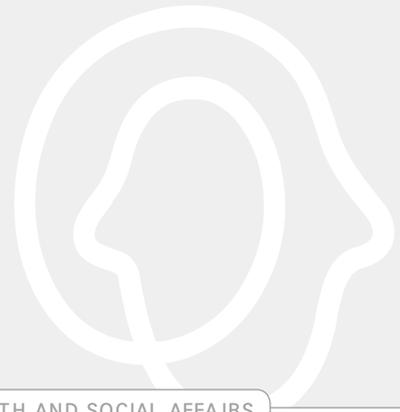
따라서 복지제도의 확장은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과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후적인 방식으로 빈곤율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더 나은 행복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는 점은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전반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도 필요하다. 돌봄의 사회화, 직업 훈련 서비스의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부

행복과 삶의 질 국제비교 질적 연구

제7장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제8장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국제비교 결과 종합



제7장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동아시아 국가 행복 연구 동향: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제3절 질적 연구 설계

제4절 질적 연구 결과

제5절 소결

제 7 장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제1절 문제 제기

한국인의 행복을 저하시키는 요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다수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한 학문적 관점에서 특정한 대상으로 단편적인 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인 동시에 삶의 환경인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학문적 접근, 특히 범(汎)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적 성향과 가치관, 남북 대립, 다층적인 갈등 지점(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치열한 경쟁 사회(입시경쟁, 취업경쟁)와 급격한 사회변화(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경향)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지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복에 있어서 경제적 요건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한국은 경제적 수준은 높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이다. 행복과 경제 수준을 양축으로 두면, 개별 국가는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행복 수준이 평균 이상이면서 경제 수준도 평균 이상인 국가들, (2) 행복 수준이 평균 이상이면서 경제 수준은 평균 이하인 국가들, (3) 행복 수준이 평균 이하이면서 경제 수준은 높은 국가들, (4) 행복 수준이 평균 이하이면서 경제 수준도 낮은 국가들.

이에 2019년도에는 (1) 유형의 국가인 북유럽 국가의 행복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020년도에는 ‘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용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인 멕시코인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2)의 행복 수준이 평균 이상이면서 경제 수준은 평균 이하인 국

가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3차 연도인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행복 수준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계 속의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분석해보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로서 베트남에 주목하였다. 베트남은 최근 경제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로서, ‘세계행복보고서 2020’에 따르면 행복 수준은 83위이다. 61위인 한국의 행복 수준에 비해 다소 낮다. 베트남은 현재 구매력(PPP) 기준 GDP는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는 편이며, 최근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이 한국이 경험한 고성장, 고발전 경험을 재현하면서 동아시아 발전 모형을 따르고 있지만(이한우, 2016), 국민총행복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의 가치가 있다. 더욱이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 국가에 가깝지만 한자를 쓰고 불교와 유교 등 중국 문화의 영향을 공유하고 있어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분류된다(호티투흐형, 2018).

이번 장에서는 최근 경제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행복도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사회제도적 특징과 국민의 일상적 삶의 영위 방식,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3개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행복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여건 대비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인의 심리적, 경제적 불안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다학제적 관점으로 인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지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인의 행복을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특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동아시아 국가 행복 연구 동향: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대한민국

가. 행복 수준

‘세계행복보고서 2020’(Helliwell et al., 2020)에 따르면 2017-2019년 평균 세계 행복지수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될 동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은 5.872점으로 153개국 중 61위에 위치한다. 인접한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일본(62위, 5.871), 홍콩(78위, 5.510), 중국(94위, 5.124)보다는 행복지수가 높은 편이지만 대만(25위, 6.455), 싱가포르(31위, 6.377), 태국(54위, 5.999)보다는 낮다. ‘World Database of Happiness’²⁶⁾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행복도는 2010년 - 2018년 5.9 점/10점으로 162개 국가 중 모리셔스, 알제리 등과 함께 85위권에 위치해 있다. 다른 대륙을 보면, 유럽과 북미 등 이른바 Global North라 일컬어지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높으며,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Global South에 속한 개발도상국들의 행복 수준은 낮다. 하지만 위의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국민의 행복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 경제 규모가 큰 일본, 홍콩, 중국 등의 행복 수준은 낮은 반면 경제 규모가 이들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다소 낮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의 행복 수준은 높은 편이다. 한국 역시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0년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2020)’²⁷⁾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OECD에 가입된 38 국가들 중 한국은 하위권(30위)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이 그보다 약간 높은 25위에 위치한다. 부문별로 한국은 사회 제도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housing),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교육(education) 등 일부 부문에서 OECD 평균 이상을 기록했으나 소득(income),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

26) <https://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27)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anc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 개인의 인식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평균 이하를 기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보고서’(김승권 외, 2008)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비교적 행복하다’(100점 기준 67.8점)고 응답하여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자, 여성, 30대, 유배우자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나 일부 특성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나. 소득수준 및 경제발전 특이사항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²⁸⁾에 따르면 한국의 구매력(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조 2,935억 달러로, 조사 대상 195개국 중 14위로 나타나 전 세계 상위권의 위치라 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중국(1위, 24조 1624억 달러), 일본(4위, 5조 2361억 달러)만이 한국보다 국내총생산이 높아 아시아 권역에서는 한국이 세 번째 경제 대국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통계의 구매력(PPP) 기준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에서 한국은 44,292달러로 195개국 중 27위이다. 통상 1인당 GDP를 1인당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국인 개개인의 소득수준은 세계 상위권으로 볼 수 있다. 소득수준 관련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마카오, 홍콩, 대만 등이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데, 대부분 인구와 면적 등의 측면에서 도시국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 그 외 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큰 일본, 중국은 소득수준의 측면에서는 각각 31위(41,636달러), 77위(17,205달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소득 기준으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OECD의 ‘더 나은 삶의 행복지수 2020(Better Life Index 2020)’에서 소득 지표로 삼는 1인당 평균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the average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면에서 한국은 21,882달러로, 40개국 중 23위로 나타나 OECD 국가 중에는 중위권에 속한다.

시계열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IMF의 ‘World

28)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0/October>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2010년 성장률은 6.80%였으나, 2020년에 -1.88%를 기록하여 성장률의 감소 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4.12%에서 -5.27%로 감소한 일본, 10.56%에서 1.85%로 감소한 중국, 14.53%에서 -6.00%로 감소한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보면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급격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2021년에는 해당 수치가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저성장이 21세기의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좋지 않은 편으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2018년 기준 0.345, 지니계수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팔마비율(Palma ratio) 역시 1.36으로 모두 조사 대상 37개국 중 27위를 기록하였다.²⁹⁾ 한편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2020년 4.08%로 중국(3.80%), 일본(3.31%), 대만(3.90%), 싱가포르(3.00%) 등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이다. 그 추이 또한 2010년 3.71%에서 2020년 4.08%로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대,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고용불안정은 향후 한국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재 한국의 가계 자산 구성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거주주택 외에도 추가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심현정, 2018). 1980년대 이래 한국의 도시 및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발전주의 도시화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야기했으며, 미시적으로는 개개인들로 하여금 부동산 자산의 끊임없는 상품화 및 지대 이익의 실현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갖게 한다(신현방, 2016). 대다수 통계에서 간과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 소득, 자산, 불평등 문제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러 연구에서는 부동산 소유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심리적 만족도가 행복감을 좌우한다(이창석, 윤정득, 2011), 또한, 이처럼 자산보유에 따른 심리적 만족감이 작용하여 행복도를 결정하며 이러한 효과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될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김지현, 조승현, 2008).

29)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마강래, 강은택(2017)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소유와 행복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자산이 대물림될 경우, 행복감 역시 세대 간에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구 결과, 부모의 부동산 자산은 자녀의 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세대 간 부동산 자산 대물림의 정도와 행복 대물림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두 대물림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마강래, 강은택, 2017). 따라서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자녀 세대의 행복의 차이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행복의 대물림이라는 현상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한국은 대통령제 및 의회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정당정치가 자리 잡은 이래 거대 양당과 그 외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유사 양당제적 특성을 가졌고, 이로 인해 정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 정치 양극화의 특징은 일반 대중들의 주관적 이념성향은 전반적으로 중도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정치엘리트가 다수 국민의 이념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좌우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정치엘리트의 양극화라는 점이다(강문구, 조재욱, 201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2020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³⁰에서 한국은 8.01점을 기록하여 167개국 중 23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었다. 상위권은 대체로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더불어 중국(11위, 8.94점), 일본(21위, 8.13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OECD의 Better Life Index 2020에서 한국의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지표는 2위로 최상위권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투표율,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Stakeholder engagement for developing regulations)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OECD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국의 제도적 장치들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반면, 같은 통계에서 일본은 39위로 최하위권에 자리했다.

시민의 정치참여는 정부의 행정의 참여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의를 높이는 데 중

30)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0>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참여는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는 자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김광민·이대웅·권기현, 2018).

한편,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2000년대 들어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제도권 바깥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 2008년 광우병 집회,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등 시기마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에 시민들의 광장정치가 큰 역할을 했으며, 2017년에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실제로 시민의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역시 개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에게 선거나 단체, 모임과 시위에 참여할 권리, 정부를 비판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부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로, 시민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게 평가(배정현, 2014)하므로 앞으로 단순히 양적인 시민참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질적인 만족도 역시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가족관계, 결혼 및 출산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³¹⁾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2019년 기준 2.4명이다. 해당 수치는 1970년 5.2명, 1980년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1명, 2010년 2.7명, 2019년 2.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2015년 OECD 조사³²⁾ 기준 OECD 평균(가구당 2.46명)에 근접한 것으로 가구규모의 축소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위와 같은 현상은 출산율 저하,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설명되는데, 시계열적으로 보면 같은 자료에서 한국의 주된 가구유형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는 4인 가구였는데, 2010년에는 2인 가구, 2015년부터는 1인 가구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4인 가구 비율은 1990년 29.5%에서 2019

31) 국가지표체계, 가족: 가구원 수,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https://www.index.go.kr>>

32) OECD, OECD Family Database: Family size and composition,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년 16.2%로 감소한 반면, 1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9.0%에서 30.2%로 증가하였다.

가족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만 원만한 가족관계는 여전히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개인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감을 자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구재선, 김의철, 2006).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 여부는 실질적인 사회자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정서적인 문제로 누군가와 대화할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를 부탁할 친인척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도가 높다(여유진, 2015). 이처럼 가족생활과 결혼생활은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있어 배우자와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고 상호협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며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김승권, 장영식, 차명숙, 조흥식, 2008).

통계청 조사³³⁾에 따르면, 한국인의 가족관계만족도³⁴⁾는 2020년 기준 58.8%이며 해당 수치는 시계열적으로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남성(61.5%)이 여성(56.1%)에 비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나이가 어릴 수록(20세 미만, 76.9%/65세 이상, 51.3%) 만족도가 높다. 위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혼인율 및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³⁵⁾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율은 2019년 기준 1,000명당 4.7명이며, 시계열적으로는 1970년 9.2명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2017년 기준 OECD 평균 가족 구성원 수³⁶⁾는 4.8명이다. UN의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³⁷⁾에 따르면, 한국의 2015-2020년 사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live births per woman)은 1.11명으로 아시아 평균 2.15명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사 대상 국가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통계청 조사³⁸⁾에 따르면 한국의

33) 국가지표체계, 가족: 가족관계 만족도,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https://www.index.go.kr>>

34)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5) 국가지표체계, 가족: 조혼인율,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https://www.index.go.kr>>

36) OECD, OECD Family Database: Marriage and divorce rate,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3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Online Edition. Rev. 1. <<https://population.un.org>>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에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마. 일 가정 균형(work life balance)

OECD 'Better Life Index 2020'의 일-가정 균형(work-life balance)에서 한국은 40개국 중 37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과 식사 및 수면, 여가 활동을 포함한 개인 생활(personal care) 시간을 종합한 지표로 여기서 한국은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이 25.2%로 37위를 기록했으며 개인 생활시간은 14.7시간으로 27위에 해당한다.

OECD 노동시간 자료³⁹⁾에서 한국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조사 대상 38개국 중 3위를 차지하였다.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를 묻는 통계청 조사⁴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응답자의 42.1%가 여전히 일이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가정이 우선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3.7%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직장인 85.7%가 한국사회 직장인의 근무시간이 과한 편이라고 답했으며, 79.6%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76.3%의 직장인이 한국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⁴¹⁾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긴 노동집약적인 삶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송혜림, 2015).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주된 책임을 갖고 있어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송혜림, 2012). 이에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영미, 2013).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는 업무에의 몰입을, 가정에서는 집중적

38)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https://www.index.go.kr>>

39) OECD, *OECD Data* : Hours worked,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40) 국가통계포털,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19세 이상 인구),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https://kosis.kr>>

41)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8, 근무시간 길고, 삶의 여유 없는 한국사회, 아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희망사항'에 가까워,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https://www.trendmonitor.co.kr>>

인 엄마 노릇을 강요받으면서 혹독한 시간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주은선, 김영미, 2012). 이러한 일-가정 불균형은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는데,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균형감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가사 및 돌봄 참여와 조직 내 가족친화 제도, 근무시간조절 가능성이 필요하다(송혜림, 2015). 반대로, 자녀를 돌보고 가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사회활동과 동등한 자아실현의 기회로 여기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일-가정 양립은 스트레스 요인이거나 갈등이 아닌 이점으로 작용해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이한나, 한정원, 2018).

바. 기타 행복과 관련된 문화 또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행복과 관련해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YOLO(You Only Live Once), 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DINK(Double Income No Kids) 등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여가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로 진출하면서 기존 한국사회의 통념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미덕으로 여겨졌던 직장에서의 헌신과 직업적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여가와 행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OECD의 '2020년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2020)'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매우 긴 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25.2%로 OECD 평균인 11%보다 훨씬 높다. 더 많은 시간 일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여가활동 등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 OECD 주요국의 여가시간 비율 살펴보면, 2019년 한국의 여가시간 비율은 17.9%(여가시간(분)/1,440분(24시간*60분)으로 계산)⁴²⁾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여가보다 일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국희·최인철(2018)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일보다 여가를 우선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일-여가 불균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스포츠나 오락과 같이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수반하는 여가활동은 사람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 활동의 즐거움, 스트레스 해소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행복도를 높

42) OECD, 최종접속일: 2021년 7월 22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ME_USE

여준다(김경식, 이루지, 2011). 그러나 여가 시간이 증가할수록 반드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단순한 여가 시간의 증가는 오히려 행복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문진, 황선환, 2014). 따라서 단순한 여가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중요하고(장훈, 김우정, 허태균, 2012) 자신에게 맞는 여가활동을 찾고 선택할 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Iyengar and Lepper, 2000). 이처럼 여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직업 등에 따라 노동시간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이명우, 홍윤미, 윤기웅, 2016).

코로나19 대유행과 이것이 사회 각 분야에 가져올 다양한 파급효과 역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적극적으로 발화되기도 했으며, 빈부격차 등 기존에 존재했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코로나19와 행복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과 확산으로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으로 인한 낙인 불안 등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나(홍종관, 2020)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이동훈 외, 2020). 사회적 거리 두기와 외부활동 제한 등 감염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등 단절된 생활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은환, 2020). 이에 일각에서는 생활방역뿐만 아니라 심리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홍종관, 2020).

2. 베트남

가. 행복 수준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서 2020년에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 2020’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7-2019년 평균 행복지수는 5.353점으로 83위에 올랐

다. 이는 총 153개국 중 중위권 수준이다. 동남아시아 권역 중에서도 싱가포르(15위, 6.377), 필리핀(52위, 6.006), 태국(54위, 5.999) 다음이다. 한국은 5.872로 61위를 기록하여 베트남이 한국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영국의 신경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 2016년에 발표한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에서 베트남은 40.3점으로 총 140개국 중 5위를 차지하였다. 태국은 9위, 인도네시아 16위 등으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한국은 24.8점으로 80위를 차지함).

네덜란드의 행복경제연구소(Erasmus Happiness Economics Research Organization)에서 조사하는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에 의하면, 베트남의 행복도는 2010년에서 2018년 평균 5.6점으로 162개 국가 중 93위를 기록했다. 인근의 태국(7.3점), 말레이시아(6.8점)보다는 낮은 수치이며 한국은 5.9점으로 82위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베트남의 행복지수는 발표기관과 지표에 따라 상위권에서 중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소득수준 및 경제발전 특이사항

국제통화기금(IMF)의 ‘2019년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에 따르면 베트남의 구매력(PPP) 기준 국내총생산(GDP)⁴³⁾은 7,105억 달러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34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세계 상위권의 위치라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권역에서는 인도네시아(7위, 3조 4,959억 달러), 태국(19위, 1조 3,209억 달러), 말레이시아(26위, 1조 140억 달러), 필리핀(28위, 9,533억 달러)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1인당 소득 최상위권인 싱가포르의 경우, 인구가 적기 때문에 GDP 순위는 5,717억 달러로 37위에 머물렀다(한국의 GDP는 2조 2,352억 달러로 14위를 기록하였다).

같은 통계의 구매력(PPP) 기준 베트남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⁴⁴⁾은 7,513달러로 194개국 중 129위에 위치하고 있다. 통상 1인당 GDP를 1인당 소득으

43) Gross domestic product, current prices ; Purchasing power parity, international dollars

44)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current prices ; Purchasing power parity, international dollars

로 간주하기 때문에 베트남인 개개인의 소득수준은 세계 중하위권 정도로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 권역에서는 싱가포르(4위, 101,387달러), 말레이시아(50위, 31,311달러), 태국(72위, 19,484달러), 인도네시아(101위, 13,234달러), 필리핀(118위, 8,943달러)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한국은 32위, 43,290달러).

시계열적으로 베트남의 경제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IMF의 '2020년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20)'에 따르면, 베트남의 성장률은 198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1995년 9.5%로 최고 성장률을 경신하였다. 1999년에는 4.8%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이후 2019년 7%를 기록하며 약 20년간 5~7%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추세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1.6% 성장하여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미얀마(2%)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통계에서 베트남의 실업률은 1990년 12.3%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2.2%를 기록하여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실업률이 3.3%를 기록하여 다소 상승하긴 했으나 이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1%)과 함께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니계수는 35.7로 159개국 중 91위를 차지하여 소득불평등 수준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44.4로 38위, 말레이시아는 41.0으로 56위, 인도네시아는 39.0으로 68위, 라오스와 태국은 36.4로 각각 83위와 84위를 기록하여 동남아 인근 국가 중에는 베트남의 소득 분배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다(한국은 31.6으로 129위를 차지).

다. 민주주의, 시민참여 수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2020년 발표한 베트남의 민주주의 지수⁴⁵⁾는 167개국 중 137위이다. 선거 부문에서 0점을 받았기 때문에 낮은 총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로 인해 '권위주의(Authoritarian) 체제'로 분류되었고 동남아 권역 내에서는 캄

45)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에 대해 점수를 매겨 계산된다.

보디아(130위), 미얀마(135위)와 같은 범주에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39위), 동티모르(44위), 필리핀(55위), 인도네시아(64위), 태국(73위), 싱가포르(74위)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에 속했다. 베트남의 정치체제가 인근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시민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수준은 3.89로 평가되어 역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비록 베트남의 시민참여 수준은 낮으나 청년층의 경우 정치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얻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세우게 됨으로써 이러한 심리적 자원을 매개로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guyen·Nguyen·Huynh, and Nguyen, 2017).

라. 가족관계, 결혼 및 출산

베트남 통계청에서 시행한 2019년 인구총조사에서 베트남의 평균 가족구성원 수는 3.5명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베트남 가족구성원 수는 3.9명으로 싱가포르와 태국의 평균 가족구성원 수 3.5명보다 높았다. 2005-2008년 베트남 전체 가구 중 핵가족의 비율은 66%로 같은 시기 태국(51.7%), 필리핀(54.8%), 라오스(59.8%), 인도네시아(60%), 캄보디아(60.6%)보다 높았다. 2019년 베트남 인구총조사에서 핵가족 비율은 65.5%이고, 2019년 베트남 1인 가구 비율(10.9%)은 2009년(7.2%)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체 15세 이상의 베트남인 중 혼인상태인 인구는 69.2%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UN의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5-2020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2.06명으로 동남아시아 평균 2.22명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동남아시아 11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베트남인들은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곧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인 가족이라 인식한다(Werner, 2009). 베트남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이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특성을 지닌 국가로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부모의 건강과 가정생활에 대한 평가

가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rinh and Khanh, 2019). 코로나 19 유행과 확산 이후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회가 감소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친밀한 가족관계 유지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hibai, 2020).

마. 일 가정 균형(work life balance)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국민의 연평균 1인당 노동시간은 2,131시간으로 13위에 올랐다. 조사 대상 67개국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캄보디아 1위, 미얀마 2위, 싱가포르 4위, 말레이시아 5위, 필리핀 8위)보다는 노동시간이 적은 편이다.(한국의 경우 1,980시간으로 21위에 올랐음)

HSBC 은행에서 2020년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외거주자 설문조사(Expatriate Explorer Survey)’에 따르면, 베트남의 일 가정 균형 수준은 27위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34위), 싱가포르(36위)보다는 높았고 심지어 일본(40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기타 행복과 관련된 문화 또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신체활동은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단 수준에서의 신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서적 측면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오현옥, 2014), 직접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Shibata, Oka, Nakamura, and Muraoka, 2007).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PA)을 측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체활동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는 지난 한 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 중강도 신체활동, 걷기, 앉아서 보낸 활동에 대한 구체적 시간을 물어보고 신체활동량을 MET 값으로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9-2010년 25-64세의 베트남 국민의 신체활동에 대해 살펴본

Bui et al.(2015)의 연구에서 베트남 사람 10명 중 7명이 WHO 권장 사항을 충족했으며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은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량이 직간접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추후 베트남 국가 내에서의 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18년 베트남 의사 수는 인구 10,000명당 약 8.6명이며, 2010년 7.2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 10,000명당 의사 수(4.27명)와 태국(8명)의 의사 수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8년 의료보험가입자 비율은 86.8%로 2010년(60.9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가입자 비율 95% 목표로 공중보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Bach Xuan Tran 외 12인(2020)은 2020년 하노이의 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66.9%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38.7%는 일자리에서 해고되거나 근무시간이 감축되었다. 이로 인해 38.7%가 불안(anxiety)과 우울(depression)을 호소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복의 상관관계도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제3절 질적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성장, 고발전을 경험한 동아시아 2개 국가인 한국과 베트남 국민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두 국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여 양적 GDP 수준은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국민 행복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전 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특별한 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한국인들의 행복감의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아주 부유하지도, 아주 빈곤하지도 않은 중산층에 속하는 보편적 사람들(ordinary people)을 피면담자로 모집하였다. 또한, 이들이 삶을 사는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변수들인 소득(자산 포함), 가족 구성, 직업 유무, 직업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역시 이전 연구(정해식 외, 2019)처럼 1) 청년 세대와 2) 노년 세대에 초점을 두었다. 청년 세대(20대)를 통해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거나,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에 대한 기대와 행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 세대를 통해서는 개인이 일생 동안 경험하며 형성된 사회에 대한 인식과 그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척도, 행복과 불행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했다. 따라서 일반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1. 한국

한국인 인터뷰는 2021년 6월 중에 20-30대 9명, 60대 이상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이 모집은 기본적으로 연구보조원이 갖고 있는 한국의 사회연결망을 활용하여 하되, 기존 연구와 연장선에서 평범한 사람들(ordinary people)이 모집되도록 주의하였다.

한국인 대상 심층 면담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면접대상자의 선호에 따라 대면 인터뷰 및 온라인 화상 인터뷰(ZOOM)를 병행해서 실시하였다. 온라인 환경에 대한 접근성 차이로 인해 청년층은 대체로 화상 인터뷰를, 노년층은 대면 인터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담은 연구참여자 1인당 1회 2시간을 원칙으로 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을 사전에 정해놓았지만 연구참역자가 비교적 제약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구조적(semi-structural)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재작년 북유럽국가 대상 선행 연구(정해식, 2019) 및 작년 중남미국가 대상 선행연구(정해식, 2020)와 동일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였다.

〈표 7-1〉 한국 - 면접 대상자 요약

순번	성명 (가명)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거주지
1	최일수	남	20대	대졸	서울
2	김효주	여	30대	박사졸	서울
3	이성규	남	30대	대졸	서울
4	박유진	여	20대	대졸	서울
5	양도문	남	20대	대졸	서울
6	박수영	여	30대	대졸	서울
7	문도환	남	20대	대졸	서울
8	손경환	남	20대	대졸	서울
9	심은혜	여	30대	석사졸	서울
10	이순영	여	70대	고졸	서울
11	김만석	남	60대	고졸	서울
12	오미정	여	60대	대졸	서울
13	우영희	여	60대	대졸	서울
14	이서진	남	60대	대졸	서울
15	신연수	여	60대	석사 중퇴	서울
16	박진환	남	70대	고졸	서울
17	최유민	여	60대	대졸	서울
18	송민식	남	60대	대졸	서울

2. 베트남

베트남인의 행복을 탐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온라인 면접이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지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지인을 질적으로 연구할 유일한 방법이 온라인 면접이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본 연구에는 베트남을 20여 년 넘게 연구해 온 필자와 베트남 현지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공동 필자가 현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연구 목적에 맞는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내용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면접은 7월 1일부터 약 3주에 걸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화상회의(zoom)를 통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한 면접은 ‘반구조적(semi-structural)’ 방식을 취하고 베트남어로 진행하였다. 필자 중 한 명이 한국어로 묻고 이를 다른 필자가 베트남어로 통역한 뒤 궁금증이 생기면 베트남어로 다시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다행히 면접대

상자 대부분이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견해를 잘 피력해주었다. 코로나19로 면접대상자의 절대다수는 자택에 머물고 있었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도록 배려한 것도 알찬 면접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표 7-2〉 베트남 - 면접 대상자 요약

순번	성명 (가명)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거주지
1	Quỳnh	여	20대	대학 재학	호찌민시
2	Lan	여	60대	중졸	호찌민시
3	Như	여	20대	대학 재학	호찌민시
4	Thảo	여	20대	대학 재학	호찌민시
5	Trang	여	20대	대학 재학	호찌민시
6	Diễm	여	20대	대학 재학	호찌민시
7	Minh	남	20대	대졸	호찌민시
8	Sơn	남	30대	대졸	호찌민시
9	Thuý	여	60대	대졸	호찌민시
10	Tùng	남	70대	대학 중퇴	호찌민시
11	Duy	남	20대	대학 재학	하노이시
12	Khôi	남	60대	대졸	호찌민시
13	Thịnh	남	50대	대졸	호찌민시
14	Ánh	여	60대	전문대 졸	달랏시
15	Vũ	남	60대	대졸	호찌민시

면접대상자는 현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지원자가 많아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이들을 선별한 후 젠더와 세대의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이들 가운데 Lan(2번)을 제외한 모든 면접대상자가 최소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전문대를 졸업하였으며, 8명은 여성이고 나머지 7명은 남성이었다. 또한 청년 세대가 8명이고 이 중 20대가 7명, 30대 초반이 1명이었다. 노년 세대 7명 가운데는 50대 후반 1명, 60대 5명, 70대 초반 1명이었다.

면접대상자의 직업은 청년 세대의 경우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다수였고 프리랜서와 미술 강사가 1명씩이었다. 대학생의 경우 모두 베트남에서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직업을 가진 2명의 청년 세대 면접대상자도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노년 세대의 면접대상자 역시 전당포 운영자와 아마추어 공연자로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 안정적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나머지 5명은 회사 임원, 연구원, 개인교습을 하는 전직 교원, 은퇴한 회계사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엘리트층에 속했다.

면접대상자 선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지역이 남부 호찌민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북부 하노이 거주자 1명(11번)과 중부 달랏 거주자 1명(1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호찌민 거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행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면접대상자의 지역 안배에 대해 고심했지만, 베트남의 근현대사, 특히 개혁개방 이후의 변화가 지역별로 상당히 달라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면접에서는 지역을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북부와 중부에서 1명씩만 면접을 하고 나머지는 남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게 됨에 따라 베트남 전쟁, 사회주의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남부에서 겪은 사람의 경험과 관점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베트남의 사례를 탐구한 두 연구자의 현지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면담 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지 베트남 전체로 일반화할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제4절 질적 연구 결과

1. 한국인의 행복

가. 행복의 정의

한국의 피면담자들이 정의한 행복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기반해 있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역량), 둘째, 학교, 직장, 가정 등에서 이루어낸 자신의 성취, 셋째, 혼자 또는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은 자신이 대체로 행복한 편이라고 얘기했다. 이들은 한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사건 또는 개인적 조건을 행복과 연결짓기보다는 큰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 대한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면담자들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극복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행복과 관련해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보장된다면 경쟁이나 적은 수입 등도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노년층 피면담자들은 행복에 대해 별로 생각

해 보지 않았거나, 특히 주변 및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행복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눈에 띄는 특징 하나는 행복/불행 어떠한 방향으로든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상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그룹이 1, 2차 연도 사례에 비해 작은 규모이고, 혈연가족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피면담자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나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해야 했던 경험을 불행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나.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고 억압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가진 상태를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많은 피면담자들의 구술에서 공통적이었다. 여기서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의무감 및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행을 예로 드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20-30대 피면담자들의 사례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을 행복으로, 반대의 경우를 불행으로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노년층 피면담자들은 행복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묘사하기보다는 의무에 짓눌렸던 경우를 불행으로 정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억압된 조건에 처하게 될지라도 선택할 자유의 여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 예는 양도문(20대, 남)과의 면담이었다. 그는 가장 불행했던 경우로 주저없이 군대시절을 꼽았다. 군대에 간 것 자체는 물론이고 일상에서의 다양한 행위, 육군사관학교를 다녔을 때 직업의 선택 등 모든 자유가 억압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할 때 고시원과 학원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만큼이나 갇힌 생활이었는데도 그 시절은 행복하고 보람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 차이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군대는 국가란 조직에 의해서 속박당한 건데, 근데 재수는 제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거에서 온 차이가 큰 거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생활을 하느냐 이 차이가 좀 큰 거 같은데요. (양도문, 20대, 남)

이 피면담자는 재수를 하던 시절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역시 행복했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공부 외에도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기에 피곤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학과,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군대와 재수의 비교는 역량이론에서 보여주는 기아와 단식의 차이와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굶는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행위이지만 가난으로 인해 강요된 굶주림은 역량이 제한된 경우인 반면에 신앙 등의 이유로 선택한 단식은 역량이 보장된 경우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면담자들은 사회적으로 주어질 의무, 즉 자신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자신이 해야만 하는 행동 또는 자신에게 강요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사회에는 젠더, 가정 및 직장 내 위계, 나이, 출신 지역 등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 대학 입시, 군대, 자신보다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사회생활, 시집살이 등의 상황이 대표적이었다. 20대 남성 최일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경제적인 이유로 못 하게 되거나, 또는 ‘남자니까, 장손이니까, 대전 출신이니까’ 등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 자신의 자유가 제약되는 경우를 불행하다고 말했다.

70대 여성인 이순영에게도 불행했던 경험은 결혼 후 시부모님과 같이 살 때였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시집 식구들을 위해 매일 집안일을 하는 등 자신의 일상적 자유가 크게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집살이의 경험에 대해 확실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예컨대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일, 출산 후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손자를 돌보는 일 등이 육체적으로 힘에 부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과 책임감 때문에 이를 그만두지 못하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60대 여성 신연수는 높은 책임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역할을 해 낸 경우였다. 그녀는 가계 경제를 등한시하는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면서 동시에 현재 병상에 계신 친정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보람보다는 책임감과 그 압박이 크다고 했다. 현재는 까다로운 남편이 시부모님과 부산에서 살고 있어서 자신이 많이 자유로워져 상당히 행복하다고 했다. 손주들을 돌보고 있지만 그건 자진해서 하는 즐거운 일이라고 열정적으로 묘사했다.

사회와 제도에 의한 강요라는 측면에서 20-30대 피면담자들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대학입시와 군대였다. 이들은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대한 질문에 공통적으로 수능이 끝나고 대학입시에서 벗어나 자신을 짓누르던 중압감에서 해방되던 고3 마지막 시기나 대학에 들어가 여러 활동을 하던 학부생 시절을 꼽았다. 또한, 청년층 피면담자들에게 사회와 제도의 압력은 대체로 부모님을 통해서 구체화되는데, 대학에 입학하면서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변곡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20대 남성 이성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대학 초년생일 때였는데, 그 이유는 짜인 시간표와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행복했던 시기로 꼽히는 대학생활은 타인의 침해,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한 부모님의 침해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수능 하나 보고 좀 하는 느낌이어서 뭔가 벗어났다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뭔가... 전 좀 약간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특히 제가 지방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랑 따로 살면서 좀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자유, 해방감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규, 20대, 남)

이 얘기를 하며 불효자 같다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그가 대학입학을 계기로 자신이 얻은 자유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수능 당일의 성적만으로 지난 수년간 자신의 노력이 평가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학교생활 및 대학입시, 일상생활 등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던 부모님의 직간접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다.

비슷한 선상에서 박수영(30대, 여)도 행복했던 경험을 묘사함에 있어서 엄격한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이라는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녀는 행복했던 순간으로 20살 성인이 되어 좀 더 자유로워졌을 때, 그리고 결혼을 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를 꼽았다. 여기서 그녀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딸만 셋을 키우며 자식들의 동선 및 스케줄을 엄격하게 관리하던 아버지의 간섭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결혼을 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녀는 이제 행복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적 여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미정(60대, 여)의 사례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행복의 관계가 드러나

기도 했다. 교사였던 그녀는 과거 전교조가 창립되던 시절 전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로 인해 학교에서 해직을 당해 4년 반 가까이 학교 밖에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경험이 은퇴를 한 이후에도 교사들은 정치적인 발언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내재된 답답함으로 계속해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일들은 자신이 몸만 건강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변화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남성 피면담자 중 다수는 군대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군대에서의 경험이 행복에 끼친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피면담자들도 있었다. 군대와 행복의 관계로 가장 많이 언급된 측면은 일상에서의 자유였다. 이러한 면에서 군대 내에서의 생활은 일상의 모든 부분이 제약되지만, 전역을 하고 나면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대비되었다. 다음으로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맺게 되는 위계적인 관계의 어려움이 많이 언급되었다. 자신이 잘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나 음담패설 등 자신이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적응하고 맞장구까지 쳐야 했던 경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상급자가 시키는 일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던 경험 등은 불행감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일부 피면담자의 경우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 가정환경 등 개인적 조건의 다양성을 체험하면서 상대적인 행복을 느끼기도 했다.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제가 평범하다고 느꼈던 이게 평범하다는 게 아닌 거를 그때 좀 더 확실하게 느꼈던 거 같아요. (중략) 인원들을 보니까 이혼한 가정도 엄청 많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엄청 많고 내가 대한민국 내가 정말 내가 보는 평균치가 정말 높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양도문, 20대, 남)

즉, 이들은 평소 자신의 주변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환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 조건들이 사실은 평범하지 않으며 오히려 좋은 축에 속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보다 일상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는 한시적인 여행, 스포츠, 레저 경험을 자유, 행복과 연관시켜 묘사하

는 피면담자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손경환(20대, 남)은 스위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하늘을 날 때를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았다. 그 당시 군대 가기 직전에 막연하게 불안했는데 그 스포츠를 하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20대 남성 문도환은 행복했던 순간으로 여행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을 때와 어린 시절 중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가던 순간을 꼽았다. 여행은 일상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책임감,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찾아 떠난다는 점에서 행복함을 준다고 했다. 초, 중, 고 학창생활을 모두 중국에서 보낸 문도환은 당시 자신이 경험했던 중국 사회의 폐쇄성, 감시와 검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한국에 갈 때 행복했다고 한다. 60대 여성 신연수는 행복이 극대화되었던 경험이 딸과의 여행이었다. 딸이 예상하지 못했던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 딸과 함께했던 그 열흘간의 여행은 최고의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방학 때마다 여행을 다녔다고 한다. 위와 같은 자유로움은 일상의 압박을 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것이었다.

다. 성취와 인정

다수의 피면담자는 성취와 인정이 개인이 느끼는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중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성취와 인정은 앞서 논의한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 및 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 피면담자들을 불행하게 했던 다양한 압박 속에서도 특정한 성취를 이루어내고 인정받아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성취에 관한 구술은 주로 학업 및 직장생활의 측면에서 두드러졌지만, 많은 피면담자들은 가족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역시도 성취로 표현했다.

김효주(30대, 여)는 자신이 행복을 느끼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에서 퍼포먼스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중략)..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저는 그렇게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김효주, 30대, 여)

즉,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낼 때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학업 및 직장에서의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평소에 좋아하는 게임 등 취미생활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내 남들의 인정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현재 직장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 나가면서 완성할 때 행복했다고 한다. 그녀의 구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어떠한 일을 잘했다는 평가가 타인에 의해 주어졌을 때 행복감이 더 크다고 한 점이다. 물론 자신과 타인 모두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둘 중에 어느 편이 비중이 크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녀는 타인의 인정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앞 절에서 본 것처럼 대학 합격 후 입시라는 압박에서 벗어났던 때를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을 만큼 대학 합격 자체를 매우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는 피면담자들이 많았다. 스스로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 성격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말한 손경환(20대, 남)도 가장 행복했던 때로는 대학교를 합격한 순간을 들었다. 그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때 성적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었는데, 어느 날 혼자 자신을 키우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큰 성취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30대 피면담자들의 경우 위와 같은 대학 합격 등 성취의 측면에서 경험하는 행복에 있어서 자신이 느끼는 기쁨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자신의 성취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즉, 성취 자체보다 자신이 이룬 성취가 부모님 역시 인정하는 성취인지 여부가 중요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경환은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6등급을 받을 때도, 5등급을 받을 때도 한 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묵묵히 기다려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걱정이 없었던 거 같아요. 가족들의 서포트, 응원이라던가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합쳐져서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거 같아요.(손경환, 20대, 남)

그는 자신보다 성적이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야단을 맞는 친구들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반면 박유진(20대, 여)은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 성취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경우였다.

대학 합격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당연히 서울대에 갈 줄 아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는데.. (중략).. 어떻게 보면 나는 부모님을 만족시켜 주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아니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박유진, 20대, 여)

즉, 한국사회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대다수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성취의 기준인 학업성적 및 대학 합격이 해당 기준에 대한 부모님의 의미부여에 따라 개인의 행복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60-70대 피면담자들도 직업적 성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특정 순간의 성취감보다는 이제껏 삶을 큰 문제 없이 살아낸 것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 많았다. 이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깊게 생각해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선택에 대해 큰 불만을 갖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60대 남성 김만석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직업 및 그로부터 얻는 성취감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는 일이 진척되는 것,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고, 그에게 가장 불행했던 시기는 자신의 사업이 크게 내리막길을 걸었던 아시아 외환위기 시절이었다.

개인의 성취가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역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은 자신의 성취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상황들과 타협하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70대 남성인 박진환은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인터뷰 내내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직업군인이었던 그에게 경쟁과 진급은 가장 큰 불행과 가장 큰 행복의 원인이었다. 진급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30-40대에는 늘 중압감에 시달렸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군대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매일 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집에 와서 아이들과 아내를 보면서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려면 진급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컸다고 했다. 결국 그는 그 압박에서 계속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령을 끝으로 군무원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진급에 대한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평장히 안정적으로 살았다고 했다. 그의 두 아이 또한 큰 행복을 가져다주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아이들의 성적이 걱정되어 그 행복이 감소되었다고 했다.

일부 피면담자들의 경우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성취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컨대 심은혜(30대, 여)는 한국사회에서 행복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또는 정상적이라고 정의된 개인의 삶의 단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20살에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야 하고, 졸업 이후에는 대기업 취직 등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며, 30대에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아야 하고, 직장생활에서는 때에 맞추어 승진을 해야 한다는 등 개인이 삶의 특정 시점에 성취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단계들이 한국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단계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이것들을 제때에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을 때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러한 과정을 숙제에 비유했다.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행복했어요. 결혼을 했으니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조바심이 났는데 딱 생기니까 숙제를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그리고는 다음 숙제를 걱정하기도 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도 아들일까? 이런 것들...결혼하고 남편이 해외근무를 했던 시절 1, 2년 정도 그때도 행복했는데, 그때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모두 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숙제가 없었던 시절이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심은혜, 30대, 여)

즉, 그녀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삶의 단계들을 자신이 적절하게 성취했거나, 또는 자신이 그러한 단계들을 성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련한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다. 다만 그녀는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해진 삶의 단계들을 성취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중요한 삶의 단계 중 하나였던 것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과 관련한 성취감은 60-70대 피면담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들 대부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첫아이를 낳았을 때와 아이들이 어려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을 때를 꼽았다. 이러한 것들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이유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문제없이 이루어내고 있다는 성취감이 컸다. 예를 들어, 이순영(70대, 여)은 첫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기뻐했다고 한다. 물론 처음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기쁨도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당시 사회 분위기가 선호되었던 아들을 출산했다는 사실이 주는 성취감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가정과 관련한 성취 및 행복은 가치관의 문제로 보인다. 20-30대 피면담자들의 경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일부 피면담자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더욱 깊게 내면화하고 있는 60-70대 피면담자들이 관련한 성취에서 행복을 많이 느꼈던 것이다.

라. 일상의 행복과 인간관계

개인의 자유와 성취 외에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도 피면담자들이 많이 언급한 행복의 유형이었다. 다수의 피면담자들은 소소한 행복이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으며, 일부의 경우 앞서 언급된 2가지 유형의 행복은 크게 느끼지 못하며 오직 일상적인 작은 일들에서만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상의 행복은 주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힘들었던 입시가 끝난 고 3 마지막 시기에 날씨가 좋은 겨울날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친구들과 모여서 나눠먹고 농구하던 때(최일수), 강아지랑 날씨 좋은 날 산책할 때, 가족들이랑 즐겁게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눌 때,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남자친구와 앉아서 이야기할 때(박유진), 아장아장 걷는 아기와 손잡고 걸을 때(김만석) 등 작은 에피소드들이다. 이 일상의 행복에 가족, 친구, 지인과의 관계가 포함되는데 그 범위는 주로 가족 및 가장 가까운 친구 등 소규모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용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엇갈리곤 한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과거 기성세대들과 같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어려운 막다른 삶의 조건에 내몰려 이루기 힘든 큰 꿈을 쫓기보다는 주변의 작은 일들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후자에 따르면 젊은 세대가 성취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포기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유진(20대 여)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세대가 많이 느끼는 감정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대학에 합격하고 이런 성취보다는 일상적이고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니깐 작은 행복을 내 앞의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제가 성취, 성공, 커리어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박유진, 20대, 여)

취업준비를 하는 중인 그녀는 공기업이나 교직원 등의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취업준비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데 자신이 성취에 목말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경제적 안정감을 주면서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자신이 성취를 포기했기 때문에 일상적 행복을 추구하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현재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일상의 행복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한편, 보다 명확하게 성취와 행복을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피면담자도 있었다. 문도환(20대 남)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꿈,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행복의 한 측면이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나치게 큰 성취를 목표로 하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신이 겪게 될 좌절감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에서 느끼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복이란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인데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느끼는 행복들이 그런 측면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은 60-70대 피면담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영희(60대 여)에게 행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음이 편한 상태를 행복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피면담자는 자신이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의 성공, 결혼 등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행복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고 한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젊었을 때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기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공을 하든지 좋은 결혼을 하든지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거.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평범하게 특별한 일 없이 무난한 거. 나이가 드니 더 이를 것도 없고 인생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아요. (우영희, 60대, 여)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행복했던 순간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낼 수 있었던 평온한 시기였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대학에 다닐 때는 더 이상 육아에 얽매이지 않고 남편과 둘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복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미정(60대 여)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서 최대한 기분 좋은 면을 찾아 느끼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녀는 최근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훌가분한 마음과 함께 나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날들이 많아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퇴직하고 나면 물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심심하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소소한 일들을 루틴으로 두세 가지 정도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스페인어를 스마트폰 앱으로 배우고 있고, 직장생활하면서 돈만 내고 쌓이면 버리기 바빴던 시사주간지도 읽고, 최근에는 니체의 책을 읽고 재미를 느껴서 하루에 조금씩 읽고 있어요. (오미정, 60대, 여)

이 피면담자는 직장생활을 할 때는 집안일과 직장 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비중이 컸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훌가분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관심사, 흥미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외국어를 공부하고,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고 그동안 바빠서 미루어 둔 일들을 할 때 굉장히 행복하고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여행을 좋아한다는 그녀는 직장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패키지여행으로 남들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여행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그녀가 느끼는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의 주요한 측면인 것이다.

위와 같이 일상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느끼고자 하는 피면담자들과는 달리 일부 노년층 피면담자들의 경우에는 행복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걱정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여긴다는 답변을 한 경우도 있었다. 70대 여성인 이순영은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특히 건강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상태를 행복이라고 했다. 60대 후반 남성인 송민식도 행복에 대해서 평소에 깊게 생각하거나 거창한 무언가를 떠올리

기보다는 걱정이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에 따랐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공대에 가야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 공대에 갔고, 그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렇게 했으며, 결혼 후에는 자녀교육 등 필요에 의해 여러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커다란 행복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신에게는 만족스러운 과정이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최유민(60대 여)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 반대로 불행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했던 그녀는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다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나만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한다. 따라서 시부모님 덕에 얹혀살다가 스스로 돈을 벌어 집을 마련해 독립했을 때를 매우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자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냈다는 기쁨, 드디어 얹혀살지 않고 자신의 집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이 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내 주변의 더 좋은 집, 자신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집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런 경험 끝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국 피면담자들이 서술한 일상의 행복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관계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거의 모든 피면담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60대 남성인 김만수는 첫아기를 낳았을 때, 자녀들이 어릴 때 함께 손잡고 다녔던 때가 좋았다고 했다. 또한, 어릴 적 대가족에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던 그는 아내의 존재, 아내로부터 얻는 정서적 힘이 크다고 했다. 이순영(70대 여)의 경우, 어릴 적 바쁘신 부모님과 달리 한없이 관대하게 사랑해 주신 조부모님과 관계를 가장 행복했던 경험으로 꼽았다. 30대 여성인 박수영 역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녀는 부모님, 자매, 남편,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 그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마. 행복과 서울 살기 - 거주와 이동의 자유

대다수 피면담자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에 살다가 대학교 입학과 함께 서울로 이사 오게 된 20-30대 피면담자들은 편리한 대중교통,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 시설과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을 높이 샀고, 서울에서 태어나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 서울에 애착을 가졌다. 60-70대 피면담자들 역시 대체로 만족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에 대한 애착은 적은 편이었다. 이들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들이 근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도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자가용을 이용한 지 오랜된 사람들이 많아 대중교통은 큰 이점이 되지 않았으며, 영구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1년 중 일정한 시간은 서울 외의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지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피면담자들도 많았다.

대학교 입학을 계기로 서울로 오게 된 20-30대 피면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서울을 자신이 살고 싶은 곳, 살아야 할 곳으로 규정했다. 서울을 진정으로 좋아한다고 말한 이성규(20대 남)는 그 이유로 대도시적인 특성을 언급했다. 서울은 건물도 멋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역사, 문화 등 볼거리, 할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광주에는 갈만한 곳, 볼만한 것이 시내로 한정되어 있다고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 좋은 거 하나는 그냥 아무 곳이나 일단 찍고 가면 거기는 뭔가 할 게 있어요. 역사유적지도 있고. 뭐가 있고. 저기 가면 한옥이나 예쁜 카페 거리도 유명한 게 있고. (이성규, 20대, 남)

즉, 서울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도시인 광주와 달리 대도시인 서울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있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성규가 서울에 살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의 간섭이었다. 이성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간섭이 큰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의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직장에 찾아와서 상사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할 때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에게 서울에 산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

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이 특별히 더 경쟁적이라거나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은 경쟁이 가장 강조되던 고등학교 시기를 광주에서 보냈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대학 시절과 직장을 서울에서 보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면담자들은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삶의 조건이나 환경 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서울이 가지는 상징적인 힘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한 후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문도환(20대 남)에게 서울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 공간이다. 한국의 사회구조적인 특성상 문화, 경제, 사회, 교육, 교통 등 모든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서울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문도환은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동네 코인노래방 가는 것도 지방에 가면 차를 타고 나가야 되지만 서울에서는 집 앞에 있어요...여러 나라들을 다녀봐도 서울이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고 모든 게 빠르고 모든 게 24시간 운영하고 이런 삶에 익숙하다보니 다른 곳은 불편하죠. 1년 365일 24시간 밝게 빛나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어요. 이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 편리한 측면도 있다는 거죠... 서울 물가가 비싸고 코스트코처럼 같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설도 서울에만 있어요. 지방에 가면 택배를 시켜도 다 배송비 있고 알게 모르게 서울에 살게 돼서 얻는 특혜가 많다고 생각해요. (문도환, 20대, 남)

이 피면담자는 서울에 사는 것이 경쟁적이고 치열하며 따라서 불안한 측면이 있지만, 서울을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분산이 잘되어서 서울이 아닌 어느 도시에 살아도 많은 것들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는 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의 피면담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별함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맥락에서 잘 드러난다. 김효주(30대, 여)에게 서울이라는 공간은 20살 이후 자신이 이룬 성과, 행복, 친구 모두와 결합되어 있었다. 서울의 물리적 환경은 답답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낫다고 할 수 없지만 서울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이룬 성취를 생각하면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서울에서는 비싼 주거비로 인해 고시원, 원룸에 살아야 하고 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와 직장을 구하길 원하

시지만 그건 왠지 자신의 삶이 후퇴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녀에게는 “촌놈이 올라가서 똑똑한 애들만 모여 있는 서울에서 성공했구나!”라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녀의 성적표를 받은 아버지의 칭찬이 아직도 기뻐던 순간으로 기억된다. 그녀는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길 원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이 갖는 특별함인 거 같아요. 서울을 나가기 싫은 거죠. (김효주, 30대, 여)

그녀는 그런 도시 간의 위계적인 비교가 때로는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신에게 적용되어 해외 유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자신이 살아내야 할 더 큰 세상, 더 넓은 삶의 무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 외에도 피면담자들이 서울에 만족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잘 발달된 대중교통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순영(70대, 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운전을 못 하거든요. 서울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매일 어디를 나가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디로 가려고 할 때 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서울의 큰 장점이에요. (이순영, 70대, 여)

즉, 그녀는 일상적으로 많은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울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대다수의 피면담자들은 이동의 빈도, 자가용 소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잘 발달된 서울의 교통 인프라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순영은 서울의 비싼 집값에 대해서 이제 와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할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집에서 계속 살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여유 있으면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무관심한 반응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 피면담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반면에 서울에서 태어나 계속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면담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거주 지역 및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표현했다. 예를 들면, 박

유진(20대, 여)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 강남의 한 지역에서 살았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집을 벗어나고 싶었고 따라서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서울에 집이 있는 게 좋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원래 새로운 곳을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 편도 아니고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편이라 주로 정해진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지내고 가던 곳 위주로 많이 가는 편이라고 한다.

박수영(30대, 여)도 서울의 한 동네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 동네에는 가족, 동창, 친구 등 주말에 가볍게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고 있다고 한다. 결혼 이후에 남편이 지방의 한 도시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으나, 소득이 좀 적어도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지방 이주는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부모님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많이 절약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남편만 동의한다면 같은 동네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재산증식을 할 수 있도록 가치가 많이 오를 만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지만, 현재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와 애착이 높아 그곳을 떠나는 것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오미정(60대, 여)도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서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생활을 할 당시 직업상 주기적으로 학교를 옮겨야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한 시간에 닿을 수 있는 거리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 주변의 학교에 배정이 되지 않더라도 큰 불만 없이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근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현재 거주하는 곳이 시내와도 가깝고 교통이 잘되어 있으며 주변에 산과 공원이 있어서 산책도 자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도서관이 근처에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백화점이나 커다란 쇼핑몰이 주변에 없는 점이 가끔 불편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곳을 자주 가지 않는 편이라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녀는 남편의 고향이 제주도라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며,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제주도에 작은 집을 마련해 1년에 약 한 달가량 여행 가는 기분으로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의 높은 집값은 특히 20-30대 피면담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

는 요소였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향후에도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을지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양도문(20대, 남)은 서울에 무척 만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으며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겠지만, 집값으로 인해 서울 인근 경기도로 집을 옮길 수도 있다고 했다. 손경환(20대, 남) 역시 자신이 태어나 자란 지방의 도시와 서울은 여러모로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기 고향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지만 긍정적인 어머니와 친척들 사이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그는 인터뷰 내내 긍정적이었지만 집값에 대해서만큼은 절망적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에 살아서 경제적 부담은 덜었지만 대학교에 와서부터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월세를 가야 되고 있으면 전세를 가도 되고. 정말 돈이 많은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 아버지가 울산에 있는 병원장이셨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엄청나다 보니까 거주 자유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 바로 옆에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자취를 했었어요. 특히나 서울에서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졌어요. (손경환, 20대 남)

손경환은 서울에서 이동의 자유는 완전히 누렸지만 거주 자유는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일상에서 산책, 쇼핑 등을 활발하게 하는 편이고 그런 점에서 자신은 자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는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동과 달리 거주 문제는 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비판적인 주제였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낮은 피면담자들은 그 이유로 높은 집값 외에도 나쁜 공기, 여유 없는 생활 등을 꼽았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우에도 피면담자들은 지방의 도시들과 서울을 비교하며 서울이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대 남성 최일수는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서울은 답답하고 음침하며 각박하고 비좁은 느낌이라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 서울은 미세먼지 등 공기질도 좋지 않고 난잡한 도시개발의 느낌이 싫은 반면에 자신의 고향은 널찍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라 더 좋다고 한다. 서울에서 사는 것의 장점은 특이한 음식, 문화생활, 특색 있는 길거리 등인데 이런 장점들은 대학생활을 하며 많이 경험해봤고 지금은 서울의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태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의 도시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 심은혜(30대, 여) 역시 20대 이

후 대부분의 삶을 서울에서 보냈지만 기회가 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의 삶은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며 각박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는 자신 또는 남편의 친구들 중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 자신보다 더 적은 돈을 벌면서도 훨씬 더 풍요롭게 산다며,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꼭 서울에서 무리하며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장점으로 꼽는 문화생활 등 생활환경의 측면에서도 자신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환경들은 지방 도시들에도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같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 드는 비용은 서울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한편, 많은 여성 피면담자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그들의 만족도와는 별개로 젠더적 특성으로 인한 서울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표현했다. 20-30대 여성 피면담자들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를 해야 할 때는 날씨와 관계없이 우산을 갖고 다녔다거나(김효주), 주변 친구들이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거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다보니 스스로 위축되는 기분을 느꼈다거나(박유진) 하는 등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청년층 여성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라는 도시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60-70대 여성 피면담자들의 경우에는, 남편의 직업과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로 인해 그들의 공간적 역량이 제한되곤 했다. 우영희(60대, 여)는 이제는 남편 직장만 아니면 수도권 근교로 옮기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의 생활 및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준의 돈으로 수도권 근교로 나가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점도 특별히 느끼고 있지는 못하며, 오히려 교통체증을 서울에 사는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마찬가지로 60대 여성 신연수는 공간적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그다지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은 그녀가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된 남편을 따라 독일을 가야만 했던 경험, 한국에서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했던 경험 등을 통해 드러났다.

바. 타협, 행복의 구성

이 연구에서 주목한 마지막 지점은 주체의 행복구성 전략이다. 행복이 사회구조적 상황에 정비례하여 고정된 형태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에서 피면담자들이 객관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취한 행위가 있는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처한 특정한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상황에 순응, 회피 또는 일탈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과 스스로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행복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피면담자들은 긍정적 사고, 종교의 힘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다르기 해석하거나 여행, 운동 등으로 기분전환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면담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다소 소극적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다. 가령 특정한 상황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것도 단순히 버티거나 참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 또는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냐는 질문에 다수의 20-30대 피면담자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로하기보다는 참고 견뎌내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혼자 혹은 가까운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며 여행을 가는 등의 방식을 통해 버틴다는 것이다. 최일수(20대 남)는 불행했던 순간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버티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입시 스트레스가 심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친한 친구들을 만나 잠깐씩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지만 “입시가 끝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텼고, 군대 시절에는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는데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 퇴근 후 혼자 배달음식을 먹고 맥주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한다. 입시와 군대는 모두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청년들에게 압도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힘으로 무언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모든 피면담자들은 적극적인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시간이 흘러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이와 유사하게 박수영(30대 여)은 대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을 자신이 가장 불행했던 순간으로 꼽았다. 자신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많은 친구들은 이미 좋은 직장에 취직해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반면에, 자신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격지심이 들어 힘

들 때 그녀는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그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위안을 주었다기보다는 자신만 뒤쳐졌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문도환(20대, 남)은 해외에서는 스트레스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창구가 없었고 혼자 속으로 참고 삭이며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했다고 한다.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길다 보니 힘든 순간에도 혼자 견뎌내는 것이 익숙해졌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노래방에 가서 혼자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나오면 후련한 기분이 드는데 이 정도가 자신이 힘들 때 하는 일의 전부이며, 여행을 다니는 것이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30대 여성 김효주는 문제가 되는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해석의 힘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있는 삶에도 반드시 이면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면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가져올 이점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한 사람들에 비해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고 직장도 구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직장생활에서 상사로 인해 때때로 부당한 상황을 경험할 때에는 이 순간을 견뎌냄으로써 자신이 추후에 얻게 될 이득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사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그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은 퇴근해서 밤새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 또는 직장동료들과 서로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상황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구성해나가는 사례도 있었다. 손경환(20대, 남)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빠르고 쉬웠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의 장점을 찾았다. 예컨대 자신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친구의 권위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이 차이가 이제 서른 살 정도가 나게 되지만 인생에서 보면 100살을 가졌했을 때 70년을 같이 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후배이자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소중한 관계인데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저로서는 되게 좀 불쌍하죠. (손경환, 20대 남)

자신의 친구를 통해 부모님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권위적인 분위기의 가정을 보면서, 화목한 어머니 및 외가 친척들에게 사랑받으며 큰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로 여겨지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보다 쉽게 노출될 것이라 여기지만, 손경환의 경우에는 스스로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안정과 행복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직업 군인이었던 박진환(70대, 남)은 인터뷰 과정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런대로 자신의 삶은 행복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북한에서 온 부모님 밑에서 9남매 중 일곱째로 시골에서 자란 그는, 시골에서 부모님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시골을 벗어나지 않았고 자신은 가난해서 뛰쳐나오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방 생활을 하던 당시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친구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투옥 후 이제는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 친구가 자신을 부러워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 유튜브를 자주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게 어떤 세상이길래. 도대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비교해서 보면은 아까 그래서 나는 탈시골민이다, 그리고 서울은 나를 품어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박진환, 70대 남)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다소 강인해 보이는 그는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타협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배웠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 직장인 군대에서도, 또 현재의 직장에서도 큰 문제에 휘말리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무난하게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부인과의 갈등이 있으면 빨리 타협하여 부인에게 맞춰 주는 것이 일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웃었다.

일부 피면담자들의 경우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양도문(20대 남)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한 선배가 이유 없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 후 인간관계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면서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미정(60대 여)은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때 이는 매우 불행한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평소에는 각자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도 다 같이 합심해서 아픈 가족 구성원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

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한 후로 그녀는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심은혜(30대 여)는 삶의 각 단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며 하나하나 이루어 냈을 때 행복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퇴사는 삶에 대해 다소 다른 태도를 가지게 해주었다. 심은혜는 이렇게 말했다.

전에는 뭘 꼭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서 지금도 그런 걸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뭐가 없네요. 당장 승진 안 해도 되고 숙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나에게 다음 숙제가 정해질 수가 없는 상태라 행복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중략) 퇴사를 하면서 내려놓는 방법을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심은혜, 30대 여)

항상 주어진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는 퇴사를 한 직후에는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공간이 사라졌다는 공허함, 더 이상 이 사회의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상실감에 힘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돌아보며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행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가능하면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불행한 감정에 둔감하고자 노력하는 좀 더 적극적인 유형의 피면담자들도 있었다. 박유진(20대 여)은 불행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이 합격한 대학에 아쉬워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무척 서운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학교에 만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난 우리 학교에 만족해라는 걸 스스로 엄청 되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학교에 애정이 있고 진심으로 만족을 하지만 입학했을 당시에는 엄청 원해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깐 오히려 난 너무 좋아 잘 지내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박유진, 20대 여)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녀는 학교의 운동 동아리에 가입해 열심히 활동했고, 결

과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심적으로도 안정을 찾아서 학교생활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계속 해서 거부당하는 경험 속에서도 좌절감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행복해 보이는 타인의 모습이 일상적으로 전시되는 소셜미디어도 불행에 빠지는 지름길이라고 느껴서 더 조심하려고 한다.

우영희(60대 여)는 사는 모습에 대해 자꾸만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보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네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연령, 계층 등 상황이 각자 다르다보니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성당을 다녀보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욕심을 버리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여전히 아이들의 직업이나 결혼 등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기대를 내려놓게 되면서 편안함을 찾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60대 여성인 신연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려 했던 자신의 태도에 중지부를 찍기로 했다. 그녀는 출산으로 인해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미술교사로 살았고 은퇴 후에 다시 작업실을 열었다가, 아들이 공황장애를 앓게 되면서 아들의 자녀들을 돌보느라 다시 포기해야 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한 후 자신이 얻은 깨달음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느낀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슈퍼우먼 콤플렉스, 착한 사람 콤플렉스처럼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짐을 기꺼이 지겠다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남들이 자신을 보살펴 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걸 것,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였어요. (신연수, 60대 여)

그녀가 행복을 스스로 찾는 데서 느낀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였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선, 기대에 대해 막연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60대 남성 이서진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는 운동이었다. 딸이 음악에 맞춰 줄넘기를 하는 곳에 갔다가 자신도 함께하게 되면서 운동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발견했다고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유연근무를 20년 동

안 했던 그는 연구자에게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고 독려할 정도로 운동의 중요성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제 날마다 (운동)해요. 지금은 날마다 아침에 30분 달리기하고, 점심 때 만 걸음 걷고 저녁에 푸시업 100개 해요. 지금은 이걸 며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요. 이제는 운동을 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아이들에게도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운동만 하라고 해요. (이서진, 60대 남)

지방간, 치주염 등 많은 질병에 시달리던 이 피면담자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터뷰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오늘 운동한 효과가 내일 행복해지는 것으로 빠르게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2. 베트남인의 행복

가. 베트남인 행복관 탐색의 의미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도이머이(Doi Moi)’로 통칭되는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한 이래 경제적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동력으로 활용하여 저가 공산품을 생산하는 ‘세계생산체계(global production system)’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은 덕택이다(이한우·채수홍, 2019, p.178). 베트남의 이러한 경제성장이 베트남인의 물질적 혹은 정치·경제적 조건을 개선시키고 그 결과 이들은 이전에 비하여 삶의 행복감을 더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경제성장에 동반한 여러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삶이 더 불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베트남인은 자신이 누리는 정치·경제적 조건과는 별개로 행복을 인식하는 고유의 사회문화적 기준을 가지고 삶을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 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베트남 사회는 개혁개방정책의 실행으로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겪으면서 급격한 정치·경제적 토대의 변혁과 사회·문화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베트남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물적 조건과 관념적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베트남인의 행복관은 이러한 급

격한 재구성의 과정에서 혼란스럽고 유동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베트남인은 경제성장으로 자신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베트남인은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이하 당-정부)의 정치적 통제가 치안 안정과 자유 억압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음을 성찰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의식과는 별개로 실천을 유보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인은 전통적인 가족관에 여전히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가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려고 시도한다.

이처럼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베트남인의 행복관은 단기간에 정치·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이룬 현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의 사례와 유사하지 않을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베트남인의 행복 지수는 세계 156개 국가 가운데 96위였고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는 83위였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동일 기간에 각각 58위와 61위였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베트남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의 행복 지수는 유사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군에서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베트남의 사례는 이전에 2개년에 걸쳐 연구했던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리고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사례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북유럽과 중남미의 사례는 유사한 경제 수준의 국가에 비하여 구성원의 행복도가 높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경우 경제와 복지 모두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행복 지수도 2019년 현재 세계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Helliwell, Layard & Sachs, 2019).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경우 경제가 중진국이거나 그 이하 그룹에 속하고 교육, 치안, 복지 등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15위와 24위를 점하여 중남미 국가 중에 가장 높은 행복 지수를 자랑한 바 있다.

북유럽과 중남미의 정치·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례는 모두 사회경제적 토대와 조건이 바로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에 실시한 북유럽 두 국가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연구진은 이들 국가의 구성원 다수(특히 중산층)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삶을 누리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기초생활비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삶이 보장된다는 점

을 높이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평등, 인권, 자유,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정의로움을 실행하고자 한다는 충족감을 행복의 원천으로 삼고 있었다. 이들의 높은 행복감은 “속된” 물질주의의 추구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관념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중남미의 사례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 관념이 구성원의 행복감을 인식시키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바 있다. 코스타리카인과 멕시코인은 모두 자기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과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적 관념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다. 코스타리카인은 자신을 ‘티코(Tico, 코스타리카 사람)’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고요함과 평온함의 추구’를 이상적 삶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상태를 ‘푸라 비다(Pura Vida)’라고 부르고 이를 인식하고 실천할 줄 아는 티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인은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이고 ‘마초(macho)’를 숭상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 폭력, 치안 부재 등으로 인하여 녹록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지만, 전통적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사회적 실천과 함께, ‘초현실적(surreal)’인 내세관을 중심으로 삶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희화화하는 문화적 기제를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일상적으로 열리는 파티와 전통적 축제에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고통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행복관과 내세관으로 녹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절에서 다룬 베트남의 사례는 북유럽과 중남미 사례의 함의를 비교 연구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인은 개혁개방 이후 나아진 정치·경제적 여건을 그들의 고유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관념”(Chandra, 2012)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앞의 사례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시대를 살면서도 역사적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행복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분석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각각 개혁개방 전후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 이어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시장경제 아래서 사는 삶에 대한 평가, 당-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통제와 행복/불행의 관계에 대

한 인식, 가족 및 지역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관점을 차례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소결로서 베트남인이 행복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 혹은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이전 연구와의 차이점을 성찰해볼 것이다.

나. 격변의 베트남 근현대사와 기억의 정치

베트남인의 현재 삶의 조건을 만든 근현대 시기의 역사적 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베트남 전쟁과 통일 이후 사회주의로의 이행(1955년-1980년대 초)이다. 베트남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베트남 전쟁을 겪고 통일을 이룬 후에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강성 개혁(hard reform)’이라 불리는 급진적 사회주의화를 추진하였다(Fforde and Vylder, 1996, p.2). 둘째, 사회주의화를 위한 국내외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식량과 소비재 기근을 겪으면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강성 개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장경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개혁개방정책(Doi Moi)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것이다. 셋째, 1980년대의 개혁개방정책이 소비재 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를 동력 삼아 경제적 토대를 사실상 자본주의적으로 변혁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 사회주의화,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정책이 짧은 기간 동안 베트남인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온 것이다(필립 랑글레· 파익 타인 땀, 2017).

이러한 일련의 근현대사적 계기는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이전과는 획기적으로 다르게 변모시키고, 그 결과 베트남인의 삶에 대한 경험과 기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행복관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이에 대한 기억의 구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특히 노년 세대의 경우 현재 삶을 평가하는 준거를 자신이 겪었던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비교하는 데 두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개혁개방이 본격화한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가 겪었던 경험을 하지 않아 베트남 전쟁이나 사회주의화 시기의 빈곤과 억압에 대한 기억이 없다. 하지만 이들도 공교육, 부모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도 남아 있는 사회주의적 유산을 통해 시장경제의 전후를 비교의 좌표 삼아 현재의 삶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분명한 점은, 세대별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베트남인의 행복관과 격변의 근현대사에 대한 ‘기억 정치(politics of memory)’(Halbwachs,

1992)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인, 특히 노년 세대에게 베트남 전쟁과 이후 약 10년 동안의 사회주의화의 경험은 “먹고사는 문제”와 삶의 안착을 위한 번민과 인내의 시간으로 기억된다. 베트남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물리적 상흔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 1천만 명의 피난민, 100만 명의 과부, 88만 명의 고아, 25만 명의 마약 중독자, 30만 명의 성(性) 노동자를 만들어냈다(Marr and White, 1988, p.3). 하지만 베트남인에게 사회경제적 기반이 모두 파괴된 해방 직후의 삶에 비해, 외국 원조로 그나마 유지되던 베트남 전쟁의 시기는 먹고살 수는 있었던 시기로 기억된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먹고사는 문제도 사실 76, 77, 78년도 때고 그래서 (장사가) 3년 연속 잘 안 됐어요. 사실 집안이 너무 어려웠고, 그전(해방 이전)에는 그래도 먹고살았는데. (중략) 엄마는 장사하고 아버지는 농사지었어요. 식품 운반하고 짭 실어 나르는 차도 있었거든요. 8, 9남매였는데도, 살았던 동네에서는 그래도 먹고살았어요. (중략) 제가 뭐 잘 하는 것도 없고 전문적인 것도 없는데 지금 일을 하게 되고, 비교적 쉽게 돈 벌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이젠) 이 직업으로 먹고살 만하니까요. (Lan, 60대 여)⁴⁶⁾

7남매 모두 해방 직후에 삶을 재정착시키는 데 2, 3년 걸렸어요. 아래 4명은 학생이었는데 해방 직전에는 과외도 받았지만 해방 후에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이후 직장도 공장에 (강제로) 배치가 되어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현재가 낮죠. 인센티브(incentive)도 많이 받으니까요. (Vü, 60대 남)

베트남 전쟁에 대한 상처보다 통일 직후의 상황을 끔찍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통일 직후인 1976년에 101달러였던 1인당 GDP가 1980년에 이르면 오히려 91달러로 감소했고, 이 시기에는 모든 계층의 인민이 배급체제 아래서 식량과 소비재의 기근에 시달렸다. 1978년 3월에서 1979년 7월 사이에만 약 50만 명의 소위 ‘보트 피플(boat people)’이 발생한 것도 정치적 이유보다는 궁핍을 면하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필립 랑글레· 파익 타인 뎀, 2017, pp. 71-72). 이때의 경험은 노년 세대에게 계획경제 아래서 견뎌야 했던

46) 앞으로 녹취한 내용을 그대로 폰 사레는 “xx했어요”처럼 구어체로, 내용을 축약한 사레는 “xx했다”처럼 문어체로 인용할 것이다.

삶의 고단함에 대한 기억을 강하게 남겼고, 먹고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활에 안도하고 경제 발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간주하는 이데올로기를 형성시켰다. 극도로 어려운 생계를 견뎌야 하는 불행이 없는 삶이 행복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라는 신념이 이들의 행복관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17세에 고등학교 학생일 때 해방됐어요. 수도 사이공의 생활수준은 높았는데 배급을 받아서 낫설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새벽 3시에 줄을 서서 7시가 되어야 받아서 학교에 갈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종일 기다려야 했어요. (통일 이전 남부의) 시장경제가 아닌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차츰 적응되었어요. 식량원조를 주로 러시아에서 받았는데 러시아에서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말고 밀가루 씨앗을 받기도 했어요.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씨앗을 삶아 먹은 기억이 있어요. 젊은 세대가 보면 말이 안 되겠지만, 출근해서 회사 앞에서 돼지고기 200g 받아 사무실에 놓고 퇴근 때 집에 가져갔어요. 공장에서는 소련으로 수출을 해서 일이 다 정해져 있어서 만들기만 하면 되어서 업무는 쉬웠어요. (Vũ, 60대 남)

평화로우면 행복한 거예요. 75년까지 전쟁만 했잖아요. 그러니 삶이 좋겠어요?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75년부터 82년도까지 개혁개방을 안 했어도 전쟁이 없으니 평온하기는 했어요. 92년 이후에는 개혁개방을 하니까 문화생활이나 경제 등이 많이 발전했어요. 개혁개방 안 했으면, 진짜 답 없죠. 과학 발전이고 좋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개혁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시작했죠. (중략) 제가 바라는 건 하나예요. 전쟁 안 하고, 체제가 바뀌지만 않으면 돼요. 전쟁 하고, 정권 바뀌고 체제 바뀌는 거요. 정권 한 번 바뀌면 사회발전이 더디잖아요. (중략) 가족들만 편안하게 살고 경제 발전만 하면 되죠. (Thin, 50대 남)

당연히 삶이(경제가) 발전하면 빈부격차도 커지겠지요. 왜냐하면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겠죠.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중략) 전반적으로 학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거나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중간은 가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직장 있고 먹고살 만하다는 것이예요. (Thuý, 60대 여)

사회주의화를 위한 강성 개혁 시기의 어려운 생활 여건에 대한 기억은 노년 세대에 게 자신의 현재의 삶과 청년 세대의 삶에 대한 이중적 평가 잣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이전에 비하여 월등하게 좋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삶이 더 복잡하여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질적 발전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하여 정치·경제적 조건은 나아진 것이 분명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상황은 골치 아파졌다는 것이다. 적어도 사회문화적 환경만 놓고 보면 과거가 더 넉넉하고 낭만적인 측면이 있다는 향수(nostalgia)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향수의 정치’(김희숙, 2008)는 노년 세대가 청년 세대와 행복감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서 작동한다.

지금 저희 자식들 보면 의식 수준이 발전했고 그 무슨 4차 시대(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을 살잖아요. 오늘날에는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물질적 조건도 좋아졌고요. 옛날에는 내전도 많으니까 안정적이지 않고 전쟁도 계속 하니 경제 발전이 안 됐어요. 해방부터 현재까지 (시기를 반추해보면) 해방 직후 초기에만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다 부족하고 그랬고, 그 이후 서서히 발전되면서 지금은 삶이 편해졌죠. (Lan, 60대 여)

(예전에는) 복잡한 일이 적었죠. 삶이 간소하고, 인터넷도 없었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훨씬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취직도 어렵고 전공 상관없이 취업해야 하고요. 이전에는 전공에 맞게 나라에서 다 배치를 해줬어요. 옛날에는 필요한 만큼 교육하고 취업을 시켰죠. 지금은 사회수요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공부를 시켜요. (Vu, 60대 남)

청년 세대도 노년 세대의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상당 부분 동의한다. 개혁개방 이전 세대보다 이후 세대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점과 현재의 삶이 훨씬 복잡하고 적응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 세대의 이러한 평가는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현재 삶에서 느끼는 고충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보다 현재의 삶이 나아졌다고 해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이다. 이처럼 세대 간에 삶의 만족을 표현하는 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베트남인이 행복감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또한 현재의 삶이 과거에 비하여 나은 이유로 경제적 조건의 향상을 거론하는 반면,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복합적 감정을 드러낸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청년 세대가 더 행복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서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연락할 수 있어서요. 근데 서로 냉소해진 것 같기도 해요. (중략) 가끔 전쟁이 났지

모르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Nhu, 20대 여)

부모님 세대는 그때 베트남이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45년 정도 됐잖아요. 부모님 세대는 전쟁 시대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감, 만족감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더 발전된 삶은 나날이 더 복잡해지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더 다양해져서 골치 아픈 거 같아요. (Tháo, 20대 여)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삶과 행복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역사적 기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평가가 얼마나 일관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구체적인 삶의 조건과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진술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하에서는 시장경제 도입과 정치·경제적 조건의 변화, 각종 사회 문제,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와 문화의 변화에 대한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경험과 인식을 순차적으로 탐구해볼 것이다.

다. 시장경제 도입, 물질적 조건에 대한 인식, 그리고 행복

1990년대 매년 7-8% 성장해온 베트남 경제는 2010년대에도 연평균 6%대의 성장을 거듭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2020년도에 베트남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3,498달러까지 끌어올렸으며, IMF의 통계에 따르면 환율과 물가지수의 관계를 반영한 구매력(PPP)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미 1만 달러를 넘겼다. 개혁개방 직전에 최빈국의 하나였던 베트남의 경제가 이처럼 고속 성장하면서 개인의 수입도 개혁개방 이전에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그만큼 가구를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도 커졌다.

최근 베트남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현재, 베트남인의 수입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최저임금은 442만 동(194달러)이며 평균임금은 600만 동(264달러)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적 통계일 뿐 대도시인 호찌민과 하노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900만 동(396달러)과 870만 동(382달러)으로 추산된다.⁴⁷⁾ 또한 필자가 다른 연구를

47) 베트남 동(VND)화의 대 달러 환율은 2021년 9월 23일 현재 22,752동이다. 위의 수치는 이에 근거하여 계산하였으며, 앞으로 제시되는 베트남 동화도 통일성을 위하여 그리고 환율의 변동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날의 환율에 근거하여 달러로 환산할 것이다.

위한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노동자가 4인 가구를 재생산하려면 평균 2,500-3,500만 동(1,099-1,538달러)이 필요하다. 따라서 호찌민과 하노이의 노동자 가구에서 부부가 함께 일해도, 다른 수입이 없다면, 노동에서 얻는 수입만으로 아이 두 명을 키우는 것은 무리이고, 한 명을 가까스로 양육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표 7-3〉 최저임금: 1 지역 기준 (단위 1만 VND)

연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2019	2021
외자기업	87	100	134	200	270	310	398	442
로컬기업	35	62	98	200	270	310	398	442

자료: 베트남 최저임금위원회 및 호찌민 코트라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가 정리

〈표 7-4〉 도시노동자 평균 월수입 및 생활비 (단위 1백만 VND)

연도	2000	2007	2009	2011	2014	2018	2020
평균임금	1.0	1.5-2.5	2.0-2.5	3.5-4.5	4.5-5.0	7.0-8.0	8.0-10.0
4인가구 생활비	1.5-2.5	4.0-5.0	5.0-6.0	9.0-12.0	12.0-14.0	24.0-32.0	26.0-35.0

자료: 필자의 인터뷰 자료에 근거, 평균 임금은 잔업수당을 포함한 것임

가구의 경제적 재생산과 관련한 위의 표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베트남의 일반노동자가 대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600만 동(264달러) 정도는 필요하고, 부부나 파트너가 함께 사는 경우 1,000만 동(439달러) 이상, 자녀가 한 명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2,000만 동(879달러) 정도,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의 경우 2,500-3,500만 동(1,099-1,538달러)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해서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의 경우에는 중상층 계층에 속하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베트남에서 상위 10% 내에 속한 부유층은 아니고,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경우 학생이 다수이고 나머지 2명의 면접대상자도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아직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물론 학력을 고려할 때 이들이 향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시장경제 안착 이후 점차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높아지는 노동 강도를 견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미래에는 여러 고난과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채수홍, 2019a, pp. 141-145). 이와

비교할 때, 면접대상자 중 노년 세대는 그동안 모아 놓은 자산,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대부분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가진 경제적 여건을 가구 재생산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 주어진 물질적 조건 아래서 양 세대가 일과 여가의 가치와 비율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물질적 조건과 연계하여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 기술할 것이다.

① 청년 세대의 경제 여건과 일과 미래에 대한 전망

베트남 도시노동자의 평균임금과 생활비가 말해주고 있듯이, 청년 세대가 누리는 물질적 조건이 풍요롭지 않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 같다. 물론 베트남에서 특권층이나 부유층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는 부류”(Duy, 20대, 남성)에 속하지만, 절대다수의 대학생에게 이런 여건은 다른 부류의 호사일 뿐이다. 또한 일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직 가운데 30대에 1,500-2,000달러의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 이런 직업을 갖거나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경력을 쌓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IT나 금융 관련 기업의 종사자 가운데 경력이 쌓인 외국계 회사 매니저의 경우 3,000-5,000달러의 월급을 받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500달러 내외에서 시작해서 40대가 넘어야 높은 연봉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청년 세대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가능성이 크지만, 물질적으로 여유롭다고 말하기 힘든 청년 세대 사례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모님의 월수입이 9백만 동(396달러) 정도 되는 것 같다. 나에게 매월 2백만 동(88달러)을 보내 주신다.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의 수입이 많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에 속해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다. 소수 민족이라 매 학기 장학금도 4백만 동(176달러)을 지원받고 있다. 거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 가끔 아르바이트가 있을 때 나가는 하지만, 교재를 복사할 때 드는 약간의 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식대로 쓴다. 우리 가족은 중산층이라 할 수 없다. (Diêm, 20대 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국영 석유회사 사무직이다.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부모님처럼 베트남 석유회사에 다니고 있다. 하노이에서 대학을 다니며 재정학을 전공하고 있다.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시고 그럴 형편이 되지만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를 번다. 발전(development)이나 시장 관련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식비, 옷, 교통비에 2-2.5백만 동이 든다. 오토바이가 없어 한 번에 7천 동 하는 버스를 타는 데 (한 달에 교통비로) 총 10만 동 정도가 들어간다.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주택에 살고 있어 주거비는 따로 들지 않는다. 대학과 인턴에 합격했을 때 행복을 느꼈고 미국, 덴마크, 호주, 대만으로 유학한 친구와 모일 때도 즐겁다. (중략) 유학 준비를 했는데 막판에 가족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서 포기하고 '경제대학'에 진학했다. 아시아 국가는(베트남 학생에게 등록금은 대부분 면제라 생활비만) 월 2,000-3,000만 동(878-1,317달러), 호주나 미국은 8,000-9,000만 동(3,512-3,951달러)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 중산층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략) 외국대학을 가지 못해 좌절감을 느꼈다. 유학을 가지 못했을 때가 가장 슬프고 속상했다. (Duy, 20대 남)

위의 사례처럼 베트남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 세대의 대부분은 좋은 학벌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라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부모에 의존하고 상당한 시간을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소비해야 한다. 이런 사정은 부모가 취약계층으로 남아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대학생에게도 목격된다. 자신을 유학 보낼 정도의 재력을 자랑하는 부모를 가진 청년 세대가 아니라면 생활비를 필요한 만큼 타다 쓰기 힘들다. 대다수 청년 세대의 부모도 이제 막 빈국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베트남의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형편은 청년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편입되어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다.

매월 400-500만 동(176-220달러) 정도는 학원에서, 1,000-2,000만 동(439-879달러) 정도는 개인교습으로 번다. 회계를 전공하고 싶었지만 낙방하고 친지의 권유로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 지금은 그 덕에 먹고산다. 와이프는 회계를 전공했는데 유치원에서 일한다. 지금은 코로나로 그룹으로 하는 교습을 중단해서 생활이 조금 힘들다. 지금은 두 사람 월급을 합하여 대략 1,000만 동(439달러)밖에 벌지 못한다. (중략) 부모는 이혼했고 재혼한 아버지는 작은 차 하나가 있어 먹고산다. (중략) 아이 없이 부부가 단둘이 사는 데 최소 1,000만 동(439달러)은 필요하다. 코로나만 아니면 월세, 관리비 등을 쓰

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도 조금 남았다. 월세가 370만 동(162달러)인데 400-500만 동(176-220달러)은 저축할 수 있었다. (중략)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것도 있고, 재정적인 이유도 있어 아이를 못 갖고 있다. 코로나로 재정적으로는 어려워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은 점도 있다. (Son, 30대 남)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자유롭게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월수입이 1,000만 동(439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다. 외할머니와 살고 있고 이혼한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있다. 혼자 먹고살면 되니 큰 어려움은 없다. 우리 가족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Minh, 20대 남)

위의 사례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도 20-30대 청년 세대의 물질적 조건은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하고 자녀를 계획하면서 경제적 여건의 곱씹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 소절에서 서술할 노년 세대와 비교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상당히 낙관적이며 나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베트남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경제가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경제는 성장할 것이며 삶의 물질적 조건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열심히 즐기면서 일하다 보면 행복감을 느끼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은 충족될 것이라는 청년 세대다운 전망을 품는 것이다.

각자 다르겠지만, (미래에)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겠죠. 가족의 행복 등은 부수적이고 독립하고 싶어요. 재정적 독립이 가장 중요한데 초기 정착 비용은 1,500만 동(659달러)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자취하면서 살림을 유지할 정도면 되니까 1,500-1,700만 동(659-747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중략) 그때 월급은 아마 3,500-4,000만 동(1,538-1,758달러) 정도일 텐데, 자가용도 있을 것 같아요. (Duy, 20대 남)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상이죠. 돈 버는 거, 취직하는 거,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고요. 근데 그런 공부 스트레스는 좋을 때가 있어요. 돈 스트레스랑 달라요. (중략)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Diêm, 20대 여)

현재의 물질적 조건이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기댈 수 있다고 믿는 청년 세대는 삶에서 과도한 일보다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균형을 중시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달리 일자리 부족이나 빈곤의 굴레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공간이 압축(time and space compression)”(Harvey, 1990)되고 문화가 동질화되어 가는 전 지구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노동을 통한 금전의 추구 못지않게 여가를 즐기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각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베트남이 아직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지만, 청년 세대는 초기 산업자본주의의 일에 의한 여가의 희생을 답습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후기 자본주의에 다시 등장한 소비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Hunnicut, 2006; 채수홍, 2019b).

제 생각에는 (하루에 일을) 최대 8시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자고요, 나머지 16시간 가운데 8시간은 일하죠. 나머지 8시간 중 이동하는 데 1시간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7시간 중 일부를 쪼개서 건강관리 하고, 취미생활하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죠. (중략)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에 파고드는 성격이 아니라서 8시간밖에 (일을) 못 해요. 월급이 너무 적으면 일을 더 할지도 모르겠지만, 1백만 동(44달러) 이하 정도밖에 차이 안 나면, (일 대신 적은 월급을)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Nhu, 20대 여)

나중에 직장 다니면, 8시간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일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예를 들어 요리하고, 음악 듣고, 집 청소하고, 친구 만나겠죠. 저녁에 직장 일을 집에 가져와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면 해야겠죠. 근데 그냥 평소 업무라면 초과근무 안 할 겁니다. 퇴근하면 제 개인 시간으로 보내야죠. (중략) 그래서 (앞으로 취업하면) 8시간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최소 4시간은 개인적 일이나 (회사 업무 아닌) 다른 일에 쓰고 싶어요. (Diêm, 20대 여)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도성장기에 태어나 이전 세대처럼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던 베트남의 청년 세대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행복이 물질적 여건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경제적 여건을 행복의 필요조건이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물질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가나 사회적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노동을 하여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고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 특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대다수 일반 노동자가 물질적 욕망 때문에만 과도한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모 세대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일을 해서 미래를 도모했던 것은, 일하지 않으면 가구를 경제적으로 재생산하기 힘들었고 미래도 불안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가구의 경제적 재생산을 책임지게 되면 이들도 자신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물질적 토대의 중요성을 점차 자각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② 노년 세대의 경제 여건, 씬 없는 일, 그리고 자족감의 구성

베트남에서 고학력 노년 세대는 대부분 개혁개방의 수혜를 입어 자국 내에서 최소한 중산층 언저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들의 경제 여건은, 선진국 중산층의 잣대로 평가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먹고살 만하다.” 무엇보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과거에 비교할 때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발과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또한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고 고속 경제성장으로 고급인력이 부족해진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노년에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채수홍, 2019a: 137-138 참조). 그리하여 고학력 중산층에 속하는 노년 세대의 다수는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에 자족감을 표현하며 젊은 시절과 간소했던 과거를 그리워할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물리화학을 가르치다 2002년에 일찍 은퇴하였다. 원래 2013년에 은퇴 예정이었는데 학교와 시간표 짜는 문제로 갈등이 있어 사표를 던졌다. 그룹과외를 해서 돈을 벌었다. 대학 동기인 아내도 학교 선생을 하다가 영어 과외를 했다. (중략) 22년 일해서 22달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았고 연금은 없다. 학교 월급은 지금 과외 수입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코로나 전에는 개인 과외 3백만 동(132달러), 그룹 과외 5백만 동(219달러)이었다. 지금은 코로나로 4달째 쉬고 있다. 최소 (월) 2,500만 동(1,097달러)

은 벌었다. 대략 그렇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학생과 수입이) 많았고, 이후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 학생이 줄었다. 최근에는 1-2명 정도 (과외를) 하고 있다. (중략) 빈탄(구)에 내 집도 있다. 경조사에 몇백만 동은 들고 여행을 가면 돈이 더 필요하지만 1,000-1,200만 동(439-527달러) 정도면 아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중략) 75년 사이공 정부가 무너졌을 때가 가장 절망스러웠다. 그때부터 교사 생활 그만둘 때까지 상실감을 느꼈다. 76년부터 90년까지는 월급도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었다. 이후 시장경제가 작동하면서 90년대와 2000년대에 과외로 제법 돈을 벌었다. 나는 중산층의 보더라인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발전으로 살기 좋아졌지만 나이가 드니 힘들다. (Khôi, 60대 남)

30년 동안 의류회사에서 일하다가 지난달에 은퇴하였다. 원래 국영기업인데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3천 명 정도 되는 공장에서 주로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중략) 딸은 의사이고 아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중산층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경제적) 삶은 안정적이다. (중략) 90년대에는 월급이 200달러 정도였는데 은퇴 전에는 1,300달러를 받았다. 기획과 기술 부서의 부서장이었다. 연금은 직급이나 재직 연수에 따라 다른데 700만 동 정도 받는다. 저축,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를 해놓았고 아들, 딸도 모두 좋은 직장에 다녀 이자로만 살 수 있다. 이전 만큼 해외에 나갈 기회가 적어 아쉽지만 큰 문제는 없다. 4인 가족이라면 3,000-4,000만 동(1,317-1,758달러) 정도 필요할 것인데, 부부만 살고 있어 월 2,000만 동(878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중략) 삶이 간소했던 과거가 더 좋았던 것 같다. 지금은 시장경제라 삶이 불안정하다. (Vũ, 60대 남)

면접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위의 두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사실 대다수 노년 세대가 느끼는 경제적 여유는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경제 여건은 일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자녀 교육이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 자녀 걱정을 덜 하고, 일 대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괜찮은” 노년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적 불평등이 날로 악화하고 있지만, 부가 일부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고,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답게 아직은 중산층이 늘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내는 착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고통스러웠던 근현대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노년에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이들의 삶의 자족감은 실존적인 역사적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은퇴하고 나서가 더 행복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먹고살기 힘들고, 일하느라 너무 삶에 치였어요. 돈 벌고 아이들 키우느라 이런저런 일 다 책임져야 했는데 지금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삶이 더 편해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중략) 괜찮은 노년이에요. (Khôi, 60대 남)

10년 후에는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사는 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연금으로 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세 내주면서 부수입 버는 거죠. (중략) 저도 겪을 건 다 겪었어요. 대학교 공부해서 연구직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룰 건 다 이뤘고요. 아이들도 컸고 이제는 아내와 남은 인생 평온하게 사는 거면 돼요. 아내가 먼저 가면 슬프겠죠. 아니면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행복은 나 하기 나름이에요. 빵 맛있게 만들고 식물 키워서 꽃 피우면 그게 행복한 거죠. (Thin, 50대 남)

하지만 노년 세대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 조건에 대한 자족감을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생활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들 가운데는 여전히 일을 해야 하거나, 기회가 닿으면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다. 자산이 있어 삶을 경제적으로 재생산하는 데 큰 지장은 없지만, 일을 완전히 놓기에는 아직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노년 세대가 다수인 것이다.

호찌민의 투득 군(최근 시로 승격)에서 전당포를 운영해요. 동네 사람 상대 장사인데 별별 것 다 맡기죠. (중략) 요즘에는 쉬는 시간이 좀 더 많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서 쉬는 시간이 많아요. 전에는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종일 이것저것 하느라 어떨 때는 30분도 앉아서 쉬지 못할 정도였어요. 점심 먹을 때도 손님 있고 일이 있기도 했어요. (중략) 일을 해야 하니까 하는데, 일이 있으니 다행이고 돈은 항상 필요하니까요. (Lan, 60대 여)

공무원이었다. 남편도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었다. 공무원은 여성 55세, 남성 60세에 은퇴해야 한다. 딸은 투자개발과 관련된 재단에서 일하고, 아들은 전에 공무원이었다가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한다. 모두 립동성(의 달랏시)과 인근에 살고 있다. (중략) 75년 이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족 사업을 돕다가 전문대에서 회계를 배워 공무원이 되었다. 의류 사업의 판매를 점검하는 일을 했다. (중략) 남편과 내가 공무원이지만 생활 여건이 녹록하지 않았다. 부업을 하고 집에서 돼지 사육도 했다. 직장동료가 부업을 소개해 주었는데 베트남에서는 누구나 부업을 한다. 지금은 남편 연금으로 생활을 한다. 6백만 동 정도 받는데 이 정도면 (소도시인 달랏이 거주지역이라서) 부부가 살 수 있다. (중

략) 75년 해방 직후가 제일 힘들었다. 상품 유통이 되지 않아 순환이 안 되었다. 지금은 사업체 등록, 수출입이 자유로워져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 (중략)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면서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다른 부류라고 생각한다. 비교하며 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지금도 가끔 기회가 닿으면 의류 수출입의 제조공정을 검수하는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다. (Anh, 60대 여)

위의 두 사례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노년 세대의 다수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불안한 미래를 의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이 물질적 욕망의 추구가 아닌 당연한 삶의 지혜라고 인식하며 자위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베트남인이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인생이 의지와 노력으로 완성되기보다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에 좌우된다는 생각을 내면화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은 노년 세대가 베트남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베트남에서는 가족이 엄청난 금수저가 아닌 이상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 당간부 등(소수 특권층)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령 수입이 3-4배 되어도 재테크를 할 정도는 아니다. 부동산 부자로 (보통 중산층보다) 10배는 더 벌어야 잘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격차는 많지 않다. (중략) 돈이나 명예보다 성취감이 중요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의 행복 지수가 (경제 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동양 국가의 경우 운명을 받아들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삶을 즐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운이 좋아 먹을 것 충분하고 자식이 잘되면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다. 서양 사람이 성취하고 경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교된다. (Vu, 60대 남)

제 생각에는 베트남 사람은 운명과 운세를 믿고, 멀리 생각하지 않고 비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비교하지 않고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고 매일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즐거워해요. 돈이 여유롭지도 않은데도 말이죠. 그런 가족은 행복해하고, 반대로 어떤 가족은 엄청 부자인데도 부부, 자식 간에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중략) 어떤 나라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경우가 다양하겠죠. 그러면 정신생활이 좋지 못해서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거지요. 돈이 엄청 많아도. (Thuý, 60대 여)

노년 세대의 물질적 여건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청년 세대의 그것과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물질적 여건이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하지

만 동시에 개인의 행복을 이끄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양자 모두 일에 매이지 않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공통점은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는 베트남, 특히 남부의 문화적 유산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양자의 이런 공통점은 서로 다른 역사적 위치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경제 고도성장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전 지구화의 문화적 영향 아래서, 개인이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첩경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은 그리 풍족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삶을 꾸리는 데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경제적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굳이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담보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낙관적 미래에 토대를 둔 여유로운 관점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지는 청년 세대가 앞으로 필연적으로 마주쳐야 할 현실의 여건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노년 세대는 고단했지만 운 좋게 무사히 헤쳐 나온 삶의 뒀안길에서 찾아온 여유를 즐기는 것 같다. 이들이 삶의 여가와 안식을 즐기고 있다는 자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난과 내전 같은 구조적 폭력을 피할 수 없었던 삶의 궤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삶에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연배에 걸맞은 지혜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행복관은 과거의 어려웠던 경제적 여건에 대한 경험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들은 먹고살기만 하면 된다고 되뇌면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일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베트남의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모두가 행복을 성취하는 데 물질적 여건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지만, 전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후자는 과거의 경험에 매여, 이런 행복관을 일상에서 옹골이 실천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

이처럼 모호하고 모순된 관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하여, 이들이 경제적 여건과의 관계 속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관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어지는 절에서는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베트남인의 경험과 견해를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라. 사회문제, 당-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인의 행복

① 청년 세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정치적 실천의 회피

베트남인의 낙관적인 경제적 미래관과 비교할 때 이들이 경험하는 제반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적 기반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베트남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안고 있는 치안, 의료, 환경, 교육 등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인의 이러한 평가와 실천은 이들이 표현하는 행복감이 사회적 불만과 얼마나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간극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베트남인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베트남 사회의 장점은 안전이다. 외부인의 시각에서도 베트남 사회는 크고 작은 범죄가 없지 않고 지역적 차이도 있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범죄가 인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곳은 아니다. 이처럼 안전이 나름대로 잘 확보되고 있는 것은 공안(cong an, 公安)의 사회 장악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인은 다른 사회보다 특별히 폭력적이라고 할 수 없는 공안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이들의 통제에 순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는 공안이 촘촘한 사회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고, 당-정부의 권위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각종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다(채수홍, 2016, p.574). 이와 더불어, 노년 세대에게는 전쟁 시기 혼란스러운 치안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와 청년 세대에게는 국가주의 이념에 토대를 둔 교육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골목에 무슨 일 당하면) 먼저 도망가야죠. 경찰들은 시간 내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래도 평화롭잖아요. 총기 사용 안 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종차별 때문에 총 쓰지는 않잖아요. 미국처럼 전쟁이나 테러도 없어요. (Thào, 20대 여)

북쪽이 중남부보다 안전해요. 남쪽에서 주로 중범죄가 발생해요. 밤 11-12시에 돌아다니기 무서워요. 소매치기나 절도, 폭행도 밤에 당할 가능성이 있어 무서워요. (중략) 북쪽이 밤에 돌아다니기 더 무서운 것 같다고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베트남은 치안은 정말 안전하다고 느껴요. (Duy, 20대 남)

이처럼 안전하다고 느끼는 치안과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이 의료 체계이다. 아플 때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베트남인이 대다수인 것이다.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공공 의료나 의료 보험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백용훈, 2020: 49-103). 하지만 공공 의료의 질이 낮고 의료시설도 부족하여 일상적인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응급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몸이 아프면 체계적인 검사를 받기보다 처방전 없이도 약을 구할 수 있는 약국에 의존하는 베트남인이 절대다수이다. 다른 국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 청년 세대는 가족이나 본인이 병환을 겪은 이후 베트남 의료 문제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진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 이루어진 면접이라서 그런지 청년 세대의 의료 현실에 대한 비판은 신랄했다.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고, 14-15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국공립 병원은 시설이 좋지 않은데, 사립 병원은 시설은 깨끗하지만, 비용이 부담되고요. 꽤 많이 차이가 나요. 가난한 사람은 국공립 병원에 가야 해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중략) 대학생은 의료 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하지만 실제) 지원이 적어 많이 아프면 돈이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중략) 약국을 많이 가요. 감기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지요. (중략) 하노이와 호찌민 대도시에 인구가 너무 많고, 시골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요. 인구밀도도 높고 병원 같은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한 거지요. (중략) 베트남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건 좋지만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Duy, 20대 남)

그래서 세 번째 검진 시기에 이모부님께서 또 입원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병세가 심해진 거죠. 몇 달 내에 항암치료까지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항암을 해도 호전이 없고 건강이 엄청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입원 치료 안 하고 집에 계시는데 다들 완치가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세요. (중략) 저도 보험 가입 안 되어 있고 가족을 챙길 수 있는 재정도 충분치 않아요. 발병을 해야 검사가 가능해요. 지금으로서는 매년 정기검진도 못 받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병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Son, 30대 남)

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환경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족과 비판 의식도 상당하다. 베트남의 교육 현실이나 환경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년 세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이다. 이들은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와 괴리되어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하여 냉소적 시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답게 환경보호를 위한 의식과 실천이 부족한 베트남 사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한 많은 면담 사례 중 두 진술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는 정부 일 처리가 여전히 느리고 여러 번 바꾸겠다고 약속을 해도 실제 바뀐 게 없어요. 두 번째, 국민 의식도 바뀐 게 없고요. 저도 여러 번 홍보하고 재활용품 사용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고 해보고, 몇몇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실제 실천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너무 편하게 플라스틱만 써와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용을 부담할 수 없고 재정이 마땅치 않아서 친환경 제품을 못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하수도 역류나 홍수가 날 때, 냄새나거나 그런 안 좋은 문제가 있을 때만 말하고 불만을 늘어놓죠. (Minh, 20대 남)

베트남에서 배우는 건 학교 졸업 후나 실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외국 학교를 보면 실습 기회나 졸업 전에 인턴도 많이 시켜주고 산학협력 제도가 잘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베트남에 있는 대학들은 그게 많이 부족해요. (Duy, 20대 남)

청년 세대가 이처럼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현실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정치적 실천을 회피하고 있다. 정책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런 행위가 당-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누리고자 시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청년 세대의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을 가로막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투표도, 지난달에 18세가 되어 투표할 수는 있는데 여태까지 투표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든 안 하든 얼굴도 모르고, 그 사

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투표 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Trang, 20대 여)

정부에 아무 말도 못 해요. 동료나 친구들에게는 쉽게 할 수 있고요.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당이나 정부 모두 폐쇄적이고, 정부 고위직 임명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중략) 지역사회 시민이 분노할 만한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해결 안 해주고요. 그래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Minh, 20대 남)

청년 세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과 이와 대조되는 정치적 실천의 부재는 이들이 익숙하게 참여하는 온라인 공론장에서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당-정부가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는 청년 세대가 매일 접하는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개진하는 일은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거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의견을 내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모두가 의견을 개진할 그런 공공의 장이나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뭐를 잘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공장소에서 (개진)하는 것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서 다들 말하기 피하는 것 같아요. (Duy, 20대 남)

이들도 자신이 가진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과 정치적 실천의 괴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과 동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제 영향력이 고위직 사람들에게까지 닿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한테 그런 힘이 있다고 해도, 개인 혼자서 국가라는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중략) 왜냐하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요, 차라리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Quỳnh, 20대 여)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서 정권이나 정부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 혼자서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젊은 사람

들, 대학생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죠. 나 자신이 올바르게 살면 사회도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어쨌거나 정부는 건드리면 안 돼요. (Son, 30대 남)

이상의 진술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년 세대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여건이 개인의 행복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판 의식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제도와 환경을 당-정부와 협상하여 바꾸려는 실천을 주저하고 제반 사회문제를 개인화하고 있다. 이들은 주어진 정치적 여건하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이를 집단의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희망을 버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베트남 청년 세대가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② 노년 세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너그러운 평가와 정치적 실천의 부재

노년 세대에게 베트남의 사회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당-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청년 세대와 공통점도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년 세대는 당-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세부 이슈를 평가할 때도 당-정부가 큰 흐름에서는 무난히 잘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인다. 이런 인식에 토대를 두고 제반 사회 이슈를 논할 때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견해에 균형을 잡으려고 시도하였다. 노년 세대의 이러한 특징은 당-정부가 전반적으로 사회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면 청년 세대와 달리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먼저 언급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개혁개방을 했으니까, 수출입도 시작하니 편해졌죠. 그전에는 엄청 어려웠어요. 공장에 있는 장비나 부품이 고장 나면,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인데 장비나 부품은 다 미국산, 일본산이었어요. 그러니 못 구하죠. 그러니 효율도 떨어지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해외 부품 주문하면 오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외환도 없으니까 뭐를 살 수가 없어요. (Vũ, 60대 남)

지금 베트남 정책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공산주의 체제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부자들도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교류하잖아요. (Thinh, 50대 남)

같은 맥락에서, 노년 세대 내에서는 베트남 사회의 치안과 안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베트남의 불안정한 역사적 시기를 혹독하게 경험한 이들에게 예상 가능한 답변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경제와 치안을 제외한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한 낭만적 기억을 꺼내 들며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우려스러운 점을 다양하게 거론한다.

근데 하나 좋았던 건요. 배급 시절에 좋았던 거는 대학 합격하면 대학생들은 장학금도 받고 매달 쌀이나 물품 같은 게 지급됐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살 만했죠. 가족들이 지원하고 용돈 챙겨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학비도 다 무료니까요. 무료로 공부하고 매달 장학금도 주고 쌀도 주고 이것저것 다 줬어요. 당연히 여유롭고 호화롭게 사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데 돈 때문에 자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시절에 공부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요즘은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가 힘든 것 같아요(Thuý, 60대 여)

교육내용에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넣잖아요. (중략) 사상 교육하고 마르크스-레닌 철학 가르치는 것이 문제죠. 학교 교장은 다 북쪽 사람이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남쪽 선생님들이랑 북쪽 선생님들이 서로 다른 사상을 가져서 잘 안 맞아요. (중략) 옛날이랑 지금 교육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도덕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치고, 책임감과 본분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 가르치다 시장경제를 숭상하니 텅 빈 것 같아요. (Khôi, 60대 남)

저는 일단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베트남 교육이 어떻게 선진국 교육만큼 따라가겠어요.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유학 보내죠. 외국 교육 제도나 내용이 당연히 더 좋겠죠. (중략) 유학 가서 더 선진 교육 더 좋은 교육을 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공부 다 하고 와서 나랏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거기서 살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때 베트남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는데 뭐가 되겠어요? (Anh, 60대 여)

베트남의 교육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데다가 시장 논리에 빠르게 종속되어 감에 따라 혜택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다른 분야에 대한 의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이다. 노년 세대는 청년 세대와 마찬가지로 병이 발생할 때 좋은 병원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점점 상업화되어 의료 체계 내의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선진화에 대한 열망과 서비스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곤 하는 것이다.

남편이 달랏 병원에서 대장 수술을 했는데 감염이 되어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호찌민 짜라이 병원에서 1년 입원해서 대장 1/3을 절제했어요. 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다행히 남편이 회복하여 복직했어요. 그때 회사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중략) 베트남 의료 보험은 매년 적자가 많이 나는 상태이고 지금은 코로나 비상사태라 약 구하기도 어려워요. 평소에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개인병원을 가면 치료나 입원 절차가 쉽지만, 의료사고나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럴 경우, 결국 국립병원에 가게 돼요. 국공립 병원은 대기가 많지만 그만큼 좋은 의사가 집중되어 있어요. 달랏은 의료진이 부족해서 어차피 호찌민으로 가야 하지만, 돈이 없으면 지역병원에 가서 다시 이송해요. (중략) 의료 보험이 권장 사항이었는데 필수가 된 점은 만족스럽지만, 개인병원과 국공립 병원 차이는 여전히 커요. 보건소 같은 국공립 작은 병원이 많아지고 무상 치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희망 사항일 뿐이죠. 남편이 아팠을 때 큰 도시의 병원을 경험해보았는데, 너무 상업화되어서 돈이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아주 위급할 때만 의사를 빨리 만날 수 있어요. (Anh, 60대 여)

사실 베트남 의료시설은 형편없죠. 개인병원 의사가 제 아내 수술해줬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다른 병원에서 항암치료 하라고 해줬고요. 왜냐하면 그 약이 그 병원에만 있어서 수술이랑 항암치료를 각각 다른 곳에서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치료 약이 그렇게 좋은 약인 것 같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괜찮은데 최상급 약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초기인 2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죠. (Khôi, 60대 남)

의사 수입이 불합리해요. 사무직 직원은 4년제만 졸업하고도 4-5백만 동(176-220달러)인데 의대 나와도 (월급이) 4-5백만 동(176-220달러)밖에 안 돼요.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로 의료진 부족을 체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내와 딸과 같은) 의료진의 처우 개선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외국병원은 1천만 동(440달러)이 초봉이에요. 시설과 서비스가 좋아 두 배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중략) (개인병원)은 월급쟁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 진료실을 여는 경우는 호찌민에서는 수요가 많아요. 큰 병원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오래 일해야 과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호찌민이 아닌 외곽에 가서 내과 위주의 동네 의원을 하여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있어요. 수술은 하지 못하지만. (Vũ, 60대 남)

노년 세대는 교육이나 의료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로 연계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에 대해서도 당-정부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물론 아직 도시화가 덜 된 지역에 살고 있거나 오랫동안 거주해 온 지역의 환경에 익숙해진 노년 세대의 경우 (아래 사례의 Tung처럼) 베트남의 교통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 노년 세대는 점점 늘어나는 근대적 교통수단과 산업 시설로 인하여 맑은 공기와 안전한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불만이 많다. 점점 복잡하고 위험해지고 있는 교통과 환경 문제는 노년 세대에게 삶이 과거보다 불행하다는 것을 주장할 때 거론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호찌민시를 보면 그냥 보통이에요. 환경오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쾌적하고 나무도 많아서 별로 오염 안 됐어요. 밤에 잘 때도 시원하고요. 어쨌든 좋아요, 별로 문제없어요. 공기도 별로 오염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안 해서 공기도 별로 오염 안 되고 먼지도 별로 없어요. (Tung, 70대 남)

호찌민시를 보면 오염이 많이 되긴 했죠. 전에도 원래 마스크 썼어요. 길거리 나가면 다들 마스크 쓰고 안경 쓰잖아요. 먼지가 눈에 들어가고 기관지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나가면 얼굴에 먼지가 다 달라붙어요. 밖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요. 그래서 여기는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를 다들 쓰고 다녔어요. 근데 피부에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아지잖아요. 매연이 심한데 나아질지는 모르겠네요. (Thuý, 60대 여)

당연히 화나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운전하고 저는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요. 교통 혼잡이 어마어마하죠. 길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 없고 교통법규를 안 지켜요. 신호위반도 하고 과속도 하고요. 나이가 많아져 전 이제 반응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난폭운전도 많이 해서 위험해요. 그럴 때 제가 빨리 대처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오토바이 운전 안 하려고 해요. 남편이 운전하거나 그랩을 되도록 이용하라고 해요. 오토바이와 차가 너무 많아 점점 공기도 나빠지고 위험해요. (Thuý, 60대 여)

사회문제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식에도 불구하고 노년 세대는 청년 세대와 마찬가지로

지로 당-정부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노년 세대는 청년 세대보다 당-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집단적 노력을 더 쉽게 외면한다. 청년 세대와 마찬가지로 당-정부와의 대립을 회피하면서도 세부적인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지만, 민주적 의사 표현과 실천에 대해서는 훨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며 보수화 되는 일반적 경향의 산물이기도 하고 체제 변화를 겪으며 쌓인 경험의 소산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체제에 따라서 살아야죠. 사실 어디에 가도 할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 경찰서 그런 곳에서도 무서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치적 문제는 안 건드리죠. 저는 평범한 시민이잖아요.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중략) 동네 주민 회의 이런 데 가면, 다들 별로 의견이 없어요.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만 그런 자리에서 말하지, 그런 회의를 해도 동네 주민들은 다 똑같죠. 저처럼. (Lan, 60대 여)

베트남의 노년 세대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반드시 개인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담론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상은 이런 조건의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 세대에 속한 면접대상자의 절대다수는 당-정부가 이전보다 나은 현실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현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치적인 실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는 확고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청년 세대처럼, 이런 소극적 실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정의나 행복이 개인의 차원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믿거나 주장하지는 않았다. 베트남인의 행복관을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묘한 세대별 차이가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 베트남인의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국가 공동체에 대한 시각에 주목해 볼 것이다.

마. 가족과 지역-국가 공동체에 대한 시각과 개인화된 행복

인간이 행복을 상상할 때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참조 대상은 가족과

공동체일 것이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개인에게 행복은 가족 및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느 정도 정체감을 느끼며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인의 행복도 자신이 처한 정치·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환경 같은 객관적 여건만이 아니라 개인이 가족, 이웃,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애정을 가지는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베트남인의 가족, 이웃, 지역 공동체, 국가에 대한 애정과 정체감을, 해외에 이주할 의사와 가족 및 이웃과의 상호작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행복을 가족과 이웃과 어떻게 연계하여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행복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고자 한다.

① 청년 세대의 해외 이주 의사와 가족 및 지역-국가 공동체를 보는 관점

이 연구의 면접대상자 가운데 절대다수는 다른 국가로 이주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몇몇 예외적 상황을 언급한 면접대상자도 영구이주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탐험에 대한 욕구와 호기심이 강한 청년 세대도 학업이나 노동을 위한 일시 이주에 한정하여 시도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런 반응을 자국과 자국민에 대한 강한 정체성과 애정의 귀결로 바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이 세계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 오늘날 청년 세대가 외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주 욕망을 품지 못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청년 세대가 이처럼 해외로의 영구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베트남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관계와 문화적 자산을 외국에서는 느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베트남) 체제에 따라서 살아야죠.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이나 이민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고 베트남에 있는데 기회가 있다면 장학금 받아서 호주에서 석사 공부하고 싶어요. (중략) 어느 사회나 문화적으로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쁜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사냐겠지요. (Minh, 20대 남)

그냥 상상은 해봤는데요. 어렸을 때는 미국이나 호주 생각했는데 그쪽 문화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돈 있으면 영국이나 북유럽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싱가포르나 대만이요. 그런 나라는 (베트남이 그런 것처럼) 전통 가치를 지키면서 살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가 있을 때는 미국 이런 데는 안 가고 싶어요. 아이가 그런 문화의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Duy, 20대 남)

이런 진술과는 상반되게 베트남의 많은 청년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족된다면 일시적인 이주는 물론이고 때론 영구적 이주까지 상상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이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나 부모의 재력을 활용하여 서구로 이주를 감행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명목상 가족이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문화적 전통에 대한 존중심을 표현하지만, 이주를 가로막고 있는 실질적인 장애물은 대다수 청년이 이주를 시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처럼 가족, 이웃, 국가 등에 대한 애정과 이주하고 싶은 의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양자는 서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실제 이주 의사와는 별개로 베트남에서 가족은 청년 세대에게도 여전히 행복을 느끼고, 인식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단위이다. 특히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족이 있는 청년 세대 면접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공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한다.

식구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껴요. 우린 소수 민족이라 가까운 친인척이 마을이나 인근에 모여 살아요. 엄마, 아빠, 남동생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모였을 때요. 그러니까 친고모, 친삼촌들까지요.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거나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그런 거 보면 저도 좋아요. (중략) 화나는 건 없지만 가장 속상하고 절망스러울 때는 집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제게 없다는 걸 깨달을 때요. 특히 돈 문제요. 무기력하고, 자책도 하죠. (Diêm, 20대 여)

전 형제자매가 많아요. 7명이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시골집에 와 있어요. 집에 오니 좋아요.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에 오니 서로 안심되고 오랜만에 같이 지내니 행복해요. 제가 음식도 하고 부모님을 도와주니 모두 좋아하고요. 가족끼리 서로 위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제일 즐거워요. 아직은 절

혼을 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부모님, 가족, 친척이 모여 즐겁게 지내고 서로 돕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Trang, 20대 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의 사례가 보여주는 가족 구성원의 강한 유대와 삶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은 어느 베트남 가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청년 세대도, 특히 시골에서, 개인의 삶에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문화적 관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은 중요한 삶과 행복의 토대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방해하고 원하지 않는 의무를 강요하는 불행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베트남 청년 세대에게 가족은 삶에서 필요한 유대감과 위안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 삶의 진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권위와 의무를 생산하고 있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진다.

부모가 내가 어릴 적, 5-6세쯤에 이혼을 했다. (메콩 델타의) 티엔장이 고향인데 어머니는 고향에 살고, 아버지는 호찌민에 산다. 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고등학교 2학년 이복동생이 있다. 어머니를 뵈러 3-4달에 한 번씩은 고향에 간다. 어머니는 전에 작은 사업을 했고, 아버지는 운송업을 한다. 가깝게 사니까 아버지를 더 자주 보게 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제가 용돈을 드리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한다. (중략) 가족끼리 식사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Son, 30대 남)

제 생각에는 가족에 가장 많이 매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멀리서 생활하는 것을 안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결혼해도 근처에 신혼집이 있으면 하시고, 멀리 있는 사람과 결혼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학 이야기를 살짝 꺼냈는데 반대는 안 하셨지만, 흔쾌히 동의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중략) 왜냐하면 제 두 언니도 결혼했는데 다들 먼 곳에 살고, 직장도 멀거든요. (Trang, 20대 여)

청년 세대가 이처럼 베트남 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족 규범과 가부장적 권위를 수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에 흔쾌하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규범적 규칙(normative rules)”을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용적 규칙(pragmatic rules)”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개인의 의사 결정력을 강화하고 있다(Bailey 1969).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에서 날로 근

대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의 기능과 의미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베트남 가족의 변화는 한편으로 가족의 단위를 친족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축소하고 있다. 면접대상자에게 가족의 구성원에 누가 포함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직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핵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끔 가족의 유대를 위한 활동을 묘사할 때 확대가족을 구성원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청년 세대가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은 핵가족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 단위의 축소와 가족 내 개인주의의 강화는 (특히 북부) 베트남의 전통적인 친족 관념 및 공동체 의식과 가부장주의를 빠르게 해체하고 있다. 대다수 베트남 청년 세대에게 친인척이나 이웃은 점점 유대감을 느끼는 일차적 대상으로서 지위를 잃어가고 있으며, 부모는 상의 대상은 될지언정 허락을 강요하는 권위적 실체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웃과 알고 지내지만, 생활에서 이웃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가 중요하거나 함께 어떤 일을 해본 경험도 없어요. 가족이나 여자 친구를 생각하면 베트남이 잘살고, 발전하고, 안정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는 것보다 개인으로 잘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이 사는 환경이 좋지 못하면 개인의 삶과 행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중략) 내가 잘살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 같아요. 결국 이웃과 나라 모두 개인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같아요. (Duy, 20대 남)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는데 친구나 가족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도 대부분 제가 결정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했었던 때라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 했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최선을 다해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해요. 당연히 저 스스로 결정하고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요. (Minh, 20대 남)

이처럼, 베트남의 청년 세대에게 가족은 여전히 유대와 애정의 기초 단위이지만 가족의 범위, 권위, 그리고 의미는 이전 세대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는 청년 세대가 전통적인 사회적 권위에서 벗어나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정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지역 공동체, 국가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이러한 관점과 실천이 이전 세대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노년 세대의 해외 이주 의사와 가족 및 지역-국가 공동체를 보는 관점

청년 세대와 비교할 때 노년 세대는 다른 국가로의 영구이주는 물론 임시적인 이주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통일 이전에 남부 정부의 군인이었던 면접대상자가 기회가 있었을 때 이주를 실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 사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 면접대상자 역시 현재는 이주의 꿈을 접은 것으로 보여, 노년 세대에게 해외로의 이주는 이상적이기도 현실적이기도 않은 기획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행 많이 가봤죠. 근데 사실 베트남이 더 좋아요. 외국이 좋은 점은 생활환경이 좋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의료복지도 잘되어 있어서 정기검진 다 해주고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세금 많이 내는 만큼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더라고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겠죠. 행정 처리 같은 것도 여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외국은 온라인으로 그냥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좋더라고요. 가끔 남의 집 담장 조금 넘어갔다고 경찰 신고하고 야박하게요. 그런 거 보면 동양 국가들이 서로 정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외국(에) 사는 것도 흥미롭겠지만 여기에서 사는 방식이 더 좋아요. (Vũ, 60대 남)

지금 베트남에서 사는 것이 엄청 편해요. 평온하고 삶도 불편하지 않아요. 한국, 태국, 싱가포르도 맨날 온갖 일이 터지잖아요. 특히 태국요. 태국은 자본주의인데 맨날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베트남은 정권 바뀔 일이 없으니까 몇십 년째 평온하잖아요. (중략) 당연히 어디 가나 인생은 다 그렇죠. 어느 체제에 살든요. 예를 들어 여기 공산주의는 좋은 게 정권이 안 바뀌어요. 일당제라서 변화나 불안정성이 적어요. 삶이 평화롭잖아요. (Thin, 50대 남)

위의 사례처럼 노년 세대가 해외 이주보다 베트남에 정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나이가 들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보다 익숙한 베트남에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년 세대에게 익숙한 것 가운데 핵심은 가족이다. 이들에게는 자녀 및 친인척과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실천 항목이다.

야노. (해외 이주) 안 가요. 첫째로는 지금 여기 가족도 있고, 삶도 안정적인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요. 여기가 고향인데요. 제 고향(베트남)도 많이 바뀌어서 살 만한데 뭐 하러 가요. 이민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잖아요. 맨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니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뭐 하러 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같이 가도 아내와 딸이 뭘 하겠어요. 70살인데 가서 뭘 해요? (Tùng, 70대 남)

노년 세대가 이처럼 가족과 함께 익숙한 지역 공동체에서 사는 것의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이들은, 특히 호찌민에 사는 다수의 면접대상자는 자녀나 친인척과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며 살지 않았다. 또한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고 이들과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Bryceson and Vuorela, 2002)의 전형적 삶을 사는 사례도 있었고, 가까운 친인척이나 이웃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밀접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장인과 장모가 살다가 물려준 땅에 1999년 집을 지었다. 집사람의 형제와 자매 5명이 땅을 나누어서 서로 근처에 집을 지었다. (중략) 처가 식구가 자주 모이지는 않는다. 꼭 챙겨야 하는 경조사도 있으면 만나는 정도이다. 오래 이곳에 살아 이웃도 잘 알지만 아는 정도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아니다. (중략) 주로 만나는 친구가 있다. 매주 주말에 또래 친구하고 2-3시간 정도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정부 걱정도 한다. (중략)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베트남이) 중국의 길을 따라갈까 우려스럽다. (중략) 아쉬운 것은 큰딸은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작은딸과 막내딸도 외국계 회사에 다니느라 바빠 자주 보지 못한다. 사실상 떨어져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 아쉽다. (Khôì, 60대 남)

호찌민은 이주민 유입이 많아 의식 개선 캠페인을 많이 하지만 어렵다. 추후 나아질 것이다. (중략) 주로 이런 사회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가족에게 한다. 이웃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웃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 내 견해를 주위, 지역사회, 국가에 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역할은 언론이 해야 한다. 행복에서 중요한 것은 아내와 딸과 같은 내 가족이다. (Vũ, 60대 남)

딸이 둘이다. 하나는 프랑스에서 석사를 마치고 프랑스에서 직업을 얻어 살고 있다. 간 지 2년 정도 되었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다른 한 명은 경제 관련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중략) 딸이 호찌민에 소유한 아파트에 가끔 한국 사람이 세를 들어온다. (중략) 우리 가족

은 위생을 생각해서 함께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 (중략) 두 딸과 아내가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Thin, 50대 남)

노년 세대가 가족이나 이웃과 이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현실은, 이들이 해외 이주를 단념한 이유가 반드시 익숙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노년 세대는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일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개척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베트남보다 선진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추어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베트남의 대다수 노년 세대에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기에 자신에게 익숙한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고향의 소중함을 도리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노. 안 가요. 갈 수 있다면, 미국에 딸이 있어서 초청하면 갈 수 있긴 한데 저희 부부 나이가 많잖아요. 가서 할 게 어딴어요. 여기 친구들이랑 가족도 있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가려면 갈 수 있지만, 가족 초청 조건도 까다롭고, 미국에 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Khôi, 60대 남)

가끔 밖에 나가면 온갖 일 일어나는 거 보면 짜증 나요. 외국은 다 선진국이라 가고 싶긴 한데. 저도 외국 많이 나가봤어요. 호주 가고 싱가포르 가고요. 선진국답게 좋긴 한데 가끔 여행 다닐 때도 집이 생각나요. 어쨌거나 잠깐 여행은 다녀와도 되는데, 외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도 가끔 집 생각난대요. 여기 가족 있고, 친구 있으니까요. 저도 외국이 살기 좋고 다들 의식 수준이 높아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젊었을 때 이민 갔는데 들어서 베트남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안 가고 싶어요. (Thuý, 60대 여)

이처럼 노년 세대가 이주를 기획하지 않는 것은 이를 상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기획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사회경제적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도 소수 부유층의 경우 자녀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이민 보내고 자신은 영주권을 가지고 왕래하거나 아예 가족 전체가 시민권을 얻어 양국을 오가며 사는 사례가 제법 있다. 이런 부유층 노년 세대가 오히려 외국에서 가족과 친밀하게 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노년층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하여 해외로 이주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사회적 맥락에 맞게 문화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행위로 보

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세대보다 노년 세대가 삶의 행복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생각하고, 가족 이데올로기를 더 강하게 믿고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노년 세대가 가족의 중요성을 구성원에게 강제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노년 세대도 가족 내 관계와 이데올로기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 세대의 대다수는 자신이 권위를 부리는 것에서 존재감을 느끼려고 시도하지 않고, 부부와 부모-자식의 소통을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가족 내부의 새로운 권력관계와 문화에 현명하게 적응하고 있기에 자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주로 아내와 두 자녀와 상의한다. 가족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경청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도록 존중해준다. 나도 모두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이런 것이 당연하다.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아내와 두 아이가 있고 이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기 때문이다. (Thin, 50대 남)

가족을 위한 이러한 “현명함”은 노년 세대, 특히 남성에게 권위의 상실에 대한 섬세한 감정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대한 가족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모와 가부장의 권위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베트남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이전과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상대라고 소개해 주는데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이들 인생이잖아요. 싫은 사람이라 결혼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중략) 결혼 상대 데리고 오면, 가정 형편이나, 성장 배경 같은 것은 물어보죠. 서로 아껴주는지도 보고요. 근데 멀리서 신혼생활을 하겠다면 의견을 내죠. (자녀 부부가 자신과 가까이 지낼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긴 해요. 자식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별로예요. (Anh, 60대 여)

간섭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 딸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프랑스에 가려고 했을 때도 지지해주었다. 요즘은 부모 생각까지 하면 잘살기 힘들다. 전통에 따라 부모에게 인사는 잘해야 하고 나도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결국은 딸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책임지고 결정한 것이 잘못되면 위로해 주는 정도일 것이다. (Thin, 50대 남)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년 세대가 삶을 행복하게 느끼는 데 가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친인척과 함께 어울리던 과거와 달리 친밀한 가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지만, 가족은 여전히 이들에게 행복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준거점이다. 점점 개인주의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노년 세대는 가족에 대한 관념을 매개로 자신을 둘러싼 물질적, 사회적 현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행복을 구성해내고 있다.

아내와 식물을 키우고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싶다. 가족처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 행복을 위해 가족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겪어보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그렇게 살아보니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중략) 인간 본성이 싸우고 갈등하고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을 낸다. 주어진 가족에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 (Thin, 50대 남)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형제자매와 함께 지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그다음으로 는 자녀가 없이 신혼생활을 할 때가 행복했다. 지금은 손주 보는 것도 행복의 하나이다. 행복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대는 결혼, 이혼을 너무 많이 한다. 생활 조건이 많이 나아져 전보다 어려움이 적은데도 참을성이 없는 것 같다.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다 겪어보았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가족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Anh, 60대 여)

노년 세대의 강한 가족 이데올로기와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공적 담론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가족 내에서 이전처럼 존중받지 못하고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실제로 가족 구성원의 관계 맺기 방식과 유대감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점은 노년 세대와 비교하여 훨씬 개인 중심적이며, 이로 인해 가족 내 세대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데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노년 세대가 점점 변화하는 가족관계와 가족 문화에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5절 소결

1. 사회와 부모의 강제, 공간적 역량, 행복의 구성 - 한국인의 사례

이 연구는 3년간 걸쳐 행한 행복에 관한 연구 중 마지막 3년차 과제로 한국인 피면담자들의 행복에 관한 정의, 행복 및 불행에 관련된 경험, 공간적 역량, 행복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전체 연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드러나는 행복의 모습을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행복과 관련한 심층적인 함의를 찾는 것이다. 그 전제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루고 복지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즉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 지표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 성장 위주의 사고 등이 지목된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에 참고해온 행복의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개개인이 인생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과정과 주체의 대처방식에 초점을 두어 탐구하였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역량 이론은 한국 사례연구에서도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용한 기회가 있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역량은 피면담자들에게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선택이라 표현되었다. 대다수 피면담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했으며, 반대로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을 불행한 경험으로 떠올렸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뜻하는 공간적 역량의 측면도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드러냈고, 개인이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즉 불행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평범한 한국인이라고 인식하는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20-30대 청년층 9명, 60-70대 노년층 9명으로 총 18명의 피면담자를 모집하였으며, 각각의 연령별 그룹 안에서도 피면담자들의 교육수준 및 성별 등을 균형 있게 모집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방법은 대면과 비대면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피면담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화상채팅 소프트웨어 줌(Zoom)을 이용해 비대면 면담을 하거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커피숍에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에 근거하되 피면담자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되는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었으며 녹음자료 및 속기록을 이용하여 인터뷰 결과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이자 대다수 인터뷰에서 공통되게 등장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의 정의이다. 행복의 정의는 1)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2) 성취와 인정, 3) 일상의 행복과 인간관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주거 및 이동의 자유를 보여주는 공간적 역량과 서울에서의 생활이다. 셋째,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타협과 행복의 구성이다.

행복의 정의에서 언급된 세 가지 측면 중에서는 1)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면담자들은 국가의 강제에 의해 군대에 있는 것은 불행한 경험으로 인식했고, 반면에 자신이 선택한 대학 입시 재수는 행복하고 보람 있던 경험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경험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서 중요한 측면이었다. 특히, 20-30대는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대입, 취업의 사례들을 언급했고, 60-70대는 가족을 꾸리고 아이들을 양육한 것을 성취감과 행복을 느낀 경험으로 언급했다. 개인의 성취와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특성이 더욱 잘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피면담자들은 한국사회의 경쟁, 비교 문화를 언급했다. 정해진 삶의 단계들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고 비교함으로써 주관적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대척점으로써 세 번째 행복의 유형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다. 경쟁과 비교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을 찾기보다는 작은 일들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는 이른바 소확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본 연구의 일부 피면담자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위 세 가지 유형의 행복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을 논의함에 있어서 개인의 일상을 통해 복합적으로 경험되는 과정으로서의 행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이 세 가지 유형의 행복을 모두

경험하며 2)와 3)이 대척되는 것으로 보인다고해서 둘 중 한 가지의 행복만을 선택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피면담자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견디거나 또는 압박을 이겨내고 성취를 이루었을 경우 큰 행복을 느끼기도 했다. 또는 그 누구도 한국사회의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경쟁의 스트레스를 잊고 소소한 행복을 찾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소소한 행복은 개인이 다시 경쟁에 참여해 삶을 살아내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주거 및 이동의 자유를 뜻하는 공간적 역량에 관해서는 대다수 피면담자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들이 서울에서 생활해온 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특히 지방 도시에서 올라온 20-30대 청년층 피면담자들에게는 서울로 이주한 것 자체가 부모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으며, 한편으로는 대학 입시의 결과로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성취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의 행복을 느끼기에도 즐길 거리가 많은 서울이 좋은 환경으로 거론되었다. 서울에서 오래 거주한 피면담자들의 경우에는 서울 및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60-70대 피면담자들의 경우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삶의 환경 및 조건들에 만족한다면서도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최근 개인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모든 피면담자들이 답답함을 이야기했지만 2년차 중남미 피면담자들처럼 괴로움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완전한 이동 제한을 요구하지 않는 방역 조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응과 타협, 행복의 구성과 관련해서 대다수 피면담자들은 인터뷰에서 그들이 표현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불행에 대처하고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각종 행복과 관련한 국제 지표들에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낮게 나오는 것과는 달리 대다수 피면담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피면담자들이 불행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측되는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기제를 갖고 있거나, 개인이 변화시킬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순응/회피/일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의 방어기제 및 대응 방식은 개인을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행복을 발견하고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 행복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구성 - 베트남인 사례

베트남인의 행복을 탐구하기 위하여 면접을 진행하면서 든 가장 큰 의문은 ‘행복’이 베트남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익숙한 개념인가 하는 점이었다. 연구자가 베트남인에게 행복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흥미롭게 느낀 점은 이들이 공적으로 확립되어 익숙해진 담론을 반복해서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유럽과 중남미를 조사할 때와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베트남인은 어떠한 때 행복하다”라든지 “우리는 어떠한 민족·종족이라 이럴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식의 정형화된 담론이 존재하지 않은 듯했다. 베트남에서 행복을 정의하는 ‘지배적 담론(dominant discourse)’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행복이라는 개념이 베트남에서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사회문화적 관심사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다.

물론 베트남에도 전통적으로 ‘복(phúc, 福)’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자식이 부모보다 잘되면, 복 있는 집이다(Con hơn cha là nhà có phúc)”, “부모가 있으면 남보다 나은 거다(Có cha có mẹ thì hơn)”, “형제의 관계가 좋으면 복 있는 집(Anh thuận em hoà là nhà có phúc)” 등의 속담이 그 예이다. 이런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인에게 ‘복’이라는 개념은 가족의 평안함이나 입신양명과 같은 유교적 관념과 연계되어 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정의 평화나 가족 구성원의 권력과 명예를 칭송하는 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Thuy, 2018).

베트남에서는 근대적 주체로서 개인의 행복을 정의하는 담론과 행복을 논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지표나 항목이 명확하지 않다. 베트남인에게는 국가, 사회, 가족의 태평성대나 이를 위한 명예로운 실천 등이 바람직한 삶의 조건이었고, 이는 베트남 사회에서 즐거움, 쾌감, 성취감 같은 개인의 정서적 충족감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에서 평가받아왔다. 이로 인하여 베트남에서는 행복을 정의하고 구성해내는 사회문화적 기제도 그리 발달하지 않은 것 같다.

반면, 최근에는 국부로 칭송받는 호찌민 주석의 행복관을 탐색하거나, 베트남인이 행복을 정의하고 구성하여 개인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노력이 당-정부와 학계에서 시도되고 있다(Ha, Nguyen, Różycka-Tran, 2020). 이들은 각종 공

문서에 “자유, 독립, 행복”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베트남인은 언제 행복한가?”, “베트남에서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서구의 행복 담론에 조응하는 행복 개념을 구성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행복은 역사·문화적으로 모호한 개념이며, 비교적 최근에만 개인을 주체로 하여 구체적 지표를 거론하며 행복을 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역사적 흐름은 한국의 사례와 유사성이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이 행복을 논할 때 참조하는 지점 또는 행복을 구성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최근 40-50여 년의 역사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한 ‘기억의 정치’(Halbwachs, 1992)가 그것이다. 베트남 전쟁, 사회주의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런 역사적 계기를 어떻게 겪었는지가 현재의 삶과 행복을 평가하는 준거점이 된다. 특히 노년 세대의 경우 어려웠던 지난 시절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현재 삶의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고 있다. 청년 세대의 경우에도, 혹독한 근대사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 고도성장이 이들에게 현실을 낙관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과거보다 현재의 삶이 낮다고 현재가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는 적어도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정치적 통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양 세대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무엇보다 이들이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노년 세대는 적어도 기근과 생활필수품 부족을 우려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에 안도하면서, 시장경제 정책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도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개방으로 외래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을 표시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의 중산층 엘리트의 경제적 여건은 사실 풍부하고 여유롭다고 말할 정도에 이르진 못한다. 대다수가 가구를 경제적으로 재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뿐이지, 일을 계속하거나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 세대 모두 넉넉한 물질적 조건을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만족하려 할 뿐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삶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경제적 여건만이 아니라,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행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년 세

대는 자신의 미래는 물질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보다 여가를 즐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앞으로 자신과 가구를 재생산하면서 경험할 세계는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비교하여, 이런 현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노년 세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처럼 양 세대 모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제적 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이상적으로 말하지만, 청년 세대는 미래에 그리고 노년 세대는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어, 이들이 이런 낙관적 믿음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추상적 믿음이 어느 정도 진정성과 현실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제반 사회문제와 이를 관리하는 당-정부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는 일관되게 치안에 대해서는 만족하다고 진술했지만, 교육, 의료, 환경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달리 이 분야들이 상품화되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에 비하여 서비스의 질이 열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년과 노년 세대 모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실천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다. 당-정부의 사회적 이슈, 특히 교육과 의료에 대한 세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실천에 동참하는 것에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이 같은 실천의 부재는 당-정부의 의사결정이 독점적이라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없다는 인식과 정치적 의사 표현이 위험하다는 우려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공유하고 있지만, 전자는 사회적 정의나 행복이 개인적 차원에서 추구되고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후자는 집단적 차원과 독립된 개인적 차원의 행복에 대해서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지배만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가 개인주의를 촉진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가족, 이웃, 국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관점이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와 관련하여 양 세대 면접대상자는 공히 베트남을 떠날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의 발로라기보다 현실적 제약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그 중요성은 인지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웃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사는 면접대상자는 드물었다. 이런 현상은 베트남, 특히 대도시에서 사회적 관계의 개인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복을 개인적 차원에서 찾는 세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개인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가족이 개인의 행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날 베트남 사회, 특히 남부 대도시에서는 이전과 같이 강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가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 사이의 애정과 유대감도 약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 내 위계와 가부장의 권위가 존재감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인(특히 노년 세대)은 개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데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규범적 관념을 여전히 승인하면서, 변화하는 가족관계와 가족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베트남인의 행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베트남에서는 행복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는 문화적 기제나 행복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이 발견되지 않았다. 북유럽에서는 사회정의, 중남미에서는 종교적 관념과 관련한 전형적인 행복 담론이 작동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는 한국과 유사하게 인간의 삶을 행복보다는 다른 개념을 매개로 해석하는 데 익숙한 문화 때문인 것 같다. 또한 베트남인에게는 행복의 토대가 되는 정치·경제적 현실을 평가할 때 최근 몇십 년의 역사적 경험과 이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억의 정치가 베트남인에게 삶을 주어진 현실에 비하여 낙관적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삶과 행복에 대한 이런 긍정적 관점은, 이전 연구(특히 중남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실과 구성된 관념 사이의 모순과 역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트남인의 행복은 압축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맞추어 변화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지배와 개인주의의 확산은 베트남인이 행복의 준거로 삼았던 모든 제도와 관행을 빠르게 변모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인의 행복도 새로운 정치·경제적 좌표와 문화적 기제에 의해 해석되고 조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8장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국제비교 결과 종합

제1절 국제비교 질적 연구 종합의 개요

제2절 개인적 역량에서 본 행복

제3절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본 행복

제4절 국제비교 질적 연구의 함의

제 8 장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국제비교 결과 종합

제1절 국제비교 질적 연구 종합의 개요

3개년에 걸친 국제비교 질적 연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비교연구이다. 다음 <표 8-1>~<표 8-3>은 3개년 동안 탐색한 국제비교 질적 연구 대상 국가의 거시적 특성을 제시, 비교하고 있다. 1차 연도에는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고 행복 지수가 높은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질적 연구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차 연도에는 사회제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행복 지수가 높은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를 질적 연구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차연도에는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에 비하여 행복도가 낮은 베트남과 한국을 순차적으로 질적 연구 대상국가로 조사연구하고 비교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면접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 내의 참여관찰을 추가한 질적 접근방법을 취하여 행복과 관련하여 비슷한 조건을 가진 국가군을 비교한 연구이다.⁴⁸⁾

이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의 조건과 이유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행복을 개인의 역량, 공간의 역량, 대응 역량을 나누어 각각의 공동체가 구성원의 행복을 보장하거나 제한하는 방식과 정도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유, 비판의식, 사회적 책임, 개인-집단의 적응과 타협 등이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이 연구는 행복의 사회문화적 구성을 탐색하였다.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적 여건 그리고 치안, 교육, 복지, 환경 등과 관련한 제도와 조건을 면접대상자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분석하였다. 이어 각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행복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사회가 사회경제적 여건과 때로는 연계하여, 때로는 별개로 구성해내는 행복의 내용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기제가 무엇

48) 표에서 북유럽 국가와 중남미 국가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부록 4-3]에,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상세 설명은 제7장 제2절을 참고

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두 가지 주제(개인 역량과 사회문화적 구성)를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사회에서 양 세대가 행복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다수가 중산층 엘리트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개인적 역량을 다룬 부분에는 동아시아 국가군 중에서도 한국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회문화적 구성을 탐색한 부분에서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의 학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3개년의 질적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행복에 대한 개인적 역량의 논의와 사회문화적 구성의 논의를 종합하였다.

〈표 8-1〉 북유럽 연구대상 국가 현황 요약 - 1차 연구(2019년)

구분	1차 연구: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행복 수준	WHR: 2위 (7.6점) OECD Better Life Index 등 다른 자료에서도 상위권 차지	WHR: 5위 (7.5점) OECD Better Life Index 등 다른 자료에서도 상위권 차지
소득수준/경제발전	1인당 GDP(미국 달러 현재가): \$60,909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행복도가 크게 변하지 않음	1인당 GDP(미국 달러 현재가): \$67,295 경제 위기 시에도 행복한 나라 상위권을 지키는 등 부유할수록 행복한 것은 아님을 보여줌
민주주의/시민참여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5위 성숙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 복지제도 발달, 평등주의 강조 높은 정치 참여율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1위 성숙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 사회적, 지리적 이유로 계급이 발달하지 않고 복지제도가 발달 평등주의 강조
가족관계/결혼/출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대안적 가족 형태가 인정받음 선진국 중 높은 출산율 유지(2020년 TFR 1.67)	핵가족이 대다수이나 친척들과 가까이 거주하는 편 선진국 중 높은 출산율 유지(2018년 TFR 1.69)
일·가정 균형	OECD 국가 중 일과 가정이 균형 잡혔다고 평가됨 장시간 근로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OECD 평균보다 높음	일과 삶의 충돌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국가의 효과(societal effect)가 작용 맞벌이 부부 지원 정책은 남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참여를 높임
기타 요인	하루 평균 여가시간 비율은 22.8% 스포츠 활동이 활발하며 시민 누구나 평등한 여가를 즐기는 문화를 장려	하루 평균 여가시간 비율은 25.6%로 높은 편 계절별로 스포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자료: 행복 수준 자료는 World Happiness Report(WHR) 2020임. 2017년-2019년 동안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0(최악)-10(최고)점으로 측정하여 평균을 낸 값에 따라 153개국 중 순위를 매김. 소득수준은 World Bank Data 2020. 민주주의/시민참여 부분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8년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합계출산율은 World Bank. 평균 여가시간 비율은 각국의 가장 최근 연도 시간 사용 조사(Time Use Survey). 그 외의 지표에 대해서는 1차 연도 연구의 제6장 참고(정해식 등, 2019, 154-159 재인용)

〈표 8-2〉 중남미 연구대상 국가 현황 요약 - 2차 연구(2020년)

구분	2차 연구: 중남미	
	코스타리카	멕시코
행복 수준	WHR: 15위 (7.1점) 2016년 지구촌행복지수 140개국 중 1위 기타 자료와 비표에서도 행복도 최상위권	WHR: 24위 (6.5점) OECD Better Life Index는 40개국 중 39위 (주거, 소득, 직업 등 삶의 균형 부문에서 최하위권)
소득수준/경제 발전	1인당 GDP(미국 달러 현재가): \$12,077 농수산물 수출 산업과 관광산업에 주력 1949년 군대 폐지 이후 자금을 교육, 건강, 연금 등에 투자	1인당 GDP(미국 달러 현재가): \$8,347 인구의 18%가 국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수준 사회적 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
민주주의/시민 참여	민주주의 지수는 173개국 중 19위 부패인식 지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 일반적 개도국 특성과 달리 민주적이며 발전된 복지국가로 평가됨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73위(EIU)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는 높은 편
가족관계/결혼/출산	가족 간 유대가 강하며 대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음 1960년 이후로 합계출산율 지속적 감소 (2018년 TFR 1.7)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처럼 가족 유대가 강함 1970년 이후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편 (2018년 TFR 2.1)
일·가정 균형	고용률이 낮은 편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큼 직업의 질을 나타내는 Earnings quality는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 남녀 고용률의 격차, 고용의 질 등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OECD Better Life Index 중 work-life balance 부문에서 40개국 중 39위 근로자의 28.5%는 장시간 근로(OECD 국가 중 2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편이고 하루 평균 남성보다 5시간 더 가사노동에 시간 사용
기타 요인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도 활발함 친환경적 에너지 사용 장려	개인 생활과 여가 시간에 사용하는 시간이 짧은 편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따른 성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음

자료: 행복 수준 자료는 World Happiness Report(WHR) 2020임. 2017년-2019년 동안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0(최악)-10(최고)점으로 측정하여 평균을 낸 값에 따라 153개국 중 순위를 매김. 소득수준은 World Bank Data 2020. 민주주의/시민참여 부문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8년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합계출산율은 World Bank. 평균 여가시간 비율은 각국의 가장 최근 연도 시간 사용 조사(Time Use Survey). 그 외의 지표에 대해서는 2차 연도 연구의 제7장 참고(정해식 등, 2020, 200-209 재인용)

〈표 8-3〉 동아시아 연구대상 국가 현황 요약 - 3차 연구(2021년)

구분	3차 연구: 동아시아	
	베트남	한국
행복 수준	WHR: 83위 (5.4점) 2016년 지구총행복지수 140개국 중 5위 발표기관과 지표에 따라 상위권~중위권 다양하게 나타남	WHR: 61위 (5.9점) OECD Better Life Index 하위권(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등 개인의 인식이 중요한 영역에서 평균 이하)
소득수준/경제 발전	1인당 GDP(미국 달러 현재가): \$2,786 1981년 이래로 지속적 고성장 기조 유지 동남아 국가 중 소득분배 수준은 비교적 양호	1인당 GDP(미국 달러 현재가): \$31,489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자녀 세대의 행복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민주주의/시민 참여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137위(EIU) 선거부문에 있어 0점,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됨 시민참여 수준 또한 낮으나 청년층의 행복에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짐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국 중 23위(EIU) OECD Better Life Index 중 시민참여 지표는 2위로 최상위권 투표율과 이해관계자의 정치참여가 높은 편
가족관계/결혼/출산	평균 가족구성원 수는 3.5명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특성을 지녀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함 2001년 합계출산율 2 미만으로 최저점, 이후 약간 반등(2018년 TFR 2.05)	1인 가구의 비율 급증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기록, 초저출산율이 지속됨(2018년 TFR 0.98)
일·가정 균형	2019년 베트남 국민의 노동시간은 67개국 중 13위(네덜란드 호로닝언 대학의 조사) 일 가정 균형은 40개국 중 27위로 평가됨(HSBC 은행 조사)	OECD Better Life Index 중 work-life balance 부문에서 40개국 중 37위 장시간 근로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음 여러 여론조사에서 일이 가정보다 우선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0% 이상
기타 요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보험 등 공중보건 정책을 확대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뚜렷 - 소확행, YOLO, FIRE, DINK 등

자료: 행복 수준 자료는 World Happiness Report(WHR) 2020임. 2017년-2019년 동안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0(최악)-10(최고)점으로 측정하여 평균을 낸 값에 따라 153개국 중 순위를 매김. 소득수준은 World Bank Data 2020. 민주주의/시민참여 부문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8년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합계출산율은 World Bank. 평균 여가시간 비율은 각국의 가장 최근 연도 시간 사용 조사(Time Use Survey). 그 외의 지표에 대해서는 7장 2절에서 참고 바람

제2절 개인적 역량에서 본 행복

1. 개인의 역량과 공간적 역량, 어려움에 대한 대응 연구

총 3년간의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이 행복과 관련해 드러내고자 했던 주요한 측면의 하나는 개인의 행복을 이루는 조건과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였다. 2000년대에 들어 학문과 정책의 대상으로서 행복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론적인 논의, 정량적인 행복지수, 국가별 행복 수준 비교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그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Smith and Reid, 2018)이 대두하였다.

본 연구진은 행복 연구의 큰 축으로 사용되는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첫 번째 이론틀로 삼는다. 역량(capability) 이론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가용한 기회를 역량이라 보고, 그 역량의 확대를 행복과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역량은 competence, capacity로도 번역되지만, 이 역량이론에서 역량은 capability, 즉 개인에게 가용한 기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 처지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사람은 생활비가 더 들기 때문에 다른 소득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량이론은 가정이나 사회를 단위로 삶의 질을 보는 것을 경계하고 방법론적으로 개인주의를 택한다. 가정과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데 아직 인식되지 않은 불평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풍요도를 볼 때, 경제적 자원이 남편과 부인의 개인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젠더 역할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을(Pettit, 2001; Sen, 1992, 1999)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이론틀은 역량이론을 공간적으로 발전시킨 공간적 이론틀을 적용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량 종류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발견된다는 이유로 역량이론은 중요한 종류의 역량에 대해 열어두었다. 본 연구는 공간적 역량을 분석틀로 제안하였다. 대도시에서 주거안정, 주거선택은 삶의 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이동이 점점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이동이 갑자기 제한된 현대사회에서 주거와 이동의 역량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이론들은 사람들의 대응인데, 외부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고 주체의 수용,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이다. 행복에 있어서 적응과 타협은 갈등적 상황으로부터 지나친 좌절을 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편, 약자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공고화하고 사회 구조의 불합리한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것을 방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위의 분석들에 따라 본 연구는 3년간의 사례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역량의 보장과 제한을 살펴보고 거주와 이동에 있어서의 역량인 공간적 역량에 대해 고찰하였다. 면접 대상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거나 적응, 회피하는 기제를 발전시키면서 행복을 구성하는 과정도 살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에 걸쳐 북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세 곳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덴마크,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멕시코, 한국의 각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층 및 60대 이상 노년층 중 평범한 사람(ordinary people)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행복도, 삶의 질에 있어서 곧잘 언급되는 청년층(김지경, 2018; 오세일 외, 2019; 이명숙, 2015)과 노인층(Kwak, 2013; 문동지 외, 2018; 양재진 외, 2016)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평범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기준이었지만, 한국 연구팀의 심층면접에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면접대상자들의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연구진이 소득수준 등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 스스로의 자기인식에 많은 부분을 의존했다. 그리고 일단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 대학을 나왔고 수도권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있어서 학력과 경제력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북유럽 전 연구대상자들과 중남미 면접대상자들 중 반은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그다지 특이하지 않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설명이지만 그렇다고 정말 평균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연구팀의 면접에 응했다는 것은 면접대상자들이 연구나 한국에 익숙하기 때문인 듯한데, 실제로 북유럽, 중남미 면접대상자들 중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초 연구대상자들을 섭외한 후에는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추가 연구대상자들을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년 차에는 경제, 복지 등 사회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북유럽의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장 연구를 실시하였다. 20-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 면접대상자를 코펜하겐에서 6명, 오슬로에서 5명을 모집할 수 있었다. 2년 차에는 경제 수준은 비교적 낮지만 그에 반해 행복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연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온라인 화상 채팅 소프트웨어인 줌(Zoom)을 활용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면접대상자 8명,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거주하는 면접대상자 8명을 모집할 수 있었다. 3년 차에는 경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행복도는 낮은 아시아의 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 청년층과 60-70대 노년층을 각각 9명씩 모집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 면담과 화상 면담을 병행하였다. 다음 장부터 나오는 면담결과와 분석은 연도별로 이루어진 북유럽, 중남미, 한국 순으로 논의한다.

2. 북유럽 - 선택의 자유(역량), 비판의식,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례에서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이것을 행복과 깊이 연관 지었다. 행복을 정의해 달라는 질문에,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거나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부모와 사회가 있음이 중요하다는 답이 많았다. 또한, 이들은 들뜬 감정을 연관시키는 행복이라는 용어보다는 만족이 중요하다면서 일상의 안녕과 투명한 사회를 이루어주는 데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자신들이 북유럽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고마움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는데,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이렇게 좋은 사회에 태어난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빈곤하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거나, 부모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는데 자신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면접대상자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회의 짐이 되는 것이고 사회 규범을 거스

르는 것이라며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편이었다.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은 북유럽 사회에 존재하는 믿음, 타인이 내게 친절할 것이고 조세제도는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경쟁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수의 청년층,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이 언급했고,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일할 때만큼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성차별적 분위기와 자신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관해 얘기하여 지금의 평등한 분위기가 그 대응이 가져온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 60-70년대에 북유럽 사회가 제도적으로 여자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언행이 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 언사와 불평등한 인사를 하는 상사와 싸운 경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남편과 이혼한 경험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며 이야기했다. 어쩔 수 없어서 참은 경우는 거의 없이 여성 면접대상자들은 매번 적극적으로 싸웠다는 경험이 인상적이었는데, 그에 대해 면접대상자들은 자신들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즉, 일반적으로 남녀차별적인 분위기는 있었지만 여성들의 저항이 적극적인 시대를 거친 것이다. 적응, 타협이 강하기보다는 저항하고 바로 고치는 문화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유럽 청년층 면접대상자들 중 절대 다수가 각 국가의 수도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수도가 아닌 곳에서 태어나 이후에 수도에 거주하게 된 면접대상자들은 수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종의 낙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향은 중남미, 한국 청년층 면접대상자들 사이에서도 공통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에게 주거 안정은 중요한 과제였다. 이와 관련해서 이 면접대상자들은 거주지를 수차례 옮겨 다녀야만 하는 것의 피로감에 대해 표현했고 집을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고민임을 언급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세어하우스에 들어가게 되거나 또는 자신의 연인/파트너와 동거하게 되는 것이 다른 아닌 주거 공간의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했다. 또한, 북유럽에는 친구의 부모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도 흔한데 마찬가지로 청년층을 위한 주거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공간적 역량 중 이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유럽에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어 대다수 면접대상자들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코펜하겐, 오슬로에서 버스, 매트로 등과 같은 대중교통에 더해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국제이동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이주를 한 면접대상자들은 그로 인한 답답함, 외로운, 뿌리 없음을 호소했다. 심지어 자신의 의사로 이주를 한 면접대상자의 경우에도 이방인으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면 부정적이었다. 위의 면접대상자들은 이 이동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며 그 이동의 자유가 가지는 큰 역할을 강조하였다.

행복하지 않은 상황, 즉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북유럽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비판적인 태도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청년층 면접대상자는 북유럽 사람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했다. 순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면접대상자는 소수였는데,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교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했다.

타인과의 인간관계는 북유럽 면접대상자들의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 면접대상자 대다수는 협회(혹은 동호회, association) 활동과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상당한 의미를 두어 그와 관련한 이야기에 면담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몇몇 면접대상자들은 스포츠, 예술, 책 클럽 같은 여러 협회 활동에 거의 사회적인 의무 수준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담에서 나온 북유럽 동호회와 친구들 관계를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교, 동호회 활동과 비교를 해본다면, 느슨함, 오프라인 중심, 사회적 가치, 잦은 만남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먼저, 각종 취미, 스포츠 등을 위한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 간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기보다는 느슨하게 형성되는 편이어서 관계보다는 그 활동 자체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스스로 동호회를 만드는 것에도 열심이었다.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온라인보다 직접 만나는 것을 무척 자주 하는 편이었다. 면접대상자들은 이러한 협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같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그런 협회(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람이 드는 협회 수도 꽤 많았고 개인적인 관계로 자기 일상을 나누는 핵심 친구들의 숫자와 범위가 꽤 넓은 편이었다.

3. 중남미 - 핵심그룹을 통한 적응과 타협

중남미 면접대상자들은 특징적으로 날씨나 음식 등과 같은, 삶의 기본적 조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다. 이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그다지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날씨가 좋고 신선한 음식이 풍부하여 가난한 사람들도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강조하였다. 또한, 이것은 과거 코스타리카에서는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 것이 가난의 상징으로 여겨졌었는데,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자신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자, 가까운 동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 과일을 살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관찰도 있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군대가 없는 것을 한국 언론에서 다루었고, 피면담자들도 군대가 없어진 당시의 사회변화를 자랑스럽게 강조했다. 단지 군대가 없다는 특징뿐만 아니라 군대가 없음으로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 정치인들도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군대가 없는 사실에서 영향을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면접대상자들은 코스타리카 사회가 무력충돌을 경험하고 1949년에 군대를 폐지한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평화를 추구하는 문민정부에 힘을 실어준 사회인 만큼 평화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코스타리카의 면접대상자들이 무료 교육 및 의료의 효과에 대해 보인 해석은 북유럽의 면담결과와 비슷했다. 평소에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생각해보면 행복에서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많은 코스타리카인들이 무료 교육과 위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그런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개인의 성과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요즘 코스타리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일한다는 우려도 했다. 한편, 코스타리카 청년층 피면담자들은 그런 사회서비스 때문에 정신건강 같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고마운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기성세대에게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중남미 면접대상자들은 한국에 있는 중남미인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로 자원한 사람

들이 많아 한국에 익숙해서 한국을 언급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한국 출신 친구가 있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과 코스타리카, 멕시코를 비교했는데, 그들이 꼽은 가장 주된 차이점은 한국의 경쟁의식이었다. 특히 멕시코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이 강조한 것은, 멕시코에도 좋은 대학, 대기업에 대한 선호와 경쟁이 존재하지만 가려고 노력하고 못 간 경우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 경쟁과 추구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었다.

중남미 사례에서 공간적 역량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치안과 코로나19로 인한 염려 때문이었다. 중남미 수도권에서도 역시 집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안전과 치안 문제였다. 예컨대 멕시코시티와 산호세에서 지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곧 범죄, 마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자 하는 큰 동기로 작용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지가가 높은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일부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이러한 경쟁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수도를 떠나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에 대해 사회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표현되기보다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높은 임금을 받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중남미의 면접대상자들은 출퇴근과 교통체증을 수도권 거주 주요문제로 지적했다. 코스타리카는 교통이 문제였지만 최근에 나아졌다고 했고, 멕시코시티에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 교통체증이 심한 것을 지적하며 일상이동의 자유가 가용한 교통수단의 문제로 제한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간적 역량에서 이동의 자유가 가장 강조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다. 2020년 여름에 진행된 심층인터뷰 시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퍼져 나가던 때였고, 따라서 연구대상국들에서도 이동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인생에서 불행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지금”이라고 대답하는 면접대상자들이 많았다. 특히 멕시코 면접대상자들은 일상적으로 모임을 갖게 가지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교활동이 정지되고 지극히 제한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당시의 멕시코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는 이동량이 줄었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한 것에서도 온 것이었다.

세 번째 이론틀인 개인의 대응, 행복의 구성 측면에서 중남미 사례의 특성이 뚜렷하

게 나타났다. 중남미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불행한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스스로 터득한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멕시코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았고 따라서 스스로 내면의 행복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많은 면접대상자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침착하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감정을 분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화가 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 순간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분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했다고 이야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훈련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 달리기, 명상이나 독서하기, 불완전한 인간인 자신을 의식하는 종교적인 방식을 활용하기 등 다양한 방식이 언급되었다.

중남미 면접대상자들이 예외 없이 강조한 것은 핵심집단(core group)의 존재이다. 이는 개인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핵심집단은 혈연관계인 가족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포함될 수도 있었다. 핵심집단의 구성은 전형적이지 않고 구성원 간 마음이 맞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핵심 집단에 친형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복형제는 포함될 수도 있었다. 핵심집단의 구성원 간에 만나는 횟수가 잦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우며, 안정된 정서적, 재정적 지지를 보여주고, 일과 취미생활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 등이 핵심집단이 갖는 주요한 기능이였다. 다만 그 경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아서 낯선 사람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는 특성을 가졌다. 대다수 중남미 면접대상자들은 이러한 집단의 존재가 자신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 사회적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면접대상자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활발한 관계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어릴 때 따돌림이나 소외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래부터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사회적인 기술이 있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고마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핵심집단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핵심집단의 존재도 행복을 형성하는 노력의 결과물이었고, 다른 나라(코스타리카인이 멕시코로, 멕시코인이 한국으로)로 이주한 면접대상자들은 외국에서 이 핵심집단을 만들기 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컸다.

4. 한국

한국 사례에서 면접대상자들은 강제가 없는 상태,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를 행복으로 꼽았다. 한국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행복했던 경험에 관한 질문에 자신을 괴롭게 했던 강제가 끝난 직후를 언급했다. 대학에 합격함으로써 입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순간, 군대에서 전역한 순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순간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이다.

특히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자유의 반대인 강제적인 상황에서 겪은 불행했던 경험을 많이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에 의한 강제인 대학입시, 국가에 의한 강제인 군대, 부모님에게서 받는 강요와 압박감 등이 개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험의 주요한 사례로 등장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군대였다. 특히 남성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에게 군대의 경험은 절대적이었다. 코스타리카에서 군대가 없는 것이 그 사회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은 것에 비해, 한국에서 군대는 자유와 반대로, 즉 행복의 반대상황으로 꼽혔다.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 가장 중요했고,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부류와 맞닥뜨리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 명령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었다. 군대와 행복의 관계를 한국 사례에 적용해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가 군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한국의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성취를 이루어내고 이것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언급했다. 이들의 면담 내용은 한국 사회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도가 낮다고 하는 흔한 사회적 담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강제 자체는 유쾌하지 않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거둔 성과에 의의를 두는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대다수 면접대상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표현했는데, 자신이 성취하고 인정받은 것들에 대한 구술이 그 안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경쟁 속에서 압박을 받으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던 경험,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의 보람, 자부심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 설명했다.

오히려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경쟁 자체를 못 견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매개로 한 부모님의 압박,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마주해야 할 부모님의 실망 등이 이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쟁이나 자신의 성취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이 자신에게 간섭하고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모습이 중요했다.

성취에 많은 의의를 둔 특징은 청년층 면접대상자의 특성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을 것이다. 북유럽, 중남미 면접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했으므로 한국 평균 학력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연구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이 연구, 학력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서울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은 서울에서는 평범할 수 있지만 한국의 평균 경제력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취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집안형편이 좋지 않고 과거 성적이 좋지 않았다가 좋아진 면접대상자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경향이 있었다.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면접대상자는 자신은 입학한 대학을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창피해한다는 경우였다.

노년층 면접대상자들도 자신의 인생에서 성과를 가진 것에 큰 의의를 두었다. 북유럽과 중남미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사회적 성취와 인정이 예전에 비해 점점 더 중요해졌다고 염려했는데, 한국의 사례에서는 다소 달랐다. 한국의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고 부모님 또는 주변의 말을 듣고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번다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제한된 선택의 자유를 불행과 연관시키지도 않았다. 하지만 면접대상자들은 인터뷰 중에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했던 경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열정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런 모습으로 유추하건대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에게도 그들이 인생에서 이룬 구체적인 성과가 행복과 연관이 있을 것이었다.

한편, 한국의 면접대상자들은 불행한 상황에 대해 순응과 저항 모두 다소 소극적인 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북유럽 같은 방식도 아니고,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을 하는 중남미 같은 것도 아니었다. 한국 면접대상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냥 버티거나 참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대응방식은 자신의 순응, 분리 방식 행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감정이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기대를 낮추어 현실과 함께 살아간다는 식이었다. 다른 활동을 통해 잊어버리는 것도 일반적이었는데,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

어나거나 혼자서 혹은 친한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한국 면접대상자들의 행복과 연관된 인간관계는 혈연 가족, 즉 부모 및 형제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족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특히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대상이 가족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 피면담자들은 행복한 경우, 불행했던 경험 모두에서 가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들의 인간관계에서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만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인간관계와 개인적 성취간의 경계 역시 뚜렷하지 않은 편이었다. 개인적으로 친한 소수가 만드는 작은 규모의 친구 관계이거나 가족, 아니면 현재 몸담은 조직에서 만들어진 모임이 많았다. 스트레스를 풀거나 할 때 같이 친구들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그룹의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또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다수 한국의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서울에 사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서울에 사는 것의 상징적인 가치도 높이 샀다. 계속 서울에 살고 싶은데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떠나야 할까 봐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서울과 지방과의 집값 차이와 서울 내 집값 차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느끼기도 했고, 직업은 서울에서 구하지만 경기도 지역으로 가서 집을 구해야 할까봐 걱정하기도 했다. 그것은 출퇴근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것에 더해 서울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노년층이 수도권에 살게 된 이유는 직장이나 자녀교육인 경우가 많았고,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었다. 청년층에게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것은 곧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대체로 명문대학에 들어가 성취를 한 것, 고향보다 더 넓은 사회를 경험했다는 것 등을 의미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서울 내 어디를 가든 편리하다는 것을 많은 피면담자들이 언급하였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 잘 드러난 사례는 한국의 군대와 중남미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통제였다. 한국의 남성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군대에서의 경험을 자신의 삶에서 불행했던 순간으로 꼽았는데, 특히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특정한 장소에 갇혀 소소하게 동네를 산책한다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의 일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노년층에게 책임과 강제의 대부분은 가족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들의 생애 대부분이 가족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이야기였고, 행복과 불행의 다양한 모습이 그 책임과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가족 관계에서 자신이 갖는 의무감을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의무감 또는 부담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대처 등을 행복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은 가족을 꾸리고 자녀가 출산,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인생의 큰 성취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 노년층은 자녀의 사회적 성공여부를 자신의 성공여부로 동일시하며 아직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은 누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식 및 부모에 대한 돌봄, 부양 등의 책임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에 비해 북유럽과 중남미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은 이와 같은 가족과 관련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비중은 적었으며, 자녀가 가끔 방문을 한다거나 형제, 친척들과 종종 만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에 비해서 세 연구대상국의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가가 앞으로 더욱 오른다고 해도 자신은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사두었고 굳이 더 좋은 지역이나 집으로 이사하려고 노력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가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아 현재 및 미래의 거주지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가졌지만 주거공간을 옮기려고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여행에 있었고 재정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노력한다는 면접대상자들이 많았다.

5. 북유럽, 중남미, 한국의 비교 - 자유의 중요성, 세대별 차이

세 곳의 연구대상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행복의 조건 및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대상자들은 행복의 정의와 관련해 자신이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및 자신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했다. 이는 면접대상자들이 속한 연구대상국,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공통적이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여기에서 자유는 주로 인생의 방향,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뜻했다. 특히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직업 선택에 큰 관심과 열정을 표현했다. 북유럽의 면접대상자들은 사회복지 제도가 잘되어 있지만 그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람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자신들의 큰 관심사라고 표현했다. 중남미 면접대상자들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에 따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표현했고, 한국 청년층 면접대상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과 성취를 이루는 단계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열정적으로 표현했다.

청년층의 직업선택에 대한 관심만큼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더 경쟁적인 사회에 대한 노년층의 염려였다. 세 연구대상국 모두에서 노년층과 청년층의 차이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노년층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20-30대였을 때는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요즘처럼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일에 매달리고 경쟁에 시달린다고 염려했다. 물론 노년층도 노동시간이 길었지만 그 동기와 관심이 청년층과는 달랐다. 또한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은 그들이 청년이었던 시절에는 현재의 청년층에 비해 자신의 성취, 감정, 행복 등에 대해 관심을 덜 쏟으며 살았고, 그보다는 생존이나 외부의 환경 등이 더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년층의 걱정과는 달리, 막상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했던 시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대가가 따르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경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이 경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에도 결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그들이 불행했던 경험으로 언급한 것은 실패해서 고향에 돌아갔을 때, 친한 친구들이 없었던 때, 군대에서 지낸 시절 등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변화시킬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한국의 경우, 대다수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이 대학입시가 끝났을 때를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표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입시 기간을 특별히 불행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군대에서 지낸 시절을 공통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가장 큰 차이는 대학입시는 사회가 강제한 것이긴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인 반면, 군대는 그러한 동기 없이 강제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노년층 면접대상자들이 행복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언급한 중요한 요소는 건강과 죽음이었다. 이들은 높은 연령으로 인해 청년층에 비해 건강과 관련한 이슈가 많았고, 따라서 관련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에게 질병이 있

는 경우에는 현재 삶의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건강 문제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은 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요소였으며 따라서 불행감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지병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친지, 친구들이 위중한 병을 진단받았거나 나아가 사망하는 경우 역시, 이들에게 공포와 염려를 가져다주었다.

둘째, 주거와 교통을 통해 드러나는 공간적 역량에 있어서 공통된 점은 노년층과 청년층 구분 없이 대다수 면접대상자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무척 선호했다는 점이다. 면접대상자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유이자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직업의 기회가 많고 문화적인 시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집중되어 있으며 분위기가 활발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도시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들의 경우 대체로 직업 선택과 문화적인 경험 등의 측면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청년층 면접대상자들은 계속해서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높은 지가를 불안한 요소로 꼽았다. 좋은 위치,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수입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걱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 위치, 형태가 자신의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년층 역시 대체로 대도시에서 사는 것을 선호했는데, 청년층에 비해서는 복잡한 대도시를 떠나 교외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는 면접대상자가 종종 있었다. 지가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대도시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세 연구대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면접대상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스스로의 행복을 구성하는 기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그 기제는 핵심집단과 같은 인간관계를 통해 공감과 감정적인 편안함을 얻거나 산책, 호흡, 명상과 같이 혼자 하는 실천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실망, 좌절을 어떻게 소화하는 것이 좋은지 자신에게 맞는 해법을 발전시켰다.

모든 연구대상국에서 개인이 행복을 구성함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이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양상은 다양했다. 북유럽 면접대상자들은 느슨한 협회활동이나 핵심집단과 교류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남미의 면접대상자들은 핵심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한

국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핵심집단의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대체로 가족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의 관계가 행복뿐만 아니라 불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 사례에서 핵심집단의 존재가 단순히 긍정적인 효과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주는 압박도 꽤나 큰 편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인 면접대상자들에게는 핵심집단에서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구성원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핵심집단의 가까운 인간관계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뚜렷했던 중남미 사례와 비교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층은 모두 가족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많았는데, 한국의 노년층 여성의 경우에 그들의 부모, 시부모, 기혼자녀, 손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돌봄의 실천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제3절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본 행복

1. 행복의 물질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구성의 상관성

본 연구가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탐구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의 하나는 연구대상국 구성원이 누리는 물질적 혹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 사이의 상관성이었다. 면접대상자가 속한 사회가 행복을 보장하거나 불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사회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행복이 이런 조건에 대한 인식과 경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양자가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가구 경제(household economy)’를 필두로 치안, 의료, 교육, 복지, 환경 등을 위한 제반 사회·제도적 여건이 각국 사회구성원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평가되는지 파악하고, 이들이 이런 현실을 고유의 행복관 속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이 행복을 인식하고 느끼는 데 사회경제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적 조건과 관념-규범-이데올로기 등의 문화적 의식 가운데 어느 것이 선차적이고 더 중요한지에 대한 유물론과 관념론의 논쟁에 철학적 연원을 두고 있다(문영찬, 2016). 또한 인간의 사회적 의식과 평가가 보편적인 경제법칙에 따르는지, 아니면 특수한 사

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달라지는지에 대한 경제인류학의 형식론(formalism)과 실재론(substantivism)의 고전적 논쟁과 맥을 같이한다(Polanyi, Maclver, 1944). 무엇보다 이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야기된, 물질적 토대 및 원형이 특정 역사의 사회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Barth, 1969; Chandra, 2012).

특정 사회가 가진 물질적 혹은 경제적 여건, 사회-제도적 조건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구성원의 행복에 대한 기준과 해석방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3차년에 걸쳐 북유럽의 복지국가, 남미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이제 막 빈국을 벗어나기 시작한 베트남을 순차적으로 탐구하였다. 2019년에 행한 첫 번째 연구는 사회-민주주의적 정향을 가진 복지국가답게 경제 수준이 높고 사회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행복 지수도 세계 최고 수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다루었다. 이들 국가의 구성원이 정말 행복한지 그리고 행복감이 경제적, 사회제도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행복을 구성하는 문화적 기제가 별개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요체였다.

이어 2020년에 실시한 두 번째 연구는 중진국 언저리에 위치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를 다루었다. 이들 국가는 경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문제가 많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복감이 비례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연구 대상이었던 베트남은, 한국과 유사하게,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지만, 행복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 함께 경제와 정치의 발전이 구성원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은 행복을 어떤 척도에 의해 평가하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처럼 본 연구의 한 축은 각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이 누리는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혹은 독립적으로 행복을 어떤 관념, 이념, 상징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었다. 물질적, 사회적 여건과 이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상관성만이 아니라 양자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각 사회의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이 간극을 어떤

한 문화적 기제를 활용하여 배우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모순과 역설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2.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자족감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면접 대상으로 삼은 중산층 엘리트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는 복지국가가 구성원답게 생계를 유지하고 가구를 재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큰돈은 없지만 살 만하다”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진술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교육, 의료,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을 뿐 “물질적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덧붙이곤 했다. 이는 복지국가가 구성원에게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을 뿐 구성원의 넉넉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실제로 양국 청년 세대는 주거비용의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이들의 중차대한 고민거리이자 단기적 목표도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자신 소유의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부모의 금전적 도움이 필요했고 이후에도 대출로 인한 부담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다. 중산층 노년 세대의 경제적 형편도 풍족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은퇴자는 비싼 물가로 인한 외식의 자제, 허름한 차량 운행, 시내와 근교의 소박한 주택 거주, 비용 부담이 없는 여가활동 즐거기가 일반적인 생활양식이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청년, 노년 세대도 대부분 일상 곳곳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하여 여유 있는 소비활동을 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높은 통행세와 주차료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데 많은 부담을 주었고, 외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자신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중산층 엘리트에 속하는 양국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모두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다른 국가 중산층보다 특별히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국에도 경제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복지국가에서도 정치적 논란거리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면접대상자의 절대다수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세금 징수나 경제 불평등과

연계하여 비판하기보다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청년 세대는 세금이 “부담은 되지만 좋은 취지이니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라고 반응하고 복지국가 체제의 정당성과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다. 이는 무상 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자족감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든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노년 세대도 풍요롭지 못한 경제 여건과 부유층의 존재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번 것보다 많이 쓰지 않으면 된다”라는 소비 철학을 가지고 사회가 적은 비용으로도 여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점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다.

또한 부유층이라고 해서 과시적 소비를 하며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의 불평등보다는 “같이 잘 사는 것의 정의(justice)”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관심을 표명했다. 유산상속과 큰 액수가 아니라면 면제되는 상속세의 경우에도 분수에 맞게 소비하면서 이룬 재산이라면 이를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중산층이 가진 소박한 바람을 실현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이 대대로 물려주는 시골의 가족 휴식용 별장(덴마크의 Casa Spodsbjerg, 노르웨이의 Hytte)을 물려주는 것은 이들에게 물질적 욕구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사회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의미 있는 행위이다. 이처럼 덴마크와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복지사회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경제축적의 동기를 존중하면서, 부를 세금을 통해 사회적으로 나눔으로써 함께 잘 사는 것이 정의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었다.

북유럽 복지국가 구성원의 “예상보다 넉넉지 않은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이 같은 자족감은 이들의 행복감이 양호한 물질적 조건의 결과라고 보는 일반적 견해에 의문을 갖게 한다. 복지사회를 물질적 측면에서만 이해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개인주의에 토대를 둔 평등과 자유를 이상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구성원이 이를 실현하는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표명했다. 자신이 다른 사회보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회에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움을 실현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오는 자족감을 행복의 원천으로 삼고 있었다.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 연구자가 만난 북유럽 청년 세대가 왜 대부분 진보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청년 세대가 자유, 평등, 그리고 환경을 비롯한 제반 사회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복지사회가 이를 위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의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진일보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하지만 노년 세대 면접대상자들이 주장하듯이 북유럽의 자부심, 자족감, 행복감을 구성하는 자유, 평등, 정의 같은 관념은 청년 세대의 특징적인 문화라기보다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면접 과정에서 만난 노르웨이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주장했듯이 노르웨이에서는 “누가 나보다 낫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평등과 자유에 대한 집착”이 있다.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부단한 정치적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 자유와 평등을 위한 복지사회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북유럽, 특히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행복감은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근대사의 역사적 시기에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합의된 ‘정의로움’의 관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행복에 대한 담론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온 역사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는 자족감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행복이 단지 물질적 조건의 우월함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혹은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하는 개인과 함께 그리고 그런 관념을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 사는 것이라는 지배적 담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북유럽 복지국가의 행복감은 물질적 조건의 반영이기보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정의로움’의 관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북유럽 복지사회에서 이상적으로 구성된 정의로움은 물질적 토대의 역동성에 의해 여러 모순과 역설을 낳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의존하여 삶을 경제적으로 재생산해야 하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청년 세대는 개인의 노력과 경쟁을 통해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성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위한 관념이 때론 다른 구성원의 그것과 상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누리는 자족감과 행복감이 이러한 경쟁 속에서 성취해내야 하는 물질적 조건과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님을 성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년 세대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재구성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의로움을 정의하고 행복을 구성해내는 과정에서 또 다른 모순과 역설에 직면할 수 있다. 이들의 기억과 달리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자유와 평등은 비교적 최근에 세계적인 문화변동과 정치투쟁의 결과물로서 성취된 것이다. 특히 노년 세대 여성의 생애사

(life history)를 들어보면 이런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들이 여성으로서 감수했던 삶은 자유와 평등의 이상적 관념과는 사뭇 괴리가 있다. 이런 모순과 역설을 고려해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 구성원이 수용하고 있는 “자유, 평등, 인권, 환경과 공존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는 자족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열려 있다.

3. 중남미 국가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현실과 ‘초현실적’ 행복의 구성

북유럽의 두 국가와 비교할 때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열악하고 암울하다.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코스타리카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10%였던 실업률이, 주요 산업인 관광의 초토화로 팬데믹 이후에는 무려 20%를 상회하고 있다(주 코스타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0). 그 결과 IMF가 구제 금융을 주는 대가로 요구한 강도 높은 노동시장 개혁을 수용하게 되었고, 코스타리카인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주로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 특히 북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사회-제도적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예를 들어, 500만 명이 넘는 소국으로서 경제 여건이 인근 중남미 국가보다 양호하고 공교육과 무상의료도 실행하고 있지만, 무상과 유상 서비스의 질 차이가 커서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면접대상자 상당수가 자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마약을 비롯한 일상화된 범죄, 공권력 부패, 질 낮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멕시코에 비하면 코스타리카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멕시코는 산업 붕괴로 노동인구의 56%가 비공식 부문에서 질 낮은 일자리로 연명하고 있다(Forbes, 2020. 1. 3.). 이뿐만 아니라 극심한 사회 양극화, 범죄와 치안 부재, 교육과 의료에 대한 사회 보장 미비, 강한 남성우월주의(machismo)와 폭력 등으로 악명이 높다. 멕시코인 면접대상자는 이구동성으로 경제와 사회-제도적 여건 때문에 겪은 고초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상황만을 고려하면 과연 멕시코인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중산층 엘리트인 양국 면접대상자들은 자신이 행복한

가에 대하여, 높은 순위의 행복 지수를 반영하듯 대부분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또한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유사한 담론으로 이유를 설명하곤 했다. 코스타리카인의 경우에는 행복을 설명하면서 ‘티코(Tico, 코스타리카인의 애칭)’의 ‘푸라비다(Pura Vida)’라는 말을 잊지 않고 언급하였다. 순수한 삶이라는 뜻을 지닌 ‘푸라비다’는 현실이 어떠한 욕망을 자제하고 순수함을 유지하면 불행하지 않다는 종교적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푸라비다를 지향하는 세계관은 이들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가족의 강한 유대를 즐기며 살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가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교할 때 지배 인종이 백인과 메스티조(Mestizo)이고, 구미(歐美) 개인주의에 토대를 둔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것보다도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

티코의 푸라비다는 이런 점에서 개인의 자연-친화적 생활, 도덕적 깨끗함, 현실에 대한 과도한 욕망의 절제 등을 내포한 초월적 종교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과는 별개로 개인이 자연환경, 가족, 경제적 여건 등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순수하게 대응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서구의 근대적 주체로서 개인을 상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을 초월하여 개인의 행복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념을 받아들여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코스타리카인의 푸라비다 관념이 개인주의와 초월적 세계관을 결합한 것이라면 멕시코인의 행복관은 초현실적이며 보다 명시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멕시코인 면접대상자에게 행복의 근원을 물으면, 이런 종교관과는 별도로, 가족의 유대를 먼저 언급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멕시코 문화에서 ‘가족주의(familismo)’는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어이다.

하지만 면접대상자, 특히 청년 세대는 대부분 전통 사회와 달리 가족은 행복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멕시코도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와 공동체가 해체되고 원자화된 개인주의가 득세한 지 오래되었다(김세건 2004). 그 결과 멕시코에서 가족주의가 여전히 현실의 고충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제라고 보기 힘들다.

멕시코인이 호의적이지 않은 경제적, 사회-제도적 여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행복의 추구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특유의 내세관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멕시코는 여러 거리에서 일상적으로 열리는 종교적 축제로 유명하다.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축제가 ‘망자(亡者)의 날(Día de

Muertos)'이다.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축제는 이들이 초현실적(surreal)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행복을 구성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멕시코인은 현실의 고통을 희화화하여 사소한 경험으로 축소하는 농담과 해학을 즐긴다. 이들은 아픔을 직시하기보다 해학이 넘치는 농담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현실의 고통을 경감하고 긍정적 마음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멕시코인은 행복을 누리고 싶은 욕구와 삶을 순조롭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학이나 종교적 축제와 같은 문화적 기제를 통해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멕시코인이 지닌 종교적 세계관, 특히 내세관은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초현실적 세계관을 활용하여 희화화하고 대응함으로써, 이들이 일상에서 평정심과 행복관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러한 추론에 타당성이 있다면, 멕시코인의 행복은 초현실적 내세관을 매개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인이 일견 행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거나 혹은 믿으려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종교관을 일상의 문화적 기제를 매개로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코스타리카인이 내면의 평정심을 강조하는 관념을 구성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자유로움과 행복감을 추구한다면, 멕시코인은 현실의 고통과 부조리를 초현실적 내세관을 담은 문화-종교적 축제와 해학으로 완화하여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하려는 양국민의 노력은 항상 현실의 벽에서 굴절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국의 면접대상자, 특히 멕시코인은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종교적 관념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적인 전통을 삶의 지혜로서 수용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곤 했다.

중남미 두 국가의 사례가 북유럽 국가의 사례와 일치하고 있는 사실은 양측 모두 사회경제적 여건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유의 문화적 기제와 관념을 활용하여 행복을 구성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종교적 관념이 중남미에 비하여 행복감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실제로 덴마크나 노르웨이 모두 신교, 특

히 루터교 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종교적 믿음이 현실을 해석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이들 두 국가에서 만난 면접대상자들은 종교를 “산타클로스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에게 종교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가져다준다고 상상하게 만드는 행복한 존재이지만, 실재를 인정할 수 없는 산타클로스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양국에서 종교를 기독교(신교, 루터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대부분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되고 있었다. 초현실적인 종교가 아닌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자유와 정의가 이들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관념인 것이다.

반면, 중남미의 두 국가에서는 여전히 종교적 관념이 현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행복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울수록 개인의 행복을 위해 더욱 초월적, 초현실적 관념에 기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종교적 관념에 기댈수록 행복을 가로막는 여러 여건은 더욱 강고해질 것이 분명하다. 중남미 국가의 행복을 구성하는 초월적, 초현실적 종교 관념과 이에 토대를 둔 문화적 기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의 산물임과 동시에 이를 존속시키는 장애물로 보인다.

4. 베트남의 압축 성장과 행복을 가능하는 기억의 정치

베트남인에게 현재의 행복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과거의 경험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베트남 전쟁 이후의 시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사례에서도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기억은, 특히 노년 세대,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구성하는 데 중요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근대사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Halbwachs, 1992)는 사람들이 경제 여건과 사회-제도적 조건을 평가하고 행복을 가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베트남의 행복 담론에서 ‘기억의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베트남의 근대사가 혹독하고 역동적이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세계사에 남아 있는 끔찍한 전쟁과 소비재 기근을 초래한 흑심한 사회주의 이행을 거쳐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였다. 이후 외국자본을 동력으로 자본주의적 경제 토대를 구축하며 고도성장을 성취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의 혹독한 역사

와 이후의 압축성장은 베트남인의 삶을 빠르게 그리고 획기적으로 변모시킨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경험은 베트남인이 행복을 논할 때 현재와 과거의 삶을 대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3차연도 연구에서 면담한 중산층 엘리트 중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역사적 경험은 상이하다. 60세 이상의 노년 세대는 베트남 전쟁과 사회주의화 과정을 모두 겪었지만 20-30대 초반 청년 세대는 개혁개방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1990년대부터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경제 여건과 사회-제도적 조건에 대한 평가의 준거점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세대도 학교 교육, 이전 세대의 회상,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전쟁과 사회주의 유산을 통해 시장경제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간접 기억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또한 양 세대는 압축적으로 형성된 시장경제의 과실과 후유증을 함께 겪어왔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역사적 기억은 차별적이지만 수렴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베트남인은 더 이상 식량 기근과 소비재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 특히 노년 세대 중산층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가구를 재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 여건은 베트남 내에서 “먹고살 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 선진국의 중산층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매우 낮은 생활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학력 중산층에 사는 노년 세대의 다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 덕분에 자신과 자녀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이제는 과거처럼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실에 자족감을 표시한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자족감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노년 세대 같은 극심한 가난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아직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 세대의 경제 여건도 대부분 여유롭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생애 내내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과도한 일보다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겠다고 말한다. 미디어에서 접하는 선진국 구성원처럼 풍족하게 살 수 없을지라도, 부모 세대처럼 물질적 욕망을 위하여 사회적 관계나 개인적 여가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는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모두 가난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과

개발도상국의 낮은 경제적 기대 수준을 바탕으로 경제적 여건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세대는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노년 세대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일할 기회가 생기면 일단 돈을 모아 놓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모두 일에 매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 세대는 미래에, 노년 세대는 과거의 경험에 매여 물질적 조건에 상대적으로 초연한 행복관을 올곧이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베트남인은 세대를 막론하고 베트남이 치안이 잘되어 있는 사회라고 믿는다. 실제 공안(公安)의 권력이 막강한 베트남에서 인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치안을 제외한 다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대내외 평가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엄청난 교통 체증과 잦은 사고와 대도시의 끔찍한 환경오염은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다.

베트남인이 교통과 환경 못지않게 문제를 체감하는 부분은 의료와 교육이다. 코스타리카와 마찬가지로 의료와 교육이 무상이지만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더 열악했던 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 세대는 베트남의 의료와 교육에 대하여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 청년 세대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노년 세대도 나날이 상품화되어 양극화되고 있는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 사회문제는 도시화, 산업화, 시장경제의 발전, 그리고 경제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점점 악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면접에 응한 베트남인들은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당-정부나 다른 사회운동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런 문제를 사회 지도층이나 권력자가 아니면 개선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의식과 정치적 실천의 괴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적 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노년 세대는 현재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으며, 청년 세대는 당-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자조하며 사회문제의 개선을 위한 실천을 유보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인은 국가나 지역 공동체의 정의로움이나 자유로움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외면하려 한다. 국가나 지역에 대한 사랑을 이념적으로 동조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이념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당-국가의 권위

적 운영 방식이 베트남인의 행복을 개별화 혹은 개인화(individualization)시키고 있는 셈이다.

물론 베트남인의 날로 개별화하는 행복의 단위에는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포함된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강한 가족 이데올로기와 유대감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근대화, 도시화, 그리고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밀접한 유대감을 가진 가족 범위가 핵가족으로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세대의 경우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개인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족 내에서 세대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하여 노년 세대도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 세대는 개인의 행복이 없는 가족의 행복에 대하여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인의 행복은 북유럽과 중남미의 사례에서 본 정의감이나 종교적 관념보다는 역사적 경험과 기억에 토대를 두고 구성되고 있다. 과거에 어떤 삶의 여건을 경험했는지가 행복을 구성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서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다른 세대 사이에 행복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균열과 분화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모두가 개발도상국 구성원답게 향상되고 있는 경제적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제적 여건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 신념이 구체적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유럽과 중남미 사례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위해 구성된 믿음은 언제나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모순과 역설을 낳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의 한 예가 국가의 권위적 통치에 대응하고 시장경제의 확산에 조응하면서 베트남인의 행복의 단위가 점차 축소하고 개인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개인화는 베트남인이 준거로 삼았던 제도와 관행을 빠르게 변모시키며 이들의 행복의 좌표를 새롭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5. 북유럽, 중남미, 베트남의 비교를 통해 본 행복의 사회문화적 구성

본 연구가 북유럽, 중남미, 베트남의 총 5개국의 사례를 탐구하면서 설정한 주요한 축의 하나는 행복을 위한 물질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구성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면접대상자가 속한 사회가 행복을 누릴 만한 혹은 불행할 정도

의 물질적 혹은 정치경제적, 사회-제도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후 세대 별로 구분된 사회구성원의 행복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탐색하였다.

북유럽, 중남미, 베트남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물질적 조건과 행복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전자가 후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면접대상자의 행복은, 물질적 조건과 어느 정도 독립하여, 해당 사회가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과 행복을 논하는 지배담론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을 판단하고 구성하는 문화적 기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행복-불행을 경험하게 만드는 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 대상 국가의 모든 면접대상자는 자신이 누리는 경제적 조건, 교육, 의료, 치안, 복지 등이 행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은 이미 주어진 것 혹은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가 행복을 평가하는 문화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을 구성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례에서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으로 인하여 중산층 엘리트의 경제적 여건이 기대보다 여유롭지 못하였지만, 이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정의로움을 추구한다는 점에 자족감과 행복감을 표현하였다. 반면,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에서는 경제적 여건, 교육, 의료, 치안 등이 열악하다는 비판이 비등하지만, 초월적 혹은 초현실적 종교 관념을 토대로 행복을 구성해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싹트는 과정에서 점점 균열을 일으키는 행복의 틈을 역사적으로 확립된 지배 관념과 담론 그리고 문화적 기제를 활용하여 메우고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행복을 구성하는 고유한 관념이나 관행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베트남인이 행복을 판단할 때 가까운 근대사, 특히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과거의 어려움을 대비하며 현재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 대상인 모든 사회가 현실과는 별개로 행복을 문화적으로 구성해내는 담론과 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구성된 행복이 삶에서 부딪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은폐하고 신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동적인 현실에

따라 구성된 행복 관념의 내용과 영향력도 함께 변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물질적 여건과 사회문화적 구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으며, 각 사회의 행복을 이해할 때 이런 두 가지 요인의 연계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북유럽, 중남미, 베트남의 5개국에 대한 사례 연구는 한국 사회의 행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성찰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행복에 대한 논의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행복이라는 개념이 한국의 역사에서 삶을 평가하는 핵심적 기준 혹은 개념이었는지에 대한 숙고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이나 서구의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중남미와 달리 베트남이나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행복이 삶에 대한 만족을 함축하는 적절하고 익숙한 개념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행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오래 묵혀진 것이 아니라서 행복에 대한 개인의 인식도 다양하고 모호한 것 같다. 또한 단기 압축성장의 영향으로 경쟁에서의 성취, 성장지상주의, 금전 만능주의 등이 행복을 판단하는 기준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에서 행복이 언제부터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변화해 왔는지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의 문화적 관심에 적절한 행복 개념과 지수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국제비교 질적 연구의 함의

1. 국제비교 질적 연구의 학술적 함의

국제비교 질적 연구의 주요한 축의 하나는 행복을 위한 물질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구성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면접대상자가 속한 사회가 행복을 누릴 만큼 혹은 불행 방지할 정도의 물질적(혹은 정치경제적),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이 이런 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탐색해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행복에 필요한 물질적, 사회문화적 여건에 대한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인식 차이에 주목하였다. 양 세대는 각각 어떻게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 아래서 생활하고 있으며,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각각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그리고 아시아의 베트남과 한국을 비교 연구하였다. 북유럽의 두 국가는 국민경제의 수준이 높고 복지가 잘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문제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중남미의 두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치안, 교육 등의 사회적 상황에 눈에 보일 만큼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한국처럼 압축된 성장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현재는 아직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지만, 이전에 비하여 제반 물질적 조건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물질적 조건과 행복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이에 연관성은 존재하지만, 전자가 후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면접대상자의 행복은 자신이 사는 사회가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과 행복을 논하는 지배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유의할 점은, 행복을 판단하고 구성하는 문화적 기제가 다르다는 사실이 행복/불행을 경험하게 만드는 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연구 대상 국가의 모든 면접대상자는 자신이 누리는 경제적 조건, 교육, 의료, 치안, 복지 등이 행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면접대상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은 이미 주어진 것 혹은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가 행복을 평가하는 문화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조건들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을 구성해나가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행복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있지만, 행복은 한국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서 삶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 혹은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에게 자신이 행복한지에 관한 질문은 익숙하지 않은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의 행복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오래 묵혀진 것이 아니고, 이에 영향을 받은 개인의 인식도 지나치게 다양하고 모호하며, 행복에 대한 논쟁 자체가 인식과 감정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도 행복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마다 행복에 대한

관점은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다룬 5개국의 사례를 볼 때, 행복을 정의하는 담론이 역사적으로 경합해온 사회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행복을 정의하고 추구하는 노력에 익숙해져 있고, 이를 통해 행복을 정의하는 지배적 담론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행복이란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지향점과 방향성이 덜 모호한 사회일수록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행복을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 자신이 행복하다는 주관적 판단과 감정을 더 느끼는 것 같다.

북유럽의 사례는 복지국가로서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구성원에게 곧바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덴마크와 노르웨이 모두 높은 세금을 통한 부의 분배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중상층의 경제적 조건이 평준화(leveling)되고 있고, 그들보다 국민총생산이 적은 나라의 중상층보다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은 개인의 경제적 삶의 우월함보다 사회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의 실현을 통하여 자신이 평등, 인권, 자유, 환경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충족감과 자부심을 행복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행복이 단지 물질적 조건의 우월함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혹은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사는 것이라는 지배적 담론을 수용하고 있다.

중남미의 사례는 경제적 여건, 교육, 치안, 기타 복지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대표하고 있다. 면접대상자의 절대다수는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와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의 경우 자국민을 부르는 애칭인 ‘티코(Tico)’의 ‘프라 비다(Pura Vida)’라는 관념과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추구를 중심으로, 현실과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행복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적 개인의 자유에 토대를 둔 고요함과 평온함이라는 이상적 지향점으로서 ‘프라 비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반면 사회경제적 상황이 코스타리카보다 혼란스러운 멕시코는 남성 중심적 문화와 폭력, 부패, 불안한 치안의 문제에 분노하는 구성원이 훨씬 많았지만,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개인적 삶의 실천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특히 이러한 틈을 메꾸는데 전통적인 가족관의 유지와 ‘초현실적(surreal)’이고 종교적인 내세관이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었다. 양자 모두 역사적으로 확립된 지배 관념과 담론을 중심으로 현실의 한계를 수용하고 고통을 희화시켜 구성시키는 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의 사례는 여러모로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베트남에서 행복이라는 관념이 구성원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파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정의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지배적 담론이 매우 드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인의 행복은 전쟁과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겪은 삶의 경험과 현재의 삶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척도였다. 특히 경제성장을 통한 생계 문제 해결과 제반 여건의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과거와 비교하는 것에서 행복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또한 국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민사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의 믿지 않고 있었다. 현실과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사이의 메워지기 힘든 틈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행복에 관한 지배적 담론이 없다는 점과 고도성장의 과실인 경제적 삶의 변화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는 점이 한국인과의 공통점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다만 베트남의 사례는 한국에서 목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과 사회변화를 위한 정치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다.

2. 국제비교 질적 연구의 실천적 함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행복 증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행복과 관련한 실천방법을 고안할 때 개인이 행복을 규정하는 방식이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경쟁상황과 능력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여건에서 공정한 기회를 받기를 바란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행복은 노년 세대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를 것이다. 집단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한국인에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익숙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행복이 언제부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행복 담론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고, 행복을 추구하는 나름의 지향성과 방향성이 있는 북유럽과 중남미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그 필요성이 명확해지는 것 같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베트남 사례를 볼 때도 성찰하게 되는 시사점이다.

한국인이 정의하는 행복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s)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복 담론을 구성하여 나름의 지향성과 방향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과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행복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면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역사적 맥락에 맞는 행복의 요인과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지배적 담론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이 근대사, 최소한 1960년 이후 사회를 지배했던 압축 성장을 지향하는 담론의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공론장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회경제적 요건의 개선을 위한 실천만이 아니라 성장 일변도가 가져온 가치관에 대한 성찰이다.

이 공론장에서는 성장을 통한 경제 수준의 향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를 ‘피로사회’로 만들어 온 시장, 경쟁, 성장, 금전 만능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공론화 과정에서 한국적 모델의 경제성장이 제공한 사회 기반의 개선, 근대적 편의성, 물질적 풍요를 부정하면서 과거로 낭만적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의 심화, 금전 만능주의, 경쟁 지상주의 등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을 완화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행복 교육에 대한 기반을 구축 및 제도화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인의 행복관과 행복 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기존 행복 관념을 성찰하고 행복을 추구할 필요성과 이를 실현할 방

법에 대한 교육이 실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성장지상주의, 금전 만능주의 등에 기초한 경제생활 중심의 행복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 교육’은 행복한 삶의 정의를 누가 내릴 것인지, 젠더, 계급, 세대에 따라 다른 행복 관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의 숙제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교육을 실행하기보다는 행복 담론을 활성화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화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 예측 가능한 삶

절대적인 소득수준보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삶에 대해 예측하고 설계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행복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예상하지 못한 집값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의 행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집값의 변화가 안정적이어서 시기에 따른 저축액과 소비액을 결정하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집을 살 수 있겠다고 계획하는 등 미래를 예상하고 인생을 설계해나갈 수 있는 환경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큰 변화가 더 빨리 그리고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해 위기나 노후에 대한 보호 등 사회안전망이 꼭 필요하다. 적절한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성취와 상관없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기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해주어 행복을 추구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 정책을 만들 때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면 행복의 증진에도 긍정적인 일 것이다.

다. 공동체 활동 지원

최근,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도시환경의 차원에서 인간적인 삶과 환경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주택, 범죄, 교통, 환경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는 지적(이창기, 2015)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도시

의 다양한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이유로 모든 세대가 도시의 공간적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을 둘러싼 쾌적성, 편리성, 문화 등 지역사회 환경적 요소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전지훈·정문기, 2017)는 점에서 도시기반 시설의 공급을 통한 개인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의 위대한 기능은, 사회생활이라는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 계급, 집단 사이에 되도록 많은 수의 만남과 접촉, 도전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Sjoberg, G., 1961; 전상인, 2014에서 재인용: 21)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리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역시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도시 지역 내에서의 그룹 활동, 문화생활을 위한 어울림, 자원봉사 활동, 지역애착의 요소가 친밀권역으로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들 요인들이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수, 2018). 또한, 최근 지방정부는 지역 사회에 대해 생활 편리성, 쾌적성 차원의 시설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와해된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정명은·김미현·장용석, 2014: 167).

공동체의 구성요소는 지역 내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회 활동과 향유하는 문화생활로, 특히 노인세대는 기존의 관계망이 약화되는 세대로서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이 가장 시급한 집단으로 여겨진다.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경로당과 복지관 등으로 이러한 시설에서의 사회적 활동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된다. 지역 복지관을 이용하여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곽윤길, 2010)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상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지지가 노년기의 고독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를 포함한 기존 사회적 관계의 질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급과 함께 그 이용이 힘든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특히 지역 내 잉여 공간을 활용(김용진, 2016: 96) 하여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체육활동을 보건정책의 핵심요소로 간주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권신일·문승일, 2007). 이에 우리나라 역시 복지 차원에서 고령친화적인 환경과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이나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기회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율성의 증가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 기회의 증가가 개인의 행복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장훈·김우정·허태균, 2012: 24)고 여겨진다. 세 곳의 연구대상국에서 공통적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삶을 행복한 삶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대학진학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획일화된 교육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학업적 성취를 통해서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통로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교육적 성과를 통해 대학입시의 성패가 결정되고, 우수한 대학 졸업과 높은 능력이 등치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가족 배경 같은 비능력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교육적 성과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왜곡된 능력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교육의 의미를 되돌아봄으로써 기존의 성공방정식을 깨고 다양한 교육과 삶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를 과도하게 내면화하여 능력에 따른 분배의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능력주의는 한국인을 지배하는 꿈이자 마음의 습관(김미영, 2009)이라고까지 정의되기도 한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사람들 간의 능력 차이와 그 산물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이에 따른 위계적 분배의 원칙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청년층의 능력주의에 대한 옹호는 이들이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이에 따라 결정되는 자신의 삶의 결과를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능력적인 요소들보다는 부모의 배경, 학교와 교육 시스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차별적 특혜 등 같은 비능력적인 요소(McNameee, and Miller, 2009)들이 개인의 역량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능력주의의 오작동과 허구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강준만, 2016).

한국사회의 교육은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부모의 직

업지위가 높을수록 고등교육 이수기회가 더 많은 등 자녀의 교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가진 문화자본은 자녀의 수학능력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장미혜, 2002).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서열이 상위인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학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철호, 2005: 23). 이처럼 한국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적 성취, 교육 기회 간의 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대학 진학의 성패를 판가름하고 대학서열체제 내에서 위치는 다시 높은 직업지위나 소득과 같은 사회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 능력주의의 교육적 발현은 학력주의(허승준, 2017: 70)로 학력은 하나의 사회적 권력과 지위 획득 과정이자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며(이철호, 2005) 사회로 진출할 때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여겨진다(허승준, 2017).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제도와 평가시스템에 대한 자녀의 적응력을 결정하고 높은 적응력을 토대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능력주의의 한계 중 하나는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우수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대학 진학이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방법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능력이란 소위 비능력적인 요소에서 파생되는 것이며 획일화된 교육 제도와 평가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화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둘째, 발전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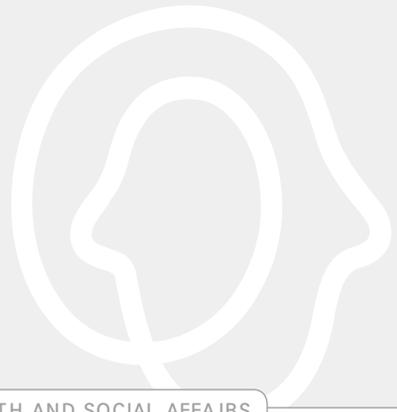
대학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국교육의 현실에서 초·중·고등 교육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어, 다양한 관심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의 삶을 구성하려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각자 다른 관심분야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안재욱, 2002).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르다. 대학진학이라는 획일화된 목표와 획일화된 기준을 통한 평가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독일의 교육제도는 책임의 분산과 형태와 방법의 다양

화로 특징지어진다(Schilling, 1987: 55).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경우, 초·중·고등 교육이 대학 진학을 위한 선발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독일의 교육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과 학문이 융합된 제도를 통해 사무직이나 행정직, 이공계 기능직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학교, 직업실습을 주로 하는 직업 교육 학교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 말하는 교육제도는 상업이나 직업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단순히 일반교육이 아닌,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이나 훈련 사이의 구별 없이 광범위하게 정의된 교육제도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학교제도와 교육내용이 마련되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교육과정, 수업방식이 아닌 다양한 학교구조와 수업방식이 도입될 것이다. 학교의 형태도 다양해서 개인의 특성이 강조될 수 있다(안재욱, 2002). 이는, 사람들 간의 진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기회를 통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부

결론

제9장 결론과 정책방안



제9장

결론과 정책 방안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 9 장 결론과 정책방안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역사 이후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진보를 이루어왔다. 생산량은 증가하고 전 지구가 물질적으로 진보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실로 원하는 자유를 누리며 효용을 극대화하지는 못했다. 제1장에서는 현대 주요 선진국의 경제적 성장 수준과 행복 수준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회귀선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총행복 수준이 낮은 ‘성장 대비 저행복’ 집단에 속해 있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10위 수준이고(IMF, 2021), 과거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세계 최초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외교부, 2021). 하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삶의 행복 수준은 경제적 성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이 보이는 특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 심층분석하고 국민총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3개년 협동연구과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⁴⁹⁾의 과업으로 진행해왔다. 연구의 목적은 국제비교 관점에서 그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축적한 자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3개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인의 국민총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근거 기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두었다.

제2장에서는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와 방법론적 이슈를 검토하고,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한국의 행복이 갖는 세계적인 위치와 선진국 사이에서의 위치는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행복 연구에서 국제비교가 담고 있는 함의를 확인하였

49) 1~2년차 연구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정해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진예린, 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김성아, 고혜진, 여유진, 권지성, 정선욱, 김지원, 이정윤, (202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월드 갤럽 폴의 연간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7-2019년 평균 행복을 산출한 결과, 한국의 행복은 5.87(0~10점 척도)로 전 세계 153개국 중 61위, 38개 OECD 가입국에서는 35위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행복은 1인당 GDP만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행복 순위는 같은 기간 동안 확인되는 1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HDI)의 수준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주요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질적 성장과 국민이 누리는 행복 간의 간극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는 국제비교의 의의를 확인하였다. 또한 비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회귀분석에서 한국인 행복의 추정치는 실제값과 유사해진다는 사실을 통해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와 숫자에 숨어 있는 사회경제적 생활상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제비교할 수 있는 서베이 자료인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해 현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보편적인 특성과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특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OECD에 가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분석대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의 평가가 유의하게 높고, 미혼 집단의 삶의 평가 수준이 가장 낮고 유배우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평가 수준이 높고,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가 삶의 평가 수준을 유의하게 높였고, 도난 경험이나 부패인식은 삶의 평가 수준을 유의하게 저해했다. 인생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긍정적인 미래 인식이 삶의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요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결과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특히 주목할 요인으로서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 종사상 지위 중에서도 자영업자, 그리고 이타적 사회참여로서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기부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심층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확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패턴이 특이한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수준은 다른 국가군에 비해 연령 1세별 등락이 다소 크면서도, 삶의 평가 실제값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면서도 오히려 약간 볼록한 우하향 경향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삶의 평가 기댓값은 50대 후반까지 감소했다가 조금씩 증가

하는 완만한 U자형을 보였다. 실제값과 기댓값이 모두 40대 후반에서 최저 수준을 보이는 U자형을 보인 영미권 국가나, 실제값은 70대에 이르러 두 번째 꺾임을 보이는 S자형이되 기댓값은 U자형을 보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것이다.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평가 실제값과 기댓값의 경향은 독립국가연합과 유사했다. 둘째, 한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더욱이 자영업자의 비율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 정도로 높은 편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떨어내기 가설’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한국에서 국민총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집단 내 이질성과 생계형 자영업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제3장 국제비교 분석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행복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은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타인을 위해 금전적 기여를 하는 기부보다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쓰는 자원봉사 경험이 더 유효한 점을 상기하면 타인과 자기가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행복한 한국인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일상재구성법(DRM)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과 정서적 경험을 분석하였다. DRM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나라 청년과 중장년은 언제, 무엇을 할 때,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이다. 먼저 언제 행복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은 증가하고,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등의 부정적 정서는 점점 약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변화 수준은 일하는 사람/일하지 않는 사람, 평일/주말로 구분할 경우 각각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한 정서를 경험하며, 동시에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외로운’, ‘불안한’ 등 부정적 측면의 정서는 모두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반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와 고통스러운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증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연인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에 모두 정적영향을, 부정적 정서에는 모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직장 상사 및 동료, 고객(학생)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정서는 부적 영향을 받았고, 피곤한, 스트레스받은, 고통스러운, 불안한 정서는 모두 정적 영향을 받았다. 자녀와 있을 때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정서를

경험하였지만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러한 영향이 유의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분석과 복지국가라는 거시적 차원의 구성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분석하더라도 경제적 발전은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 수준 증진을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수준에서 볼 때 경제적 불평등도는 행복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빈곤율은 행복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가의 실업률은 유의한 수준에서 행복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지출로 평가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투입이 행복 수준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취약 집단으로 한정할 때는 복지국가 투입에 따라 행복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 개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 외에도 국가 수준에서의 차이도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노력과 성과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한 원인이라 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고 GDP 대비 서비스 급여 지출이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7장에서는 동아시아 주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9~2020년의 1~2차 연도 연구에 이어 2021년에는 고성장, 고발전을 경험한 동아시아 2개 국가인 한국과 베트남 국민을 연구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꼽았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응과 타협, 행복의 구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불행에 대처하고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개인주의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족은 개인의 행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에서 특징적인 점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북유럽에서는 사회정의, 중남미에서는 종교적 관념과 관련한 전형적인 행복 담론이 등장했으나 동아시아 2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행복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하였다.

제8장에서는 2019~2021년에 걸쳐 각각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그리고 아시아의 베트남과 한국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북유럽의 두 국가는 국민경제의 수준이 높고 복지가 잘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문제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중남미의 두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치안, 교육 등의 사회적 상황에 눈에 보일 만큼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한국처럼 압축된 성장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현재는 아직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지만, 이전에 비하여 제반 물질적 조건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3년간의 국제비교 질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물질적 조건과 행복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이에 연관성은 존재하지만, 전자가 후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면접대상자의 행복은 자신이 사는 사회가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과 행복을 논하는 지배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유의할 점은, 행복을 판단하고 구성하는 문화적 기제가 다르다는 사실이 행복이나 불행을 경험하게 만드는 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후에는 국제비교 관점에서 수행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리고 지난 1~2차 연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인의 국민총행복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정책 제언

1. 국민총행복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우리가 행복을 논할 때 직관적으로 바라는 지향은 숫자로 보거나 실제로 경험하는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다음 그림은 주요 선진국의 행복 수준과 표준편차, 즉 행복 수준과 행복 불평등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⁵⁰⁾ 단순회귀분석 결과, 행복의 표준편차, 즉 행복 - 불평등은 총행복 수준을 49.5%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 즉 행복의 표준편차가 1점 증가하면 주요 선진국의 평균 행복 점수는 1.7점 감소한다. 국민총행복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서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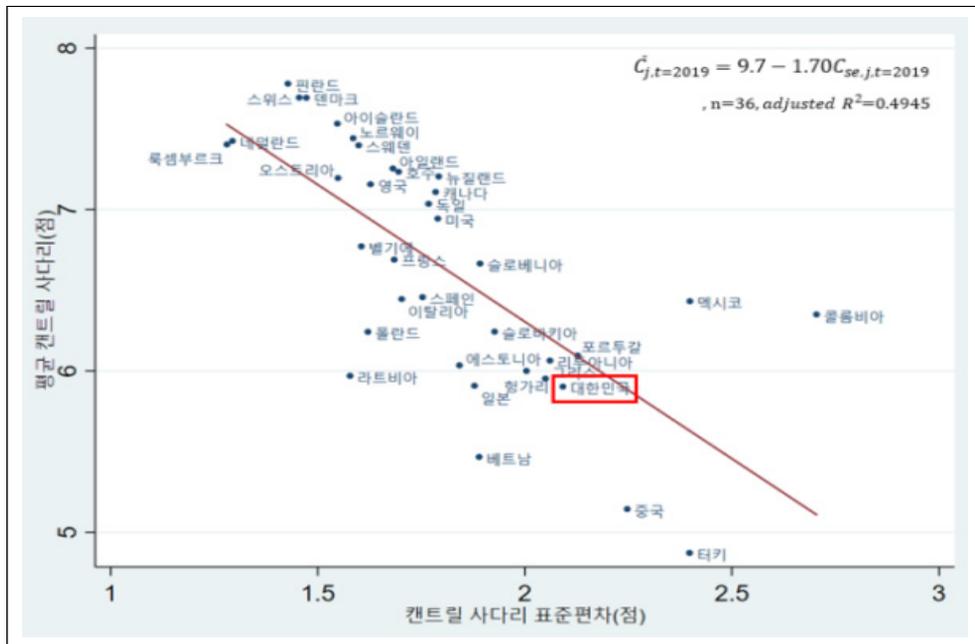
50)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잠재적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2019년을 기준으로 함.

한 것은 행복 - 불평등이다.

그렇다면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덜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롤즈(Rawls, 1999, pp.400-401)는 『정의론』에서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국민총행복 향상을 위한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는 후자에 있다.

국민 다수의 행복에 대해서는 벤담의 명제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논할 만하다. 이의 다른 말은 최소수의 불행(the greatest unhappiness of the least number)이다(Bossert & Suzumura, 2016). Veenhoven(2010)과 Ott(2010)는 사회와 정부가 국민총행복 향상을 지향할 때, 현실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약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우선 행복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림 9-1] 주요국의 행복 불평등과 행복(2019년)



주: 실선은 회귀선임.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오른쪽 상단과 같음.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앞선 국제비교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물질적 진보가 국민 한 명 한 명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소득 빈곤층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행복의 관점에서 보다 취약한 계층의 존재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다양한 상(image)을 공유하면서도 바라야 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의 역할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이 연구에서 확인한 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중심 접근을 검토하고, 사회적 노력의 갈래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총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복지국가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행복 취약계층 대상자 중심 접근

가. 중장년과 노인의 삶과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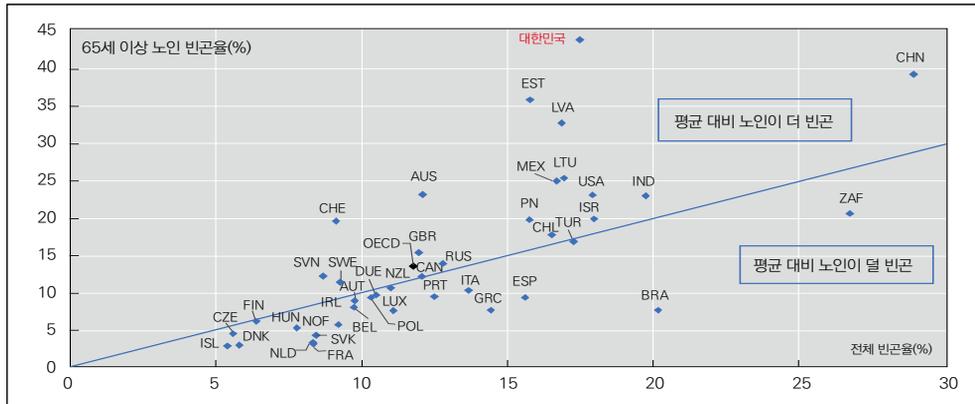
이 연구의 4장 1절에서 연령에 따른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럽이나 영미권 국가와 같이 40대 후반에 최저점을 기록하다 이후 다시 올라가는 U자형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재값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우하향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장년층과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경제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행복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행복의 관점에서 연령에 따른 취약계층은 낮은 행복 수준을 누리고 있는 노인과 40대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는 중장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인은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역이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이룬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주요 선진국 중 단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차 연도 연구(정해식 외, 2019, pp.57-84)에서는 이번 연구의 5장에서 활용한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 DRM)을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바 있다. 그 결과, 노인이 고립에 취약한데 하루 중 혼자 있는 일화의 비중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일화의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현세대 노인이 실제로 누리는 삶의 수준이 열악하고, 중장년이 그리는 노후가 그와 다르지 않다면 행복한 삶을 논할 여유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중장년은 현재 자

신의 삶을 살면서도 본인의 노후와 부모 부양, 그리고 성인이 되어 가는 자녀 지원의 삼중고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활동기에 열심히 살아오면서 가족을 부양했지만 그 부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 후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림 9-2] OECD 가입국의 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



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2016년 자료임. 빈곤율은 균등화된 처분 가능 소득의 중위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임. 자료: 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

국제비교 관점에서 특이한 점은 40대 후반 이후에 행복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댓값과 그렇지 않은 실재값이 보이는 이와 같은 차이의 경향은 유럽 국가나 영미권의 선진국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오히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국가들과 유사한 것이었다. 독립국가연합에 속한 분석대상 국가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13개였다. 이들 국가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물질적 진보를 이루었으나,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삶의 내면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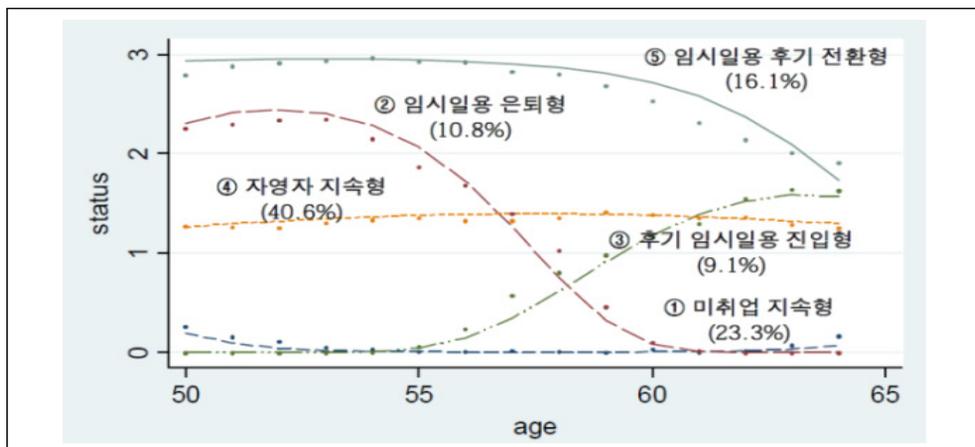
3개년에 걸친 이 연구에서 발견한 행복 취약계층으로서의 중장년과 노인의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빈곤율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 거기에 이 연구의 제2장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지지체계 등 사회적 지표를 포함하여 중장년과 노인이 누리는 실질적이고 다차원적인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고 취약한 삶의 영역을 식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나. 자영업자의 삶과 행복

이 연구 제3장의 분석 결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와 실업자의 행복 수준이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낮았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특이한 점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이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한국의 자영업자는 멕시코, 이탈리아, 콜롬비아처럼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낮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복의 관점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약계층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와 실업자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특히 자영업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4.6%로, 4명 중 1명 수준이다([그림 4-13] 참조). 이아영(2020)은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한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령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바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에 따르면, 50~64세 중고령자의 40.6%가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고용시장에서 취업하지 못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내몰린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 또한 행복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이 누리는 삶의 취약성을 다차원적으로 탐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9-3] 중고령자 경제활동상태 변화 궤적의 5계층 모형



주: Status: (0) 미취업, 무급가족종사자, (1) 자영자, (2) 임시일용직, (3) 상용직, n=1,422
 자료: 이다미, 정해식, 전지현, (2021).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1.

다. 고립된 삶과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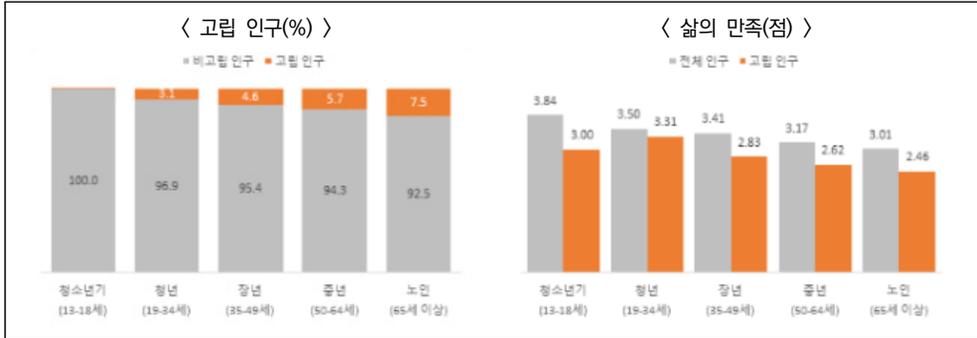
사람은 태어나 성인이 되어 독립하기까지 양육자와 함께 성장한다. 학교와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고 동료를 만난다. 감기에 걸려 집안일을 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낙심했을 때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⁵¹⁾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여야 한다. 고립된 모든 순간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외로움은 부정적 정서일 수 있지만, 고독은 생산성을 높이기도 한다. 타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된 사람은 행복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계행복보고서 2020'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점수는 세계 153개 국가 중에서 61위 수준에 불과했다. OECD 가입국 중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2-11] 참조). 제2장에서 한국의 행복 점수를 덴마크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로 인한 행복 점수의 차이가 0.37점으로 전체 1.77점 차이의 20.9%를 차지하였다. 핀란드와의 차이 1.94점 중에서도 0.37점이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로 인한 차이였다. 대만과의 행복 점수 차이는 0.58점 정도였지만 그중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점수 차이가 0.22점이었다. 제5장의 분석에서도 혼자 있을 때 행복하거나 의미 있는 긍정적 정서 경험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받는 등 부정적 정서 경험이 증가한 바 있다.

그래서 고립은 삶의 만족 수준과 생(生)의 활력을 저하시킨다. 다음 그림은 연령대별 고립 인구의 비율과 전체 인구 대비 삶의 만족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립 인구는 같이 사는 사람이나 업무상 접촉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교류하는 가족이나 친척, 그 외의 사람들이 없고 생활상의, 경제적, 정서적 곤란한 상황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한국의 연령대별 고립 인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늘어나, 19~34세 청년 중 고립 인구는 3.1%인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는 7.5% 수준에 이른다. 고립 인구의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와 대비하여 낮다.

51) 이 내용은 통계청 사회조사(2019) 등 생활, 경제적, 정서적으로 곤란한 상황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를 질문하는 하위문항임.

[그림 9-4] 한국인 연령대별 고립 인구나 삶의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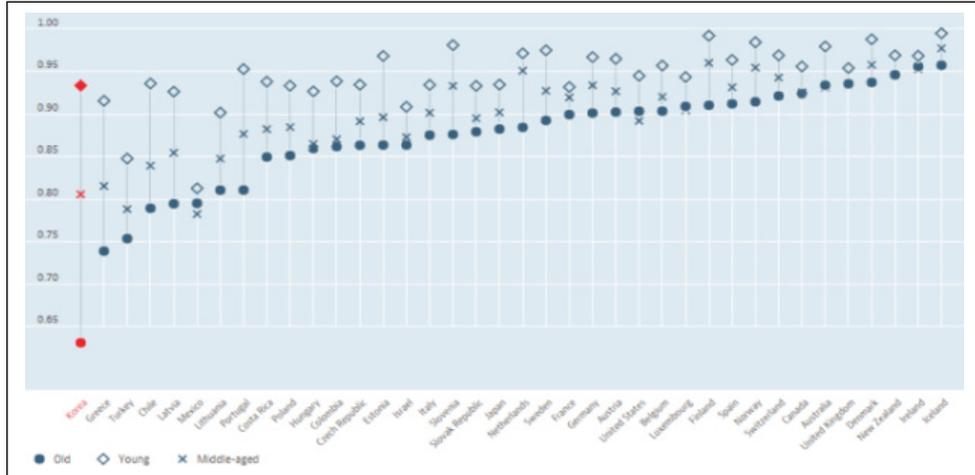
주: 삶의 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매우 만족한다(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원자료 연구진 분석

사회적 지지체계에 집중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같은 기간의 OECD 평균 91%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제2장 제3절 참조). 다음 그림은 OECD 가입국의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체계의 존재를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년(middle-aged)을 기준으로는 터키나 멕시코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고, 청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체계는 94%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60%를 약간 넘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에게 이어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2번째로 취약한 그리스의 응답률은 74% 정도로 우리와 10%p 이상 차이를 보인다.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국민총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고립 문제의 장기화로 인해 추계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선제적인 정책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minister of loneliness)’를 지명하였으며⁵²⁾, 이는 영국인의 약 13%(약 9백만 명)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6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한 2017년 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1년에는 사회적 고립을 타파하기 위해 고령자 외로움, 지역 중심 접근, 디지털화와 함께 청년 고독의 4개의 집중 정책 영역을 선정하였다⁵³⁾.

52) Forbes, (2018.1.21.). UK Has a Minister of Loneliness: This is How Bad Loneliness Has Gotten. Forbes.

[그림 9-5] OECD 가입국의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체계



주: 세로축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다는 응답률로, 1은 모든 응답자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의미이고, 0은 모든 응답자가 없다고 응답했다는 의미임.
 자료: OECD (2021), Lack of social support (indicator). doi: 10.1787/0cfbe26f-en (2021.11.14. 인출)

호주는 팬데믹 이후 사회 회복의 동력으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을 종결하려는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최대 57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⁵⁴⁾ 고립의 사회적 비용을 5조 6,400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외로움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와 그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을 고려한 것이다. 관계의 생산, 혹은 관계의 단절은 전통적인 정부정책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립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민총행복을 저해한다면 고립의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정책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다.

3. 행복한 한국을 위한 사회적 노력

가. 한국인이 바라는 행복한 삶 담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 연구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국제비교 질적 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같

53)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6.14.). Tackling Loneliness. House of Commons Library.
 54) R U OK? & APS. (2021). Ending Loneliness Together: A National Strategy to Address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Pre-Budge Submission 2021-2022.

이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행복이 삶에 대한 만족을 함축하는 적절하고 익숙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인은 한국전쟁 이후 압축성장을 이루어오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취나 성장 등을 기준으로 행복을 판단하기도 한다.

국제비교 질적 연구를 통해 북유럽에서 만난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스스로 만들어왔다는 자부심, 정의로운 사회라는 자족감을 느끼면서, 환경 문제와 젠더 갈등 등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참여하는 등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면서 행복하다고 하였고, 코스타리카에서 만난 사람들은 독립적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두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했다. 이들의 “행복은 평정심과 인생을 즐기는 것에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과 같은 맥락에 있다 (Smith, 1976, p.348).

아리스토텔레스는 선, 즉 행복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선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선, 세 번째는 육체적인 선이다. 그중에서 시민이 바라고 누려야 하는 가장 뛰어나고 참된 선을 정신적인 선이라고 보면서, 외부에 의해 주어지는 외부적인 선이나 쾌락적인 육체적인 선과 구분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사소한 불운에 흔들리지 않고 덕(德)에 의해 부단하게 활동할 때에 정신적인 선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⁵⁵⁾.

2차 연도 연구(정해식 외, 2020, pp.107-130)에서는 이번 연구의 제2장 제2절에서 검토한 단일한 지표를 활용한 행복 측정 방법 외에 풍요지수(Flourishing Index)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풍요지수는 하버드 대학교 인간풍요프로그램(Human Flourishing Program) 연구소에서 개발한 12개 질문 리스트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성, 사회관계, 금전 및 물질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요지수의 의미는 지수를 구성하는 다양한 질문들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를 풍요로운, 즉 행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추구할 만한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나눌 때이다. 이 연구의 제2장에서는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여, 추상적인 개념의 행복을, 행복이라는 정서적인 경험에서부터 삶에 대한 이성적인 가치 평가를 반영하는 연

55) 아리스토텔레스, *Ethica Nicomachea/Politika/Peri Poietikes*. 손명현 역, (2013). 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시학(2판 4쇄), 서울: 동서문화사. pp.23-29.

속적인 경험으로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Kahneman & Deaton(2010)은 행복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인 소득 증가는 기분이 좋은 행복감보다 삶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하여, 지향할 목적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논의는 서로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행복하기 위한 개인 단위의 노력이 바라는 바가 단순히 기분이 좋고 고통이 없는 상태인지, 삶의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바랄지 등 한국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탐색할 수 있다. 기분이 좋은 상태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그 상황에 적응하면 다시 이전 상태로 회귀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만한 한국인의 삶이 무엇인지, 행복 담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나. 한국인의 일과 행복

한나 아렌트(Arendt, H., 1958)는 활동적 삶의 조건을 노동(labor)과 작업(work), 행위(action)로 보았다. 노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행위로 생물학적 생존 욕구에 기인하고, 작업은 자아실현을 위한 행위로 창조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행위는 타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행위로 관계 욕구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삶이 노동에 종속되면서 삶으로부터 오히려 소외되었다. 실존적인 나와 나를 통해 이루려는 의미를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력을 쓰는 노동에 매몰된다. 그래서 '노동하는 사회 또는 직업인 사회의 마지막 단계는 그 구성원들에게 단순한 자동적 기능만을 요구하며, '노동하는 동물'이 '승리'하는 것이다(Arendt, H., 1958, pp.389-394).

이 연구의 제6장 결과를 돌아보면 경제활동 참가율, 즉 생애주기 중에서도 경제활동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누리는 총행복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제5장 분석 결과를 돌아보면 한국인에게 일이 의미는 있지만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럽다. 식사를 준비하는 등의 집안일도 행복하지 않고 피곤하며 고통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새로운 활동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휴식과 수면은 의미가 없고 슬프다. 한국인의 일이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작업'의 특성을 가진다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겠지만 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달성했지만 근로자당 평균 근로시간이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이다. 시간당 노동생

산성은 낮다. 2005년부터 주 5일제가 본격화되었지만 주 50시간 이상 노동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25.2%로 OECD 가입국 중 터키와 멕시코, 콜롬비아에 이어 4번째로 많고 OECD 평균 11%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⁵⁶⁾.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해 우리나라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단축했지만 여전히 52시간으로 OECD 기준보다 2시간 길다. 실제로 장시간 근로는 한국인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우울감을 높인다(정연, 김수정, 2021).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니 집안일도 고통스러운 경험이 된다. 소득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여 노동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면 한국인의 일이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 지역 기반 공동체 형성

제4장의 분석 결과, 배우자나 연인,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에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피곤이나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줄어든다. 친구나 동료와 어울리는 시간도 그렇다.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하거나 의미 있는 긍정적 정서 경험이 줄어들고 외롭거나 불안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늘어난다. 일을 통해 만나는 직장 상사나 동료, 고객과 보내는 시간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줄고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늘지만, 배우자나 연인,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늘어나고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줄어든다. 업무가 아닌 타인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행복한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국제비교 질적 연구를 통해 중남미 국가에서는 가족과 친척 중심 공동체를 통해 정서적, 재정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북유럽 국가에서는 느슨하게 형성되지만 동호회 활동 등 개인적인 흥미에 따라 자의적으로 맺는 관계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계는 중남미 국가의 가족 중심 공동체와 개인의 흥미와 의지에 따른 관계 형성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노인층과 중장년층은 가족 중심의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노인은 하루의 절반 정도를 혼자 보내고(정해식 외, 2020, p.74), 중장년은 나이 든 부모와 자신의

56) OECD Better Life Index, Work Life Balance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work-life-balance/>에서 2021.11.14. 인출)

불안정한 노후와 성인이 되어가는 자녀로 인한 삼중고를 토로한다. 청년은 가족의 과도한 기대를 부담스러워하는 동시에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와 보내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제7장 제4절 참조).

적은 비용으로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역 기반 공동체 활동이 일상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에서 돈을 쓰는 기부보다 시간과 노력을 쓰는 자원봉사 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는 곳의 가까이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기여하는 자원봉사 경험을 활성화하는 것도 지역 기반 공동체를 형성하며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다양성 인정과 존중

선택의 자유는 현대인의 행복을 말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이다. 국제비교 질적 연구 중 한국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좌절감을 우려해 성취보다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었다. 군대에서 경험한 속박을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강요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불행을 느끼기도 했다. 비로소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해방감과 행복을 느꼈다고도 했다. 제2장에서 한국의 행복 점수를 덴마크와 비교했을 때, 선택의 자유로 인한 행복 점수의 차이가 0.41점으로 전체 1.77점 차이의 23.2%를 차지하였다. 핀란드와의 차이 1.94점 중에서도 0.4점이 선택의 자유로 인한 차이였다.

아담 스미스는 “인생의 불행과 혼란 모두를 자초하는 커다란 원인은 하나의 영속적 상황과 다른 상황의 차이를 과대평가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듯하다”(Smith, A., p.349)고 했다. Layard(2005, pp.149-165)가 강조한 것과 같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요소 중 하나는 우위를 점하는 지위다. 바라는 지위가 단일하고, 그 지위를 쟁취하기 위한 경쟁의 트랙이 하나라면 자원이 제한된 제로섬 게임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승자는 행복하고 패자는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지위를 정하는 요인은 단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다. 지위를 정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지위들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의 트랙 또한 다양해지고, 다양한 지위에 따른 격차가 줄어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게임마다 승자가 존재해 많아진다. 자연스럽게 행복하지 않은 패자의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격차를 줄이면 다수가 존중받을 수 있다.

4.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로의 제도 개선

가. 공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물리적 인프라 개선

제5장의 분석에서 한국인은 출퇴근하고 이동하는 동안 행복하거나 의미 있는 긍정적 정서 경험이 줄어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받는 등의 부정적 정서 경험이 늘어났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보통 사람(ordinary people)’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 질적 연구에서 중남미 국민들이 출퇴근과 이동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동의 총량이 아니라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있는 수단과 자유가 행복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거주지역의 물리적인 인프라도 그러하다. 멕시코에서 만난 사람들은 거주지역의 안전을 주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한국인들도 일상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등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을 선호하였다. 관계를 맺을 만한 주변인들이 있고, 그들과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북유럽에서 만난 청년들은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의 청년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살고자 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고, 이사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는 주거 안정성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주거의 질,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과 치안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물질적 진보 수준에 발맞추어 한국인의 총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의 수월성과 문화적 여건, 그리고 안정적인 양질의 주거 등 삶을 누리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물리적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정책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될 수 있다.

나. 예측 가능한 삶과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제비교 질적 연구 결과 북유럽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그것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에서 만난 사람들은 무료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더욱이 북유럽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온 복지체제의 정당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신뢰하면서 청년이나 노인 모두 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복지국가는 실업이나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고용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이나 양육, 간병 등 돌봄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6장의 분석 결과를 돌아보면, GDP 대비 서비스 급여, 즉 사회서비스의 총량 수준이 국민들이 누리는 총행복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애 위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도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예측할 수도 없다. 복지국가는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위기에서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종류의 위기로부터 피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대신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활용해 회복할 수 있고 그러한 복지체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국민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에 떨지 않고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 국민총행복 향상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은 거대한 역경이나 부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Graham, 2005, p.50).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려는 사회적 탄력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국민총행복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는 규범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위기에도 극복할 수 있는 정성적인 국가의 역량이라는 점에서 공공정책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공공정책을 통해 국민총행복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결정자는 특정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선하여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Layard, 2005, p.145-147). 하지만 사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수준이나 여건의 변화는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작동한다. 예를 들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 자유로운 이동과 만남이 확대되면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공해나 소음 등 환경문제를 초래하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혹은 그럼에도 이동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부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거나 덜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합체로서 중장기적인 정책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에서는 2016년 예산법을 개정하면서 정부 예산 계획 수립 시 웰빙지표를 활용할 것을 공식화하였다. 부탄에서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차년도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개정 예산법은 정부 예산 수립 단계에서 국민의 행복을 주요 지표로 고려하는 주요 선진국의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9-6] 이탈리아 개정 예산법에 의한 웰빙 지표의 재정 활용 프로세스



자료: Sorvillo, (2019). The use of well-being indicator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Presentation at a Study meeting with ISTAT and KIHASA의 그림을 연구진이 국문으로 해석하여 다시 그림.

주요 선진국의 두 번째 사례로 뉴질랜드에서는 2019년부터 웰빙예산(well-being budget)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 웰빙 증진에 있어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 예산법을 개정하고⁵⁷⁾, 재정전략 보고서에서 정부 예산 결정 시 국민총행복과 관련된 사회·경제·환경·문화적 측면의 중장기적 웰빙 목표를 고려하도록 한다. 단, 국민총행복이 정부정책 개입에 의해 단기간 내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 계획 수립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57) New Zealand Public Finance Act 1989, Part2

[그림 9-7] 뉴질랜드 웰빙예산 프로세스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2018.12.13.). Budget 2019: Budget Policy Statement, New Zealand Government, p.4의 그림을 연구진이 국문으로 해석하여 다시 그림.

이 연구는 한국인이 누리는 행복과 삶의 질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총행복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행복예산제는 공공정책의 중장기적인 지향을 국민의 행복한 삶에 둔다는 의지를 명시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이론적 논의와 이탈리아의 개정 예산법 및 뉴질랜드의 웰빙예산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실현 가능한 행복예산제 논의의 실마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행복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앞서 국민총행복 향상을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이 절을 시작하면서 행복의 불평등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실증적인 영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행복 불평등 수준이 높고, 행복 수준은 낮은 국가였다. 그렇다면 주어진 선택지는 여전히 두 가지이다.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거나, 덜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라 행복 취약 계층을 식별하고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행복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인지 식별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변화, 정책 노력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쳤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3개년에 걸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국회미래연구원⁵⁸⁾에서 수행한 조사 자료⁵⁹⁾ 등 횡단면의 간헐적인 자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료의 안정성이나 대표성 등의 약점이 존재한다. 특히 제2장 제2절에서 검토한 상황에 대한 적응 이슈를 고려하면 행복의 측정 주기는 짧을수록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정책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단별 정서적 상태와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Imperial College London과 YouGov 조사업체에서 코로나19 이후를 행태 추적, 공개하고 있다.⁵⁹⁾ 매주 영국인의 정서적 감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한다. 다음 그림은 2020년 4월 영국에서 도시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즉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Albanesi & Kim(2021)은 과거 남성의 실업이 심각했던 경제대공황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 그리고 대면서비스 분야의 실업 문제가 극심했다고 보았다. 위기는 예측할 수 없고, 모두가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지만 누가 더 취약할지 또한 예측할 수 없다. 영국의 사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회

58) 민보경, 허종호, 이재정, 박성원, 정윤석, 김지범, 신인철, 심재만, 이옥태, 김솔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민보경, 이재정, (2020).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예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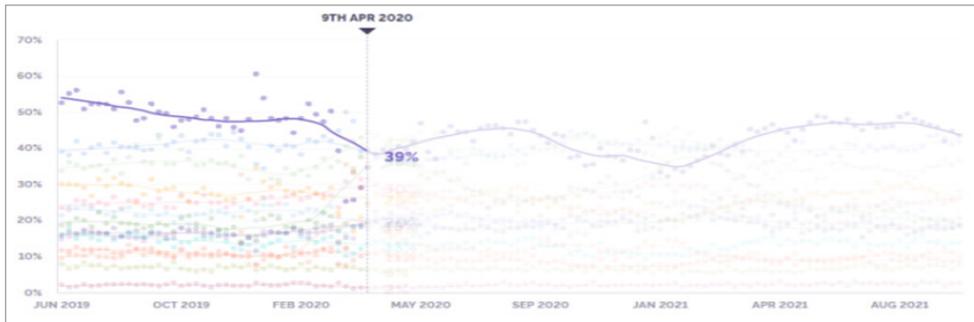
59) <https://github.com/YouGov-Data/covid-19-tracker>에서 2021.10.21. 확인

적 재난이 미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더 취약한 집단을 식별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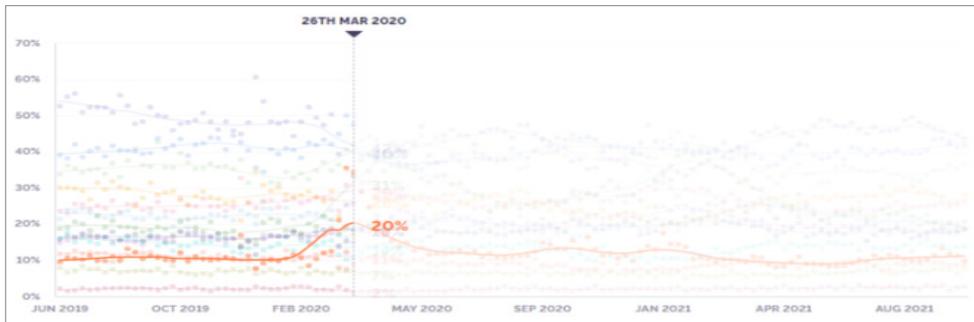
[그림 9-8] 코로나19 확산 전후 영국인의 주요 주간 정서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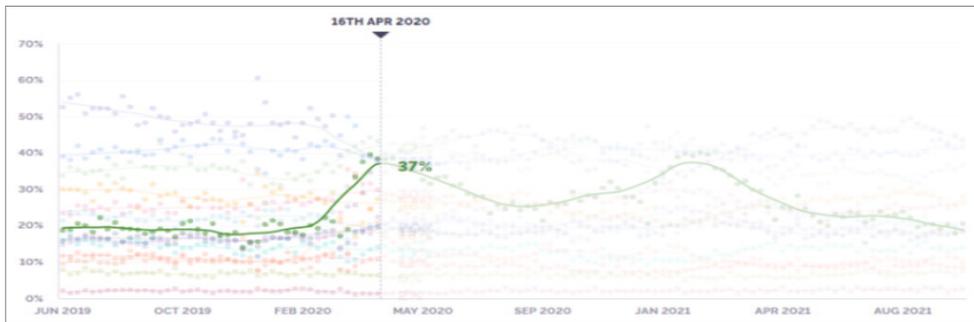
〈행복감〉



〈두려운〉



〈지루한〉



주: 지난주에 '행복했다'거나 '두려웠다'거나 '지루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고, 같은 달 중순에 영국 총리가 도시 봉쇄(lockdown)을 언급하고, 4월 중순에 도시 봉쇄를 연장함.

자료: YouGov Britain's mood, measured weekly(<https://yougov.co.uk/topics/science/trackers/britains-mood-measured-weekly>)에서 2021.10.21. 검색)



- 강문구, 조재욱. (2014). 민주화 이후 정치 양극화 현상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 강승민, 장재윤. (2018). 노인들은 누구와 함께할 때 더 행복할까? 노인의 일상적 대인 상호작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7(4). 531-559.
- 강준만. (2016).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 '능력주의 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 기제. 사회과학연구, 55(2), 319-355.
- 곽윤길. (2010).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댄스스포츠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27-42.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 77-100.
- 권신일, 문승일. (2007). 북유럽인의 여가생활 연구. 관광연구논총, 19(2), 177-200.
- 김경식, 이루지. (2011).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 국가통계자료 이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1), 424-433.
- 김광민, 이대웅, 권기현. (2018). 시민참여가 개인 심리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3), 391-418.
- 김미영. (2009). 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 능력·공과·필요의 복합평등론. 경제와 사회, 256-277.
- 김성아, 김문길. (2020).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 종사상 지위별 삶의 만족에 대한 다차원 빈곤의 영향. 보건사회연구, 40(1), 146-177.
- 김성아, 선왕. (2019). 실업과 행복: 실업급여의 효과. 제12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성아, 정해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4), 95-104.
- 김성아, 정해식. (2020). 행복 측정의 프레이밍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 조사연구, 21(4), 93-118.
- 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세진. (2004). 멕시코 농촌 가구와 친척관계의 구조 및 변화양상: 테보스틀란의 한 농촌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7(2), 85-116.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3.

- 김영미 (2013). 한국의 일 가정 양립 현실과 대안. 월간 복지동향, 175, 13-1.
- 김용진. (2016).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고령자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2(11), 91-97.
- 김지경. (2018).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 한국사회정책, 25(3), 209-245.
- 김지경, 이운주.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지현, 조승현. (2008). 아파트소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33, 248-261.
- 김희숙. (2008). “향수의 인류학: 노스텔지어의 정치와 노스텔지어의 소비.” 이정덕·채수홍 외 지음. 이런 인류학은 어떨까요? 서울: 이매진, 78-98.
- 마강래, 강은택. (2017). 세대간 부동산 자산의 대물림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부동산학회지, 35, 291-305.
- 문동지, 연다인, 김희용. (2018). 토픽 모델링 기반 한국 노인의 행복과 불행 이슈 분석. Information systems review, 20(2), 139-161.
- 문영찬. (2016). 세계관과 변증법적 유물론 (13). 정세와 노동, (121), 17-34.
- 민보경, 허중호, 이채정, 박성원, 정윤석, 김지범, 신인철, 심재만, 이옥태, 김솔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박정열, 손영미. (2015). 일상재구성법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일상생활과 정서경험 분석. 여가학연구. 13(2). 89~120
- 배정현. (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247-270.
- 백용훈. (2020).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0(4): 49-103.
- 송혜림. (201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18.
- 송혜림. (2015). 일-가정 균형감과 행복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81-99.
- 성지미. (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1), 161-182.
- 신현방. (2016). 발전주의 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저항의 연대, 공간과 사회, 57, 5-14.
- 심현정. (2018).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자산 특징 및 시사점,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No. 37.
- 아리스토텔레스, (미상), 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시학. 손명현 역, (2007). 서울: 동서문화사.

- 아리스토텔레스, *Ethica Nicomachea/Politika/Peri Poietikes*. 손명현 역, (2013). 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시학(2판 4쇄), 서울: 동서문화사.
- 안재욱. (2002). 한국 교육제도 개혁 방안. *사회이론*, (21), 323-356.
- 양재진, 이호연, 이정주. (2016).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75-102.
- 여유진. (2015).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보건복지포럼*, 2015(3).
- 오세일, 고태경, 전승봉. (2019). 청년세대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88-120.
- 오현욱. (2014). 신체활동 참여노인들의 사회자본과 우울 및 삶의 질. *한국체육학회지*, 53(3), 535-547.
- 외교부. (2021. 7. 4.).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보도참고자료. 외교부.
- 이국희, 최인철. (2018). 일하고 놀까? 놀고 일할까?: 행복, 관계 그리고 여가 우선 선택. *여가학연구*, 16(1), 29-53.
- 이다미, 정해식, 전지현. (2021).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김지윤. (2020).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 이명숙. (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 이명우, 홍윤미, 윤기웅. (2016).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여가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0(2), 264-287.
- 이문진, 황선환. (2014).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행복은?: 이스털린 역설의 여가학 적용.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2), 29-38.
- 이아영. (2020). 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87, 35-44.
- 이은환. (2020). 코로나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 & 진단*, 1-25.
- 이종수. (2018). 공동체의 형성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동네효과 (Community Effect) 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201-219.
- 이창기. (2015). 행복한 도시공동체의 과제와 방향.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37.
- 이창석, 윤정득. (2011). 부동산 행복론의 이론적 접근. *부동산학보*, 45, 113-126.

- 이철호. (2005). 입시, 불평등의 제도화. *교육비평*, (17), 8-56.
- 이한나, 한정원. (2018).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커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7), 231-238.
- 이한우. (2016).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따르는가? 30년 개혁과정의 '발전 모델'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26(3), 51-90.
- 이한우·채수홍. (2019). "베트남 2018: 경제성장의 가속화와 정치적 보수화." *동남아시아연구*.
-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청년의 사회적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일상재구성법(DRM)을 통해 살펴본 남녀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23-139.
- 장재윤, 유경. (2006). 일상재구성법(DRM)을 통해 살펴본 직장인들의 삶의 질. *한국조사연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3-182.
- 장훈, 김우정, 허태균. (2012). 여가참여 다양성과 행복의 관계: 참여여가활동의 수와 여가 시간집중도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9(3), 21-38.
- 전병유. (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전상인. (2014). 행복에 대한 공간사회학적 성찰. *문화와 사회*, 16, 11-44.
- 전지훈, 정문기. (2017). 공동체 인식과 행복의 영향관계 분석: 충청남도 마을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1), 137-166.
- 정명은, 김미현, 장용석. (2014). 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관계 분석: 행복한 시민, 따뜻한 지역공동체. *서울도시연구*, 15(1), 163-186.
- 정연, 김수정. (2021).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고령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1), 160-175.
- 정해식, 김성아. (2019). 한국인의 행복: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영향 분석. *사회복지정책*, 46(1), 185-213.
- 정해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진예린, 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성아, 고혜진, 여유진, 권지성, 정선욱, 김지원, 이정윤. (202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동훈. (2013). 자영업 결정요인 국제 비교 분석. *산업관계연구*, 23(2), 127-146.

- 주은선, 김영미. (2012). 사회적 시간체제의 재구축: 노동세계와 생활세계의 변화를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34, 237-289.
- 지은정. (2012a).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요인과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64(2), 55-83.
- 지은정. (2012b). 경기변동이 자영업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 -구축가설과 유인 가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2), 141-178.
- 채수홍. (2016). "산업화 역사, 사회경제적 분화, 그리고 노동자의 저항: 베트남 남부 빈즈엉 성의 민족지적 사례." *비교문화연구*, 21(1), 541-583.
- 채수홍. (2019a). "베트남 개혁개방정책과 노동시장 실태." 오상봉 외. 개혁개방기의 북한 노동 시장과 경제협력. *한국노동연구원*, 111-167.
- 채수홍. (2019b). "일의 역사적 변화와 통제: 통제, 저항, 해계모니." *지식의 지평* 26, 1-15.
- 최강식, 정진욱, 정진화. (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135-156.
- 최민정. (2015). 여성의 노동공급유형 및 임금결정요인 분석: 임금근로와 자영업 간 비교. *사회복지정책*, 42(3), 107-133. 4
- 최문경, 이명진. (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1), 21-51.
- 필립 랑글레· 파익 타인 펴. (2017). 윤대영 역. 베트남 현대사: 통일에서 신공산주의로 1975-2001. 진인진.
- 한경혜, 장미나. (2011).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살펴본 영·유아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의 행복감. *한국가족복지학*. 16(4). 5-27.
- 한승진, 양광희. (2013).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살펴본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행복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2). 59-72.
- 한승현, 임다혜, 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 허승준. (2017). 인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교육: 공평한 교육 지원을 위한 능력과 필요의 적용 원리. *열린교육연구*, 25(4), 69-84.
- 허종호, 민보경, 이채정, (2020).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예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국회미래연구원.
- 호티후트형, (2018). 한국과 베트남의 민속 문화 비교 연구, 선문대학교 고전문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홍영의. (2019). 일상재구성법으로 본 망원동 노인의 공간이용과 정서경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종관. (2020). 코로나와 일상의 행복에 관한 고찰. *행복한 부자연구*, 9(2), 17-30.

-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Schilling, E. G. (1987). 교육과 직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독일의 교육제도. 대한공업교육학회지, 12(2), 54-63.

국외문헌

- 한나 아렌트. (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태정호 역, (1996). *인간의 조건*, 경기: 한길사.
- Aknin, L. B., Barrington-Leigh, C. P., Dunn, E. W., Helliwell, J. F., Burns, J., Biswas-Diener, R., Kemeza, I., Nyende, P., Ashton-James, C.E. & Norton, M. I. (2013). Prosocial spending and well-being: Cross-cultural evidence for a psychological univer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4), 635-652.
- Alan B. Krueger and David Schkade. 2006. Sorting in the Labor Market Do Gregarious Workers Flock to Interactive Jobs?
- Albanesi, Stefania, and Jiyeon Kim. (2021). "Effects of the COVID-19 Recession on the US Labor Market: Occupation, Family, and Gend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5 (3): 3-24.
- Andersson, P. (2008). Happiness and health: Well-being among the self-employed.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1), 213-236. doi:<https://doi.org/10.1016/j.socec.2007.03.003>
- Arendt, H., *Ethica Nicomachea/Politika/Peri Poietikes*. 손명현 역, (2013). *니코마코스 윤리학/정치학/시학(2판 4쇄)*, 서울: 동서문화사.
- Bailey, F. G. (1969). *Stratagem and Spoils: A Sociological Anthropology of Politics*. New York: Schocken Books.
- Barth, F. (1969). *Pathan identity and its maintenance*. Bergen: Universitets Forlaget.
- Bentham, J., (1789).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Clarendon Press.
- Binder, M., & Freytag, A. (2013). Volunteering, subjective well-being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4, 97-119. doi:<https://doi.org/10.1016/j.joep.2012.11.008>
- Blanchflower, D. G. (2021). Is happiness U-shaped everywhere? Age and subjective

- well-being in 145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4(2), 575-624. doi:10.1007/s00148-020-00797-z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8), 1359-1386.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1733-1749. doi: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8.01.030>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9). The U-shape without controls: A response to Glenn. *Social science & medicine*, 69(4), 486-488.
- Blanchflower, D., & Oswald, A. (2017). Do Humans Suffer a Psychological Low in Midlife? Two Approaches (With and Without Controls) in *Seven Data Sets. Discussion Paper Series*, No. 10958.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 Bok, D. (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ssert, W., & Suzumura, K. (2016). The greatest unhappiness of the least number. *Social Choice and Welfare*, 47(1), 187-205.
- Bradshaw, J. (Ed.). (2008). *Social Security, Happiness and Well-being*. Antwerp: Intersentia.
- Brodeur, A., Clark, A. E., Fleche, S., & Powdthavee, N. (2021). COVID-19, lockdowns and well-being: Evidence from Google Tren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3, 104346.
- Bryceson, D. and V. Vuorela (eds.). (2002).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New York: Berg.
- Bui, T. V., Blizzard, C. L., Luong, K. N., Truong, N. L. V., Tran, B. Q., Otahal, P., ... & Gall, S. (2015). Physical activity in Vietnam: estimates and measurement issues. *PloS one*, 10(10), 1-14.
- Cantril, H. (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Carroll, N. (2007).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conomic Record*, 83(262), 287-302. doi:doi:10.1111/j.1475-4932.2007.00415.x
- Chandra, K. (Ed.). (2012). *Constructivist theories of ethnic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Chui, W. H., & Wong, M. Y. (2016). Gender differences in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 ction among adolescents in Hong Kong: Relationships and self-concep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5(3), 1035-1051.
- Chung, S. (2018). The effect of labour market polarization on university students' job market-related outcome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youth unemployment.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8(3), 509-533.
- Clark, A. E. (2003).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2), 323-351.
- Clark, A. E., & Oswald, A. J.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104(424), 648-659.
- Clark, A. E., d'Albis, H., & Greulich, A. (2020). The Age U-shape in Europe: The Protective Role of Partnership. *halshe-02872212*.
- Clark, A. E., Georgellis, Y., & Sanfey, P. (2001). Scarring: The Psychological Impact of Past Unemployment. *Economica*, 68(270), 221-241.
- Clark, A., Knabe, A., & Rätzl, S. (2010). Boon or bane? Others' unemployment, well-being and job insecurity. *Labour economics*, 17(1), 52-61.
- Cornwell, B. (2011). Age trends in daily social contact patterns. *Research on Aging*, 33(5), 598-631.
- Deaton, A.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doi: 10.1257/jep.22.2.53
- Di Tella, R., & MacCulloch, R. (2008). Gross national happiness as an answer to the Easterlin Paradox?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6(1), 22-42.
- Di Tella, R., MacCulloch, R. J. & Oswald, A. J. (2001).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335-341.
- Di Tella, R., MacCulloch, R. J. & Oswald, A. J.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09-827.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85-218). Cambridge: MIT Press.
- Diener, E., & Suh, E.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 189-216.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olan, P., Kudrna, L. & Stone, A. (2017). The Measure Matters: An Investigation of Evaluative and Experience-Based Measures of Wellbeing in Time Use Data. *Soc Indic Res* 134, 57-73. <https://doi.org/10.1007/s11205-016-1429-8>에서 2021.7.11. 인출.
- Dolan, P., & Powdthavee, N. (2012). Thinking about it: A note on attention and well-being losses from unemployment. *Applied Economics Letters*, 19(4), 325-328.
- Drydakis, N. (2015).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self-reported health and mental health in Greece from 2008 to 2013: A longitudinal study before and during the financial crisis. *Social science & medicine*, 128, 43-51. doi:<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4.12.025>
- Dunn, E., & Norton, M. (2013). Happy money: The science of happier spending. Simon and Schuster.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 M.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 89~126), New York: Academic Press.
- Easterlin, R. A., & Angelescu, L. (2009). Happiness and growth the world over: Time series evidence on the happiness-income paradox (No. 4060). *IZA discussion papers*. IZA,
- Ferrante, F. (2009). Education, Aspirations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62(4), 542-562.
- Ferrer-i-Carbonell, A., & Frijters, P. (2004). How Important is Methodology for the estimates of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The Economic Journal*, 114(497), 641-659. doi:10.1111/j.1468-0297.2004.00235.x
- Fforde, Adam and Stephen De Vylder. (1996).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Boulder, Co: Westview Press.
- Forbes, (2018.1.21.). UK Has a Minister of Loneliness: This is How Bad Loneliness Has Gotten. Forbes.

- Frey, B. S., & Stutzer, A.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jters, P., & Beaton, T. (2012).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2(2), 525-542. doi:https://doi.org/10.1016/j.jebo.2012.03.008
- Frijters, P., Haisken-DeNew, J. P., & Shields, M. A. (2004). Money Does Matter! Evidence from Increasing Real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in East Germany Following Reunific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4(3), 730-740.
- Gallup, (2020. Oct.). *Worldwide Research: Methodology and Codebook*. Gallup.
- Genadek, Flood, & Moen. (2017). For Better or Worse? Couples' Time Together in Encore Adulthoo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 Gerlach, K., & Stephan, G. (1996). A paper on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in Germany. *Economics Letters*, 52(3), 325-330. doi:https://doi.org/10.1016/S0165-1765(96)00858-0
- Gleibs, I. H., Morton, T. A., Rabinovich, A., Haslam, S. A., & Helliwell, J. F. (2013). Unpacking the hedonic paradox: A dynamic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capital,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2(1), 25-43.
- Glenn, N. (2009). Is the apparent U-shape of well-being over the life course a result of inappropriate use of control variables? A commentary on Blanchflower and Oswald (66: 8, 2008, 1733-1749). *Social science & medicine*, 69(4), 481-485.
- Graham, C. (2005). The economics of happiness. *World economics*, 6(3), 41-55.
- Grover, S., & Helliwell, J. F. (2019). How's Life at Home? New Evidence on Marriage and the Set Point for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2), 373-390. doi:10.1007/s10902-017-9941-3
- Ha, T. T. K., Nguyen Thi, A. T., & Rożycka-Tran, J. (2020). When do Vietnamese people feel happy the most? Psychological health in modern society . 28–42. Viet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Hagerty, M. R. (2000). Social comparisons of income in one's community: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of income and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64.
-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Heritage of Sociology Series. C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vey, 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London: Wile-Blackwell.
-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건강 및 은퇴 조사) User Guides. HRS 홈페이지 <https://hrs.isr.umich.edu/documentation/user-guides>에서 2021.4.30. 인출.
- Helliwell, J. F. (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The Economic Journal*, 116(510), C34-C45.
- Helliwell, J. F., & Barrington-Leigh, C.P. (2012). How much is social capital worth? In: Jetten, J., Haslam, C., Haslam, A.S. (eds.), *The Social Cure: Identity, Health and Well-Being* (pp.55-71). Psychology Press.
- Helliwell, J. F., & Huang, H. (2008).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595-619.
- Helliwell, J. F., & Huang, H. (2014). New Measures of the Costs of Unemployment: Evidence from the Subjective Well-being of 3.3. Million Americans. *Economic Inquiry*, 52(4), 1485-1502. doi:doi:10.1111/ecin.12093
- Helliwell, J. F., & Wang, S. (2012). The state of world happiness. In J. F. Helliwell, R. Layard, & J.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pp. 10-57), New York: The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 Helliwell, J. F., & Wang, S. (2013). World Happiness: Trends, Explanations and Distribution. In J. F. Helliwell, R. Layard, & J.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3* (pp. 8-37), New York: The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 Helliwell, J. F., & Wang, S. (2014).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theory and practice in Korea. In S. Wang (Eds.),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pp. 7-34). Seoul: KDI Press.
- Helliwell, J. F., (2011). How can subjective well-being be improved? In F. Gorbet, & A. Sharpe (Eds.), *New directions for intelligent government in Canada* (pp. 283-304) Ottawa: Centre for the Study of Living Standards, 2011. <http://www.csls.ca/festschrift/Helliwell.pdf>
- Helliwell, J. F., Huang, H., & Wang, S. (2013).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in times of crisi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1), 145-162.
- Helliwell, J. F., Huang, H., Wang, S., & Norton, M. (2021). World happiness, trust and deaths during COVID-19. In J. F. Helliwell, R. Layard, J. Sachs, J. De Neve,

- L. Akinin, & S. Wang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21 (pp. 13-56). New York: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각 연도), World happiness report. New York: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e Neve, J., Akinin, L., & Wang, S. (2021). World happiness report 2021. New York: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lliwell, J. F., Lee, G. E., & Wang, S. (2014). Korea's subjective well-being in a global context. In S. Wang (Eds.),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pp. 35-50). Seoul: KDI Press.
- Helliwell, J., Layard, and R., & Sachs, J.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lliwell, J., Norton, M., Huang, H., & Wang, S. (2018). Happiness at Different Ages: The Social Context Matters. Working Paper 2512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
- Helliwell, John F., Richard Layard, Jeffrey Sachs, & Jan-Emmanuel De Neve. (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0.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lasny, V. (2016). Labor Market Rigidities and Social Inequality in Korea: The Role of Legal,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On Korea academic paper series 10, Washington: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6.14.). Tackling loneliness. House of Commons Library.
- Huang, J., Wu, S., & Deng, S. (2016). Relative Income, Relative Assets, and Happiness in Urban Chi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3), 971-985. doi:10.1007/s11205-015-0936-3
- Hunnicut, B. (2006). "The History of Western Leisure." C. Rojek, S. M. Shaw, and A. J. Veal eds., A Handbook of Leisure Studies. Palgrave Macmillan, 55-74.
- Inkeles, A. (1993).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4(1/2), 1-23.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1/weodata/index.aspx>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 IMF Data Mapper : Unemployment rate,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LUR@WEO>
- Iyengar, S. S., & Lepper, M. R. (2000). When choice is demotivating: Can one desire too much of a good t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995-1006.
- Jebb, A. T., Morrison, M., Tay, L., & Diener, E. (2020). Subjective Well-Being Around the World: Trends and Predictors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ical Science*, 31(3), 293-305.
- Jebb, A. T., Tay, L., Diener, E., & Oishi, S. (2018). Happiness, income satiation and turning points around the world. *Nature Human Behaviour*, 2(1), 33-38. doi:10.1038/s41562-017-0277-0
-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38), 16489-16493. doi:10.1073/pnas.1011492107
- Kahneman, D., Alan B. Krueger, David A. Schkade, Norbert Schwarz, Arthur A. Stone.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306(5702), 1776-1780.
- Kahneman, D., & Sugden, R. (2005). Experienced utility as a standard of policy evaluation.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32(1), 161-181.
- Kahneman, D., & Tversky, A. (2003). Experienced utility and objective happiness: A moment-based approach. *The psychology of economic decisions*, 1, 187-208.
- Kahneman, D., Wakker, P. P., & Sarin, R. (1997). Back to Bentham? Explorations of experienced uti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375-405.
- Kang, D. C. (2002). Bad loans to good friends: Mone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1), 177-207.
- Kassenboehmer, S. C., & Haisken-DeNew, J. P. (2009). You're Fired! The Causal Negative Effect of Entry Unemployment on Life Satisfaction. *The Economic Journal*, 119(536), 448-462.
- Kim, S., Kim, H., Lee, S., Kim, E., & Gowen, O. (2018). Lack of dream-capital

- among Korean youths. *Development and Society*, 47(3), 347-370.
- Knabe, A., & Rätzl, S. (2011). Quantifying the psychological costs of unemployment: the role of permanent income. *Applied Economics*, 43(21), 2751-2763.
- Knabe, A., Schöb, R., & Weimann, J. (2016). Partnership, Gender, and the Well-Being Cost of Unemploy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9(3), 1255-1275. doi:10.1007/s11205-015-1167-3
- Knight, J., & Gunatilaka, R. (2012). Income, aspirations and the Hedonic Treadmill in a poor society.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2(1), 67-81. doi:http://dx.doi.org/10.1016/j.jebo.2011.12.005
- Kostadin, Elizabeth W, Richard E. 2015. Higher Income Is Associated With Less Daily Sadness but not More Daily Happiness
- Kwak, I. S. (2013). Study on family strength and happiness of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1(1), 1-16.
- Lawton, R. N., Gramatki, I., Watt, W., & Fujiwara, D. (2021). Does Volunteering Make Us Happier, or Are Happier People More Likely to Volunteer? Addressing the Problem of Reverse Causality When Estimating the Wellbeing Impacts of Volunteer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2(2), 599-624. doi:10.1007/s10902-020-00242-8
-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Books.
- Lee, J., & Smith, J. P. (2011). Explanations for Education Gradients in Depression: The Case of Korea. *Research on aging*, 33(5), 551-575. doi:10.1177/0164027511409440
- Lucas, R. E., & Clark, A. E. (2006). Do people really adapt to marriag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4), 405-426.
- Lucas, R. E., Clark, A. E., Georgellis, Y., & Diener, E. (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1), 8-13.
- Luechinger, S., Meier, S., & Stutzer, A. (2010). Why Does Unemployment Hurt the Employed? Evidence from the Life Satisfaction Gap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5(4), 998-1045.
- Luhmann, M., Weiss, P., Hosoya, G., & Eid, M. (2014). Honey, I got fired! A longitudinal dyadic analysis of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life satisfaction in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1), 163.

- Ma, M., Wang, S., & Wu, F. (2021). COVID-19 prevalence and well-being: Lessons from East Asia. In J. F. Helliwell, R. Layard, J. Sachs, J. De Neve, L. Akinin, & S. Wang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21* (pp. 57-90). New York: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Marr, G. David and Christine P. White. eds. (1988). *Postwar Vietnam: Dilemmas in Socialist Development*.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 McBride, M. (2001). Relative-incom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ross-se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5, 251-278.
- McNamee, S. J., & Miller, R. K. (2009). *The meritocracy myth*. Rowman & Littlefield.
- Mohanty, M. S. (2014). What Determines Happiness? Income or Attitude: Evidence From the U.S.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Neuroscience, Psychology, and Economics*, 7(2), 10-102. doi:10.1037/npe0000019
- Morris & Hirsch. (2015). Does rush hour see a rush of emotions? Driver mood in conditions likely to exhibit congestion
- Mousteri, V., Daly, M., & Delaney, L. (2018). The scarring effect of unemploy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Europe. *Social Science Research*, 72, 146-169. doi:https://doi.org/10.1016/j.ssresearch.2018.01.007
- New Zealand Government, (2018.12.13.). *Budget 2019: Budget Policy Statement*, New Zealand Government.
- Nguyen, P. V., Nguyen, P. T., Huynh, V. D. B., & Nguyen, Q. L. H. T. T. (2017).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A Vietnames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14(4), 145-182.
- Nussbaum, M., & Sen, A. (1993). *The quality of life*: Clarendon Press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21a), *Temporary employment (indicator)*. doi: 10.1787/75589b8a-en (Accessed on 05 June 2021)
- OECD (2021b), *Self-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fb58715e-en (Accessed on 05 June 2021)
-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Ott, J.,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Some Non-controversial Options for Governm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631-647.
- Pacek, A., & Radcliff, B. (2008). Welfare Polic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179-191. doi: 10.1007/s11205-007-9232-1
- Pettit, P. (2001). *A theory of freedom: from the psychology to the politics of agency*.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Pilkington, P. D., Windsor, T. D., & Crisp, D. A. (2012). Volunteer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idlife and Older Adults: The Role of Supportive Social Network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7B(2), 249-260. doi:10.1093/geronb/gbr154
- Polanyi, K., & Maclvere, R. M.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Vol.2)*. Boston: Beacon Press.
- Powdthavee, N., Burkhauser, R. V., & De Neve, J.-E. (2017). Top incomes and human well-being: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62, 246-257.
- Proto, E., & Rustichini, A. (2015). Life satisfaction, income and personalit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48, 17-32. doi:http://dx.doi.org/10.1016/j.joep.2015.02.001
- R U OK? & APS. (2021). *Ending Loneliness Together: A National Strategy to Address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Pre-Budget Submission 2021-2022.
-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Revised Edition). 황경식 역, (2017). *정의론*. 서울: 이학사.
- Rebecca Taylor, Laura Conway, Lisa Calderwood, Carli Lessof, Hayley Cheshire, Kate Cox and Shaun Scholes. (2007). *Health, wealth and lifestyles of the older population in England: The 2002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echnical Report*. UCL Research Department of Behavioural Science and Health.
- Rietveld, C. A., Cesarini, D., Benjamin, D. J., Koellinger, P. D., De Neve, J.-E., Tiemeier, H., Bartels, M. (2013). Molecular genetics and subjective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0(24), 9692. doi:10.1073/pnas.1222171110
- Robeyns, I. (2017). *Wellbeing, Freedom and Social Justice: The Capability*

- Approach Re-Examined (1 ed.): Open Book Publishers.
- Rothstein, B. (2010). Corruption, Happiness, Social Trust and the Welfare State: A Causal Mechanisms Approach QoG Working Paper Series: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 Rothstein, B., & Uslaner, E. M. (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1), 41-72.
- Rudolf, R., & Kang, S.-J. (2015). Lags and Leads in Life Satisfaction in Korea: When Gender Matters. *Feminist Economics*, 21(1), 136-163. doi:10.1080/13545701.2014.967708
- Schneider, L. (2013). A Note on Income Aspirations, Television and Happiness. *Kyklos*, 66(2), 301-305. doi:10.1111/kykl.12022
- Schopf, J. C. (2011). Following the money to determine the effects of democracy on corruption: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1(1), 1-39.
- Schopf, J. C. (2012). From one-stop graft to costly corruption webs: Democratisation and shifting patterns of corruption in Korea.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40(5/6): 635-663.
-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Clarendon Press.
- Sen, A. (1999). *Freedom as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 & Anand, S. (1994). Human Development Index: Methodology and Measurement. Occasional Paper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Senik, C. (2008). Ambition and Jealousy: Income Interactions in the 'Old' Europe versus the 'New'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conomica*, 75(299), 495-513.
- Senik, C. (2009). Direct evidence on income comparisons and their welfare effect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2(1), 408-424. doi:http://dx.doi.org/10.1016/j.jebo.2009.04.019
- Schauer, J. (2018). Labor market duality in Korea, IMF working paper WP/18/126. <https://www.elibrary.imf.org/view/journals/001/2018/126/001.2018.issue-126-en.xml>
- Shibai, K. (2020). Research on Different Happiness Factors in the Asia-Pacific Area: Economics, Politics, and Social Capital.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7, 15-26.
- Shibata, A., Oka, K., Nakamura, Y., & Muraoka, I. (2007). Recommended level of p

- physical activi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Japanese adults.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5(1), 1-8.
- Sjoberg, G. (1961). Lewis Mumford.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Pp. ix, 657.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1. \$11.50.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37(1), 214-215.
- Smith, A., (1976).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of Adam Smith), 김광수 역, (2016). 도덕감정론. 경기: 한길사.
- Smith, T. S., & Reid, L. (2018). Which 'being' in wellbeing? Ontology, wellness and the geographies of happi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6), 807-829.
- Solnick, J. S., & Hemenway, D. (1998). Is more always better?: A survey on positional concern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37(3), 373-383. doi:[http://dx.doi.org/10.1016/S0167-2681\(98\)00089-4](http://dx.doi.org/10.1016/S0167-2681(98)00089-4)
- Sorvillo, (2019). The use of well-being indicator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Presentation at a Study meeting with ISTAT and KIHASA.
- Stevenson, B., & Wolfers, J. (2013).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598-604. doi: 10.1257/aer.103.3.598
- Stone, A. A., Schwartz, J. E., Schkade, D., Schwarz, N., Krueger, A., & Kahneman, D. (2006). A population approach to the study of emotion: diurnal rhythms of a working day examined with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Emotion*, 6(1), 139.
- Stutzer, A. (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4, 89-109.
- Suzuki, K. (2018). Government retrench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 cross-national analysis of OECD countrie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35(3), 266-288.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 *Democracy Index 2020 : In sickness and in health?*
- Thuy, L. (2018). Vietnamese Family Cultur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4, 170-176.
- Tran, B. X., Ha, G. H., Nguyen, L. H., Vu, G. T., Hoang, M. T., Le, H. T., ... & Ho, R.

- (2020). Studies of novel coronavirus disease 19 (COVID-19) pandemic: a global analysis of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1), 4095.
- Trinh, L., & Khanh, H. (2019). Happy people: Who are they? A pilot indigenous study on conceptualization of happiness in Vietnam. *Health Psychology Report*, 7(4), 296-304.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enhoven, R. (2000).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2(1), 91-125. doi: 10.1080/13876980008412637
- Veenhoven, R.,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st Number: Is that Possible and Desirab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605-629.
- Wang, M., & Sunny Wong, M. C. (2011). Leisure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survey data. *Applied Economics Letters*, 18(18), 1813-1816.
- Werner JS. (2009). *Gender, Household and State in Post-Revolutionary Vietnam*. London/New York: Routledge
- Whitehead & Blaxton. (2017). Daily well-being benefits of physical activity in older adults: Does time or type matter?. *The Gerontologist*, 57(6), 1062-1071.
- WHO. (2006). *Study of Global Ageing and Adult Health (SAGE) SURVEY MANUAL*.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Bank. (2021). Gini index (World Bank estimat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Global Health Workforce Statistics*. Geneva. <http://www.who.int/hrh/statistics/hwfstats/>
- You, J.-S. (2021). The changing dynamics of state-business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reform and capture in South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8(1), 81-102.
- Young, C. (2012). Losing a Job: The Nonpecuniary Cost of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91(2), 609-633.
- Yun, J-W. (2009). Labor market polarization in South Korea: The role of policy failures in growing inequality. *Asian Survey*, 49(2), 268-290.

Zimmermann, A., & Easterlin, R. (2006). Happily Ever after? Cohabitation, Marriage, Divorce, and Happiness in German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511-528

법률문헌

「근로기준법」(법률 제18037호, 2021.4.13., 일부개정)

웹사이트

e-나라지표/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American Time Use Survey User's Guide. 미국 노동통계국 홈페이지 <https://www.bls.gov/tus/atususersguide.pdf>에서 2021.4.30. 인출.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American Time Use Survey User's Guide. 미국 노동통계국 홈페이지 <https://www.bls.gov/tus/atususersguide.pdf>에서 2021.4.30. 인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8). 근무시간 길고, 삶의 여유 없는 한국사회, 아직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은 '희망사항'에 가까워,

<<https://www.trendmonitor.co.kr>>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주 코스타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0). 코스타리카 실업률 증가. Accessed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제2장 [그림 2.1]의 자료(<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appendices-and-data>에서 2021.11.5. 인출)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0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0>>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http://overseas.mofa.go.kr/cr-ko/brd/m_6608/view.do?seq=134365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0/October>〉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 IMF. (2021. 4.).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에서 GDP, current prices(Billions of U.S. dollars)를 2021. 7. 15. 검색
- OECD (2021a), Hours worked (indicator). doi: 10.1787/47be1c78-en (2021.11.2. 검색)
- OECD (2021b), Un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52570002-en (2021.11. 4. 인출)
-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https://stats.oecd.org/BrandedView.aspx?oeecd_bv_id=ifs-data-en&doi=data-00286-en#에서 2021.10.13. 인출)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에서 2021.10.13. 인출)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주요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6#>에서 2021.10.13. 인출)
- OECD, OECD Better Life Index 2020,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 OECD, OECD Data, 〈<https://data.oecd.org>〉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 OECD, OECD Stat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ME_USE〉 최종접속일: 2021년 7월 22일
- OECD. 2021. Labour Force Statistics 2021. [https://stats.oecd.org/Labour Force Statistics/](https://stats.oecd.org/Labour%20Force%20Statistics/)에서 2021. 11. 10. 인출.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Online Edition. Rev. 1. 〈<https://population.un.org>〉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 Veenhoven. R.. Average happiness in 162 nations 2010-2018. World Database of Happiness. Rank report Average Happiness. Internet: worlddatabaseofhappiness-archive.eur.nl/hap_nat/findingreports/RankReport_AverageHappiness.php
- World Database of Happiness
 〈<https://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최종접속일: 2021년 3월 9일.

신문기사

Forbes, (2020.1.3.). “Will A Minimum Wage Hike Boost Mexico’s Struggling Economy?”. Accessed 2020.10.23.

<https://www.forbes.com/sites/nathanielparishflannery/2020/01/03/will-a-minimum-wage-hike-boost-mexicos-struggling-economy/#13f6a72618ed>

OECD ‘Global OECD welcomes Colombia as its 37th Member’ 웹페이지 (<https://www.oecd.org/newsroom/global-oecd-welcomes-colombia-as-its-37th-member.htm>에서 2021.6.25. 검색)

데이터베이스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

Our world in data (2021), Coronavirus Pandemic (COVID-19)(<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에서 2021.10.27. 인출)

OECD (2021), Lack of social support (indicator). doi: 10.1787/0cfbe26f-en (2021.11.14. 인출)

World happiness report (2020), The world happiness report 2020(<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0/#appendices-and-data>에서 2021.10.27. 인출)

YouGov Britain’s mood, measured weekly(<https://yougov.co.uk/topics/science/trackers/britains-mood-measured-weekly>에서 2021.10.21. 검색)

Gallup,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원자료(2021.6.21. 인출).



부록 1-1.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변수(원문)

〈부표 1-1〉 갤럽 월드 폴 주요 변수의 질문

구분		질문
결과변수	삶의 평가	Please imagine a ladder with steps numbered from 0 at the bottom to 10 at the top. The top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best possible life for you and the bottom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worst possible life for you. On which step of the ladder would you say you personally feel you stand at this time?
인구학적 특성	성별	GENDER
	만 나이	Please tell me your age.
	건강상태	Do you have any health problems that prevent you from doing any of the things people your age normally can do?
	혼인상태	What is your current marital status? 1 Single/Never been married 2 Married 3 Separated 4 Divorced 5 Widowed 8 Domestic partner 6 (DK) 7 (Refused)
	가구원 수 (아동 수)	How many children under 15 years of age are now living in your household?
경제적 특성	교육수준	What is your highest completed level of education?
	종사상 지위	Employment status
	가구소득	Constructed Variables: Annualized Household Income and per capita income (in local currency and International Dollars)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지	If you were in trouble, do you have relatives or friends you can count on to help you whenever you need them, or not?
	이타적 사회참여 (기부, 자원봉사)	Have you done any of the following in the past month? How about (a) Donated money to a charity, (b) Volunteered your time to an organization
	안전	Within the last 12 months, have you had money or property stolen from you or another household member? Within the last 12 months, have you been assaulted or mugged?
	거버넌스 (부패)	Is corruption widespread (a) within businesses located in (this country), (b) throughout the government in (this country)
	선택의 자유	In (this country), are you satisfied or dissatisfied with your freedom to choose what you do with your life
	미래 전망	Right now, do you feel your standard of living is getting better or getting worse? □
시간 범위	2006-2020, 1년 주기	

자료: Gallup, (2020.10., pp.68-73). Worldwide Research: Methodology and Codebook, Gallup.

부록 1-2.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결과

〈부표 1-2〉 갤럽 월드 폴을 활용한 주요국의 행복 결정요인: 칸트릴 사다리

구분	(1) Pooled OLS	(2) 그리스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5) 뉴질랜드	(6) 대한민국	(7) 덴마크	(8) 독일	(9) 리투아니아	(10) 룩셈부르크
여성 터미	0.103*** (0.008)	0.193*** (0.049)	0.071* (0.036)	0.076 (0.051)	0.103* (0.043)	0.307*** (0.048)	0.147*** (0.037)	0.096* (0.040)	0.080+ (0.045)	-0.033 (0.043)
만나이	-0.038*** (0.001)	-0.069*** (0.009)	-0.018** (0.006)	-0.055*** (0.010)	-0.015* (0.006)	-0.058*** (0.010)	-0.039*** (0.008)	-0.005 (0.008)	-0.027** (0.009)	-0.047*** (0.008)
만나이제곱	0.037*** (0.001)	0.056*** (0.008)	0.023*** (0.006)	0.064*** (0.011)	0.025*** (0.006)	0.051*** (0.010)	0.050*** (0.008)	0.001 (0.008)	0.018+ (0.010)	0.048*** (0.009)
건강문제	-0.619*** (0.011)	-0.705*** (0.075)	-0.519*** (0.045)	-0.710*** (0.070)	-0.550*** (0.064)	-0.283*** (0.064)	-0.700*** (0.046)	-0.554*** (0.053)	-0.392*** (0.058)	-0.399*** (0.063)
혼인상태 (층기집단=유배우) 이혼·별거·사별	-0.281*** (0.013)	-0.343*** (0.077)	-0.283*** (0.060)	-0.267** (0.089)	-0.179* (0.072)	-0.401** (0.125)	-0.478*** (0.068)	-0.204*** (0.061)	-0.218*** (0.063)	-0.202** (0.070)
미혼	-0.160*** (0.012)	-0.047 (0.079)	-0.221*** (0.047)	-0.393*** (0.080)	-0.131+ (0.068)	-0.467*** (0.090)	-0.367*** (0.054)	-0.109+ (0.058)	-0.087 (0.072)	-0.166** (0.063)
가구원 수	-0.007+ (0.003)	-0.092*** (0.025)	0.009 (0.017)	0.009 (0.029)	-0.030 (0.022)	0.008 (0.023)	0.032 (0.020)	0.058*** (0.022)	-0.029 (0.025)	0.066*** (0.020)
아동 수	-0.016*** (0.004)	0.091* (0.040)	0.018 (0.026)	0.058 (0.040)	-0.016 (0.037)	0.026 (0.037)	-0.003 (0.030)	-0.071* (0.034)	-0.044 (0.038)	-0.101*** (0.037)
교육수준 (층기집단=초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0.347*** (0.014)	0.526*** (0.077)	0.235+ (0.123)	0.044 (0.096)	-0.093 (0.081)	0.044 (0.095)	0.089 (0.122)	0.394** (0.146)	0.214** (0.071)	0.190* (0.077)
고등교육 이상	0.620*** (0.015)	0.888*** (0.088)	0.356*** (0.125)	0.085 (0.096)	-0.054 (0.085)	0.515*** (0.100)	0.176 (0.127)	0.749*** (0.149)	0.565*** (0.076)	0.515*** (0.078)
종사상 지위 (층기집단=풀타임 근로자)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153*** (0.015)	0.273+ (0.142)	0.127*** (0.047)	0.102 (0.098)	0.335*** (0.059)	0.077 (0.089)	0.115+ (0.070)	0.059 (0.070)	0.207* (0.093)	0.154+ (0.081)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259*** (0.019)	-0.575*** (0.126)	-0.162* (0.077)	-0.014 (0.114)	-0.033 (0.097)	-0.095 (0.119)	-0.035 (0.084)	-0.206+ (0.114)	-0.106 (0.117)	-0.011 (0.098)

구분	(1) Pooled OLS	(2) 그리스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5) 뉴질랜드	(6) 대한민국	(7) 덴마크	(8) 독일	(9) 라트비아	(10) 룩셈부르크
자영업자	0.042*** (0.015)	0.098 (0.079)	0.082 (0.064)	-0.048 (0.119)	0.199* (0.080)	-0.287*** (0.077)	0.220** (0.080)	0.151* (0.076)	0.088 (0.101)	0.134 (0.094)
실업자	-0.552*** (0.021)	-0.582*** (0.093)	-0.397*** (0.115)	-0.612*** (0.179)	-0.311* (0.126)	-0.137 (0.119)	-0.334*** (0.096)	-0.661*** (0.131)	-0.427*** (0.114)	-0.312* (0.158)
비경제활동인구	0.056*** (0.011)	0.154* (0.067)	-0.079 (0.053)	-0.174* (0.084)	0.267*** (0.066)	0.145* (0.061)	-0.149*** (0.056)	0.109+ (0.058)	-0.047 (0.067)	-0.030 (0.056)
로그 가구 월소득	0.188*** (0.005)	0.363*** (0.032)	0.106*** (0.022)	0.132*** (0.037)	0.234*** (0.028)	0.150*** (0.022)	0.091*** (0.025)	0.193*** (0.026)	0.260*** (0.041)	0.127*** (0.029)
사회적 지지체계	0.737*** (0.016)	0.758*** (0.069)	0.341*** (0.083)	0.779*** (0.163)	0.878*** (0.114)	0.730*** (0.067)	0.785*** (0.114)	0.569*** (0.087)	0.650*** (0.074)	0.446*** (0.095)
기부	0.209*** (0.008)	0.261*** (0.085)	0.152*** (0.037)	0.097+ (0.053)	0.168*** (0.049)	0.214*** (0.049)	0.130** (0.040)	0.263*** (0.041)	0.197*** (0.048)	0.206*** (0.043)
자원봉사	0.151*** (0.009)	0.182* (0.090)	0.084* (0.034)	0.034 (0.055)	0.152*** (0.042)	0.324*** (0.058)	0.086* (0.043)	0.155*** (0.046)	0.063 (0.077)	0.177*** (0.046)
도난경험	-0.227*** (0.013)	-0.430*** (0.083)	-0.065 (0.054)	-0.123 (0.101)	-0.344*** (0.064)	-0.317*** (0.094)	-0.195*** (0.062)	-0.220** (0.074)	-0.124+ (0.071)	-0.046 (0.071)
재계 부패인식	-0.132*** (0.011)	-0.039 (0.087)	-0.022 (0.044)	-0.002 (0.068)	-0.196** (0.065)	-0.308*** (0.067)	-0.080 (0.061)	-0.155*** (0.046)	-0.214** (0.072)	-0.183*** (0.049)
정치 부패인식	-0.158*** (0.011)	-0.181* (0.081)	-0.129** (0.046)	-0.284*** (0.083)	-0.092 (0.068)	-0.140* (0.062)	-0.122+ (0.066)	-0.202*** (0.047)	-0.125+ (0.075)	-0.238*** (0.052)
선택의 자유	0.518*** (0.011)	0.529*** (0.048)	0.670*** (0.076)	1.246*** (0.168)	0.834*** (0.113)	0.519*** (0.048)	0.984*** (0.107)	0.635*** (0.069)	0.378*** (0.049)	0.421*** (0.084)
공정적 미래 전망	0.551*** (0.009)	0.774*** (0.066)	0.303*** (0.037)	0.225*** (0.056)	0.605*** (0.046)	0.785*** (0.048)	0.242*** (0.043)	0.365*** (0.044)	0.615*** (0.052)	0.269*** (0.044)
국가 고정효과	0	X	X	X	X	X	X	X	X	X
연도 고정효과	0	0	0	0	0	0	0	0	0	0
국가별 시간 추세	0	X	X	X	X	X	X	X	X	X
상수	10.506 (20.352)	4.226*** (0.371)	5.770*** (0.293)	5.782*** (0.474)	3.635*** (0.355)	4.622*** (0.336)	5.862*** (0.325)	3.806*** (0.357)	3.243*** (0.399)	5.920*** (0.355)
유효표본	299368	9925	8553	5268	8170	8825	9392	7959	6932	6707
조정 R ²	0.280	0.262	0.168	0.180	0.198	0.246	0.163	0.192	0.280	0.138

구분	(11) 리투아니아	(12) 멕시코	(13) 미국	(14) 베트남	(15) 벨기에	(16) 스웨덴	(17) 스위스	(18) 스페인	(19) 슬로바키아	(20) 슬로베니아
여성 터미	-0.034 (0.047)	0.038 (0.054)	0.148* (0.062)	0.132*** (0.038)	0.013 (0.043)	0.146*** (0.042)	0.018 (0.047)	0.141** (0.046)	0.071 (0.046)	0.117* (0.049)
만나이	-0.027*** (0.008)	0.003 (0.009)	-0.034*** (0.009)	-0.020** (0.008)	-0.017* (0.008)	-0.001 (0.008)	-0.012 (0.009)	-0.052*** (0.010)	-0.024* (0.010)	-0.082*** (0.009)
만나이계급	0.019* (0.008)	-0.005 (0.010)	0.046*** (0.009)	0.027*** (0.008)	0.018* (0.008)	0.005 (0.009)	0.016+ (0.009)	0.053*** (0.011)	0.016+ (0.010)	0.067*** (0.009)
건강문제	-0.602*** (0.061)	-0.424*** (0.079)	-0.811*** (0.089)	-0.240*** (0.053)	-0.535*** (0.058)	-0.830*** (0.059)	-0.448*** (0.068)	-0.708*** (0.078)	-0.622*** (0.064)	-0.410*** (0.062)
혼인상태 (준거집단=유배우)										
이혼·별거·사별	-0.280*** (0.063)	0.003 (0.087)	-0.305** (0.098)	-0.213* (0.085)	-0.330*** (0.073)	-0.408*** (0.082)	-0.086 (0.070)	-0.221* (0.089)	-0.362*** (0.071)	-0.134+ (0.080)
미혼	-0.012 (0.088)	0.103 (0.068)	-0.202* (0.089)	0.133+ (0.070)	-0.280*** (0.061)	-0.401*** (0.066)	-0.148* (0.069)	-0.097 (0.069)	-0.114 (0.076)	0.010 (0.076)
가구원 수	0.014 (0.028)	-0.024 (0.015)	-0.029 (0.026)	0.021 (0.015)	0.019 (0.020)	0.059* (0.024)	0.071** (0.022)	-0.041+ (0.022)	-0.039+ (0.023)	-0.051* (0.020)
아동 수	-0.083+ (0.044)	-0.002 (0.005)	0.033 (0.044)	-0.001 (0.024)	-0.029 (0.032)	-0.087** (0.033)	-0.065+ (0.034)	0.040 (0.038)	-0.011 (0.039)	0.067+ (0.038)
교육수준 (준거집단=초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0.024 (0.087)	0.464*** (0.071)	0.202 (0.257)	0.258*** (0.045)	0.268* (0.121)	-0.099 (0.102)	0.144* (0.069)	0.561*** (0.073)	0.280*** (0.086)	0.303*** (0.081)
고등교육 이상	0.649*** (0.100)	0.889*** (0.085)	0.458+ (0.259)	0.647*** (0.066)	0.436*** (0.121)	-0.012 (0.103)	0.281*** (0.067)	0.885*** (0.090)	0.679*** (0.098)	0.929*** (0.114)
종사상 지위 (준거집단=풀타임 근로자)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255* (0.102)	-0.065 (0.106)	0.248* (0.112)	0.130 (0.088)	0.195** (0.076)	0.132 (0.090)	0.110 (0.069)	0.111 (0.105)	0.008 (0.127)	0.016 (0.118)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324* (0.132)	-0.355*** (0.105)	-0.361* (0.152)	0.059 (0.095)	-0.192+ (0.106)	-0.109 (0.113)	-0.125 (0.104)	-0.177* (0.081)	-0.200 (0.142)	0.029 (0.118)
자영업자	0.427*** (0.106)	-0.279** (0.086)	0.368** (0.125)	0.062 (0.052)	0.021 (0.088)	0.264** (0.094)	0.038 (0.086)	-0.019 (0.089)	0.130 (0.092)	0.097 (0.086)
실업자	-0.534*** (0.114)	-0.484*** (0.124)	-0.537** (0.182)	-0.066 (0.121)	-0.637*** (0.118)	-0.401** (0.131)	-0.564** (0.181)	-0.753*** (0.087)	-0.455*** (0.119)	-0.573*** (0.155)

구분	(11) 리투아니아	(12) 멕시코	(13) 미국	(14) 베트남	(15) 벨기에	(16) 스웨덴	(17) 스위스	(18) 스페인	(19) 슬로바키아	(20) 슬로베니아
비경제활동인구	-0.071 (0.064)	0.035 (0.066)	0.182* (0.089)	0.159** (0.058)	-0.006 (0.055)	0.033 (0.069)	-0.086 (0.064)	-0.048 (0.066)	0.108+ (0.065)	0.031 (0.069)
로그 가구 월소득	0.101*** (0.027)	0.083*** (0.019)	0.080** (0.025)	0.189*** (0.018)	0.235*** (0.032)	0.085** (0.029)	0.087*** (0.022)	0.230*** (0.028)	0.390*** (0.063)	0.467*** (0.044)
사회적 지지체계	0.887*** (0.085)	0.342*** (0.076)	1.077*** (0.151)	0.098+ (0.053)	0.650*** (0.098)	0.632*** (0.104)	0.851*** (0.121)	0.937*** (0.119)	0.736*** (0.095)	0.969*** (0.110)
기부	0.144* (0.068)	-0.081 (0.066)	0.323*** (0.068)	0.154** (0.048)	0.220*** (0.046)	0.122** (0.043)	0.251*** (0.048)	0.346*** (0.048)	0.267*** (0.050)	0.205*** (0.050)
자원봉사	0.064 (0.072)	-0.034 (0.071)	0.258*** (0.060)	0.108+ (0.060)	0.060 (0.047)	0.121* (0.054)	0.120* (0.049)	0.113+ (0.061)	0.292*** (0.067)	0.144** (0.050)
도난경험	-0.327*** (0.098)	-0.114+ (0.061)	-0.328*** (0.098)	-0.031 (0.062)	-0.262*** (0.070)	-0.085 (0.061)	-0.248** (0.085)	-0.310*** (0.076)	-0.217** (0.075)	-0.160* (0.074)
세계 부패인식	-0.348*** (0.088)	-0.025 (0.063)	-0.107 (0.066)		-0.068 (0.052)	-0.034 (0.062)	-0.164** (0.056)	-0.041 (0.057)	-0.222* (0.086)	-0.259*** (0.076)
정치 부패인식	-0.281* (0.112)	-0.062 (0.071)	-0.104 (0.075)		-0.154** (0.052)	-0.079 (0.077)	-0.234*** (0.064)	-0.165** (0.059)	-0.139 (0.089)	-0.348*** (0.069)
선택의 자유	0.487*** (0.048)	0.124+ (0.067)	0.411*** (0.090)		0.506*** (0.066)	0.920*** (0.120)	0.844*** (0.115)	0.329*** (0.057)	0.509*** (0.052)	0.793*** (0.097)
긍정적 미래 전망	0.456*** (0.061)	0.783*** (0.055)	0.818*** (0.065)	0.605*** (0.041)	0.290*** (0.046)	0.294*** (0.047)	0.242*** (0.048)	0.515*** (0.053)	0.637*** (0.052)	0.581*** (0.058)
국가 고정효과	X	X	X	X	X	X	X	X	X	X
연도 고정효과	O	O	O	O	O	O	O	O	O	O
국가별 시간 추세	X	X	X	X	X	X	X	X	X	X
상수	5.183*** (0.341)	5.722*** (0.279)	5.281*** (0.457)	3.660*** (0.226)	4.214*** (0.372)	5.178*** (0.367)	5.165*** (0.350)	4.426*** (0.373)	3.048*** (0.574)	2.945*** (0.450)
유효표본	7898	9986	6259	10639	7774	7771	6173	8870	8062	9155
조정 R ²	0.212	0.135	0.223	0.120	0.189	0.162	0.146	0.199	0.231	0.245

구분	(21) 아이슬란드	(22) 아일랜드	(23) 에스토니아	(24) 영국	(25) 오스트리아	(26) 이스라엘	(27) 이탈리아	(28) 일본	(29) 중국	(30) 체코
여성 터미	0.228*** (0.069)	0.129*** (0.044)	0.087+ (0.051)	0.019 (0.046)	0.171*** (0.044)	-0.064+ (0.035)	0.011 (0.046)	0.376*** (0.052)	0.071*** (0.025)	0.012 (0.041)
만나이	-0.043*** (0.013)	-0.028*** (0.008)	-0.056*** (0.010)	-0.015+ (0.008)	-0.021** (0.008)	-0.032*** (0.007)	-0.038*** (0.009)	-0.035*** (0.009)	-0.033*** (0.005)	-0.040*** (0.009)
만나이계급	0.051*** (0.014)	0.031*** (0.008)	0.051*** (0.010)	0.021*** (0.008)	0.017* (0.008)	0.025*** (0.007)	0.032*** (0.009)	0.033*** (0.009)	0.044*** (0.005)	0.026** (0.008)
건강문제	-0.796*** (0.093)	-0.678*** (0.078)	-0.467*** (0.063)	-0.599*** (0.071)	-0.652*** (0.065)	-0.695*** (0.055)	-0.607*** (0.075)	-0.455*** (0.063)	-0.474*** (0.035)	-0.785*** (0.058)
혼인상태 (준거집단=유배우)										
이혼·별거·사별	-0.801*** (0.143)	-0.318*** (0.082)	-0.155* (0.070)	-0.273*** (0.073)	-0.266*** (0.073)	-0.328*** (0.068)	-0.153+ (0.086)	-0.329*** (0.081)	-0.242*** (0.067)	-0.266*** (0.060)
미혼	-0.472*** (0.104)	-0.086 (0.066)	-0.079 (0.081)	-0.067 (0.067)	-0.215*** (0.069)	-0.208*** (0.072)	-0.108 (0.071)	-0.443*** (0.074)	-0.090+ (0.049)	-0.239*** (0.079)
가구원 수	0.005 (0.035)	0.014 (0.021)	-0.007 (0.031)	0.010 (0.032)	-0.013 (0.020)	0.009 (0.016)	-0.052* (0.024)	0.010 (0.021)	0.002 (0.011)	0.026 (0.024)
아동 수	-0.062 (0.045)	-0.045 (0.033)	0.001 (0.045)	-0.087+ (0.047)	-0.017 (0.015)	-0.054* (0.023)	0.118** (0.043)	-0.077* (0.036)	-0.084*** (0.019)	-0.044 (0.037)
교육수준 (준거집단=초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0.202* (0.091)	0.170 (0.131)	0.112 (0.079)	0.132+ (0.080)	0.218* (0.110)	0.240+ (0.129)	0.301*** (0.049)	0.306** (0.094)	0.201*** (0.030)	0.216** (0.068)
고등교육 이상	0.075 (0.076)	0.239+ (0.134)	0.580*** (0.089)	0.396*** (0.079)	0.477*** (0.113)	0.347** (0.132)	0.552*** (0.060)	0.598*** (0.099)	0.359*** (0.052)	0.559*** (0.083)
종사상 지위 (준거집단=플터임 근로자)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063 (0.123)	0.180* (0.083)	0.148 (0.103)	0.137 (0.086)	0.206** (0.078)	0.252*** (0.068)	0.181* (0.084)	0.126+ (0.073)	0.048 (0.054)	0.341*** (0.092)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052 (0.132)	-0.206* (0.087)	-0.410** (0.143)	-0.230* (0.109)	-0.284*** (0.092)	-0.380*** (0.096)	-0.286*** (0.088)	-0.247* (0.114)	0.046 (0.051)	-0.127 (0.167)
자영업자	0.118 (0.126)	0.168* (0.075)	0.573*** (0.120)	0.176* (0.080)	0.086 (0.083)	0.115+ (0.062)	-0.184* (0.087)	0.047 (0.107)	-0.025 (0.033)	0.269*** (0.081)
실업자	-1.153*** (0.284)	-0.527*** (0.105)	-0.660*** (0.146)	-0.359** (0.127)	-0.856*** (0.145)	-0.449*** (0.110)	-0.961*** (0.120)	-0.181 (0.213)	-0.222** (0.077)	-0.484*** (0.128)

구분	(21) 아이슬란드	(22) 아일랜드	(23) 에스토니아	(24) 영국	(25) 오스트리아	(26) 이스라엘	(27) 이탈리아	(28) 일본	(29) 중국	(30) 체코
비경제활동인구	-0.064 (0.109)	0.104+ (0.058)	-0.041 (0.074)	0.151* (0.065)	0.058 (0.057)	0.058 (0.051)	-0.012 (0.062)	0.298*** (0.063)	0.138*** (0.036)	0.196*** (0.056)
로그 가구 월소득	0.169*** (0.037)	0.106*** (0.020)	0.437*** (0.043)	0.114*** (0.021)	0.187*** (0.025)	0.308*** (0.047)	0.206*** (0.027)	0.279*** (0.032)	0.321*** (0.012)	0.386*** (0.052)
사회적 지지체계	1.038*** (0.251)	0.824*** (0.138)	0.614*** (0.089)	0.467*** (0.125)	0.529*** (0.095)	0.629*** (0.080)	0.815*** (0.093)	0.719*** (0.078)	0.624*** (0.033)	0.595*** (0.080)
기부	0.224** (0.073)	0.170*** (0.049)	0.319*** (0.059)	0.117* (0.052)	0.290*** (0.044)	0.175*** (0.036)	0.263*** (0.047)	0.227*** (0.056)	0.088* (0.039)	0.239*** (0.047)
자원봉사	0.262*** (0.069)	0.174*** (0.046)	0.284*** (0.068)	0.220*** (0.049)	0.167*** (0.047)	0.146*** (0.043)	0.233*** (0.056)	0.232*** (0.060)	0.224*** (0.057)	0.109+ (0.059)
도난경험	-0.091 (0.121)	-0.368*** (0.086)	-0.061 (0.084)	-0.380*** (0.089)	-0.345*** (0.080)	-0.237*** (0.066)	0.026 (0.068)	-0.162+ (0.092)		-0.257*** (0.060)
재계 부패인식	-0.085 (0.078)	-0.114* (0.050)	-0.162* (0.066)	-0.129* (0.055)	-0.113* (0.052)	-0.125* (0.050)	-0.266** (0.082)	-0.056 (0.056)		0.009 (0.071)
정치 부패인식	-0.296*** (0.081)	-0.215*** (0.051)	-0.216** (0.068)	-0.179*** (0.054)	-0.167** (0.051)	-0.021 (0.051)	-0.208** (0.080)	-0.188** (0.058)		0.025 (0.082)
선택의 자유	0.804*** (0.163)	0.705*** (0.080)	0.503*** (0.070)	0.689*** (0.073)	0.646*** (0.085)	0.417*** (0.041)	0.334*** (0.047)	0.673*** (0.058)		0.608*** (0.057)
긍정적 미래 전망	0.369*** (0.071)	0.510*** (0.046)	0.369*** (0.058)	0.437*** (0.048)	0.323*** (0.045)	0.541*** (0.037)	0.623*** (0.048)	0.849*** (0.053)	0.923*** (0.033)	0.513*** (0.048)
국가 고정효과	X	X	X	X	X	X	X	X	X	X
연도 고정효과	O	O	O	O	O	O	O	O	O	O
국가별 시간 추세	X	X	X	X	X	X	X	X	X	X
상수	5.387*** (0.493)	5.097*** (0.346)	2.759*** (0.430)	5.029*** (0.335)	5.188*** (0.328)	4.808*** (0.434)	5.005*** (0.359)	2.709*** (0.403)	1.755*** (0.157)	3.253*** (0.470)
유효표본	2773	8980	5842	7350	8890	9666	9599	8035	43876	8448
조정 R ²	0.237	0.142	0.285	0.159	0.153	0.203	0.206	0.210	0.179	0.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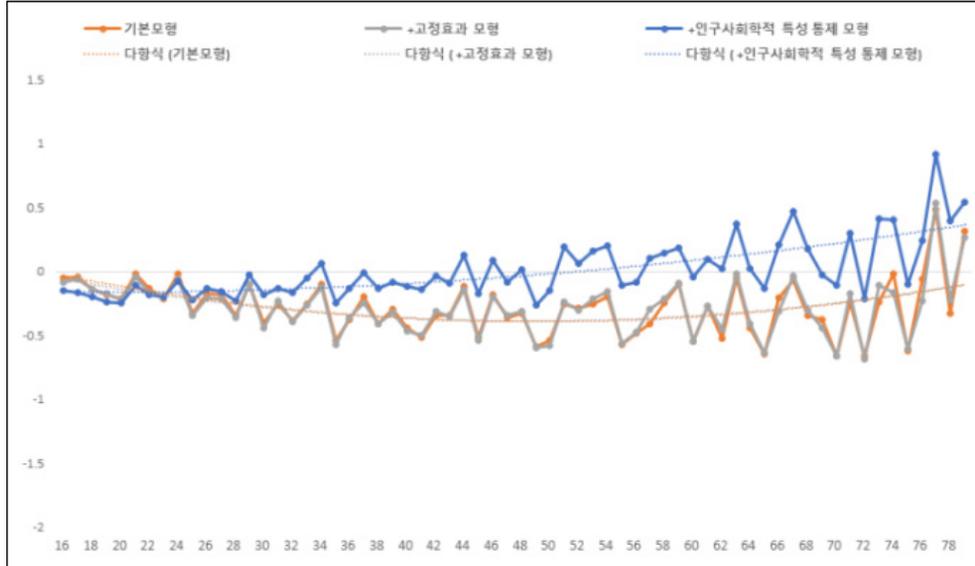
구분	(31) 칠레	(32) 캐나다	(33) 콜롬비아	(34) 타키	(35) 포르투갈	(36) 폴란드	(37) 프랑스	(38) 핀란드	(39) 헝가리	(40) 호주
여성 더미	0.057 (0.049)	0.126* (0.050)	0.142** (0.054)	0.315*** (0.086)	0.140** (0.050)	0.147** (0.046)	-0.054 (0.043)	0.307*** (0.036)	0.029 (0.047)	0.110* (0.048)
만나이	-0.048*** (0.008)	-0.011 (0.008)	-0.037*** (0.009)	-0.022 (0.017)	-0.067*** (0.009)	-0.041*** (0.009)	-0.015+ (0.008)	-0.005 (0.007)	-0.084*** (0.008)	-0.035*** (0.007)
만나이제곱	0.040*** (0.008)	0.020** (0.008)	0.042*** (0.010)	0.028 (0.019)	0.058*** (0.009)	0.033*** (0.008)	0.016+ (0.008)	0.005 (0.008)	0.073*** (0.008)	0.048*** (0.006)
건강문제	-0.527*** (0.062)	-0.694*** (0.074)	-0.531*** (0.074)	-0.119 (0.118)	-0.454* (0.071)	-0.582*** (0.061)	-0.414*** (0.066)	-0.680*** (0.050)	-0.529*** (0.059)	-0.669*** (0.067)
혼인상태 (준거집단=유배우)										
이혼·별거·사별	-0.199** (0.073)	-0.349*** (0.079)	0.062 (0.089)	-0.406* (0.161)	-0.274** (0.087)	-0.270*** (0.076)	-0.190** (0.073)	-0.336*** (0.062)	-0.274*** (0.063)	-0.377*** (0.077)
미혼	-0.261*** (0.063)	-0.425*** (0.074)	0.091 (0.065)	-0.180 (0.128)	-0.013 (0.082)	-0.217** (0.078)	-0.094 (0.068)	-0.243*** (0.056)	-0.179* (0.079)	-0.171* (0.074)
가구원 수	-0.011 (0.018)	-0.021 (0.031)	-0.008 (0.019)	-0.055 (0.035)	-0.008 (0.023)	-0.005 (0.023)	0.054* (0.024)	0.028 (0.034)	-0.071* (0.029)	0.012 (0.024)
아동 수	-0.058+ (0.030)	-0.084+ (0.051)	-0.046 (0.031)	-0.024 (0.066)	0.004 (0.029)	-0.025 (0.043)	-0.042 (0.040)	-0.021 (0.055)	0.026 (0.040)	-0.022 (0.036)
교육수준 (준거집단=초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0.393*** (0.066)	0.227 (0.147)	0.609*** (0.076)	0.360*** (0.107)	0.451*** (0.068)	0.262** (0.087)	0.407*** (0.086)	0.103+ (0.052)	0.358*** (0.068)	0.300+ (0.158)
고등교육 이상	0.715*** (0.083)	0.326* (0.149)	1.067*** (0.090)	0.903*** (0.128)	0.931*** (0.075)	0.526*** (0.097)	0.747*** (0.092)	0.240*** (0.062)	0.927*** (0.079)	0.403* (0.161)
종사상 지위 (준거집단=풀타임 근로자)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010 (0.090)	0.151+ (0.089)	0.106 (0.106)	0.254 (0.162)	-0.041 (0.140)	0.233+ (0.135)	-0.141 (0.107)	0.135+ (0.073)	0.418*** (0.144)	0.253*** (0.073)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0.272** (0.095)	-0.212+ (0.117)	-0.304** (0.096)	0.135 (0.222)	-0.284* (0.129)	-0.460*** (0.139)	-0.325*** (0.115)	-0.191+ (0.103)	-0.435* (0.197)	-0.200+ (0.105)
자영업자	-0.171+ (0.088)	0.142 (0.105)	-0.215** (0.082)	0.134 (0.130)	0.086 (0.088)	0.111 (0.098)	0.018 (0.098)	-0.015 (0.075)	0.460*** (0.112)	0.065 (0.092)
실업자	-0.348*** (0.110)	-0.540*** (0.148)	-0.378*** (0.106)	-0.189 (0.177)	-0.673*** (0.115)	-0.529*** (0.116)	-0.658*** (0.114)	-0.251* (0.100)	-0.619*** (0.137)	-0.256+ (0.145)

구분	(31) 칠레	(32) 캐나다	(33) 콜롬비아	(34) 터키	(35) 포르투갈	(36) 폴란드	(37) 프랑스	(38) 핀란드	(39) 헝가리	(40) 호주
비경제활동인구	0.039 (0.064)	0.021 (0.069)	0.169* (0.075)	0.225* (0.104)	-0.034 (0.068)	0.073 (0.060)	-0.051 (0.055)	-0.085 (0.054)	-0.035 (0.065)	0.093 (0.068)
로그 가구 월소득	0.106*** (0.022)	0.113*** (0.025)	0.218*** (0.023)	0.181*** (0.049)	0.325*** (0.032)	0.318*** (0.034)	0.190*** (0.035)	0.198*** (0.036)	0.318*** (0.034)	0.159*** (0.026)
사회적 지지체계	0.617*** (0.072)	0.885*** (0.136)	0.531*** (0.090)	1.015*** (0.118)	0.725*** (0.089)	0.698*** (0.081)	0.787*** (0.103)	0.706*** (0.106)	0.828*** (0.073)	0.842*** (0.129)
기부	0.107* (0.048)	0.207*** (0.054)	0.117+ (0.066)	-0.007 (0.097)	0.308*** (0.060)	0.086 (0.053)	0.354*** (0.047)	0.129*** (0.036)	0.288*** (0.057)	0.175*** (0.051)
자원봉사	0.104 (0.067)	0.151** (0.052)	-0.059 (0.070)	0.197 (0.122)	0.064 (0.066)	0.099 (0.075)	0.150** (0.048)	0.119** (0.037)	0.066 (0.081)	0.208*** (0.047)
도난경험	-0.258*** (0.064)	-0.154+ (0.081)	-0.098 (0.061)	-0.054 (0.127)	-0.282*** (0.080)	-0.025 (0.091)	-0.132* (0.065)	-0.280*** (0.073)	-0.156* (0.076)	-0.307*** (0.081)
세계 부패인식	-0.154* (0.071)	-0.224*** (0.063)	-0.234*** (0.080)	-0.260* (0.104)	-0.276* (0.130)	-0.151* (0.070)	-0.175*** (0.050)	-0.031 (0.058)	-0.026 (0.098)	-0.130* (0.063)
정치 부패인식	-0.056 (0.068)	-0.088 (0.061)	0.024 (0.091)	-0.115 (0.097)	-0.264** (0.094)	-0.104 (0.070)	-0.157** (0.051)	-0.205*** (0.055)	-0.234** (0.086)	-0.168** (0.063)
선택의 자유	0.444*** (0.053)	0.733*** (0.121)	0.235*** (0.065)	0.419*** (0.084)	0.469*** (0.066)	0.471*** (0.062)	0.422*** (0.062)	1.061*** (0.106)	0.470*** (0.049)	0.803*** (0.119)
긍정적 미래 전망	0.795*** (0.051)	0.719*** (0.054)	1.025*** (0.060)	1.022*** (0.086)	0.594*** (0.062)	0.594*** (0.051)	0.531*** (0.051)	0.200*** (0.039)	0.677*** (0.061)	0.566*** (0.051)
국가 고정효과	X	X	X	X	X	X	X	X	X	X
연도 고정효과	O	O	O	O	O	O	O	O	O	O
국가별 시간 추세	X	X	X	X	X	X	X	X	X	X
상수	5.945*** (0.303)	4.742*** (0.369)	4.058*** (0.312)	2.997*** (0.581)	3.676*** (0.385)	3.662*** (0.359)	3.791*** (0.370)	4.217*** (0.350)	3.781*** (0.351)	4.396*** (0.396)
유효표본	10247	6746	10644	4766	10204	7640	8669	8559	8345	8008
조정 R ²	0.177	0.229	0.155	0.177	0.246	0.210	0.182	0.223	0.287	0.206

주: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Polled OLS는 분석대상국가 전수임. 부패인식 등 일부 조사 결과가 없는 베트남과 중국은 포함하지 않음. 괄호 안 수치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
 건한 표준오차임. +p<0.1 * p<0.05 **p<0.01 ***p<0.001
 자료: 캠덤 웰드 홀 원자료 연구진 분석

부록 2.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민의 연령과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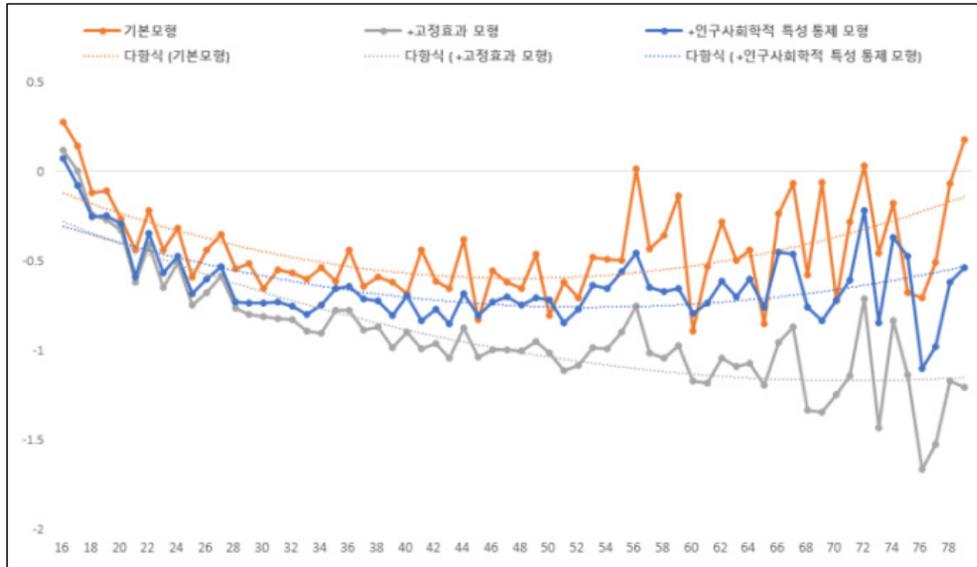
[부그림 2-1] 남아시아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5~2021년 유효표본 86,661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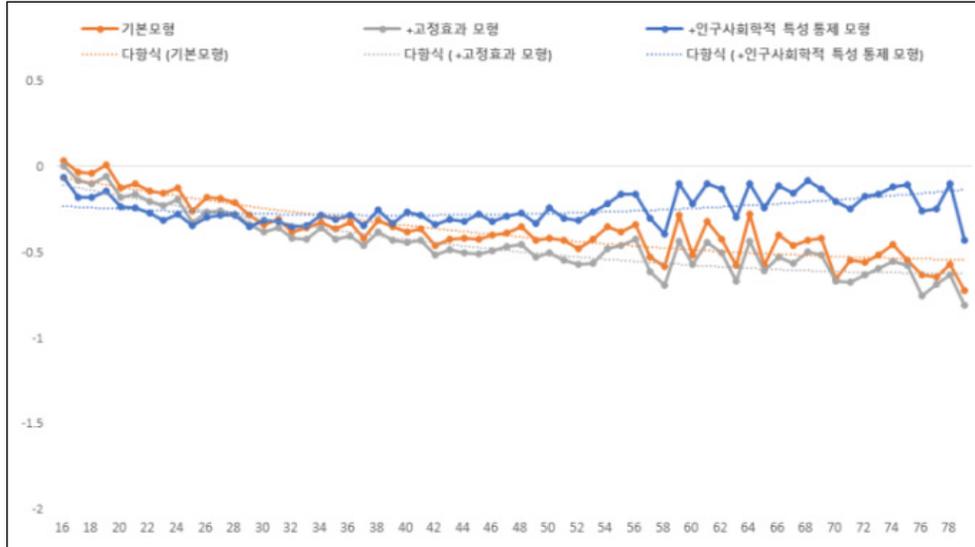
[부그림 2-2]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5~2020년 유효표본 63,758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튀니지, 팔레스타인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부그림 2-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국민의 연령별 삶의 평가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만 나이(15-100세)를 더미변수로 투입한 회귀변수의 연령별 회귀계수임. 준거 나이는 15세임. 80세 이상의 회귀계수는 그림에서 생략함.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국가별 연도 추세,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수, 가구소득, 성별, 만성질환,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적 지지, 기부, 자원봉사, 도난 경험, 재계 부패인식, 정계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미래 전망을 통제하였음.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값이 존재하는 2006~2021년 유효표본 268,318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다항식은 개별 모형의 추세선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함. 분석대상 국가는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마우리티우스,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닌,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브라자빌 콩고, 브룬디, 세네갈,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스,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 공화국, 탄자니아, 토고임.

자료: 갤럽 월드 폴 원자료 연구진 분석

부록 3-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IRB 심사결과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문서번호	제2021-032호	발송일자	2021.06.17.	
연구과제명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과제번호	[합동21-001-00]			
연구책임자	(성명) 이태진	(소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위) 선임연구위원		
심사일지	2021.06.08.~2021.06.17.	심사형태	신속심사	
심사결과	승인 <input type="checkbox"/>	시정승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심의 <input type="checkbox"/>	부결 <input type="checkbox"/>
총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2021.06.17부터 2022.06.16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				
심사의견	<input type="checkbox"/> 심사 결과, 불일과 같이 심사의견 반영을 전제로 '시정승인' 의견을 드립니다. [상세 심사의견 불일 참조] ① 조사자료 공개에 관한 안내 필요 ② 조사참여 소요기간 안내 필요 ③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명시 필요 ④ 연구의 자발적 참여 결정에 관한 내용 필요 등			

모든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구자께서는 제출하신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실 경우 다시 심의를 진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구윤리를 위하여 관련부처가 필요시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2021년 06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직인)



A. 일반사항

* 2021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A-1. 선생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태어난 연도	(4) 교육수준	(5) 혼인상태	(6) 장애 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 졸업(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공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중학교 재학이나 공퇴는 ②초등학교 졸업 기재	① 유희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① 비해당(비장애인) ②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④ 비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준의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기준의 4-6급 * 중복장애의 경우 '심한 장애'로 응답
(7) 만성질환 보유 여부	(8) 경제활동 참여 상태	(9) 직업	(10) 고용형태		
① 비해당(만성질환 없음) ② 3개월 미만 투병-투약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④ 6개월 이상 투병-투약 * 지속적인 투병-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기간은 최초 투병-투약 시점부터 산정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생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 (구부, 학생, 은퇴후 등) * 실업자는 2021.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고지휘동응인 경우임	① 비해당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 문(8)의 ①-⑩응답자만 응답 * 문(8)의 ①-⑩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① 비해당 ① 전일제(풀타임) ② 시간제(파트타임) * 문(8)의 ①-⑩응답자 (임금근로자)만 응답 * 문(8)의 ④-⑩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 전일제란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내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동안 근로 * 시간제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가 해당		

문A-2. 선생님 가구 구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2021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가구원수
(1)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 수(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명
(2) 가구원 중 노인 수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6년 5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3) 가구원 중 장애인 수 * 중복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은 제외함	명
(4) 가구원 중 아동 수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3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문A-3. 선생님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아닌, 현재 주거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응답합니다.
 * 2021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동거인 번호	동거인과의 관계	경제활동 참여 상태
1	① 비핵당 (1인 가구) ① 가족 (직제가족만 해당) ② 친인척 (직제가 아닌 가족) ③ 연인, 친구 등 지인 ④ 기타 _____ *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아닌 현재 주거하고 있는 곳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응답 *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배근로, 풍류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무 등) * 실업자는 2021.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2		
3		
4		
5		
6		
7		
8		
9		

문A-4. **【문A-1-(10)에서 ①~⑥ 응답자만】** 선생님의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 1주 평균 시간

* 행동한 목적에 따라 시간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 등 일 관련 목적으로 한 경우는 '일'로 근로시간에 합산해주시고, 교제의 목적으로 한 경우는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분류해 제외하시면 됩니다.

문A-4-1. 선생님께서 평일 집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왕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중 평일의 1일 평균값을 응답해 주십시오.

■ 1일 평균 분

문A-5. 현재 선생님께서 종사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 ①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
- ② 일의 수준이 높다
- ③ 일의 수준이 알맞다
- ④ 일의 수준이 낮다
- ⑤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문A-6. **【모든 응답자】** 선생님은 지난 3년(2018년~현재) 동안 원치 않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모름

B. 가구 경제상태

- * 응답자 대상 문항은 본인이 직접 응답하되, 가구소득과 생활비는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 단위는 만원으로 작성하되 반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예: 11만 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B-1. 지난 3개월(2021.3.1.~2021.5.31.) 동안 선생님 가구의 소득과 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1) 가구 총 소득	지난 3개월(2021.3.1.~2021.5.31.)동안 선생님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경상소득 기준) * 경상소득= 근로소득(임금)+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사업소득은 순소득(총소득-경비)으로 계산 *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 이전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공적이전소득과 부모·자녀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을 포함	월	백	십	원	만원
(2) 가구 공적이전 소득	지난 3개월(2021.3.1.~2021.5.31.)동안 선생님 <u>가구</u> 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얼마입니까? *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급여를 모두 포함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산	월	백	십	원	만원
(2) 가구 총 생활비	지난 3개월(2021.3.1.~2021.5.31.) 동안 선생님 <u>가구</u> 에서 지출하신 월평균 총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총생활비는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기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로 구성됩니다. * 가계생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저금, 저축성보험료, 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도 제외합니다. - 단, 매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할부금, 부채상환금은 포함합니다.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 2021년 3월 1,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 할부시 -월 50만원 지출 * 친인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각종 현물(식료품, 이류, 난방용품 등)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현물 서비스 및 비우선 형태의 지원(경부보육료 무상급식 등)은 제외합니다.	월	백	십	원	만원

문B-2. 지난 3개월(2021.3.1.~2021.5.31.) 동안 선생님 본인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1인 가구의 경우(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인이 없는 경우) 응답하지 않습니다.
- * 단위는 만원으로 작성하되 반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예: 11만 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1) 응답자 (개인) 총 소득	지난 3개월(2021.3.1.~2021.5.31.)동안 선생님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시장소득 기준) * 시장소득= 근로소득(임금)+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 사업소득은 순소득(총소득-경비)으로 계산 *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 사적이전소득은 부모·자녀로부터 받거나 민간부문으로부터 받는 현금 또는 현물	월	백	십	원	만원

※ 다음 문항은 선생님의 사회 및 계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문C-13.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C-14.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얼마만큼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C-15.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C-16.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D. 일상재구성

문B-1. 귀하는 어제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낮잠을 포함해 응답해주세요.

■ 어제 시간 분

CAPi 표지

전체 응답자를 3개 집단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오전/오후/저녁 중 응답자 1명당 1개 시간대만 질문
(단, 최종 응답한 3개 집단의 크기는 동일해야 함)

문B-2. 귀하는 어제 (오전/오후/저녁)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요 활동을 한 일화별 시간대별로 응답해주세요.

오전(~12시)

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있었던 일화부터 떠올려주세요. 최대 5개까지 응답해주세요.

예모	일화
1.	
2.	
3.	
4.	
5.	

첫 번째 일화는 몇 시에 시작되었습니까? 가능한 정확한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일화는 _____ 시 _____ 분에 시작되어 _____ 시 _____ 분에 종료되었다.

다음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일화를 자세히 떠올려 보기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귀하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누구와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2) 귀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	일터	차 안	기타(_____)
①	②	③	④

(3) 귀하는 혼자였습니까?

예, 혼자였습니다	아니오, 누군가와 있었습니다
①	②

(4) 귀하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오	한 사람	두 사람 이상
①	②	③

- (5) 귀하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거나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면 누구였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분을 표시해주세요.

배우자/연인	자녀	부모	다른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고객, 학생	직장상사	기타 (: _____)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6)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체 목록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되는 모든 활동을 표시해주세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출퇴근/이동하고 있었다	①	②	② 일하고 있었다	①	②
③ 집안일/식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①	②	④ 자녀/부모를 돌보고 있었다	①	②
⑤ 쇼핑/장보고 있었다	①	②	⑥ 먹고 있었다	①	②
⑦ 물단장을 하고 있었다	①	②	⑧ 통화하고 있었다	①	②
⑨ 친구/동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①	②	⑩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①	②
⑪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①	②	⑫ 수면하고 있었다	①	②
⑬ TV를 보고/음악을 듣고 있었다	①	②	⑭ 컴퓨터/인터넷을 하고 있었다	①	②
⑮ 운동하고 있었다	①	②	⑯ 기타 (: _____)	①	②

- (7) 이 일화가 일어난 시간에 귀하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0은 해당 정서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10점은 해당 정서를 매우 강하게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0에서 10 사이 숫자 중 귀하에게 경험한 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숫자를 응답해주세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전혀 못 느꼈다 ←————→ 보통 ←————→ 매우 강하게 느꼈다 </div>										
① 행복한	0	1	2	3	4	5	6	7	8	9	10
② 괴로운	0	1	2	3	4	5	6	7	8	9	10
③ 스트레스 받은	0	1	2	3	4	5	6	7	8	9	10
④ 슬픈	0	1	2	3	4	5	6	7	8	9	10
⑤ 고통스러운	0	1	2	3	4	5	6	7	8	9	10
⑥ 의미 있는	0	1	2	3	4	5	6	7	8	9	10
⑦ 외로운	0	1	2	3	4	5	6	7	8	9	10
⑧ 불안한	0	1	2	3	4	5	6	7	8	9	10

☞ **오후 일화에 대해 조사**

오후(12시~6시)

어제 낮 12시부터 6시까지 있었던 일화부터 떠올려주세요. 최대 5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메모	
일화	
1.	
2.	
3.	
4.	
5.	

첫 번째 일화는 몇 시에 시작되었습니까? 가능한 정확한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7) 문항 세트 제시

☞ **저녁 일화에 대해 조사**

저녁(6시~)

어제 6시부터 갈 때까지 있었던 일화부터 떠올려주세요. 최대 5개까지 응답해주세요.

메모	
일화	
1.	
2.	
3.	
4.	
5.	

첫 번째 일화는 몇 시에 시작되었습니까? 가능한 정확한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7) 문항 세트 제시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부록 3-3.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참여 동의서

조사대상자 번호

응답자ID	
-------	--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안)

<p>■ 본인은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p> <p>■ 본인은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p> <p>[조사·이용 목적] ①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 파악 ②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p> <p>[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소득, 생활비 등 설문문항 항목</p> <p>[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및 부호화 처리됩니다.</p>
<p>■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p> <p>■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인: _____ (인)</p>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록 3-4.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조정

1. 모집단 분석

□ 집단 정의

- 목표 모집단: 2021년 현재 만 19세 이상~60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 성인
- 조사 모집단: 조사를 위해 모집된 ㈜엠브레인퍼블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60세 미만 온라인 패널

2. 모집단

- 최신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 자료를 모집단 비율로 활용(2021년 6월 말 기준)
- 2021년 6월 말 기준 만19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수는 30,895,543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9.4%, 경기도가 27.2%를 차지하고 있음

〈부표 3-1〉 2021년 6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모집단의 인구 규모

(단위 : 명)

구분	합계	남성				여성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전국	30,895,543	3,819,497	3,500,737	4,178,536	4,350,445	3,461,041	3,287,335	4,041,808	4,256,144
서울	6,003,874	743,347	727,357	744,902	743,420	791,915	728,009	758,411	766,513
부산	1,933,213	236,887	211,072	255,182	272,092	218,821	200,984	250,941	287,234
대구	1,431,432	182,526	150,980	186,596	206,719	159,779	138,337	191,422	215,073
인천	1,817,919	222,128	207,679	245,819	254,664	204,310	193,755	234,636	254,928
광주	881,193	117,819	93,653	118,291	116,299	107,884	89,522	119,834	117,891
대전	893,248	119,385	100,259	116,591	119,735	108,365	91,454	117,285	120,174
울산	694,400	86,019	78,935	94,749	105,313	67,249	69,461	90,775	101,899
세종	219,554	21,200	29,930	35,768	24,260	20,248	31,388	34,551	22,209
경기	8,398,223	1,029,071	980,791	1,167,514	1,139,132	926,674	919,433	1,127,569	1,108,039
강원	842,240	107,978	85,976	113,383	136,626	84,922	77,646	107,611	128,098
충북	914,365	118,045	102,448	123,676	139,032	95,117	90,066	114,841	131,140

구분	합계	남성				여성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충남	1,190,034	144,037	142,098	174,050	179,102	117,903	121,620	152,275	158,949
전북	976,948	123,568	95,730	135,999	154,800	105,602	89,710	128,056	143,483
전남	967,905	120,942	95,917	136,838	168,207	96,070	86,301	119,243	144,387
경북	1,427,765	173,170	152,564	197,873	236,333	133,603	132,963	181,810	219,449
경남	1,906,908	226,166	204,210	273,754	295,652	180,608	186,211	258,023	282,284
제주	396,322	47,209	41,138	57,551	59,059	41,971	40,475	54,525	54,394

○ 한편, 본 조사의 조사 모집단인 ㈜엠브레인퍼블릭이 보유한 만 19세 이상~60세 미만 패널 현황은 총 1,316,850으로 본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패널을 보유하고 있음(<표 2> 참조)

<부표 3-2> 2021년 6월 기준 ㈜엠브레인퍼블릭 보유 만19세~60세 미만 패널 규모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성				여성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전국	1,316,850	219,823	160,257	115,654	52,295	288,393	260,104	156,029	64,295
서울	364,315	48,285	44,305	35,081	15,434	72,917	78,652	49,164	20,477
부산	88,283	14,388	11,163	8,637	3,668	17,854	17,861	10,604	4,108
대구	63,453	11,957	7,884	5,592	2,671	14,173	11,350	6,862	2,964
인천	83,674	13,697	10,200	6,714	3,062	19,332	16,875	9,688	4,106
광주	38,881	7,319	4,673	3,417	1,673	8,897	6,798	4,331	1,773
대전	42,877	7,517	5,616	3,768	1,859	9,424	8,159	4,609	1,925
울산	24,634	4,948	3,048	1,899	883	5,474	4,726	2,631	1,025
세종	4,233	768	547	400	120	893	812	550	143
경기	321,389	53,482	37,337	26,858	12,750	72,851	62,452	39,138	16,521
강원	30,559	6,070	3,763	2,605	1,179	7,014	5,526	3,120	1,282
충북	30,475	5,832	4,164	2,584	1,149	6,992	5,696	2,940	1,118
충남	37,737	7,625	4,751	3,056	1,260	9,058	7,011	3,571	1,405
전북	35,172	7,261	4,078	2,900	1,249	8,328	6,509	3,441	1,406
전남	29,585	6,581	3,546	2,182	1,029	7,135	5,079	2,797	1,236
경북	47,132	9,423	6,226	4,054	1,654	10,623	8,547	4,759	1,846
경남	63,649	12,704	7,713	5,075	2,205	14,748	11,957	6,706	2,541
제주	10,802	1,966	1,243	832	450	2,680	2,094	1,118	419

3. 표본설계

□ 기본방향

- 주요 변수별(성, 연령, 지역 등) 비교분석 결과에서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진행

□ 표본설계 방법

- 통계조사에서 표본 크기는 가용 조사인력 및 예산, 조사 소요시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표본오차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며, 그에 따라 시도별 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비례배분 방식으로 표본 배분 진행
-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는 전체 예산과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표본 크기를 2,000명으로 결정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오차의 한계는 $\pm 2.2\%p$ 수준으로 안정적인 통계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부표 3-3〉 표본배분

(단위 : 명)

구분	합계	오차의 한계 (예상)	남성				여성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전국	2,000	$\pm 2.2\%p$	248	226	271	282	223	214	262	274
서울	388	$\pm 5.0\%p$	48	47	48	48	51	47	49	50
부산	125	$\pm 8.8\%p$	15	14	16	18	14	13	16	19
대구	92	$\pm 10.2\%p$	12	10	12	13	10	9	12	14
인천	116	$\pm 9.1\%p$	14	13	16	16	13	13	15	16
광주	58	$\pm 12.9\%p$	8	6	8	7	7	6	8	8
대전	59	$\pm 12.8\%p$	8	6	8	8	7	6	8	8

구분	합계	오차의 한계 (예상)	남성				여성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울산	45	±14.6%p	6	5	6	7	4	4	6	7
세종	13	±27.2%p	1	2	2	2	1	2	2	1
경기	544	±4.2%p	67	63	76	74	60	59	73	72
강원	54	±13.3%p	7	6	7	9	5	5	7	8
충북	59	±12.8%p	8	7	8	9	6	6	7	8
충남	77	±11.2%p	9	9	11	12	8	8	10	10
전북	63	±12.3%p	8	6	9	10	7	6	8	9
전남	63	±12.3%p	8	6	9	11	6	6	8	9
경북	93	±10.2%p	11	10	13	15	9	9	12	14
경남	124	±8.8%p	15	13	18	19	12	12	17	18
제주	27	±18.9%p	3	3	4	4	3	3	4	3

□ 표본추출

- 표본 추출 틀은 (주)엠브레인퍼블릭의 2021년 6월 말 기준 전체 142만 패널 중 만 19세~60세 미만 패널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목표표본의 5배수 단위로 표본 리스트를 구성하여 무작위 추출로 조사 대상을 선정

4. 가중치 추정

- 본 조사의 최종 응답 사례 수는 2,089명이며, 본 조사의 설계 가중치는 각 층에 대한 표본 추출률의 역수를 활용해서 산출(〈표 4, 5〉 참조)

$$\text{설계가중치} = \frac{N_{ijk}}{n_{ijk}}$$

39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부표 3-4〉 최종 조사완료 결과

(단위 : 명)

구분	합계	남성				여성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전국	2,089	242	230	287	307	232	225	283	283
서울	393	46	44	52	56	48	45	54	48
부산	129	16	15	16	17	15	13	16	21
대구	94	10	9	12	13	12	11	12	15
인천	119	14	11	17	15	14	14	17	17
광주	57	6	5	8	7	7	6	9	9
대전	68	9	7	9	10	8	6	10	9
울산	49	7	5	7	8	4	5	7	6
세종	21	2	3	3	3	2	3	3	2
경기	567	66	67	80	81	61	61	79	72
강원	57	8	6	7	11	6	6	7	6
충북	63	7	8	8	11	7	7	6	9
충남	78	9	8	10	11	9	8	12	11
전북	68	8	7	8	9	8	7	10	11
전남	68	7	7	11	13	5	6	9	10
경북	96	9	11	13	19	9	10	11	14
경남	133	15	14	21	20	13	13	18	19
제주	29	3	3	5	3	4	4	3	4

〈부표 3-5〉 셀별 가중치 적용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전국	1.00932	0.97121	0.93690	0.94090	0.90846	0.90269	0.94024	0.93013
서울	1.04348	1.06818	0.92308	0.85714	1.06250	1.04444	0.90741	1.04167
부산	0.93750	0.93333	1.00000	1.05882	0.93333	1.00000	1.00000	0.90476
대구	1.20000	1.11111	1.00000	1.00000	0.83333	0.81818	1.00000	0.93333
인천	1.00000	1.18182	0.94118	1.06667	0.92857	0.92857	0.88235	0.94118
광주	1.33333	1.2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0.88889	0.88889
대전	0.88889	0.85714	0.88889	0.80000	0.87500	1.00000	0.80000	0.88889
울산	0.85714	1.00000	0.85714	0.87500	1.00000	0.80000	0.85714	1.16667
세종	0.50000	0.66667	0.66667	0.66667	0.50000	0.66667	0.66667	0.50000
경기	1.01515	0.94030	0.95000	0.91358	0.98361	0.96721	0.92405	1.00000
강원	0.87500	1.00000	1.00000	0.81818	0.83333	0.83333	1.00000	1.33333
충북	1.14286	0.87500	1.00000	0.81818	0.85714	0.85714	1.16667	0.88889
충남	1.00000	1.12500	1.10000	1.09091	0.88889	1.00000	0.83333	0.90909
전북	1.00000	0.85714	1.12500	1.11111	0.87500	0.85714	0.80000	0.81818
전남	1.14286	0.85714	0.81818	0.84615	1.20000	1.00000	0.88889	0.90000
경북	1.22222	0.90909	1.00000	0.78947	1.00000	0.90000	1.09091	1.00000
경남	1.00000	0.92857	0.85714	0.95000	0.92308	0.92308	0.94444	0.94737
제주	1.00000	1.00000	0.80000	1.33333	0.75000	0.75000	1.33333	0.75000

부록 3-5.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통제변수 회귀분석 결과

〈부표 3-6〉 통제변수 및 정서적 경험 회귀분석 결과

구분	(1) 행복한	(2) 의미 있는	(3) 피곤한	(4) 스트레스받 은	(5) 슬픈	(6) 고통스러운	(7) 외로운	(8) 불안한
성별	0.027 (0.058)	-0.104 (0.065)	0.419*** (0.063)	0.112 (0.071)	-0.473*** (0.067)	-0.382*** (0.069)	-0.662*** (0.068)	-0.589*** (0.067)
연령대 (만 나이)	0.063+ (0.034)	0.199*** (0.038)	-0.351*** (0.036)	-0.018 (0.041)	0.154*** (0.039)	0.071+ (0.040)	0.258*** (0.039)	0.161*** (0.039)
지역1 (수도권/비수도권)	0.082 (0.059)	-0.033 (0.066)	-0.037 (0.063)	-0.283*** (0.071)	-0.160* (0.067)	-0.085 (0.069)	-0.112 (0.068)	-0.161* (0.068)
지역2 (대/중소/농어촌)	0.029 (0.050)	0.079 (0.055)	-0.066 (0.055)	-0.036 (0.061)	-0.001 (0.058)	-0.011 (0.059)	0.031 (0.058)	0.003 (0.058)
교육수준	0.447*** (0.083)	0.311*** (0.092)	-0.306*** (0.090)	-0.269** (0.102)	-0.517*** (0.100)	-0.444*** (0.102)	-0.500*** (0.103)	-0.373*** (0.100)
혼인상태	-0.233*** (0.038)	-0.251*** (0.042)	0.008 (0.039)	0.126** (0.045)	0.207*** (0.043)	0.258*** (0.045)	0.284*** (0.043)	0.250*** (0.044)
균등화 가구소득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경제활동상태	-0.005 (0.099)	0.122 (0.112)	-0.170 (0.106)	-0.038 (0.126)	0.094 (0.113)	-0.059 (0.116)	0.293* (0.120)	0.293* (0.118)
고용형태	0.098 (0.107)	0.238* (0.119)	-0.165 (0.118)	-0.198 (0.137)	0.035 (0.125)	-0.082 (0.128)	0.059 (0.132)	-0.092 (0.129)
수면시간	0.003*** (0.000)	0.001*** (0.000)	-0.004*** (0.000)	-0.004*** (0.000)	-0.004*** (0.000)	-0.004*** (0.000)	-0.003*** (0.000)	-0.004*** (0.000)
상수	3.119*** (0.340)	3.330*** (0.391)	9.174*** (0.381)	7.155*** (0.429)	5.586*** (0.424)	5.716*** (0.425)	4.604*** (0.426)	5.170*** (0.417)
N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adj. R-sq	0.041	0.032	0.055	0.028	0.044	0.036	0.050	0.047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p<0.1, *p<0.05, **p<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부록 3-6. 「2021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기초분석

〈부표 3-7〉 응답자 일반사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체		2,089	100.00
성별	남성	1,073	51.35
	여성	1,016	48.65
연령	19~29세	492	23.55
	30대	460	22.00
	40대	557	26.65
	50대	581	27.80
지역	수도권	1,095	52.40
	비수도권	994	47.60
	대도시	895	42.85
	중소도시 농어촌	1,090 104	52.16 4.99
교육수준	고졸 이하	460	22.01
	대졸 이상	1,629	77.99
혼인상태	유배우	1,148	54.94
	별거·사별·이혼	95	4.53
	미혼	847	40.5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86	28.46
	200만 원대	687	33.37
	300만 원대	397	19.26
	400만 원대	237	11.50
	500만 원 이상	153	7.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3	9.24
	중하층	781	37.37
	중간층	920	44.02
	중상층(상층)	196	9.37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70	56.0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9	9.99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182	8.71
	실업자	140	6.70
	비경제활동인구	388	18.58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88	87.81
	시간제(파트타임)	168	12.19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은 28명(1.41%) 무응답.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응답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부표 3-8〉 캔ترل 사다리: 삶의 평가

(단위: %)

구분		바닥										꼭대기	χ^2
		0	1	2	3	4	5	6	7	8	9		
전체		1.51	2.80	6.50	12.72	12.26	22.52	15.25	16.22	8.41	1.23	0.59	
성별	남성	2.21	3.08	6.89	12.31	12.43	21.75	16.16	15.48	8.01	1.01	0.68	12.146*
	여성	0.77	2.50	6.09	13.15	12.07	23.34	14.29	17.01	8.83	1.46	0.49	
연령	19~29세	1.52	2.31	7.80	14.89	16.46	21.40	14.18	13.33	6.80	0.43	0.88	56.822**
	30대	1.27	2.70	7.02	11.44	11.93	24.71	17.73	16.25	5.71	0.82	0.42	
	40대	1.24	2.96	4.78	10.56	8.70	26.10	15.62	18.64	9.08	1.97	0.36	
	50대	1.94	3.13	6.64	13.96	12.37	18.31	13.84	16.35	11.26	1.51	0.69	
지역	수도권	0.99	2.52	7.82	11.97	10.92	23.94	15.73	16.47	8.10	1.08	0.46	19.075*
	비수도권	2.08	3.10	5.05	13.55	13.73	20.96	14.72	15.96	8.75	1.38	0.73	
	대도시	0.99	3.42	7.25	12.46	12.19	21.73	15.92	17.43	6.74	1.30	0.57	20.318*
	중소도시 농어촌	1.81	2.38	6.16	13.06	12.08	23.54	14.47	15.34	9.58	1.01	0.57	
교육수준	고졸 이하	2.41	4.42	9.00	15.85	15.79	22.25	11.24	9.72	7.55	1.10	0.68	45.619***
	대졸 이상	1.25	2.34	5.80	11.84	11.26	22.60	16.38	18.06	8.65	1.26	0.56	
혼인상태	유배우	0.99	2.02	4.35	10.61	10.26	23.13	16.44	19.39	10.65	1.70	0.45	115.118***
	별거·사별·이혼	3.12	10.36	11.64	22.14	10.28	17.30	6.13	6.34	8.47	2.15	2.07	
	미혼	2.04	3.00	8.84	14.53	15.19	22.27	14.65	13.04	5.36	0.47	0.6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47	6.30	11.20	17.76	11.85	21.85	12.21	10.72	4.10	1.00	0.54	221.700***
	200만 원대	0.91	1.85	4.63	12.81	15.06	23.73	17.16	14.75	7.61	1.03	0.45	
	300만 원대	0.55	1.01	4.76	7.99	9.84	25.58	12.74	24.03	11.94	1.03	0.53	
	400만 원대	1.18	0.41	4.87	8.75	10.77	17.47	19.84	18.20	15.24	2.42	0.86	
	500만 원 이상	1.86	0.00	3.23	11.14	8.26	21.11	20.03	20.83	10.38	1.90	1.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64	17.00	20.34	21.91	7.61	14.61	3.49	1.68	1.19	0.50	1.01	891.383***
	중하층	0.90	2.76	10.27	21.22	19.30	23.86	10.22	7.32	3.28	0.36	0.51	
	중간층	0.43	0.44	1.66	5.61	8.95	25.96	21.49	23.59	10.26	1.60	0.00	
	중상층(상층)	0.00	0.00	0.57	3.17	4.29	8.80	17.56	31.49	27.28	3.62	3.2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2	1.49	3.76	10.88	10.20	22.92	18.25	19.58	10.15	1.41	0.35	194.44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3	4.81	11.56	20.24	15.74	20.56	11.29	10.42	4.05	0.00	0.00	
	고용주·자영자	1.22	3.52	9.27	13.39	17.02	22.43	16.32	10.72	4.95	0.56	0.61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21.28	10.58	10.86	27.49	0.00	8.93	20.85	0.00	0.00	
	실업자	4.85	9.52	16.11	15.37	18.80	18.44	7.77	5.45	2.21	0.69	0.79	
	비경제활동인구	2.05	2.98	6.98	13.03	12.17	23.76	10.95	15.76	8.93	1.85	1.55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0.80	1.44	4.39	11.06	10.91	22.59	18.10	18.96	10.04	1.36	0.34	56.748***
	시간제(파트타임)	2.94	5.97	8.89	21.21	11.93	22.36	10.66	12.61	3.42	0.00	0.00	

주: 1) “(조사표 질문)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 가구 구성

(단위: 명)

구분		가구원 수	노인 수	장애인 수	아동 수
전체		3.09	0.19	0.07	0.51
성별	남성	3.08	0.21	0.08	0.54
	여성	3.10	0.18	0.06	0.47
연령	19~29세	3.06	0.14	0.05	0.13
	30대	2.75	0.22	0.06	0.53
	40대	3.28	0.24	0.06	1.03
	50대	3.20	0.17	0.10	0.31
지역	수도권	3.10	0.21	0.06	0.51
	비수도권	3.08	0.17	0.08	0.51
	대도시	3.04	0.22	0.06	0.44
	중소도시	3.14	0.17	0.07	0.56
	농어촌	2.95	0.23	0.08	0.58
교육수준	고졸 이하	3.07	0.19	0.08	0.38
	대졸 이상	3.10	0.19	0.07	0.55
혼인상태	유배우	3.44	0.10	0.06	0.86
	별거·사별·이혼	2.11	0.26	0.09	0.24
	미혼	2.73	0.32	0.08	0.0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3	0.26	0.10	0.57
	200만 원대	3.10	0.20	0.07	0.56
	300만 원대	3.08	0.12	0.05	0.52
	400만 원대	3.00	0.14	0.04	0.38
	500만 원 이상	2.87	0.11	0.06	0.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3	0.22	0.13	0.41
	중하층	2.95	0.22	0.09	0.45
	중간층	3.24	0.18	0.05	0.58
	중상층(상층)	3.32	0.14	0.05	0.5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3	0.19	0.07	0.5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0	0.16	0.12	0.30
	고용주·자영자	3.14	0.22	0.06	0.55
	무급가족종사자	3.69	0.00	0.00	0.68
	실업자	2.99	0.38	0.07	0.21
	비경제활동인구	3.38	0.15	0.06	0.49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3.00	0.19	0.06	0.56
	시간제(파트타임)	3.08	0.18	0.15	0.38

주: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의미하며, 평균을 산출

〈부표 3-10〉 [경제활동 참여자]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

구분		[평균: 시간]	F
전체		42.42	
성별	남성	44.50	72.572***
	여성	39.83	
연령	19~29세	41.93	1.831*
	30대	43.08	
	40대	42.96	
	50대	41.61	
지역	수도권	42.18	0.838*
	비수도권	42.69	
	대도시	42.47	0.708*
	중소도시 농어촌	42.25 43.78	
교육수준	고졸 이하	40.90	5.803*
	대졸 이상	42.72	
혼인상태	유배우	42.73	6.557**
	별거·사별·이혼	37.88	
	미혼	42.4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1.10	1.945*
	200만 원대	43.02	
	300만 원대	42.68	
	400만 원대	42.67	
	500만 원 이상	42.9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84	1.739*
	중하층	42.05	
	중간층	43.00	
	중상층(상층)	42.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3.46	37.09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5.26	
	고용주·자영자	44.21	
	무급가족종사자	39.82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44.08	522.848***
	시간제(파트타임)	28.79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의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1> [경제활동 참여자] 평일 기준 출퇴근 시간(양복)

(단위: 분)

구분		[평균: 시간]	F
전체		63.90	
성별	남성	66.51	.6.558*
	여성	60.64	
연령	19~29세	63.80	0.221
	30대	62.38	
	40대	64.63	
	50대	64.55	
지역	수도권	77.48	174.829***
	비수도권	48.90	
	대도시	68.21	9.464***
	중소도시 농어촌	62.16 46.74	
교육수준	고졸 이하	53.99	14.864***
	대졸 이상	65.83	
혼인상태	유배우	64.55	4.479*
	별거·사별·이혼	48.43	
	미혼	64.8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0.57	2.317*
	200만 원대	62.08	
	300만 원대	64.89	
	400만 원대	69.13	
	500만 원 이상	71.4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1.08	0.437
	중하층	64.08	
	중간층	64.82	
	중상층(상층)	61.2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5.65	4.32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3.82	
	고용주·자영자	52.71	
	무급가족종사자	53.62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66.92	11.997**
	시간제(파트타임)	54.23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 평일 집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양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중 평일의 1일 평균값을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 [경제활동 참여자] 주된 일자리의 수준과 자신의 교육수준 비교

(단위: %)

구분		일의 수준이 매우 높음	일의 수준이 높음	일의 수준이 알맞음	일의 수준이 낮음	일의 수준이 매우 낮음	χ^2
전체		2.97	13.06	58.45	21.17	4.34	
성별	남성	4.08	14.63	57.28	19.80	4.21	12.868*
	여성	1.59	11.11	59.91	22.89	4.50	
연령	19~29세	4.85	16.43	49.76	25.20	3.77	23.090*
	30대	2.04	14.91	58.15	20.74	4.16	
	40대	2.14	13.26	62.54	18.30	3.75	
	50대	3.51	9.38	59.70	22.04	5.38	
지역	수도권	2.52	13.12	60.37	20.03	3.96	3.840*
	비수도권	3.47	13.00	56.34	22.43	4.75	
	대도시	2.28	12.88	57.94	22.23	4.67	11.706*
	중소도시 농어촌	3.32 5.05	12.49 20.52	59.70 49.57	20.74 17.07	3.75 7.79	
교육수준	고졸 이하	3.10	11.37	58.79	18.66	8.09	11.603*
	대졸 이상	2.95	13.40	58.39	21.66	3.61	
혼인상태	유배우	2.66	14.58	61.94	17.63	3.18	45.563***
	별거·사별·이혼	0.00	5.43	46.14	35.33	13.11	
	미혼	3.87	11.52	54.24	25.24	5.1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8	12.36	49.42	27.47	7.87	46.679***
	200만 원대	1.93	11.23	62.79	20.74	3.31	
	300만 원대	3.01	12.75	60.19	19.66	4.40	
	400만 원대	4.54	16.03	62.36	14.83	2.24	
	500만 원 이상	5.24	19.31	57.83	16.92	0.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2	9.05	40.60	30.92	17.11	133.729** *
	중하층	1.58	10.46	54.83	26.81	6.32	
	중간층	3.35	14.65	64.86	16.03	1.11	
	중상층(상층)	7.36	19.50	57.83	14.56	0.7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8	14.73	60.08	19.08	3.13	97.38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50	6.94	44.42	35.15	13.00	
	고용주·자영자	4.91	9.92	64.93	18.54	1.71	
	무급가족종사자	21.01	0.00	50.11	19.36	9.52	
	실업자	-	-	-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2.96	14.65	60.26	19.12	3.01	102.182** *
	시간제(파트타임)	0.00	5.61	39.34	38.76	16.28	

주: 1) "(조사표 질문) 현재 선생님께서 종사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합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 지난 5년(2015년~현재) 동안 원치 않은 일자리를 잃은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모름	χ^2
전체		22.33	76.20	1.47	
성별	남성	19.99	78.62	1.39	6.855*
	여성	24.79	73.65	1.56	
연령	19~29세	19.17	78.69	2.14	17.446**
	30대	22.19	76.26	1.55	
	40대	19.42	79.13	1.45	
	50대	27.90	71.23	0.87	
지역	수도권	22.06	76.17	1.77	1.153
	비수도권	22.62	76.23	1.15	
	대도시	22.67	75.57	1.76	1.597
	중소도시 농어촌	21.83 24.61	76.89 74.39	1.28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23.93	73.63	2.44	4.866*
	대졸 이상	21.88	76.92	1.20	
혼인상태	유배우	19.51	79.59	0.90	39.986***
	별거·사별·이혼	44.67	53.23	2.10	
	미혼	23.65	74.18	2.1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0.44	66.66	2.91	53.032***
	200만 원대	20.58	78.50	0.92	
	300만 원대	17.99	81.50	0.51	
	400만 원대	17.98	81.02	1.00	
	500만 원 이상	14.25	84.47	1.2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6.79	59.45	3.76	70.711***
	중하층	26.99	70.95	2.06	
	중간층	17.26	82.04	0.71	
	중상층(상층)	13.28	86.22	0.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37	83.85	0.78	176.83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4.48	52.15	3.38	
	고용주·자영자	20.41	79.02	0.57	
	무급가족종사자	50.16	49.84	0.00	
	실업자	51.18	46.79	2.03	
	비경제활동인구	21.11	76.12	2.77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16.80	82.36	0.84	64.515***
	시간제(파트타임)	41.24	55.18	3.59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은 지난 5년(2015년~현재) 동안 원치 않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4〉 지난 3개월(2021.3.1.~2020.5.31.)기준 월 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만 원]	F
전체		473.53	
성별	남성	475.37	1.795*
	여성	471.60	
연령	19~29세	453.42	0.512
	30대	453.67	
	40대	474.94	
	50대	504.63	
지역	수도권	492.36	0.000
	비수도권	452.71	
	대도시	468.99	0.818*
	중소도시 농어촌	443.89	
교육수준	고졸 이하	418.87	3.959*
	대졸 이상	488.64	
혼인상태	유배우	518.14	4.847**
	별거·사별·이혼	334.25	
	미혼	426.9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8.09	34420.129***
	200만 원대	419.14	
	300만 원대	570.33	
	400만 원대	732.97	
	500만 원 이상	968.4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8.57	1.457*
	중하층	398.46	
	중간층	530.24	
	중상층(상층)	656.0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04.18	20.76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79.67	
	고용주·자영자	484.10	
	무급가족종사자	490.99	
	실업자	351.54	
	비경제활동인구	465.25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502.82	51.410
	시간제(파트타임)	359.28	

주: 1) “(조사표 질문) 지난 3개월(2020.3.1.~2020.5.31.) 동안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0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부표 3-15> 지난 3개월(2021.3.1.~2020.5.31.)기준 월 평균 가구 공적이전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 만 원]	F
전체		9.77	
성별	남성	10.06	0.340
	여성	9.46	
연령	19~29세	12.84	4.365**
	30대	10.01	
	40대	8.08	
	50대	8.58	
지역	수도권	10.77	4.259*
	비수도권	8.66	
	대도시	9.28	0.869*
	중소도시 농어촌	9.91 12.38	
교육수준	고졸 이하	12.68	9.274**
	대졸 이상	8.94	
혼인상태	유배우	8.28	5.237**
	별거·사별·이혼	11.92	
	미혼	11.5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2.88	6.197***
	200만 원대	10.42	
	300만 원대	8.42	
	400만 원대	6.63	
	500만 원 이상	2.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46	2.434*
	중하층	10.27	
	중간층	8.71	
	중상층(상층)	9.0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21	4.02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37	
	고용주·자영자	7.71	
	무급가족종사자	6.74	
	실업자	13.79	
	비경제활동인구	13.14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7.74	19.284***
	시간제(파트타임)	15.48	

주: 1) “(조사표 질문) 지난 3개월(2020.3.1.~2020.5.31.) 동안 선생님 가구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6〉 지난 3개월(2020.3.1.~2020.5.31.)기준 월평균 가구 총 생활비

(단위: 만원)

구분		[평균: 만 원]	F
전체		273.98	
성별	남성	268.42	2.860*
	여성	279.85	
연령	19~29세	225.17	36.945****
	30대	250.20	
	40대	306.22	
	50대	303.24	
지역	수도권	283.05	7.967**
	비수도권	264.00	
	대도시	271.88	1.176*
	중소도시 농어촌	277.54 254.82	
교육수준	고졸 이하	236.36	35.604****
	대졸 이상	284.60	
혼인상태	유배우	323.82	153.364****
	별거·사별·이혼	199.99	
	미혼	214.7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87.60	115.545****
	200만 원대	264.46	
	300만 원대	329.92	
	400만 원대	367.49	
	500만 원 이상	391.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4.49	31.942****
	중하층	247.62	
	중간층	292.79	
	중상층(상층)	339.5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4.53	12.00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7.06	
	고용주·자영자	308.73	
	무급가족종사자	332.70	
	실업자	210.75	
	비경제활동인구	273.31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282.55	19.415****
	시간제(파트타임)	227.41	

주: 1) “(조사표 질문) 지난 3개월(2020.3.1.~2020.5.31.)동안 선생님 가구에서 지출하신 월평균 총 생활비는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0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부표 3-17> 지난 3개월(2020.3.1.~2020.5.31.)기준 월평균 응답자 시장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 만 원]	F
전체		245.77	
성별	남성	303.76	140.176***
	여성	187.42	
연령	19~29세	125.32	65.438***
	30대	252.96	
	40대	291.57	
	50대	293.02	
지역	수도권	254.73	3.452*
	비수도권	235.70	
	대도시	242.15	0.222
	중소도시 농어촌	248.99 242.22	
교육수준	고졸 이하	155.82	89.38***
	대졸 이상	270.45	
혼인상태	유배우	293.01	82.424***
	별거·사별·이혼	243.41	
	미혼	159.9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51.13	64.545***
	200만 원대	233.25	
	300만 원대	294.96	
	400만 원대	337.47	
	500만 원 이상	433.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2.18	23.132***
	중하층	213.11	
	중간층	264.19	
	중상층(상층)	332.8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37.99	180.13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7.18	
	고용주·자영자	351.58	
	무급가족종사자	96.32	
	실업자	57.16	
	비경제활동인구	69.53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339.27	160.82***
	시간제(파트타임)	133.12	

주: 1) "(조사표 질문) 지난 3개월(2020.3.1.~2020.5.31.)동안 ___님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8〉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형태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일반아파트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임시가건물	기타	χ^2
전체		10.78	13.76	60.81	5.65	7.37	0.75	0.05	0.83	
성별	남성	11.80	13.30	60.94	4.90	6.89	0.92	0.09	1.16	9.295
	여성	9.70	14.24	60.68	6.45	7.86	0.58	0.00	0.48	
연령	19~29세	10.68	14.33	52.58	5.26	15.04	0.00	0.00	2.11	113.263** *
	30대	11.54	16.07	54.65	6.26	9.94	0.88	0.00	0.66	
	40대	8.53	13.57	67.67	5.62	3.38	0.88	0.00	0.35	
	50대	12.41	11.63	66.10	5.54	2.65	1.18	0.16	0.33	
지역	수도권	8.08	18.46	58.50	5.14	8.36	0.64	0.09	0.74	56.757***
	비수도권	13.75	8.59	63.36	6.22	6.27	0.89	0.00	0.92	
	대도시	10.89	17.92	57.13	4.22	8.81	0.69	0.00	0.33	71.576***
	중소도시 농어촌	9.75 20.54	10.76 9.38	64.87 50.09	6.64 7.67	6.16 7.61	0.88 0.00	0.09 0.00	0.87 4.70	
교육수준	고졸 이하	11.96	16.07	52.86	7.05	10.04	0.65	0.00	1.37	18.302*
	대졸 이상	10.44	13.11	63.06	5.26	6.61	0.79	0.06	0.68	
혼인상태	유배우	7.88	11.17	72.72	5.36	1.60	0.78	0.00	0.49	242.49***
	별거·사별·이혼	16.94	18.47	34.57	12.68	13.41	2.93	1.01	0.00	
	미혼	14.02	16.74	47.62	5.26	14.51	0.47	0.00	1.3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07	16.46	52.66	7.64	7.95	0.51	0.00	0.72	77.381***
	200만 원대	9.31	13.74	61.38	5.50	7.99	1.05	0.00	1.03	
	300만 원대	8.73	13.43	64.12	6.41	5.59	0.47	0.24	1.00	
	400만 원대	7.61	8.90	75.03	2.64	5.46	0.36	0.00	0.00	
	500만 원 이상	11.11	11.18	64.06	1.89	8.54	1.89	0.00	1.3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69	12.00	38.13	13.54	12.03	1.53	0.49	2.59	144.524** *
	중하층	11.10	18.75	53.66	7.01	8.10	0.78	0.00	0.60	
	중간층	8.96	11.49	69.14	3.40	6.07	0.53	0.00	0.41	
	중상층(상층)	9.24	6.27	72.62	3.04	5.90	0.95	0.00	1.9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15	14.38	61.83	4.60	7.64	0.58	0.08	0.76	61.07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98	14.92	51.56	8.18	11.94	0.92	0.00	0.49	
	고용주·자영자	11.04	11.35	59.37	8.85	5.28	2.99	0.00	1.13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80.05	19.95	0.00	0.00	0.00	0.00	
	실업자	18.60	11.45	54.99	5.42	9.54	0.00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9.36	13.53	64.99	5.78	4.42	0.51	0.00	1.41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9.64	14.30	61.72	4.85	8.03	0.56	0.08	0.82	14.381*
	시간제(파트타임)	16.13	15.61	49.81	7.19	10.12	1.14	0.00	0.00	

주: 1) "(조사표 질문) ___ 님께서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9>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반전세 포함)	월세 (사글세)	기타	χ^2
전체		60.49	21.45	9.95	7.07	1.04	
성별	남성	60.59	21.47	10.21	6.26	1.47	5.554*
	여성	60.39	21.42	9.68	7.92	0.58	
연령	19~29세	51.10	23.59	16.33	6.75	2.23	89.751***
	30대	52.39	28.67	11.11	6.52	1.32	
	40대	65.93	20.59	6.76	6.37	0.35	
	50대	69.66	14.74	6.70	8.45	0.46	
지역	수도권	58.64	24.30	9.62	6.71	0.73	12.094*
	비수도권	62.54	18.31	10.32	7.47	1.37	
	대도시	57.03	25.63	9.60	7.39	0.34	30.558***
중소도시	63.46	18.51	9.91	6.75	1.36		
	농어촌	59.23	16.15	13.36	7.65	3.61	
교육수준	고졸 이하	52.02	20.60	14.97	11.02	1.39	34.705***
	대졸 이상	62.89	21.69	8.54	5.96	0.94	
혼인상태	유배우	68.97	20.66	5.13	4.83	0.40	136.956** *
	별거·사별·이혼	35.47	23.49	17.89	21.28	1.88	
	미혼	51.81	22.28	15.60	8.52	1.8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3.26	20.70	14.72	10.28	1.03	67.691***
	200만 원대	60.86	23.85	8.24	5.73	1.31	
	300만 원대	64.09	21.27	7.00	6.80	0.85	
	400만 원대	71.35	16.03	8.54	4.08	0.00	
	500만 원 이상	65.63	20.35	6.33	5.57	2.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5.34	22.39	24.82	14.92	2.54	175.740** *
	중하층	52.75	23.52	14.24	8.70	0.78	
	중간층	69.02	20.93	4.75	4.48	0.82	
	중상층(상층)	76.12	14.67	2.63	5.00	1.5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1.02	23.46	7.69	6.35	1.48	53.88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3.35	18.39	19.60	8.65	0.00	
	고용주·자영자	63.91	13.33	11.15	11.62	0.00	
	무급가족종사자	60.26	29.32	10.42	0.00	0.00	
	실업자	57.38	19.73	13.18	9.71	0.00	
	비경제활동인구	62.38	21.04	9.86	5.61	1.11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60.03	23.37	8.75	6.42	1.43	11.077*
	시간제(파트타임)	58.62	17.78	14.91	8.69	0.00	

주: 1) "(조사표 질문) ___ 님께서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0〉 현재 거주하는 주택 내 위치

(단위: %)

구분		지상	반지하 또는 지하	옥상(옥탑)	χ^2
전체		98.34	1.17	0.49	
성별	남성	98.19	1.34	0.47	0.481
	여성	98.50	1.00	0.50	
연령	19~29세	97.66	2.16	0.18	9.008*
	30대	98.20	0.89	0.91	
	40대	98.95	0.84	0.21	
	50대	98.44	0.87	0.68	
지역	수도권	97.34	1.99	0.67	13.329**
	비수도권	99.44	0.27	0.29	
	대도시	97.69	1.97	0.34	9.094*
	중소도시 농어촌	98.82 98.90	0.63 0.00	0.55 1.10	
교육수준	고졸 이하	96.73	2.82	0.45	12.361**
	대졸 이상	98.79	0.71	0.50	
혼인상태	유배우	99.13	0.51	0.36	10.153*
	별거·사별·이혼	96.74	2.16	1.10	
	미혼	97.45	1.97	0.5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8.24	1.39	0.37	33.249***
	200만 원대	98.49	1.18	0.33	
	300만 원대	98.44	0.80	0.76	
	400만 원대	99.60	0.40	0.00	
	500만 원 이상	97.57	0.61	1.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30	3.70	1.00	16.961**
	중하층	98.03	1.44	0.53	
	중간층	98.98	0.67	0.36	
	중상층(상층)	99.57	0.00	0.4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59	0.81	0.60	20.81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6.59	3.41	0.00	
	고용주·자영자	97.62	0.56	1.82	
	무급가족종사자	100.00	0.00	0.00	
	실업자	98.44	1.56	0.00	
	비경제활동인구	98.77	1.23	0.00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98.64	0.77	0.58	15.991***
	시간제(파트타임)	95.69	4.31	0.00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 덕의 주택 내 위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1> 2020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렸거나 내지 못하여 이사한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χ^2
전체		2.50	97.50	
성별	남성	3.00	97.00	2.328*
	여성	1.97	98.03	
연령	19~29세	3.05	96.95	2.025
	30대	2.17	97.83	
	40대	1.80	98.20	
	50대	2.98	97.02	
지역	수도권	1.94	98.06	3.161*
	비수도권	3.12	96.88	
	대도시	2.25	97.75	0.721
	중소도시 농어촌	2.79 1.68	97.21 98.32	
교육수준	고졸 이하	4.22	95.78	7.590**
	대졸 이상	2.02	97.98	
혼인상태	유배우	2.06	97.94	2.472*
	별거·사별·이혼	4.34	95.66	
	미혼	2.89	97.1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21	94.79	24.479***
	200만 원대	2.03	97.97	
	300만 원대	0.78	99.22	
	400만 원대	1.19	98.81	
	500만 원 이상	1.24	98.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32	88.68	67.934***
	중하층	2.50	97.50	
	중간층	0.85	99.15	
	중상층(상층)	1.58	98.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6	98.44	30.2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44	92.56	
	고용주·자영자	4.65	95.35	
	무급가족종사자	0.00	100.00	
	실업자	2.78	97.22	
	비경제활동인구	1.70	98.30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1.77	98.23	18.484***
	시간제(파트타임)	7.34	92.66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2〉 2020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χ^2
전체		7.62	92.38	
성별	남성	7.27	92.73	0.360
	여성	7.99	92.01	
연령	19~29세	9.26	90.74	3.539*
	30대	6.20	93.80	
	40대	7.80	92.20	
	50대	7.17	92.83	
지역	수도권	6.28	93.72	5.699*
	비수도권	9.10	90.90	
	대도시	6.33	93.67	5.435*
중소도시 농어촌	8.29 11.71	91.71 88.29		
교육수준	고졸 이하	12.15	87.85	16.941***
	대졸 이상	6.34	93.66	
혼인상태	유배우	6.35	93.65	7.904*
	별거·사별·이혼	13.10	86.90	
	미혼	8.73	91.2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38	85.62	62.647***
	200만 원대	6.60	93.40	
	300만 원대	3.00	97.00	
	400만 원대	2.85	97.15	
	500만 원 이상	4.41	95.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84	71.16	149.281***
	중하층	8.90	91.10	
	중간층	3.02	96.98	
	중상층(상층)	3.19	96.8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74	95.26	51.56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85	83.15	
	고용주·자영자	13.62	86.38	
	무급가족종사자	10.86	89.14	
	실업자	12.58	87.42	
	비경제활동인구	6.80	93.20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5.43	94.57	20.597***
	시간제(파트타임)	14.84	85.16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3> 2020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χ^2
전체		5.91	94.09	
성별	남성	5.13	94.87	2.350*
	여성	6.73	93.27	
연령	19~29세	6.14	93.86	4.243*
	30대	4.25	95.75	
	40대	5.62	94.38	
	50대	7.30	92.70	
지역	수도권	5.72	94.28	0.121
	비수도권	6.11	93.89	
	대도시	5.66	94.34	0.834
	중소도시 농어촌	5.94 7.72	94.06 92.28	
교육수준	고졸 이하	8.65	91.35	7.608**
	대졸 이상	5.13	94.87	
혼인상태	유배우	4.50	95.50	12.532**
	별거·사별·이혼	12.40	87.60	
	미혼	7.09	92.9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73	88.27	52.383***
	200만 원대	4.56	95.44	
	300만 원대	2.10	97.90	
	400만 원대	3.55	96.45	
	500만 원 이상	2.51	97.4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95	76.05	130.449***
	중하층	6.48	93.52	
	중간층	2.56	97.44	
	중상층(상층)	1.56	98.4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06	95.94	41.46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52	86.48	
	고용주·자영자	7.30	92.70	
	무급가족종사자	0.00	100.00	
	실업자	12.36	87.64	
	비경제활동인구	4.60	95.40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3.96	96.04	44.34***
	시간제(파트타임)	16.54	83.46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4〉 삶의 만족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86	3.11	6.22	11.32	10.26	20.91	13.31	16.78	10.47	3.42	1.35		
성별	남성	2.88	3.14	6.53	11.30	9.90	20.58	15.38	17.20	9.35	2.53	1.21	15.484*	
	여성	2.84	3.08	5.88	11.33	10.64	21.27	11.12	16.33	11.64	4.36	1.50		
연령	19~29세	2.96	2.37	6.02	16.33	10.38	17.40	14.13	17.17	8.18	2.72	2.34	46.112*	
	30대	3.03	2.33	6.47	10.60	11.80	22.67	13.40	17.33	8.08	3.01	1.28		
	40대	2.24	3.85	6.29	7.17	9.72	22.93	13.07	17.76	12.09	3.84	1.03		
	50대	3.23	3.65	6.11	11.61	9.45	20.56	12.77	15.06	12.72	3.94	0.88		
지역	수도권	2.98	2.57	6.35	10.80	10.04	20.33	14.36	17.42	11.11	2.92	1.13	8.404	
	비수도권	2.72	3.71	6.07	11.89	10.50	21.56	12.16	16.07	9.76	3.97	1.60		
	대도시	3.07	2.01	6.43	11.83	10.50	21.23	13.73	16.59	9.36	3.52	1.72	25.110*	
	중소도시 농어촌	2.70	3.56	6.46	11.43	10.03	20.43	12.97	16.74	11.54	3.05	1.09		
교육수준	고졸 이하	3.32	3.44	7.34	16.57	10.66	23.20	9.59	12.40	8.19	3.48	1.82	33.076***	
	대졸 이상	2.73	3.02	5.90	9.83	10.15	20.27	14.36	18.02	11.11	3.40	1.22		
혼인상태	유배우	1.93	2.37	5.07	7.93	8.99	21.52	14.73	17.89	13.95	4.13	1.48	101.571***	
	별거·사별·이혼	6.06	9.65	10.14	15.20	7.27	23.97	8.77	9.56	4.31	4.03	1.04		
	미혼	3.76	3.38	7.33	15.47	12.31	19.76	11.90	16.09	6.43	2.39	1.2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98	5.30	8.82	15.85	10.75	24.20	9.93	11.47	5.47	1.97	1.26	167.232***	
	200만 원대	1.93	3.10	6.06	10.22	10.73	21.32	16.49	15.96	9.85	3.02	1.32		
	300만 원대	1.18	1.46	4.11	7.89	8.35	18.90	14.98	22.34	14.72	4.78	1.29		
	400만 원대	2.00	1.23	4.52	10.15	9.86	16.53	11.49	22.83	14.21	5.90	1.28		
	500만 원 이상	2.55	1.28	4.26	7.57	9.36	20.57	13.03	18.85	16.92	3.22	2.3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36	14.31	18.73	20.00	9.10	16.03	4.23	1.20	0.48	1.05	0.51	654.625***	
	중하층	2.83	3.04	9.23	17.16	15.15	23.46	12.21	10.45	4.85	1.09	0.51		
	중간층	1.08	1.30	2.35	6.05	7.76	21.71	16.85	23.43	13.68	4.12	1.67		
	중상층(상층)	0.00	0.85	0.00	4.16	3.64	11.84	10.00	26.13	27.60	11.73	4.0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5	2.44	5.16	9.15	8.99	20.68	14.85	20.44	11.59	3.94	1.10	172.59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05	4.03	10.62	16.91	9.49	21.09	14.72	9.09	6.43	1.54	1.03		
	고용주·자영자	4.00	2.11	6.36	10.87	14.55	22.34	12.04	13.65	10.04	1.70	2.34		
	무급가족종사자	10.42	10.86	0.00	10.42	29.78	9.52	9.63	8.93	0.00	10.42	0.00		
	실업자	8.68	11.70	10.10	15.39	16.67	19.81	6.33	6.91	2.90	0.72	0.79		
	비경제활동인구	2.52	1.79	5.73	13.58	9.78	21.58	11.09	15.03	12.43	4.40	2.06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1.99	2.18	5.45	9.51	8.85	20.84	14.93	19.90	11.62	3.76	0.96	37.301***	
	시간제(파트타임)	3.44	6.31	9.88	16.20	10.63	20.02	14.05	10.18	4.95	2.31	2.03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요즘 _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1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부표 3-25〉 어제 행복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84	2.46	4.49	8.71	9.57	24.87	12.73	15.05	11.76	5.08	2.45											
성별	남성	3.23	2.82	4.30	8.10	9.10	25.67	14.11	16.32	10.80	3.46	2.09											23.454**
	여성	2.44	2.07	4.69	9.35	10.06	24.02	11.27	13.72	12.76	6.79	2.83											
연령	19~29세	2.90	2.15	5.23	10.93	9.68	21.42	14.27	15.83	10.11	3.83	3.65											46.470*
	30대	3.81	3.51	3.47	10.66	9.15	25.94	12.25	15.97	8.55	4.12	2.57											
	40대	2.08	2.74	3.95	5.43	9.67	27.42	11.38	14.60	13.91	7.13	1.70											
	50대	2.76	1.61	5.19	8.42	9.71	24.50	13.09	14.11	13.63	4.94	2.05											
지역	수도권	2.99	2.26	4.43	8.47	9.10	26.19	13.25	14.34	12.46	4.48	2.04											8.060
	비수도권	2.68	2.67	4.55	8.96	10.08	23.42	12.16	15.84	10.99	5.75	2.90											
	대도시	3.29	1.64	4.28	10.13	8.48	25.16	13.12	14.47	11.53	5.23	2.67											32.891*
	중소도시 농어촌	2.49 2.72	3.18 1.94	4.84 2.63	8.03 3.51	10.87 5.29	23.61 35.49	12.44 12.43	15.54 14.98	12.44 6.64	4.35 11.46	2.22 2.92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2	2.05	5.35	11.32	10.98	25.94	12.47	12.52	8.58	3.62	3.95											21.773*
	대졸 이상	2.74	2.57	4.24	7.97	9.17	24.56	12.80	15.77	12.65	5.49	2.03											
혼인상태	유배우	1.69	1.35	3.53	6.11	8.75	24.10	12.82	17.01	14.59	7.39	2.66											110.77***
	별거·사별·이혼	8.16	6.59	7.99	10.31	7.48	30.34	11.28	7.58	8.23	1.00	1.04											
	미혼	3.82	3.49	5.39	12.05	10.91	25.29	12.77	13.23	8.32	2.41	2.3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04	3.88	6.56	9.99	12.39	27.09	11.64	12.54	7.83	2.43	1.60											133.934***
	200만 원대	2.01	1.85	4.30	9.44	10.62	25.00	12.86	13.97	11.68	5.23	3.04											
	300만 원대	1.02	1.72	3.54	6.20	6.95	23.58	14.34	18.77	13.85	7.91	2.12											
	400만 원대	2.49	2.60	3.35	6.21	5.52	21.65	15.27	17.12	16.85	6.04	2.90											
	500만 원 이상	4.55	0.67	1.88	9.25	4.98	25.41	9.08	18.30	15.45	6.72	3.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65	8.92	12.30	21.21	9.82	23.33	4.70	2.81	3.11	1.64	0.51											440.675***
	중하층	2.97	3.35	6.29	10.89	14.06	29.62	12.08	10.95	6.31	2.59	0.89											
	중간층	1.27	0.75	2.27	5.66	7.28	23.05	15.12	18.92	15.97	6.30	3.40											
	중상층(상층)	1.06	0.52	0.00	2.00	2.13	15.98	12.01	25.30	22.22	12.66	6.1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5	1.62	4.34	6.55	8.13	25.16	12.82	16.95	13.75	6.45	1.79											132.73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36	3.89	5.37	11.62	14.27	24.23	13.89	12.43	7.36	0.53	2.06											
	고용주·자영자	2.87	2.86	3.38	8.65	10.25	27.56	13.15	15.29	8.99	2.92	4.07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10.42	21.28	20.38	18.92	18.57	0.00	0.00	10.42	0.00											
	실업자	5.78	7.88	4.16	18.42	17.21	22.49	8.98	7.28	4.85	1.44	1.51											
비경제활동인구	2.22	2.14	4.92	9.85	8.03	24.16	12.86	13.82	12.13	5.54	4.33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2.54	1.83	4.57	6.86	8.30	24.75	13.37	16.75	13.13	6.01	1.89											18.828*
	시간제(파트타임)	4.20	2.91	3.99	10.59	14.52	26.97	10.17	12.76	10.25	2.26	1.39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6〉 어제 우울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매우 우울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6.71	6.09	11.27	12.80	9.28	23.02	8.96	10.93	5.78	3.00	2.15		
성별	남성	7.42	5.59	11.85	13.97	8.58	22.51	8.83	11.07	5.05	2.94	2.19	8.747	
	여성	5.97	6.61	10.66	11.56	10.01	23.56	9.11	10.79	6.55	3.07	2.11		
연령	19~29세	5.59	6.09	9.49	14.69	9.45	23.44	9.09	11.25	6.68	2.26	1.98	36.228*	
	30대	6.01	3.47	8.87	11.64	8.23	25.31	10.57	14.19	6.50	3.08	2.13		
	40대	7.82	6.60	12.20	12.17	8.86	23.93	8.58	9.12	4.78	3.45	2.48		
	50대	7.16	7.66	13.79	12.71	10.37	19.98	7.95	9.82	5.42	3.13	1.99		
지역	수도권	5.55	6.02	12.34	13.03	9.65	23.46	8.39	10.71	6.43	2.23	2.20	14.553*	
	비수도권	7.99	6.16	10.10	12.55	8.87	22.54	9.60	11.18	5.07	3.85	2.09		
	대도시	6.91	6.60	11.11	11.40	10.44	22.79	8.19	11.53	5.37	3.37	2.30	14.488	
	중소도시 농어촌	6.36 8.72	5.79 4.76	11.59 9.31	13.73 15.06	8.63 6.15	22.55 29.98	9.65 8.50	10.77 7.51	6.16 5.43	2.72 2.77	2.06 1.81		
교육수준	고졸 이하	6.78	5.44	9.86	12.52	10.62	27.70	7.53	7.92	5.64	3.07	2.93	15.712*	
	대졸 이상	6.70	6.27	11.67	12.88	8.90	21.70	9.37	11.78	5.82	2.98	1.93		
혼인상태	유배우	8.47	6.95	13.28	13.93	9.44	21.80	7.47	9.93	4.17	2.99	1.56	69.849***	
	별거·사별·이혼	4.02	4.90	13.09	11.54	9.30	26.09	7.46	3.01	8.23	7.28	5.09		
	미혼	4.63	5.04	8.34	11.40	9.05	24.33	11.16	13.17	7.70	2.54	2.6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90	4.84	6.94	12.92	8.07	26.22	10.52	12.37	6.82	3.77	3.63	105.492***	
	200만 원대	6.53	5.91	11.71	11.61	9.84	23.69	10.05	10.40	5.59	3.18	1.49		
	300만 원대	9.00	7.40	15.74	13.66	10.17	20.13	6.33	9.63	4.81	2.66	0.48		
	400만 원대	9.10	8.75	12.68	15.00	8.28	20.40	8.06	9.84	3.66	2.62	1.62		
	500만 원 이상	10.03	5.30	12.97	13.16	10.53	20.12	7.36	10.31	7.12	0.67	2.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5	3.38	7.36	3.75	6.64	18.90	9.24	11.05	14.96	9.26	11.71	282.577***	
	중하층	3.41	3.82	9.51	12.29	10.35	23.87	9.74	14.68	6.69	3.66	1.98		
	중간층	8.96	6.99	12.32	13.64	9.37	24.92	9.00	8.66	3.98	1.42	0.74		
	중상층(상층)	12.24	13.54	17.21	19.80	7.17	14.80	5.44	6.59	1.60	1.60	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93	6.98	12.67	13.82	8.67	21.84	8.88	10.18	5.19	2.45	1.40	83.63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3	4.20	8.99	6.93	10.61	28.43	11.67	11.76	6.57	5.24	2.78		
	고용주·자영자	6.28	5.08	14.71	10.71	8.32	24.78	7.36	10.14	5.84	3.98	2.80		
	무급가족종사자	0.00	10.42	0.00	30.22	9.63	19.20	0.00	20.11	10.42	0.00	0.00		
	실업자	2.79	2.12	5.73	13.03	10.59	19.36	9.65	15.06	8.64	5.77	7.25		
	비경제활동인구	6.93	6.16	9.04	13.28	10.33	24.33	8.46	11.38	5.98	2.10	2.00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7.63	6.74	11.79	13.64	8.61	22.29	9.32	10.60	5.09	2.77	1.51	15.071*	
	시간제(파트타임)	3.73	5.27	14.43	6.54	11.50	26.80	9.14	9.09	7.60	3.61	2.29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 어제 얼마만큼 우울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치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1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부표 3-27> 삶의 가치: 에우다이모니아

(단위: %)

구분		전혀 가치 있지 않다										매우 가치 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60	1.57	3.06	6.53	5.59	24.96	13.28	18.31	14.17	5.56	5.37		
성별	남성	1.50	1.46	3.02	6.40	5.50	24.87	15.48	18.42	13.98	5.01	4.36	13.410*	
	여성	1.71	1.68	3.11	6.67	5.68	25.05	10.96	18.19	14.37	6.13	6.44		
연령	19~29세	2.84	2.16	4.09	9.22	7.83	20.79	15.41	17.97	10.04	3.86	5.78	62.987***	
	30대	1.48	1.93	3.47	8.49	7.18	26.44	11.14	15.57	13.97	5.03	5.30		
	40대	1.06	1.43	2.34	5.21	3.46	26.41	12.36	20.12	16.33	5.94	5.33		
	50대	1.18	0.90	2.57	3.97	4.47	25.93	14.05	19.02	15.75	7.04	5.12		
지역	수도권	1.79	1.60	2.68	6.39	5.09	25.51	13.25	18.23	14.53	5.84	5.10	3.801	
	비수도권	1.40	1.54	3.48	6.69	6.14	24.36	13.32	18.40	13.77	5.24	5.68		
	대도시	1.36	1.33	2.95	7.31	5.98	25.87	13.48	17.56	13.43	5.73	5.01	11.495	
	중소도시 농어촌	1.79	1.72	3.18	5.88	5.45	24.90	12.85	18.30	14.94	5.31	5.67		
교육수준	고졸 이하	2.54	1.39	4.88	9.36	6.42	30.28	11.22	13.94	11.58	2.64	5.75	41.127***	
	대졸 이상	1.34	1.62	2.55	5.73	5.35	23.46	13.87	19.54	14.90	6.38	5.27		
혼인상태	유배우	0.85	1.49	1.88	3.65	4.33	23.67	13.36	20.05	17.97	7.13	5.61	108.603***	
	별거·사별·이혼	4.32	1.10	4.11	10.90	4.89	34.65	10.62	11.07	7.18	4.05	7.09		
	미혼	2.32	1.72	4.54	9.95	7.37	25.62	13.47	16.75	9.80	3.59	4.8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57	2.46	3.97	7.19	6.09	30.33	11.33	15.53	12.05	2.98	5.52	100.490***	
	200만 원대	0.99	1.63	2.74	6.58	5.87	24.84	14.45	19.90	13.03	4.76	5.20		
	300만 원대	0.93	0.94	2.48	4.65	5.03	20.80	15.60	17.76	17.34	8.73	5.75		
	400만 원대	1.59	1.00	3.02	5.19	4.63	19.43	12.08	22.93	18.62	7.25	4.26		
	500만 원 이상	0.69	0.67	2.53	8.10	5.73	21.92	13.30	16.86	13.57	9.24	7.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34	5.28	7.72	10.47	7.54	35.64	7.13	6.70	5.54	2.02	4.63	306.305***	
	중하층	1.96	1.67	4.08	8.90	7.92	29.24	11.19	17.47	10.39	2.84	4.34		
	중간층	0.44	1.03	1.66	4.29	4.08	22.34	16.34	19.61	18.91	6.24	5.07		
	중상층(상층)	0.00	0.00	1.00	3.74	1.48	9.67	13.36	27.01	15.44	16.67	11.6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8	1.03	2.91	5.17	5.08	22.93	13.76	20.38	15.97	6.56	5.23	125.47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8	2.90	2.41	8.11	5.59	29.70	11.68	17.14	12.31	2.86	4.31		
	고용주·자영자	0.00	2.39	1.12	4.16	4.77	27.34	13.67	14.67	15.60	7.08	9.20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30.96	0.00	31.71	8.34	28.99	0.00	0.00	0.00		
	실업자	3.60	4.46	6.13	17.45	10.31	27.64	10.47	10.69	4.10	2.11	3.03		
고용형태	비경제활동인구	2.77	1.11	3.71	6.28	5.93	26.33	13.68	16.78	13.08	4.67	5.67	24.468**	
	전일제(풀타임) 시간제(파트타임)	1.21	1.07	2.89	5.05	4.98	23.00	13.78	20.82	15.64	6.51	5.04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_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8〉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선택 가능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50	1.29	4.15	6.96	6.81	19.46	14.90	17.84	16.14	6.96	3.98	
성별	남성	1.24	1.40	3.52	6.83	6.03	21.02	16.61	19.38	15.23	5.55	3.20	25.083**
	여성	1.78	1.17	4.82	7.10	7.64	17.82	13.10	16.23	17.10	8.45	4.80	
연령	19~29세	2.33	1.41	5.31	8.47	7.38	17.48	13.24	15.81	18.19	4.25	6.14	48.093*
	30대	1.20	1.53	5.04	6.90	8.13	20.64	17.44	17.29	13.03	7.03	1.75	
	40대	1.21	1.63	3.18	7.13	6.23	20.30	12.95	17.59	17.32	8.22	4.23	
	50대	1.31	0.67	3.39	5.57	5.84	19.40	16.17	20.25	15.72	8.00	3.68	
지역	수도권	1.48	1.36	4.17	6.58	7.14	19.09	15.08	17.99	16.53	6.71	3.86	1.722
	비수도권	1.52	1.20	4.13	7.39	6.46	19.87	14.70	17.68	15.70	7.25	4.11	
	대도시	1.33	0.88	4.05	6.61	8.10	19.36	14.80	18.36	16.30	5.85	4.36	22.685*
	중소도시 농어촌	1.45	1.48	4.45	7.46	6.04	18.96	15.12	17.97	16.20	7.36	3.52	
교육수준	고졸 이하	1.91	1.30	4.40	7.99	6.99	22.66	12.71	16.57	14.20	5.06	6.22	17.788*
	대졸 이상	1.38	1.29	4.08	6.67	6.76	18.56	15.52	18.20	16.68	7.50	3.35	
혼인상태	유배우	0.85	1.06	3.82	6.98	6.35	18.66	15.67	18.59	17.27	7.46	3.29	30.405*
	별거·사별·이혼	1.99	1.10	3.04	5.91	3.34	29.70	11.12	19.79	9.40	7.04	7.58	
	미혼	2.33	1.62	4.72	7.05	7.83	19.40	14.29	16.62	15.34	6.28	4.5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70	2.19	6.20	9.50	8.55	23.79	12.54	14.48	12.39	4.69	3.99	131.392***
	200만 원대	1.16	1.33	3.03	6.26	8.27	20.25	18.14	14.97	15.61	6.53	4.45	
	300만 원대	0.65	0.73	4.03	4.64	4.36	18.02	12.50	23.53	18.79	9.92	2.82	
	400만 원대	1.20	0.46	3.62	8.85	3.96	14.35	16.28	22.76	17.24	7.42	3.87	
	500만 원 이상	3.26	0.64	3.27	3.59	5.67	11.50	13.05	20.65	25.23	9.37	3.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5	4.67	11.20	11.95	6.08	27.65	8.60	13.10	5.64	2.42	4.53	210.551***
	중하층	1.84	1.26	4.66	8.80	9.92	22.54	16.20	14.89	12.31	4.97	2.63	
	중간층	0.87	0.88	2.57	5.51	4.75	17.61	15.48	19.99	19.42	8.54	4.40	
	중상층(상층)	0.49	0.00	2.60	1.55	4.86	7.82	13.25	24.21	26.34	12.00	6.8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6	1.30	3.66	5.95	6.39	18.37	17.06	18.87	16.52	7.66	3.27	79.09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8	1.89	5.27	6.56	9.00	23.64	13.14	19.85	12.02	3.78	3.38	
	고용주·자영자	1.04	0.58	4.14	6.73	6.35	17.51	15.81	16.09	20.67	6.50	4.57	
	무급가족종사자	10.58	0.00	10.42	10.42	0.00	28.13	19.16	10.86	0.00	10.42	0.00	
	실업자	5.24	2.02	4.56	12.26	8.46	22.44	12.35	16.25	10.61	2.68	3.14	
비경제활동인구	1.75	1.02	4.72	8.34	6.71	20.07	9.74	15.21	17.60	8.24	6.60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1.01	1.43	3.57	5.93	6.31	19.05	17.23	19.20	15.50	7.65	3.11	14.591*
	시간제(파트타임)	1.23	1.10	6.31	6.84	10.15	20.02	10.97	17.70	18.23	2.90	4.55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1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부표 3-29> 신체적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다										매우 건강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전체		1.15	1.07	3.50	7.52	12.44	22.36	12.90	17.56	13.89	5.09	2.51	
성별	남성	1.16	1.01	3.59	6.60	11.13	22.73	14.33	17.88	14.66	3.85	3.07	18.445*
	여성	1.15	1.13	3.40	8.49	13.83	21.97	11.39	17.23	13.09	6.41	1.92	
연령	19~29세	1.19	1.44	4.02	6.96	13.86	17.03	11.90	15.44	16.07	6.72	5.36	52.224***
	30대	0.77	0.88	2.72	6.62	13.53	23.96	15.44	16.44	13.14	4.94	1.55	
	40대	1.23	1.34	2.48	7.30	11.50	24.69	12.30	19.00	13.18	5.21	1.75	
	50대	1.34	0.64	4.64	8.91	11.28	23.39	12.31	18.87	13.32	3.73	1.57	
지역	수도권	0.67	1.00	3.20	7.11	11.20	22.56	13.39	19.21	13.86	4.97	2.84	13.040*
	비수도권	1.69	1.14	3.82	7.97	13.81	22.16	12.37	15.74	13.93	5.23	2.14	
	대도시	0.80	0.95	3.38	6.68	12.50	24.22	12.78	16.87	14.11	4.88	2.82	24.500*
	중소도시 농어촌	1.20 3.65	1.16 1.11	3.93 0.00	8.53 4.13	12.32 13.22	20.77 23.08	13.25 10.24	17.49 24.28	13.95 11.46	5.29 4.98	2.12 3.84	
교육수준	고졸 이하	1.26	2.38	4.87	8.35	12.53	23.61	9.42	17.16	12.14	4.64	3.62	22.275*
	대졸 이상	1.12	0.70	3.11	7.28	12.42	22.01	13.89	17.67	14.39	5.22	2.19	
혼인상태	유배우	0.86	0.73	2.51	7.49	10.85	23.94	13.97	18.57	14.37	4.95	1.76	45.801**
	별거·사별·이혼	2.95	3.22	7.38	11.41	14.40	25.05	6.89	13.11	11.56	1.98	2.05	
	미혼	1.34	1.28	4.41	7.12	14.38	19.93	12.13	16.69	13.51	5.63	3.5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98	2.35	5.37	9.44	16.98	25.20	9.63	15.13	8.61	3.21	2.11	143.745***
	200만 원대	0.57	0.29	2.91	7.13	12.21	23.88	15.69	16.22	13.74	4.43	2.92	
	300만 원대	0.44	0.71	2.43	6.48	9.31	19.61	10.88	22.22	18.41	6.55	2.95	
	400만 원대	0.80	1.16	2.49	8.87	7.55	17.11	15.40	18.43	18.80	7.65	1.74	
	500만 원 이상	1.13	0.00	2.67	2.04	12.32	19.57	13.56	22.04	16.94	7.71	2.0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06	4.45	9.22	10.26	17.90	32.02	5.08	5.64	6.72	0.00	2.65	317.419***
	중하층	1.21	1.03	5.13	11.48	17.01	22.84	13.15	13.01	10.22	3.38	1.54	
	중간층	0.32	0.62	1.43	4.70	9.34	22.19	14.12	21.81	16.35	6.51	2.61	
	중상층(상층)	0.00	0.00	1.06	2.22	3.40	11.79	13.90	27.53	24.06	10.32	5.7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47	0.73	2.73	5.69	11.55	20.74	14.75	20.39	15.21	5.64	2.09	103.05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9	2.70	4.20	9.71	17.46	24.14	11.10	11.34	14.65	2.31	1.00	
	고용주·자영자	1.03	0.55	3.49	11.36	11.32	25.79	12.12	13.38	14.01	2.08	4.86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21.28	19.52	10.86	8.34	29.58	10.42	0.00	0.00	
	실업자	2.27	2.35	7.20	11.83	14.92	23.80	10.11	13.46	8.49	2.71	2.86	
비경제활동인구	2.77	0.99	4.20	8.24	11.84	24.57	9.77	15.39	11.50	7.27	3.46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0.53	0.86	2.55	6.04	11.73	20.77	15.26	19.78	15.36	5.53	1.59	34.284***
	시간제(파트타임)	1.11	2.29	5.86	8.19	17.61	24.76	6.53	13.58	13.42	2.29	4.3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 전반적으로, 본인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0〉 정신적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다										매우 건강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전체		1.71	1.59	3.64	7.12	9.51	20.17	12.05	17.30	15.11	7.76	4.03	
성별	남성	1.38	1.75	3.19	6.52	9.68	21.45	12.41	18.20	14.41	6.75	4.26	10.573*
	여성	2.06	1.42	4.11	7.75	9.33	18.83	11.67	16.36	15.86	8.83	3.79	
연령	19~29세	3.12	2.93	5.49	8.37	13.05	17.04	11.10	16.04	12.76	4.73	5.36	86.109***
	30대	2.16	0.67	4.36	9.84	9.27	24.63	10.56	15.72	13.27	6.61	2.89	
	40대	1.20	1.44	2.39	4.59	10.13	21.70	12.03	17.82	15.74	9.18	3.78	
	50대	0.66	1.32	2.69	6.32	6.11	17.84	14.06	19.12	17.96	9.88	4.05	
지역	수도권	1.61	1.56	3.86	6.00	9.71	20.72	12.56	17.71	15.43	7.17	3.65	7.261
	비수도권	1.82	1.61	3.39	8.35	9.29	19.57	11.50	16.85	14.76	8.41	4.45	
	대도시	1.84	1.13	3.27	6.87	9.87	20.54	12.44	17.60	14.75	7.31	4.38	12.794
	중소도시 농어촌	1.60	1.92	3.85	7.35	9.60	20.38	11.98	16.62	15.28	7.93	3.49	
교육수준	고졸 이하	2.62	2.67	4.94	8.60	12.44	20.35	12.43	11.75	13.11	6.13	4.97	31.832***
	대졸 이상	1.45	1.28	3.27	6.70	8.68	20.12	11.95	18.87	15.68	8.22	3.77	
혼인상태	유배우	0.75	1.13	2.12	5.68	8.47	19.95	12.17	18.72	17.37	9.65	3.99	77.985***
	별거·사별·이혼	4.30	1.01	4.05	5.22	9.15	30.66	13.27	10.71	11.83	7.89	1.92	
	미혼	2.72	2.28	5.64	9.28	10.96	19.31	11.76	16.12	12.42	5.19	4.3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4	3.21	3.25	10.00	11.97	24.16	11.44	14.43	9.82	5.01	3.87	139.698***
	200만 원대	1.34	0.77	3.85	6.41	8.86	22.10	13.23	17.30	14.46	6.93	4.74	
	300만 원대	0.74	1.57	2.39	5.71	6.83	13.91	11.82	20.62	20.54	12.25	3.62	
	400만 원대	2.03	0.79	5.52	4.29	9.20	16.75	12.94	15.42	21.42	8.34	3.31	
	500만 원 이상	0.00	0.00	3.30	5.96	8.90	17.02	8.86	24.49	17.39	11.01	3.0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13	8.19	8.56	9.85	15.98	22.41	8.68	6.97	6.14	2.00	3.09	290.935***
	중하층	1.28	1.42	4.57	10.70	12.55	22.65	11.66	14.64	11.03	6.37	3.13	
	중간층	0.97	0.57	2.14	4.59	6.92	19.85	13.40	19.70	18.86	8.83	4.18	
	중상층(상층)	0.57	0.53	2.10	2.05	3.19	9.61	10.62	26.84	22.62	13.99	7.8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8	0.78	2.98	6.23	7.81	19.51	11.63	19.21	17.16	9.96	3.45	111.11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9	4.15	3.49	9.23	9.35	22.66	11.84	16.70	11.45	3.66	4.98	
	고용주·자영자	1.56	1.18	4.04	5.34	7.27	23.71	13.07	15.09	17.41	5.54	5.79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10.58	0.00	21.28	39.25	8.93	10.42	9.52	0.00	
	실업자	3.10	5.12	5.15	9.19	17.56	23.13	13.32	10.05	6.27	3.55	3.57	
	비경제활동인구	2.21	1.58	5.06	8.59	13.07	18.17	11.83	15.69	13.21	5.80	4.79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1.32	0.92	3.00	6.41	7.79	19.87	11.67	19.34	16.61	9.63	3.45	20.210*
	시간제(파트타임)	2.47	4.01	3.52	8.72	9.89	20.79	11.64	15.13	14.00	4.49	5.33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1〉 생활비 조달에 대한 걱정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항상 걱정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4.49	3.45	7.03	8.28	7.25	20.11	10.81	14.31	10.50	4.35	9.42		
성별	남성	4.15	3.19	7.41	9.49	6.07	21.76	10.97	14.17	10.44	3.96	8.40	15.03*	
	여성	4.84	3.72	6.63	7.00	8.50	18.36	10.64	14.47	10.57	4.77	10.50		
연령	19~29세	6.51	3.14	5.94	7.46	7.89	16.68	11.30	16.23	12.20	4.61	8.04	38.343*	
	30대	4.77	2.22	8.98	9.14	5.73	20.42	12.38	15.77	9.25	3.34	8.00		
	40대	3.54	4.76	5.94	8.91	7.77	20.50	9.34	13.67	11.57	3.75	10.26		
	50대	3.46	3.43	7.44	7.69	7.41	22.38	10.57	12.15	9.03	5.52	10.90		
지역	수도권	4.01	3.03	8.00	6.95	7.31	21.28	10.41	15.14	10.16	4.52	9.19	13.271*	
	비수도권	5.02	3.91	5.96	9.74	7.19	18.81	11.25	13.41	10.87	4.17	9.67		
	대도시	3.90	4.16	7.37	9.01	6.55	19.92	9.89	16.13	9.58	4.67	8.82	20.085*	
	중소도시 농어촌	4.56	2.91	6.98	7.82	7.93	19.91	11.78	12.94	11.39	4.14	9.66		
교육수준	고졸 이하	5.25	3.17	5.69	6.15	5.55	22.37	9.11	13.68	12.79	4.57	11.68	16.398*	
	대졸 이상	4.28	3.53	7.40	8.88	7.73	19.47	11.29	14.49	9.85	4.29	8.78		
혼인상태	유배우	4.24	4.00	7.20	8.69	7.18	21.48	10.78	14.71	9.43	4.09	8.19	39.160**	
	별거·사별·이혼	3.04	1.10	5.26	1.05	7.01	22.72	8.44	7.95	14.56	7.34	21.53		
	미혼	4.99	2.96	6.99	8.53	7.37	17.95	11.12	14.49	11.50	4.38	9.7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0	1.59	3.71	4.65	6.42	20.69	10.40	15.06	12.48	6.22	16.49	185.267***	
	200만 원대	4.29	2.06	5.52	8.51	6.96	20.16	13.30	15.42	11.74	5.03	7.02		
	300만 원대	5.08	5.49	11.30	11.59	9.06	22.16	9.02	11.75	8.00	2.06	4.49		
	400만 원대	6.98	6.33	11.86	9.37	9.57	17.59	8.77	13.62	6.57	1.58	7.76		
	500만 원 이상	7.93	7.08	9.29	12.49	4.86	16.80	8.27	14.98	7.41	3.80	7.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4	0.00	3.18	3.31	3.12	11.59	5.70	8.14	18.94	9.68	34.91	408.033***	
	중하층	2.45	1.30	5.15	5.30	7.18	19.47	11.60	17.04	12.27	6.41	11.84		
	중간층	4.99	5.01	7.67	10.98	7.66	23.73	12.66	14.06	7.56	2.01	3.68		
	중상층(상층)	13.30	8.14	15.29	12.37	9.68	14.04	4.05	10.73	8.94	1.89	1.5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51	4.40	8.82	10.36	8.18	20.85	10.30	13.33	9.75	3.12	6.37	159.40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7	1.37	2.99	7.12	6.26	21.61	13.06	16.19	10.14	5.53	14.37		
	고용주·자영자	1.69	0.68	6.05	4.11	7.36	22.67	7.12	15.98	9.70	6.07	18.58		
	무급가족종사자	0.00	10.42	0.00	0.00	0.00	17.86	18.57	10.86	21.01	10.86	10.42		
	실업자	2.23	2.20	3.69	2.86	3.65	12.62	11.00	11.83	21.72	7.21	20.98		
고용형태	비경제활동인구	8.28	3.20	5.60	6.63	6.41	18.68	12.51	16.52	9.00	5.47	7.69	31.018**	
	전일제(풀타임)	4.43	4.17	8.46	10.12	8.34	20.81	10.66	13.92	9.41	2.84	6.83		
	시간제(파트타임)	1.19	2.33	4.21	8.05	4.64	22.06	11.10	12.65	12.68	8.11	12.98		

주: 1) “(조사표 질문) 당신은 얼마나 자주 월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 걱정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2〉 안전과 식생활 주거에 대한 걱정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항상 걱정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3.62	2.89	6.68	8.15	6.41	19.95	13.58	14.21	10.81	5.08	8.62											
성별	남성	3.72	2.91	7.16	8.62	6.64	21.57	13.60	14.08	10.02	4.23	7.46											11.964*
	여성	3.51	2.87	6.17	7.66	6.15	18.24	13.56	14.35	11.65	5.98	9.85											
연령	19~29세	3.50	4.00	7.18	9.21	4.59	16.69	15.39	17.31	11.41	4.91	5.80											37.303*
	30대	4.60	2.03	6.67	6.41	5.47	20.14	13.16	14.68	12.94	4.88	9.01											
	40대	2.67	2.63	6.48	8.67	7.78	20.74	13.47	12.16	10.15	4.31	10.96											
	50대	3.85	2.89	6.45	8.14	7.36	21.79	12.49	13.18	9.26	6.13	8.45											
지역	수도권	3.16	2.58	6.95	7.06	6.22	21.54	12.74	15.03	11.08	5.22	8.42											10.853*
	비수도권	4.12	3.24	6.38	9.35	6.61	18.19	14.50	13.31	10.53	4.93	8.83											
	대도시	3.42	3.59	6.76	9.02	4.99	18.79	12.91	15.73	11.02	5.47	8.31											36.240*
	중소도시 농어촌	3.58	2.13	7.07	7.30	7.56	20.50	15.13	13.05	10.17	4.90	8.60											
교육수준	고졸 이하	3.69	2.21	5.88	6.48	5.51	20.91	14.44	12.42	12.45	5.25	10.77											10.066*
	대졸 이상	3.60	3.08	6.91	8.63	6.66	19.68	13.34	14.71	10.35	5.04	8.01											
혼인상태	유배우	4.08	2.85	6.87	7.72	7.23	21.32	13.08	13.83	10.30	4.90	7.81											44.956**
	별거·사별·이혼	3.21	0.00	4.09	7.06	6.00	22.38	6.18	9.35	10.12	9.51	22.12											
	미혼	3.03	3.27	6.70	8.86	5.34	17.81	15.09	15.27	11.59	4.83	8.2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54	1.40	2.98	5.16	4.42	18.24	16.68	13.83	13.18	7.73	14.84											179.37***
	200만 원대	3.54	2.28	7.53	7.13	5.97	20.38	14.66	15.17	12.39	4.98	5.99											
	300만 원대	4.10	4.50	8.55	13.02	9.39	21.91	10.10	14.39	6.75	2.87	4.41											
	400만 원대	4.56	5.22	10.47	10.57	6.89	21.55	11.99	12.77	6.20	3.04	6.74											
	500만 원 이상	9.24	3.46	7.59	8.81	7.92	18.19	9.05	12.48	10.39	5.26	7.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2	0.00	3.81	1.05	2.09	14.98	7.39	8.74	16.35	11.16	32.42											421.291***
	중하층	1.77	1.13	5.18	4.90	5.85	17.15	16.40	16.73	12.75	7.61	10.52											
	중간층	3.69	3.61	7.19	10.57	7.62	24.88	13.86	13.98	8.58	2.29	3.73											
	중상층(상층)	12.23	9.41	13.08	16.77	7.16	12.81	7.09	10.66	8.12	2.13	0.5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71	3.27	7.89	9.57	7.70	21.30	12.68	13.79	9.85	4.22	6.02											112.26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7	1.47	3.36	5.45	3.88	18.19	18.19	12.86	14.46	5.41	15.36											
	고용주·자영자	1.81	1.08	5.80	4.99	6.23	21.65	9.68	14.90	11.74	6.31	15.80											
	무급가족종사자	10.42	0.00	0.00	0.00	0.00	26.80	0.00	30.91	10.42	21.44	0.00											
	실업자	2.23	2.95	5.57	2.82	1.44	12.81	16.76	19.41	15.64	8.90	11.48											
	비경제활동인구	5.69	3.38	5.78	8.87	5.89	18.44	14.76	13.59	9.60	5.17	8.82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3.55	3.16	7.46	9.24	7.45	21.22	12.99	13.68	10.48	4.16	6.61											18.009*
	시간제(파트타임)	1.90	1.83	5.34	6.81	4.79	18.07	17.26	13.44	11.04	6.11	13.40											

주: 1) “(조사표 질문)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안전과 식생활, 주거에 대해 걱정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3)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

(단위: %)

구분		대폭 감소 (30% 이상)	소폭 감소 (10~30%)	변화 없음 (±10% 내외)	소폭 증가 (10~30%)	대폭 증가 (30% 이상)	χ^2
전체		16.38	26.88	52.12	4.34	0.28	
성별	남성	14.41	25.47	54.64	5.22	0.27	13.195*
	여성	18.46	28.37	49.47	3.41	0.29	
연령	19~29세	15.11	28.84	51.54	4.32	0.19	24.468*
	30대	15.53	23.95	55.67	4.85	0.00	
	40대	14.10	24.61	55.65	5.28	0.35	
	50대	20.30	29.71	46.42	3.05	0.51	
지역	수도권	16.42	26.98	51.39	4.84	0.38	2.066
	비수도권	16.33	26.77	52.92	3.79	0.18	
	대도시	18.06	26.02	51.44	4.15	0.34	9.454*
	중소도시 농어촌	15.79 8.07	27.51 27.66	51.77 61.61	4.66 2.65	0.27 0.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19.81	31.89	45.38	2.70	0.23	17.591**
	대졸 이상	15.41	25.46	54.03	4.80	0.30	
혼인상태	유배우	15.50	26.05	53.58	4.69	0.18	32.26***
	별거·사별·이혼	30.84	31.27	33.78	2.06	2.05	
	미혼	15.95	27.51	52.20	4.12	0.2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52	30.19	38.87	2.25	0.17	157.737* **
	200만 원대	12.97	28.76	52.66	5.20	0.41	
	300만 원대	10.89	21.83	63.15	4.13	0.00	
	400만 원대	7.43	24.44	62.95	4.30	0.87	
	500만 원 이상	8.47	24.46	57.13	9.94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4.71	22.52	32.26	0.50	0.00	218.987* **
	중하층	21.47	30.32	43.20	4.53	0.49	
	중간층	8.15	26.41	61.20	4.13	0.11	
	중상층(상층)	6.78	19.65	64.65	8.37	0.5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80	22.59	62.77	5.58	0.26	244.85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13	36.49	31.54	5.84	0.00	
	고용주·자영자	31.93	38.16	25.83	4.08	0.00	
	무급가족종사자	32.14	37.22	30.64	0.00	0.00	
	실업자	38.44	32.22	28.03	0.00	1.32	
	비경제활동인구	18.72	27.44	51.97	1.60	0.27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8.18	23.42	62.33	5.82	0.25	124.328* **
	시간제(파트타임)	34.81	33.87	27.20	4.12	0.00	

주: 1) "(조사표 질문)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 가구의 총 소득이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하였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4〉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에서의 경험

(단위: %)

구분		해당없음	근로시간 단축	유급휴직	무급휴직	실직	영업시간 단축	휴업	폐업	χ^2
전체		69.29	11.41	2.00	3.95	6.93	3.87	1.84	0.71	
성별	남성	69.21	11.32	2.40	3.51	5.94	4.78	2.30	0.54	14.301*
	여성	69.38	11.50	1.56	4.43	7.98	2.91	1.35	0.89	
연령	19~29세	70.74	11.21	2.85	3.61	5.60	3.94	1.48	0.57	31.006*
	30대	73.88	11.15	1.79	2.95	5.54	2.65	1.58	0.45	
	40대	69.59	10.13	2.30	5.72	6.53	3.37	1.67	0.70	
	50대	64.16	13.00	1.14	3.35	9.55	5.25	2.52	1.04	
지역	수도권	68.88	12.11	1.76	4.08	7.26	3.59	1.57	0.75	3.647
	비수도권	69.75	10.64	2.26	3.82	6.56	4.17	2.14	0.67	
	대도시	69.10	12.38	1.14	4.85	6.07	3.87	2.14	0.45	24.486*
	중소도시 농어촌	68.55 78.73	10.93 8.08	2.89 0.00	3.52 0.82	7.82 4.97	3.97 2.81	1.49 2.88	0.83 1.72	
교육수준	고졸 이하	66.99	13.27	2.30	4.25	6.09	4.18	2.01	0.91	3.479
	대졸 이상	69.94	10.88	1.91	3.87	7.17	3.78	1.79	0.65	
혼인상태	유배우	70.63	10.95	2.27	3.87	6.11	4.06	1.40	0.71	25.784*
	별거·사별·이혼	53.60	13.09	0.00	7.91	14.30	6.04	3.14	1.92	
	미혼	69.25	11.84	1.85	3.62	7.22	3.36	2.28	0.5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1.00	13.51	1.10	4.55	12.73	3.89	2.36	0.85	84.480** *
	200만 원대	70.47	10.04	3.07	3.70	5.49	4.94	1.44	0.86	
	300만 원대	71.87	11.26	2.53	4.08	3.43	4.60	1.73	0.49	
	400만 원대	77.45	12.52	0.79	2.70	2.90	1.99	1.27	0.38	
	500만 원 이상	74.42	9.70	1.47	4.47	6.04	0.73	3.16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4.87	12.21	2.00	6.81	13.30	6.77	3.07	0.97	60.123** *
	중하층	66.76	10.94	1.35	4.64	8.41	4.88	2.15	0.88	
	중간층	72.88	11.77	2.40	3.40	5.08	2.55	1.36	0.57	
	중상층(상층)	76.82	10.79	2.65	1.01	3.44	3.21	1.62	0.4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6.26	11.68	2.51	3.20	3.11	1.95	0.79	0.50	578.61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25	22.85	1.94	8.33	17.07	5.27	4.36	0.93	
	고용주·자영자	44.61	10.84	1.22	6.00	3.16	23.16	9.30	1.72	
	무급가족종사자	48.19	0.00	0.00	21.01	0.00	10.86	0.00	19.95	
	실업자	52.28	7.96	0.64	4.47	29.40	2.27	1.47	1.50	
	비경제활동인구	82.08	6.23	1.35	2.34	6.72	0.75	0.53	0.00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75.04	11.18	2.68	3.53	4.03	1.96	1.09	0.49	107.760* **
	시간제(파트타임)	39.04	29.09	0.62	7.23	13.88	6.01	3.02	1.09	

주: 1) “(조사표 질문) 2020년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 일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5> 코로나19의 영향: 가족 돌봄

(단위: %)

구분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는 편이다	영향이 매우 크다	χ^2
전체		38.29	42.63	19.08	
성별	남성	39.23	44.99	15.78	15.412***
	여성	37.29	40.14	22.57	
연령	19~29세	56.36	34.89	8.75	116.483***
	30대	40.77	38.07	21.16	
	40대	30.74	45.23	24.03	
	50대	28.24	50.31	21.45	
지역	수도권	38.23	41.30	20.47	3.087*
	비수도권	38.35	44.09	17.56	
	대도시	40.53	40.42	19.05	6.592*
	중소도시 농어촌	36.60 36.70	43.74 50.00	19.66 13.31	
교육수준	고졸 이하	45.41	39.40	15.18	13.395**
	대졸 이상	36.28	43.54	20.18	
혼인상태	유배우	27.92	47.25	24.83	173.593***
	별거·사별·이혼	20.23	46.72	33.05	
	미혼	54.36	35.92	9.7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73	43.02	24.25	26.428**
	200만 원대	39.21	42.23	18.56	
	300만 원대	37.36	46.73	15.91	
	400만 원대	44.22	39.61	16.17	
	500만 원 이상	48.78	37.01	14.2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4.05	31.52	34.44	52.889***
	중하층	38.35	40.02	21.63	
	중간층	37.66	47.74	14.59	
	중상층(상층)	45.16	39.99	14.8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1.75	42.85	15.40	46.14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5.49	42.88	21.62	
	고용주·자영자	25.62	44.46	29.92	
	무급가족종사자	10.42	89.58	0.00	
	실업자	30.85	43.65	25.50	
	비경제활동인구	38.36	39.46	22.19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42.02	42.58	15.40	8.329*
	시간제(파트타임)	32.04	44.85	23.11	

주: 1) “(조사표 질문) 선생님의 일상적인 삶(가족 돌봄)에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6〉 코로나19의 영향: 대인 관계

(단위: %)

구분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는 편이다	영향이 매우 크다	χ^2
전체		13.93	51.36	34.71	
성별	남성	15.32	52.06	32.62	5.783*
	여성	12.47	50.61	36.92	
연령	19~29세	19.41	50.90	29.69	26.714****
	30대	15.75	50.03	34.22	
	40대	12.62	51.69	35.69	
	50대	9.11	52.46	38.42	
지역	수도권	12.94	51.19	35.87	2.392*
	비수도권	15.02	51.54	33.44	
	대도시	13.79	52.64	33.57	1.866
	중소도시 농어촌	13.78 16.79	50.48 49.49	35.74 33.72	
교육수준	고졸 이하	18.44	52.42	29.14	13.506**
	대졸 이상	12.66	51.05	36.29	
혼인상태	유배우	10.84	52.15	37.01	26.444****
	별거·사별·이혼	9.97	52.91	37.13	
	미혼	18.57	50.10	31.3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46	46.62	38.92	15.705*
	200만 원대	11.85	52.71	35.43	
	300만 원대	14.61	53.82	31.57	
	400만 원대	15.14	56.43	28.43	
	500만 원 이상	17.28	51.15	31.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01	47.20	42.79	17.793**
	중하층	13.98	47.90	38.12	
	중간층	14.69	54.78	30.53	
	중상층(상층)	14.04	53.16	32.8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02	52.37	32.61	19.71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32	47.35	41.33	
	고용주·자영자	7.97	48.94	43.09	
	무급가족종사자	10.42	48.19	41.39	
	실업자	15.13	43.68	41.19	
	비경제활동인구	14.35	54.38	31.27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14.61	52.23	33.15	2.596*
	시간제(파트타임)	13.39	47.08	39.53	

주: 1) “(조사표 질문) 선생님의 일상적인 삶(대인관계)에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7〉 주관적 소득계층

(단위: %)

구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χ^2
전체		9.24	37.37	44.02	9.08	0.29	
성별	남성	9.09	37.24	43.13	10.08	0.47	5.151*
	여성	9.40	37.50	44.96	8.04	0.10	
연령	19~29세	6.38	34.67	47.35	10.95	0.66	29.965***
	30대	7.93	44.62	40.13	7.32	0.00	
	40대	10.63	34.00	46.96	8.11	0.30	
	50대	11.37	37.15	41.46	9.83	0.19	
지역	수도권	7.98	36.17	45.69	9.86	0.29	7.316*
	비수도권	10.63	38.68	42.18	8.23	0.28	
	대도시	8.57	35.75	45.67	9.53	0.48	6.233
	중소도시 농어촌	9.58 11.49	39.01 34.07	42.38 47.02	8.88 7.42	0.15 0.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17.59	38.21	36.77	6.74	0.70	55.011***
	대졸 이상	6.88	37.13	46.07	9.75	0.17	
혼인상태	유배우	7.31	33.99	48.41	10.15	0.15	71.41***
	별거·사별·이혼	27.79	47.25	19.77	4.03	1.17	
	미혼	9.79	40.84	40.79	8.21	0.3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8.68	49.48	27.91	3.74	0.19	320.672* **
	200만 원대	5.88	40.76	47.38	5.72	0.25	
	300만 원대	4.17	29.51	54.37	11.70	0.25	
	400만 원대	4.68	20.43	55.98	18.91	0.00	
	500만 원 이상	4.38	18.00	51.71	24.47	1.4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0.00	0.00	0.00	0.00	0.00	6000.000 ***
	중하층	0.00	100.00	0.00	0.00	0.00	
	중간층	0.00	0.00	100.00	0.00	0.00	
	중상층(상층)	0.00	0.00	0.00	96.93	3.0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30	36.26	47.11	10.18	0.14	101.91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59	48.44	30.10	3.87	0.00	
	고용주·자영자	8.28	35.48	47.04	7.32	1.88	
	무급가족종사자	10.42	41.23	37.92	10.42	0.00	
	실업자	19.45	47.39	29.44	3.72	0.00	
	비경제활동인구	10.32	31.85	46.28	11.27	0.28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6.07	37.41	46.45	9.93	0.14	58.309***
	시간제(파트타임)	22.02	43.13	30.74	4.11	0.00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___ 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8〉 향후 10년 이내 생활수준 변화 기대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χ^2
전체		3.50	15.89	41.48	34.02	5.12	
성별	남성	3.88	15.58	41.21	33.43	5.90	3.892*
	여성	3.09	16.21	41.77	34.64	4.28	
연령	19~29세	2.17	11.89	39.43	38.62	7.88	71.133***
	30대	3.27	11.08	43.11	35.55	6.99	
	40대	3.40	15.20	41.44	36.79	3.16	
	50대	4.90	23.73	41.96	26.24	3.16	
지역	수도권	2.89	15.91	42.29	33.16	5.76	5.114*
	비수도권	4.17	15.86	40.59	34.97	4.41	
	대도시	2.67	16.55	41.74	33.95	5.08	5.417
	중소도시 농어촌	4.12 4.07	15.81 10.91	40.91 45.16	33.88 36.05	5.27 3.81	
교육수준	고졸 이하	3.51	17.39	40.83	32.33	5.94	2.188
	대졸 이상	3.50	15.46	41.67	34.49	4.88	
혼인상태	유배우	3.37	16.68	41.39	34.30	4.27	9.613*
	별거·사별·이혼	5.33	17.63	30.82	39.25	6.98	
	미혼	3.46	14.62	42.80	33.06	6.0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33	18.87	42.09	29.85	3.86	44.245**
	200만 원대	3.38	17.38	42.35	32.17	4.72	
	300만 원대	1.73	12.58	38.64	41.02	6.03	
	400만 원대	2.12	12.37	41.50	38.14	5.88	
	500만 원 이상	2.48	10.19	44.81	34.06	8.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35	26.27	34.92	20.96	3.50	223.61***
	중하층	4.47	21.92	40.36	28.72	4.54	
	중간층	0.67	10.83	45.76	38.94	3.80	
	중상층(상층)	2.20	5.35	32.36	44.93	15.1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4	14.67	42.81	36.20	3.88	57.47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19	20.73	33.85	33.97	6.25	
	고용주·자영자	6.02	15.80	37.05	28.45	12.67	
	무급가족종사자	10.42	21.72	28.55	18.46	20.85	
	실업자	7.35	15.78	42.33	31.73	2.81	
	비경제활동인구	3.10	16.86	43.57	31.15	5.31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2.77	14.85	42.23	35.91	4.24	5.343*
	시간제(파트타임)	3.48	20.89	35.87	35.56	4.20	

주: 1) "(조사표 질문)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얼마만큼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9> 우리 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단위: %)

구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χ^2
전체		13.04	28.62	42.64	8.29	7.42	
성별	남성	13.81	28.54	42.43	9.77	5.46	17.474**
	여성	12.23	28.70	42.86	6.73	9.48	
연령	19~29세	11.67	26.76	40.78	13.42	7.37	29.020**
	30대	15.23	30.83	39.21	7.23	7.50	
	40대	12.16	27.50	45.53	6.10	8.71	
	50대	13.32	29.52	44.14	6.88	6.14	
지역	수도권	13.10	29.15	42.25	8.28	7.23	0.385
	비수도권	12.98	28.04	43.06	8.30	7.62	
	대도시	13.43	28.89	42.60	7.72	7.37	4.627
	중소도시 농어촌	13.08 9.34	27.84 34.41	43.04 38.80	8.80 7.87	7.25 9.58	
교육수준	고졸 이하	15.24	30.69	37.57	7.98	8.52	7.495*
	대졸 이상	12.42	28.03	44.06	8.38	7.10	
혼인상태	유배우	11.20	27.43	47.19	6.95	7.23	27.498**
	별거·사별·이혼	15.75	28.86	37.41	7.14	10.83	
	미혼	15.23	30.20	37.05	10.23	7.2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6.97	34.32	33.48	6.21	9.02	81.243***
	200만 원대	11.91	31.34	41.72	7.56	7.48	
	300만 원대	10.67	22.86	48.22	11.25	7.00	
	400만 원대	9.15	21.94	52.64	9.24	7.03	
	500만 원 이상	12.53	18.65	54.23	12.00	2.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4.71	26.19	16.45	4.59	8.07	404.650* **
	중하층	16.05	39.96	30.75	4.92	8.32	
	중간층	5.15	22.95	55.91	9.43	6.56	
	중상층(상층)	6.89	12.39	53.51	20.03	7.18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18	27.34	43.71	9.26	7.51	35.63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64	29.20	40.24	5.33	7.58	
	고용주·자영자	14.76	26.31	41.18	11.62	6.13	
	무급가족종사자	21.01	10.86	68.14	0.00	0.00	
	실업자	19.88	36.96	32.77	4.18	6.21	
	비경제활동인구	9.75	30.63	44.22	7.18	8.22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12.35	27.37	43.49	9.18	7.61	6.149*
	시간제(파트타임)	17.67	29.43	41.02	4.97	6.9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0〉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단위: %)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7.11	25.50	44.92	7.52	14.96	
성별	남성	7.18	24.70	45.73	8.30	14.10	3.504*
	여성	7.03	26.34	44.07	6.69	15.87	
연령	19~29세	5.23	23.41	42.90	9.88	18.57	34.246**
	30대	9.20	25.42	40.30	7.18	17.90	
	40대	6.74	25.60	47.63	5.34	14.69	
	50대	7.40	27.22	47.70	7.87	9.82	
지역	수도권	6.87	26.60	44.19	6.89	15.45	3.049
	비수도권	7.36	24.28	45.73	8.21	14.41	
	대도시	8.18	27.16	43.92	7.28	13.46	7.217
	중소도시 농어촌	6.15 7.86	24.30 23.64	45.70 45.46	7.80 6.61	16.05 16.43	
교육수준	고졸 이하	7.01	28.92	39.04	7.86	17.17	8.869*
	대졸 이상	7.13	24.53	46.58	7.42	14.33	
혼인상태	유배우	6.55	26.24	47.87	6.65	12.68	17.876*
	별거·사별·이혼	8.65	22.44	43.69	8.03	17.19	
	미혼	7.69	24.82	41.06	8.63	17.7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8.76	28.88	38.34	7.91	16.11	53.956***
	200만 원대	5.98	26.56	45.99	5.78	15.69	
	300만 원대	5.81	24.66	47.92	8.26	13.36	
	400만 원대	5.77	21.58	52.83	10.39	9.43	
	500만 원 이상	9.37	18.27	48.68	8.31	15.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77	23.40	27.59	7.99	18.25	175.227* **
	중하층	7.93	30.93	38.73	4.78	17.63	
	중간층	3.14	22.79	54.10	7.58	12.39	
	중상층(상층)	7.03	18.62	43.60	17.64	13.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96	24.45	47.06	7.26	14.28	18.14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46	28.16	41.28	7.71	14.39	
	고용주·자영자	6.18	24.18	45.70	7.86	16.07	
	무급가족종사자	21.01	0.00	68.57	10.42	0.00	
	실업자	7.47	31.07	35.86	7.50	18.09	
	비경제활동인구	6.74	26.45	42.77	7.98	16.06	
고용형태	전일제(풀타임)	7.24	24.26	46.44	7.18	14.89	5.275*
	시간제(파트타임)	6.83	30.40	44.35	8.39	10.0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록 4-1. 질적 연구 질문지

인터뷰 질문 (한국어)

1.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2.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좌절시킵니까?
3.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시요. 당신의 삶에서 _____은(는)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나요?
4. 일상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느끼니까? 건강, 가족, 사회적 지위, 직업, 혹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5. 당신의 직업, 일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소득의 액수 혹은 사회적 때문인가요? 혹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6. 당신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계층)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당신의 일과 삶이 얼마나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당신은 일과 당신의 사생활에 균형 잡힌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합니까?
8. 삶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가족을 구성하고 혹은 가족 구성에 변화를 주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예컨대 배우자를 고르거나, 아이를 입양하거나, 혹은 이혼을 결정할 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스스로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자유가 가능한가요? 만약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이 자유를 제한하는지 설명해주세요.
9. 당신의 생각 혹은 의견이 타인, 지역 사회 혹은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대중에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당신은 당신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 사회, 혹은 국가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당신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 사회, 또는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무엇으로부터 받습니까? 소셜 미디어, 지역 사회 참여, 또는 친구 및 가족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혹은 그 외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입니까?

11. 경제적 위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당신은 가족, 친구, 이웃, 정부관료 중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2. 당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당신은 가족, 친구, 이웃, 정부관료 중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3. 당신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가족, 친구, 이웃, 정부관료 중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4. 당신은 이곳의 사회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아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국가를 고려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를 고민해본 적이 없다면, 이곳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5. 당신 세대의 행복을 다른 세대의 행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 타인의 판단, 평가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다면 왜,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10년 후에 당신의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이 가능한 상황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중 어느 상황이 더 행복할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Interview Questions (베트남어)

Câu hỏi phỏng vấn (tiếng Việt)

1. Những yếu tố nào khiến anh chị hạnh phúc? Những điều gì khiến anh chị cảm thấy tức giận hoặc tuyệt vọng?

2. Những gì anh chị đã trả lời cho thấy _____ là điều quan trọng nhất khiến anh chị hạnh phúc trong cuộc sống. Anh chị có thể giải thích thêm về điều này không? Anh chị nghĩ anh chị có được (hoặc hưởng được) bao nhiêu _____ trong cuộc sống? Nếu đã có được (hoặc hưởng được) nhiều, anh chị nghĩ yếu tố nào đã giúp anh chị có được (hoặc hưởng được) điều này? Nếu không, tại sao ?

3. Trong đời sống hằng ngày, anh chị hay bị căng thẳng về những gì? Sức khỏe, gia đình, địa vị xã hội, nghề nghiệp hoặc những gì?

4. Anh chị có hài lòng về nghề nghiệp, công việc của anh chị không? Nếu có, lí do anh chị hài lòng nằm ở thu nhập, địa vị xã hội hay những điều khác? Dựa vào mức sinh hoạt của anh chị, anh chị nghĩ anh chị nằm ở vị trí nào? Anh chị nghĩ điểm đó có đủ để sinh hoạt không?

5. Anh chị nghĩ về mức cân bằng giữa công việc và cuộc sống của anh chị như thế nào?

6. Khi lựa chọn phương thức sống trong lĩnh vực kinh nghiệm làm việc, gia đình và di chuyển, anh chị cảm thấy thoải mái và tự do như thế nào khi phải quyết định những điều này? Nếu anh chị cảm thấy bị hạn chế trong việc quyết định, anh chị nghĩ có những hạn chế nào? Nếu anh chị cảm thấy thoải mái, anh chị nghĩ những điều gì khiến anh chị cảm thấy như vậy? Hãy kể những ví dụ cụ thể dựa trên kinh nghiệm của anh chị liên quan đến cả hai trường hợp trên.

7. Anh chị nghĩ suy nghĩ hoặc ý kiến của anh chị có thể gây ảnh hưởng đến người khác, xã hội địa phương hoặc quốc gia đến cỡ nào? Anh chị nghĩ anh chị có đủ điều kiện tư cách công khai chia sẻ ý kiến của anh chị

với công chúng không?

8. Anh chị có nghĩ hàng xóm, xã hội địa phương và quốc gia có liên kết với nhau không? Sự liên kết này có tầm quan trọng cỡ nào trong cuộc sống của anh chị? Điều gì khiến anh chị cảm nhận được sự liên kết giữa anh chị, hàng xóm, xã hội địa phương và quốc gia? Mạng xã hội, hoạt động xã hội địa phương, hoặc cuộc gặp gỡ bạn bè, gia đình, hay khác?

9. Anh chị cảm thấy an toàn, hay được bảo vệ, được hỗ trợ đến cỡ nào? Anh chị nghĩ nhà nước chính phủ gây ảnh hưởng cỡ nào đến sự cảm nhận an toàn, hoặc anh chị nghĩ nỗ lực cá nhân quan trọng hơn? Nếu có điểm khác biệt giữa hai điều này, anh chị nghĩ nó là gì?

10. Anh chị có từng suy nghĩ đến việc di cư đến nước khác vì không hài lòng với hệ thống xã hội không? Nếu có, anh chị đã nghĩ đến những nước nào và lí do đó là gì? Nếu chưa từng nghĩ đến, anh chị hài lòng với những điểm nào của xã hội nước anh chị?

11. Anh chị nghĩ hạnh phúc của thế hệ anh chị và hạnh phúc của thế hệ khác có thể được so sánh như thế nào? Anh chị nghĩ giữa hai thế hệ có những điểm khác biệt nào?

12. Anh chị quan tâm đến ý kiến, đánh giá của người khác cỡ nào? Họ có gây ảnh hưởng đến hạnh phúc của anh chị không? Nếu có, tại sao? Nó gây ảnh hưởng đến cỡ nào? Nếu không, lí do là gì?

13. Anh chị có thể tưởng tượng hay dự đoán cuộc sống và xã hội của anh chị 10 năm sau không? Nó như thế nào? Anh chị nghĩ anh chị có thể dự đoán được đến cỡ nào? Anh chị nghĩ anh chị hạnh phúc vì có thể dự đoán được tương lai? Hay anh chị hạnh phúc dù không dự đoán được, nhưng vì anh chị nghĩ nắm lấy cơ hội, cố gắng thì sẽ đạt được nhiều điều hơn?

부록 4-2. 질적 연구 동의서

IRB No. 2105/003-025

유효기간: 2022년 05월 23일

연구참여사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행복과 삶의 질 국제비교 질적 종합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전영섭(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이 연구는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로 예정하고 있는 한국,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혹은 노인에 해당되기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 전영섭(02-880-6382)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1) 삶의 어떠한 측면이 행복에 중요한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2) 경제적으로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2개국(한국, 베트남) 출신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약 30명(20-30대 15명, 60대 이상 15명)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대1 인터뷰를 회당 2시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대화할 것이지만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 경우, 당신의 언어를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인터뷰 자리에 추가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1인당 1회의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면접이 필요할 경우 사전 동의와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에 따라 귀하의 삶의 어떠한 것이 귀하를 행복 혹은 불행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게 됩니다. 귀하의 직업, 인간관계, 삶의 중요



IRB No. 2105/003-025

유효기간: 2022년 05월 23일

한 선대, 성취,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의 참여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답변 중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지만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은 귀하가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인 1회 인터뷰를 진행할 시 인터뷰 당 약 2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동의를 얻어 연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중도 탈락 시 수집된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심층면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체적, 물질적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결과는 철저히 익명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심리적 위험요소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만일 참여 도중 연구원의 질문이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 즉시 담당 연구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삶의 행복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전영섭 교수(+82-(0)2-880-6382)입니다. 본 연구



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참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번호(여권번호), 직업, 거주지역, 계좌번호 등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본 연구의 공동 연구진(전영섭,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유승우, 윤선민, 이수진, 정우연, 채상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연구책임자(전영섭)의 암호화된 컴퓨터에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히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 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예. 본 연구에 참가하는 대가로 연구참여자에게 70,000KRW(약 1,400,000VND) 상당의 사례(지급 당일 환율 적용)가 지급됩니다. 연구참여자가 중도에 중저 의사를 밝힌 경우 연구 참여 시간에 비례해 사례가 지급될 것입니다.

*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 중단이 필요한 경우(중도 탈락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도 연구 참여 시간에 비례해 사례가 지급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연구담당자: 유승우 이메일 주소: seungwooyu@snu.ac.kr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써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주소: irb@snu.ac.kr



IRB No. 2105/003-025

유효기간: 2022년 05월 23일

Giấy hướng dẫn và phiếu đồng ý dành cho người tham gia nghiên cứu

Tên dự án nghiên cứu: Nghiên cứu định tính tổng hợp so sánh chất lượng cuộc sống và hạnh phúc của các quốc gia

Nghiên cứu viên chính: Chun Young Sub (Giáo sư khoa Kinh tế học,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trường Đại học Seoul)

Dự án này nghiên cứu về chất lượng cuộc sống và hạnh phúc của con người. Vì đối tượng nghiên cứu của dự án này là thanh niên, người cao tuổi hiện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và Việt Nam, quý vị đã được mời tham gia nghiên cứu. Nghiên cứu viên, Chun Young Sub thuộc trường Đại học Seoul (+82-(0)2-880-6382) sẽ giải thích rõ về dự án nghiên cứu này cho quý vị. Nghiên cứu này sẽ được thực hiện đối với những ai đồng ý tham gia và việc quý vị hiểu những điều liên quan đến nội dung nghiên cứu rất quan trọng. Quý vị hãy đọc kỹ nội dung sau và cho chúng tôi biết ý kiến của quý vị. Nếu cần thiết, xin quý vị thảo luận với gia đình hay bạn bè. Nếu có gì thắc mắc, nghiên cứu viên sẽ giải thích rõ cho quý vị.

1. Tại sao thực hiện nghiên cứu này?

Mục đích của nghiên cứu này là thứ nhất, tìm hiểu những phương diện trong cuộc sống gây ảnh hưởng đến hạnh phúc, thứ hai, từ đó, kiểm duyệt tình trạng người Hàn Quốc cảm thấy bất hạnh cho dù nền kinh tế phát triển.

2. Có bao nhiêu người tham gia?

Khoảng 30 người từ 2 quốc gia (Hàn Quốc, Việt Nam) sẽ tham gia. (18 tuổi trở lên ; 15 người từ 20 đến 39 tuổi và 15 người trên 60 tuổi)

3. Quá trình tham gia gồm những quy trình nào?

Chúng tôi sẽ tiến hành cuộc phỏng vấn riêng tư kéo dài khoảng 2 giờ lần đầu với những người tham gia. Cuộc phỏng vấn sẽ được thực hiện bằng tiếng Hàn, tiếng Việt hoặc tiếng Anh, nhưng nếu quý vị không thấy thoải mái, chúng tôi sẽ mời thêm một người thông dịch ngôn ngữ mà quý vị thấy thoải mái. Chúng tôi dự định tiến hành phỏng vấn 1 lần đối với mỗi người tham gia, nhưng nếu cần thiết, chúng tôi sẽ tiến hành thêm cuộc phỏng vấn theo quy trình sau khi có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quý vị.



Nếu quý vị đồng ý tham gia, quy trình tham gia sẽ như sau.

Dựa vào những câu hỏi mà nghiên cứu viên đã chuẩn bị trước, quý vị sẽ cho biết những yếu tố trong cuộc sống khiến quý vị hạnh phúc và bất hạnh. Chúng tôi sẽ hỏi về nghề nghiệp, mối quan hệ giữa quý vị và những người xung quanh, những quyết định quan trọng trong cuộc sống, những điều quý vị đã đạt được, sự tham gia vào hoạt động cộng đồng xã hội, v.v... Ngoài những câu hỏi trên, trong quá trình phỏng vấn, chúng tôi cũng có thể hỏi những thông tin có thể đóng góp vào dự án. Cuộc phỏng vấn sẽ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địa điểm, vào thời gian quý vị mong muốn.

4. Thời gian tham gia nghiên cứu như thế nào?

Nếu tiến hành phỏng vấn 1 lần/ người, cuộc phỏng vấn sẽ kéo dài khoảng 2 tiếng đồng hồ.

5. Tôi có thể ngừng tham gia giữa chừng không?

Vâng, quý vị có thể ngừng tham gia giữa chừng bất cứ lúc nào và sẽ không bị thiệt hại gì. Nếu quý vị muốn ngừng tham gia, hãy báo ngay cho nghiên cứu viên hoặc nghiên cứu viên chính. Trong trường hợp ngừng tham gia, những thông tin được thu thập đến thời điểm ngừng sẽ được sử dụng trong quá trình nghiên cứu nếu quý vị đồng ý. Nếu quý vị không muốn, chúng tôi sẽ xoá bỏ hết những thông tin được thu thập.

6. Có tác dụng phục hay yếu tố nguy hiểm không?

Vì nghiên cứ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dựa trên cuộc phỏng vấn sâu, chúng tôi dự đoán sẽ không có tác dụng phụ nào về mặt vật lý hay vào cơ thể và thông tin cá nhân của quý vị sẽ được giữ bí mật nên dự án này không có tính nguy hiểm về mặt tâm lý. Nhưng nếu nghiên cứu viên hỏi những thông tin mà khiến quý vị không hài lòng, mong quý vị cho nghiên cứu viên biết ngay.

7. Tham gia vào nghiên cứu có những lợi ích gì?

Tham gia vào nghiên cứu, quý vị sẽ không nhận được lợi ích nào trực tiếp. Nhưng những thông tin quý vị cho chúng tôi biết sẽ góp phần trong việc nghiên cứu sâu về những phương diện hình thành nên hạnh phúc trong cuộc sống.

8. Nếu không tham gia vào nghiên cứu này, sẽ có những thiệt hại gì?

Quý vị có quyền từ chối tham gia vào nghiên cứu này và quý vị cũng sẽ không



IRB No. 2105/003-025

유효기간: 2022년 05월 23일

bị thiệt hại gì khi không tham gia.

9. Thông tin cá nhân được thu thập trong quá trình nghiên cứu có được giữ bí mật không?

Người chịu trách nhiệm quản lý thông tin cá nhân là giáo sư Chun Young Sub, thuộc trường đại học Seoul (+82-(0)2-880-6382). Những loại thông tin cá nhân sẽ được thu thập trong quá trình nghiên cứu là tên, giới tính, tuổi, số chứng minh nhân dân, nghề nghiệp, nơi sinh sống, thông tin tài khoản ngân hàng.v.v...của quý vị. Những người có quyền tiếp cận những thông tin trên là nhóm nghiên cứu của dự án này (bao gồm Chun Young Sub, Kim Seok Ho, Shin Hye Ran, Lee Bong Joo, Chae Su Hong, Hong Seok Chul, Gu Seo Jung, Yoo Seung Woo, Yoon Sun Min, Lee Soo Jin, Jeong Woo Yeon, Chae Sang Won) và dữ liệu sẽ được bảo quản trong máy vi tính được bảo mật của nghiên cứu viên chính (Chun Young Sub). Phiếu đồng ý sẽ được xóa bỏ sau 3 năm theo pháp luật liên quan và nếu có thể, tài liệu nghiên cứu sẽ được bảo quản vĩnh viễn dựa trên quy định đạo đức nghiên cứu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Seoul. Chúng tôi sẽ nỗ lực hết sức để đảm bảo bảo mật mọi thông tin cá nhân được thu thập trong quá trình nghiên cứu. Trong trường hợp thông tin cá nhân được thu thập trong quá trình nghiên cứu được sử dụng trong bài đăng trên tạp san học thuật hoặc trong hội học giả, chúng tôi sẽ không sử dụng họ, tên và các thông tin cá nhân khác. Nhưng khi luật yêu cầu, thông tin cá nhân của quý vị có thể được cung cấp cho cơ quan liên quan. Hơn nữa, nhân viên giám sát, nhân viên kiểm soát, hội đồng đạo đức về sinh mạng trong nghiên cứu có thể trực tiếp kiểm tra kết quả nghiên cứu, vì lý do đánh giá cách thức tiến hành nghiên cứu và kiểm soát độ tin cậy về tài liệu, trong phạm vi không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đảm bảo giữ bí mật của người tham gia vào nghiên cứu và luật pháp liên quan.

Việc quý vị kí tên vào phiếu đồng ý này được xem như quý vị đã hiểu rõ về những điều này và đồng ý cho phép những điều này trước cuộc phỏng vấn.

10. Tham gia vào nghiên cứu có được trả tiền không?

Có. Tham gia vào nghiên cứu này quý vị sẽ được báo đáp bằng khoản tiền tương ứng với 70,000 won Hàn Quốc (khoảng 1.4 triệu đồng Việt Nam).

Trong trường hợp ngừng nghiên cứu theo ý kiến của nghiên cứu viên (ngừng giữa chừng hoặc vì sự cố bất đắc dĩ xảy ra.v.v...), quý vị cũng sẽ được nhận khoản tiền tương ứng với thời gian tham gia.



IRB No. 2105/003-025

유효기간: 2022년 05월 23일

11. Liên hệ về nghiên cứu như thế nào?

Nếu quý vị có gì thắc mắc về nghiên cứu này hoặc có vấn đề trong quá trình nghiên cứu, xin liên lạc nghiên cứu viên sau.

Họ và tên: Yu Seungwoo Địa chỉ e-mail: seungwooyu@snu.ac.kr

Nếu quý vị có câu hỏi về quyền lợi của người tham gia nghiên cứu, xin vui lòng liên lạc Hội đồng đạo đức về sinh mạng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Seoul dưới đây.

Hội đồng đạo đức về sinh mạng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Seoul (SNUIRB)

Số điện thoại: +82-(0)2-880-5153

Địa chỉ e-mail: irb@snu.ac.kr



IRB No. 2105/003-025

유효기간: 2022년 05월 23일

Phiếu đồng ý (dành cho người tham gia)

1. Tôi đã đọc giấy hướng dẫn và đã trao đổi ý kiến với nghiên cứu viên chịu trách nhiệm.
2. Tôi đã nghe hướng dẫn về thiệt hại, lợi ích và tôi đã nhận được câu trả lời hài lòng cho những gì tôi đã hỏi.
3. Tôi tự nguyện đồng ý tham gia nghiên cứu này.
4. Tôi đồng ý về việc nghiên cứu viên thu thập, xử lý thông tin về tôi dựa trên phát luật hiện hành và quy định của Hội đồng đạo đức về sinh mạng.
5. Tôi đồng ý cho nghiên cứu viên, người được ủy nhiệm thực hiện nghiên cứu hoặc quản lý kết quả nghiên cứu và cơ quan y tế, đại học, Hội đồng đạo đức về sinh mạng tiến hành khảo sát thực trạng trực tiếp xem những thông tin cá nhân của tôi được giữ bảo mật.
6. Tôi biết tôi có thể ngưng tham gia giữa chừng bất cứ lúc nào và không bị thiệt hại gì vì dừng giữa chừng.
7. Tôi đồng ý về việc nghiên cứu viên chính và các nghiên cứu viên khác sử dụng những thông tin được thu thập cho dự án nghiên cứu khác.
 Đồng ý Không đồng ý
8. Chữ ký của tôi được xem như tôi đã nhận được phiếu đồng ý này và tôi sẽ bảo quản phiếu đồng ý bao gồm cả chữ ký của tôi và nghiên cứu viên.
9. Tôi đồng ý về việc ghi hình (hoặc ghi âm) trong quá trình nghiên cứu.
 Đồng ý Không đồng ý

 Họ và tên người tham gia vào nghiên cứu

 Ký tên

 Ngày

 Họ và tên nghiên cứu viên nhận được phiếu

 Ký tên

 Ngày


Phiếu đồng ý (dành cho nghiên cứu viên)

1. Tôi đã đọc giấy hướng dẫn và đã trao đổi ý kiến với nghiên cứu viên chịu trách nhiệm.
2. Tôi đã nghe hướng dẫn về thiệt hại, lợi ích và tôi đã nhận được câu trả lời hài lòng cho những gì tôi đã hỏi.
3. Tôi tự nguyện đồng ý tham gia nghiên cứu này.
4. Tôi đồng ý về việc nghiên cứu viên thu thập, xử lý thông tin về tôi dựa trên phát luật hiện hành và quy định của Hội đồng đạo đức về sinh mạng.
5. Tôi đồng ý cho nghiên cứu viên, người được ủy nhiệm thực hiện nghiên cứu hoặc quản lý kết quả nghiên cứu và cơ quan y tế, đại học, Hội đồng đạo đức về sinh mạng tiến hành khảo sát thực trạng trực tiếp xem những thông tin cá nhân của tôi đã được giữ bảo mật.
6. Tôi biết tôi có thể ngừng tham gia giữa chừng bất cứ lúc nào và không bị thiệt hại gì vì dừng giữa chừng.
7. Tôi đồng ý về việc nghiên cứu viên chính và các nghiên cứu viên khác sử dụng những thông tin được thu thập cho dự án nghiên cứu khác.
 Đồng ý Không đồng ý
8. Chữ ký của tôi được xem như tôi đã nhận được phiếu đồng ý này và tôi sẽ bảo quản phiếu đồng ý bao gồm cả chữ ký của tôi và nghiên cứu viên.
9. Tôi đồng ý về việc ghi hình (hoặc ghi âm) trong quá trình nghiên cứu.
 Đồng ý Không đồng ý

Họ và tên người tham gia vào nghiên cứu

Ký tên

Ngày

Họ và tên nghiên cứu viên nhận được phiếu

Ký tên

Ngày

Họ và tên nghiên cứu viên chính

Ký tên

Ngày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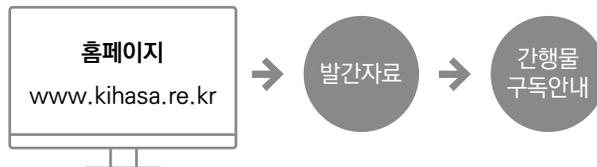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